16세기 국어의 말재어찌씨의 통어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서 상 규

16세기 국어의 말재어찌씨의 통어론적 연구

지도 김 석 득 교수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91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서 상 규

서상규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석득

심사위원 [illegible]

심사위원 김 하 수

심사위원 문 효 근

심사위원 허 웅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年 12月 26日

감사의 글

배움의 길에 들어선 뒤, 한때 목표를 잡지 못해 많은 생각에 빠진 일이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보아 주셨고, 우리말본, 우리옛말본, 언어학개론이 나를 붙들어 주었다. 외솔과 눈뫼 두 분의 책은 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이 글을 다 써 가면서 일 하나를 이룬 뿌듯함과 기쁨을 선생님들께 돌려 드리고 싶다.

미숙하고 배움이 모자란 데다 졸기만 잘 하는 제자를 밉다 않고 늘 온화하게 학문의 깊이를 일러 주신 김석득 선생님, 찾아뵙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학문의 폭넓음과 재미를 알게 해 주신 문효근 선생님, 그리고 남기심 선생님께서는 언어학 이론의 무궁무진함만이 아니라, 간결하게 글을 쓰는 법에서부터 제자들과 함께 배우러 다른 강의실을 찾는 겸허함까지도 몸소 행하여 보여 주셨다.

이 글을 시작하고서부터는,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간노 히로오미 선생님을 비롯한 동경외국어대학의 여러 선생님들, 꼼꼼한 자료 처리방법을 보여 주신 치바대학의 시브 쇼오헤이 선생님, 막바지에 힘이 벅찼을 때 격려의 말씀으로 밀어 주신 성백인 선생님, 뭔가 여쭐 때마다 마다 않고 응해 주신 임홍빈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곁에 계셨던 것은 내겐 과분한 행운이었다.

배움의 길을 이만큼 걸어오도록 밀어주신 많은 분들을 또한 잊을 수 없다. 아이 교육을 위해 오랜동안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아버지와 어머니, 아우와 누이의 희생도 컸는데, 이 글로써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객지 일본에서의 고생스러운 유학생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고 늘 힘과 의지가 되어준 아내 홍강욱에게는 한마디 고마운 말 건네주지 못한 것이 늘 미안하다. 같이 놀아 주지 못하다가 간혹 아빠가 오랜만에 잠깐 놀아주려 하면 「아빠！가서 컴퓨터 해. 공부해.」 하며 나를 공부방으로 돌려 보내주던 세살박이 부경이 내겐 가장 큰 힘이었다.

아이를 기르면서 새삼 그 큰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늘 내 곁에 계셔 주신 하느님 앞에서, 이 모든 분들의 사랑과 도움에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천구백구십이년 이월

서 상 규

국 문 초 록

이 글은, 16세기 국어의 문헌자료에서 추출된, 말재어찌씨의 목록을 작성함과 동시에 당시대에 있어서의 말재어찌씨의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말재어찌씨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구문론적인 특성을 공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졌다.

《제Ⅰ장~제Ⅱ장》

제Ⅰ장과 제Ⅱ장에 걸쳐, 「말재어찌씨」의 범주와 「말재」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개관, 말재어찌씨를 하나의 문법범주로 세워야 할 필요성에 언급하는 한편, 「말재」를 「말할이가 어떤 사실에 대해 전달하고자 할 때, 월에 드러나게 되는 말할이의 심리적인 태도에 관한 부분」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월의 말재의 하위분류와 그 표현수단으로서, 의향법의 씨끝, 이음법의 씨끝, 그리고 일부의 도움토씨 {-으란, -만, -도, -사} , 셈숱말과 같은 특정한 월성분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또한, 말재어찌씨와 말재의 형식 사이에 존재하는 「호응관계 상의 특성」, 즉 ① 씨끝 등과의 호응도 (결합력) 의 강약, ② 호응의 대상 (의향법의 씨끝, 이음법의 씨끝, 도움토씨, 월의 특정성분이나 셈숱말, 월 전체 등) , ③ 말재의 의미, ④ 어찌씨가 호응하는 씨끝의 종류 ⑤ 한정의 대상 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말재와 말재어찌씨의 하위범주 설정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 위의 (①~⑤) 의 기준에 의해, 16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말재로서는, 크게 「당위·시킴의 말재」, 「현실인식의 말재」, 「조건·양보의 말재」, 「한정의 말재」의 네 가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말재의 표현 양식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당위·시킴의 말재」와 「현실인식의 말재」는 월의 풀이말에 나타나는 의향법의 씨끝에 의해 표현되는 반면에, 「조건·양보의 말재」는 월의 이음법의 씨끝에 의해 표현된다. 한편, 「한정의 말재」의 경우에는, 의향법이나 이음법의 씨끝에 의하지 않고, 반드시 말재어찌씨가 월에 나타남으로써 표현될 수 있다.

말재어찌씨는 이러한 월의 말재와 호응함으로써, 씨끝 등에 의한 월의 통어론적인 구성을 제약하거나, 특정한 월 구조가 따라 나타날 것을 요구한다. 이 점은, 말재어찌씨가 다른 어찌씨들과 가장 현저하게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위·시킴의 말재」와 「현실인식의 말재」의 월의 경우에는, 그 월에 말재어찌씨가 출현함으로써, 반드시 이에 호응하는 의향법의 씨끝이 나타나게 된다. 「조건·양보의 말재」의 월의 경우에는, 말재어찌씨가 출현함으로써, 그 앞이나 뒤에 특정한 형식의 이음법의 씨끝이 이에 호응하여 나타날 것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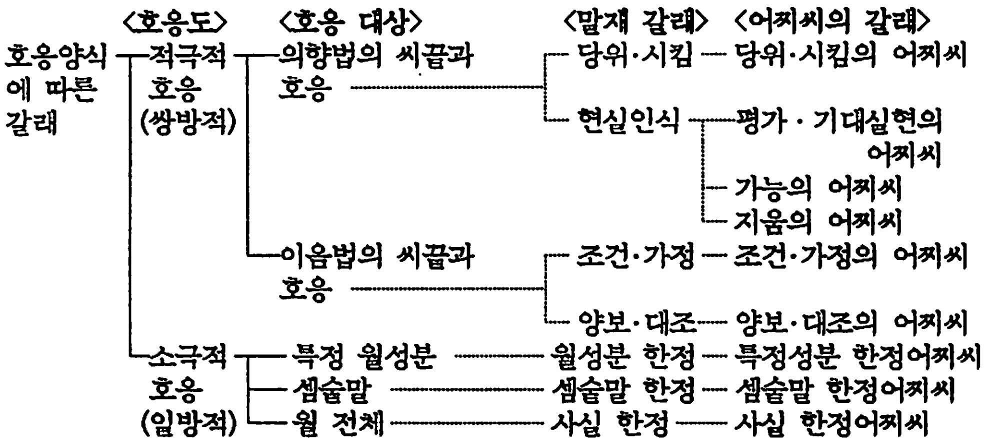
이 점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말재는, 나머지의 「한정의 말재」와 구별된다. 즉, 앞의 세 말재 (「당위·시킴」, 「현실인식」, 「조건·양보」) 의 경우에는, 말재어찌씨 없이도 의향법이나 이음법의 씨끝에 의해서 이미 월의 말재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월의 말재와 호응하는 어찌씨에는 제약이 생기며, 한편으로,

어찌씨의 입장에서 본다면, 월에 특정의 말재어찌씨가 출현함으로써 반드시 그 월의 의향법 혹은 이음법의 씨끝의 종류가 제한됨이 밝혀졌다.

그러나, 「한정의 말재」의 경우에는, 말재어찌씨가 월에 나타나야만 표현될 수 있으며, 의향법이나 이음법의 씨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말재의 형식과 구별된다.

말재어찌씨와 이들 문법요소들과의 호응양식 및 호응대상, 서법적 의미, 어찌씨의 의미 등의 특성에 따라, 16세기 국어의 말재어찌씨의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제Ⅲ장~제Ⅵ장》

이 글의 제Ⅲ장에서 Ⅵ장까지는, 이와 같은 말재의 표현형식 ——월의 의향법의 씨끝, 이음법의 씨끝, 그리고 일부의 도움토씨 {-으란, -만, -도, -ᅀᅡ} 등, 셈숱말과 같은 특정한 월성분——과 말재어찌씨와의 호응 현상에 주목, 이를 분석함으로써 일반적인 호응체계를 세움으로써, 각 범주별의 말재어찌씨의 의미와 그 문법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월에서 수행하게 되는 어찌씨의 문법적 기능을 면밀히 분석, 기술하였다.

16세기 국어의 말재어찌씨의 하위분류에 따른, 호응관계 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당위 · 시킴의 말재어찌씨 (제Ⅲ장)

모로매, 반ᄃᆞ시, ᄆᆞᆯ읫, 맛당이, 의식, 모ᄃᆡ, 구틔여, 감히, 굿, 굿드리, 당당이, 필연, 아ᄆᆞ려나, 어셔 등

이 어찌씨들은, 월의 으뜸마디의 풀이말의 의향법씨끝과 호응한다. 특히 서술법 ·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 월의 당위 · 단정 · 의지 등의 뜻을 드러내거나, 시킴법의 씨끝과 호응, 시킴이나 금지의 뜻을 드러내는 쓰임을 그 중심적인 기능으로 삼는다. 반면, 약속법이나 강조 · 영탄법의 씨끝과는 호응관계를 맺지 않는다.

(2). 현실인식의 말재어찌씨 (제Ⅳ장)

(a). 평가 · 기대실현의 말재어찌씨

진실로, 실로, 졍히, 쇽졀업시, 과연, 과연히, 마치, ᄒᆞ마시 등

(b). 가능의 말재어찌씨

능히, 가히, 죡히, 시러(시러곰), 어루, 춤히 등

(c). 지움의 말재어찌씨

엇디, 어듸, 어늬, 어느제, 언제, 므스므라, 므슴, 어딋뚠, ᄂᆞ외야, ᄎᆞ마, 싱심이나, 결연히 등

이들 어찌씨들은, 월의 의향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말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당위 · 시킴의 말재어찌씨」와 성격을 같이 한다.

(a)의 「사실평가 · 기대실현의 말재어찌씨」는, 서술법 · 물음법 · 강조영탄법의 씨끝과 주로 호응하여, 사실과 현실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그 중심된 기능으로 삼는다.

(b)의 「가능의 말재어찌씨」는, 서술법 ·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 월의 사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단정적인 뜻을 드러낸다.

(c)의 「지움의 말재어찌씨」는,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 반드시 반문의 물음월을 형성한다. 따라서, 월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사실에 대한 단정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a～c)의 어찌씨들은, 꾀임법 · 약속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일은 보이지 않으며, 시킴법과도 거의 대부분의 어찌씨는 호응하지 않는다.

(3). 조건 · 양보의 말재어찌씨 (제V장)

한편, 「조건 · 양보의 말재어찌씨」의 경우에는, 위 (1～2)의 어찌씨들과는 달리, 의향법의 씨끝과는 직접적인 호응관계를 맺지 않는 대신, 이들은 월의 이음씨끝과 호응한다. 따라서, 이들 어찌씨가 나타나는 월은, 원칙적으로, 이음겹월의 구조를 이룬다.

한편, 「조건 · 양보의 말재어찌씨」가 이음겹월의 어느 자리에 나타나는가, 즉 겹월에서의 위치와 어찌씨의 의미에 따라, 「조건 · 가정의 말재어찌씨」와 「양보 · 대조의 말재어찌씨」로 나뉜다.

(a). 조건 · 가정의 말재어찌씨

ᄒᆞ다가, 만일, 만일에, 혹(도), 시혹, 힝혀, 가령, 가ᄉᆞ 등

(b). 양보 · 대조의 말재어찌씨

비록, ᄒᆞ믈며, 오히려, 도ᄅᆞ혀, 츨하리, 다하, 다함, 당시론 등

이들 어찌씨들은, 어찌씨의 의미에 따라, 호응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음씨끝의 종류에 제약을 받는다.

(a)의 「조건 · 가정의 말재어찌씨」는, 특히 {-거든, -으면} 등의 제약법의 씨끝과, (b)의 「양보 · 대조의 말재어찌씨」는 주로 {-을디라도, -으나} 등의 불구법의 씨끝과 호응관계를 맺는다.

(4). 한정적 말재어찌씨 (제VI장)

한편, 「한정적 말재어찌씨」는, (1～3)의 어찌씨들과는 달리, 의향법씨끝 혹은 이음씨끝과의 호응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찌씨가 생략될 경우에는, 월의 말재적인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점에서, 어찌씨에 의한 일방적인 호

용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a). 특정성분의 한정적 말재어찌씨
그저, ᄒᆞᆫ갓, 다ᄆᆞᆫ, 오직, 특별이, 독벼리 등
(b). 셈숱말의 한정적 말재어찌씨
대되, 거의, 계오 등
(c). 월(사실)의 한정적 말재어찌씨
곧, 대더ᄒᆞᆫ디, 본ᄃᆡ(로), 본ᄅᆡ 등

(a)는 월의 특정성분 (셈숱말 제외) 을 한정하여 강조하는 기능을, (b)는 월의 셈숱말의 성분을 특정화하여 한정하는 기능을, (c)는 월 전체의 사실에 대한 한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붙임》
각론에서 살핀 각 어찌씨들이, 16세기의 문헌자료에서 보이는 형태와 방점, 그리고 출전을 명시한 <16세기 말재어찌씨 색인>을 붙였다.

16세기 국어의 말재어찌씨의 통어론적 연구

■ 차 례 ■

I. 머리말 1
I-1.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I-1-1. 연구의 의의 1
I-1-2. 시대 가름의 문제 3
I-1-3. 어찌씨에 관한 앞선 연구와 문제 5
I-1-4. 연구의 방법 7
I-1-4-1. 빈도의 조사 7
I-1-4-2. 호응관계의 조사 7
I-2. 분석자료 및 말재어찌씨의 분포 9
I-2-1. 분석자료의 일람 9
I-2-2. 16세기 국어의 말재어찌씨의 분포 (빈도) 10
I-2-3. 자료의 성격과 말재어찌씨의 분포 19

II. 말재어찌씨의 범주 27
II-1. 말재의 정의 27
II-2. 말재의 하위범주와 말재어찌씨의 갈래 28
II-2-1. 호응과 공존 31
II-2-2. 말재의 호응양식 32
II-2-3. 말재와 말재어찌씨의 갈래 35
II-2-3-1. 당위·시킴의 말재 35
II-2-3-2. 현실인식의 말재 36
II-2-3-3. 조건·양보의 말재 40
II-2-3-4. 한정의 말재 41

III. 당위·시킴의 말재어찌씨 45
(가). 모로매 / 모로미 / 모롬애 / 모롬이 47
(나). 반ᄃᆞ시 / 반ᄃᆞ기 / 반드시 / 번드기 / 번득 53
(다). ᄆᆞᆯ읫 / ᄆᆞᆯ의 / 몰의 60
(라). 맛당이 / 맛당히 64
(마). 의식 67
(바). 모ᄃᆡ 69
(사). 구틔여 / 구틔야 / 구틔여 71
(아). 감히 73
(자). 긋 / 긋드리 76

(차). 당당이 // 응당히 // 필연 ························ 77
(카). 아므라나마나 / 아므려나 / 아마려나 ················ 78
(타). 어셔 ·· 81

IV. 현실인식의 맘재어찌씨 ······························ 87

IV-1. 평가·기대 (예상) 실현의 맘재어찌씨 ················ 84
(가). 진실로 / 진실히 ································· 85
(나). 실로 ·· 93
(다). 정히 ·· 93
(라). 속졀업시 ·· 96
(마). 과연 / 과연히 / 과연 / 과연히 ···················· 99
(바). 마치 / 맛치 // ᄒᆞ마시 ························103

IV-2. 가능의 맘재어찌씨 ·······························104
(가). 능히 / 룽히 ·····································105
(나). 가히 / 가이 ·····································108
(다). 족히 ··112
(라). 시러 / 시러곰 ···································113
(마). 어루 // 좀히 ····································115

IV-3. 지움의 맘재어찌씨 ·······························116
(가). 엇뎨 / 엇디 / 엇뎌 / 엇ᄯᅥ / 어ᄯᅥ / 엣뎨 ·············117
(나). 어ᄃᆡ / 어듸 ····································120
(다). 어ᄂᆞ / 어ᄂᆡ / 어느 / 어늬 // 어늬제 / 언제 ··········122
(라). 므ᄉᆞ므라 / 므스므라 / 므스므러 / 므스므려 / 므슴호려 /
므슴홀여 // 므숨 / 므슴 ·······························123
(마). 어듸ᄯᆞᆫ / 어듸ᄯᅳᆫ ·································124
(바). ᄂᆞ외야 / 노의란 / 노의여 / 뇌여 ··················125
(사). ᄎᆞ마 / 좀아 ·····································126
(아). 싱심도 / 싱심이나 ································129
(자). 결연히 ···129

V. 조건·양보의 맘재어찌씨 ·······························133

V-1. 조건·가정의 맘재어찌씨 ···························133
(가). ᄒᆞ다가 ··135
(나). 만이레 / 만일 / 만일에 / 만싈에 / 만이러 ············141

(다). 혹 / 혹도 / 시혹 ··146
(라). 힝혀 / 힝여 ··151
(마). 가령 // 가ᄉᆞ ··154

V-2. 양보·대조의 말재어찌씨 ··154
(가). 비록 / 비로 ··157
(나). ᄒᆞᄆᆞᆯ며 / ᄒᆞ믈며 ··164
(다). 오히려 ··167
(라). 도ᄅᆞ혀 / 도ᄅᆡ혀 / 도로혀 ··171
(마). 촐하리 / 촐히 ··175
(바). 다하 / 다함 ··177
(사). 당시론 / 당시예 ··179

VI. <u>한정적 말재어찌씨</u> ··183
VI-1. 특정성분의 한정적 말재어찌씨 ··186
(가). 그저 / 그져 ··186
(나). ᄒᆞᆫ갓 ··189
(다). 다ᄆᆞᆫ / 다만 / 다믄 / 담ᄋᆞᆫ ··193
(라). 오직 ··197
(마). 특별이 / 특별히 ··203
(바). 독벼리 / 독버리 ··203

VI-2. 셈숱말의 한정적 말재어찌씨 ··204
(가). 대되 / 대도히 ··204
(나). 거싀 / 거ᄉᆞ / 거ᄉᆡ / 거ᄋᆡ / 거의 ··207
(다). 계오 / 계요 / 계우 / 겨오 ··209

VI-3. 월의 한정적 말재어찌씨 ··211
(가). 곧 ··211
(나). 대가ᄒᆞᆫ디 / 대개ᄒᆞᆫ디 / 대뎌ᄒᆞᆫ디 / 대뎌흔디 / 대뎨ᄒᆞᆫ디···216
(다). 본ᄃᆡ / 본ᄃᆡ로 / 본ᄅᆡ ··217

VII. <u>맺음말</u> ··221

<붙임> <u>16세기 말재어찌씨 색인</u> ··< 1-19>
참고문헌 ··<20-24>
ABSTRACT ··<25-28>

Ⅰ. 머리말

Ⅰ-1.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 글은, 16세기 국어의 통어론에 대한 공시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말재어찌씨를 대상으로, 이들 어찌씨의 통어론적인 특성을 분석·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이 시대의 어찌씨 중 특히 말재어찌씨가 「월의 말재」와의 호응관계를 통해 월의 말재에 제약을 가한다는 점에서, 통어론적으로 매우 비중 있는 자리를 차지함을 밝힌다. 동시에, 월의 말재의 주된 표현 수단을 이루는 씨끝과의 호응 양상을 기술하며, 이 때 월의 의미형성에 참여하는 어찌씨의 기능상의 제 특징에 따라, 이 시기의 말재어찌씨의 체계를 세워 이를 공시적으로 기술하게 된다.

Ⅰ-1-1. 연구의 의의

이러한 작업의 의의는, 크게 통어론적인 면과 어휘사적인 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통어론적인 면에서의 의의로서는, 이와 같은 연구가, 중세 국어의 통어론 부문의 문법기술의 일부분을 이루게 될 것임을 들 수 있다.

그간 중세 국어에 관한 통어론적인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개개의 문법범주별로 상당한 진척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 특히, 어찌씨의 문법적인 기술의 분야에 있어서도, 최근에 들어 상당수의 논문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게 될 「말재어찌씨」는, 단순히 월의 수의적인 성분으로서의 어찌말로서의 기능에 머물지 않고, 월이 나타내는 바 서법적인 의미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면에서, 말재어찌씨는, 음운론 및 형태론적인 구성의 측면에서의 연구 대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통어론적인 연구의 한 대상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예를 들어, 정도어찌씨나 양태어찌씨(2) 등의 어찌씨가, 이에 뒤따르는 풀이말과 맺는 의미론적 관계와, 말재어찌씨의 문법적인 기능은 크게

(1). 중세국어 뿐만 아니라,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의 국어학의 연구사의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는, 김석득(1983)의 「우리말연구사」가 참조할 만하다. 여기서는, 15세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각 시대별로, 특히 언어관의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한 매우 치밀한 분석과 해설이 실려 있다. 그리고 극히 최근까지의 연구 주제와 동향에 관해서는, 서울대 대학원 국어연구회(1990)의 「國語硏究 어디까지 왔나」를 참고할 수 있다.
(2). 여기서 「양태어찌씨(manner adverb)」등의 갈말의 정의, 그리고 정도 및 양태어찌씨와 풀이말의 관계에 대해서는, 졸고(1991a, 1991b)를 참조 바람.

다르다.

말재어찌씨는, 월에 잉여적으로 추가되어 단지 부수적인 의미를 덧붙이는 기능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본문의 제Ⅲ장으로부터 제Ⅵ장에 걸쳐 밝혀지겠지만, 말재어찌씨가 월에 나타남으로써 그 월의 의향법에 있어서의 제약을 초래하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월의 특정한 표현 형식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말재어찌씨가 월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의미를 밝히는 일은, 중세 국어의 통어론의 기술에 있어서, 어찌씨의 체계의 기술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월의 짜임과 어찌씨의 관계 및 월 성분 간의 호응 혹은 제약의 여러 모습을 기술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중세국어의 말재어찌씨의 공시적인 기술은, 국어의 역사적인 연구의 일부분이라는 면에서도 그 의의를 지닌다.

특히, 이제까지 파악된 우리 옛말과 현대말에 이르는 어휘사의 연구 부문에 있어서, 이 글의 기술대상으로 삼게 될 「어찌씨」만이 아니라, 모든 어휘에 있어, 그 형태론적인 변천, 통어론적인 기능의 변천, 의미의 변화 등에 관한 기술을 위해서는, 각각의 시대적인 특징을 올바로 기술한 공시적인 문법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필자가 국어의 어찌씨의 통어론적인 기술을 시도한 일련의 연구와 매우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다.

필자는 이제까지, 시간어찌씨 「지금」과 「이제」의 비교를 통해 시간어찌씨의 의미론적인 특성을 기술한 바 있으며(졸고 1989), 정도어찌씨의 전반적인 체계를 세워, 이 무리에 속하는 각각의 어찌씨의 통어론적인 특성을 밝힌 바 있다(졸고 1991a).

한편, 정도어찌씨와 양태어찌씨의 두 무리에 동시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찌씨 「아주」와, 뒤따르는 풀이말의 공존관계에 관한 논의 (졸고 1991b) 를 통하여, 풀이말의 의미론적인 구조와 어찌씨의 통어론적인 특성 사이에 보이는 관계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필자는, 각각의 어찌씨가 현대국어에서 보이는 문법적인 특징들이 역사적으로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그리고 어느 시기에 변화를 겪었다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그리고 어찌씨의 풀이말과의 공존관계는 현대국어에만 국한된 현상인가 하는, 여러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한 작업으로서,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에 나타난 어찌씨의 대조적인 색인을 작성하였으며 (졸고 1991c), 16세기의 국어에 드러난 정도어찌씨의 문법적인 특성에 대한 기술 (졸고 1991d) 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어의 어휘 및 문법의 변천사의 기술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개별 어찌씨의 자료를 정리 기술함으로써, 이러한 일련의 연구가 계속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현대말에 이르기까지의 각 시기의 문법범주에 관한 치밀한 공시적인 기술이 기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다루게 될 말재어찌씨의 공시적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말의 통시적인 변천 모습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문법을 기술을 하기 위한 밑바침을 이루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I-1-2. 시대 가름의 문제

중세국어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그 시대 가름의 문제는 아직까지 완전한 해결을 보았다고는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중세국어에 관한 각 말본범주에 관한 연구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며, 「중세」의 모든 시기의 공시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세국어에 관한 이제까지의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거의 대개의 경우, 15세기 훈민정음의 창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숭녕(1981;1961초판)이나 허웅(1975)에 대표되는 것과 같이, 15세기의 국어를 중심으로 다루는 경우와, 허웅(1987)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국어 이전 즉 16세기 말까지를,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공통적인 특성을 중시하여, 한 시기로 다루는 경우의 두 가지의 방법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의 국어를 독립된 하나의 시기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 이른 연구로 이기문(1978a:127~130)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16세기 국어의 「문자·표기법, 음운론, 한자음, 형태론, 어휘」 등의 면에서의 대조를 통해, 국어사의 시대구분의 문제를 제기, 12세기에서 16세기에 걸친 시기를 「중세국어」로 부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근거로서는, 첫째로, 조선시대의 언어는 고려어의 계속이며, 고려어는 그 전의 신라의 말 (경주어) 과는 다른 방언이라는 사실, 둘째로, 15세기의 문헌에 보이는 제 특징들이 무너짐으로써, 17세기의 새로운 모습의 근대국어[(1)]를 이루게 되는 16세기가 그 경계를 이룬다는 사실을 꼽고 있다.

16세기가 그 전후의 시대와 구별되는, 국어사적인 가치를 지니는 음운·형태론적인 변화 혹은 통어론적인 변천이 각양으로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음운론적인 면에서 볼 때, 16세기에 있어서는, 초기에 「ㅅ」계열의 닿소리떼의 된소리 되기가 확립되고, 중기에 이르러 /ㅅ/끝소리가 /ㄷ/으로 합류되어 일곱 끝소리 체계가 이루어진다, 말기에 이르러 /ㅸ, ㆅ, ㅿ/이 완전히 없어짐으로써 열아홉 닿소리 조직이 완성되는 등의 음운체계의 변천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음운론적인 변천이 곧 바로 통어론적인 혹은 어휘사적인 시대

---

(1). 이기문(1976:40~42)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의 결론에 도달해 있다.
한편, 근대국어에 관한 연구 및 자료적인 사실에 관해서는, 단국대 동양학연구소(1991)의 「제21회 동양학학술회의강연초:근대국어의 특징과 연구사 검토」가 좋은 길잡이가 된다.
(2). 허웅(1985:504~505, 512) 참조.

가름의 기준으로 유효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통어론 분야에 있어서도, 허웅(1987)의 때매김법, 김석득(1987)의 완료와 정태지속 범주, 리의도(1990)의 「이음씨끝」의 연구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어론 혹은 형태론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법범주에 관한 각 시기별 특징을 조사, 그 체계의 변천 등을 기술하는 역사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김석득(1987)에서는, 우리말의 완료와 정태지속의 범주가 15세기로부터 현대어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는가를 검증, 15세기의 정태지속의 {-어 잇-(-엣-)}이 16세기로 들어와, 완료의 {-었-}을 분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대로 정태지속을 유지하여, 현대어에 이르게 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자연시간의 15세기 혹은 16세기, 17세기 등으로 시대적인 가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말본범주가 그 시기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반드시 그들 각 세기가 구별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점과 관련하여, 허웅(1989:1)에서는, 말본의 역사적 연구의 방법으로서, 편의상 정해진 여러 시기의 말의 공시적 연구의 결과를 세로 통합하는 방법과, 말본의 범주별로 역사적인 연구의 결과를 모두 어울러 정리하는 두 방법을 제시하고 하고 있다.

그리고, 뒷방법보다는 앞방법에 기반을 두면서 시기를 백년씩 잘라 기술하여 세로 통합하는 방법을 취하여, 그 한 단계의 성과로서 『16세기 우리 옛말본』을 내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머리말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16세기의 단순한 공시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16세기의 백년 동안에 말본 체계가 입은 변화의 모습을 기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감안할 때, 국어사의 시대 가름의 문제에 있어서, 16세기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혹은 되어야 할 까닭으로서는, 다음의 (Ⅰ-1-3)에서 살피게 될 것과 같이, 이제까지의 대개의 말본범주의 연구에 있어서 15세기가 그 중심을 이루어 왔다는 점을 먼저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어찌씨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민현식(1989)[1], 이주행 (1990) 등에서, 15세기로부터 16세기에 걸친 어찌씨의 논의를 볼 수 있을 뿐, 권말의 참고문헌에 제시한 중세국어 어찌씨에 관한 논문의 거의 대부분이 15세기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고찰하고 있다.

(1). 민현식(1990:8~9)에서는 15, 16세기를 각각 전, 후기의 네 시기로 갈라, 1기 (15세기 중반 ; 1447 「龍飛御天歌」~1460년대 불경언해 시대), 2기 (15세기 후반 ; 1470년대~ 「六祖法寶壇經諺解」 1496), 3기 (16세기 전기 ; 「續三綱行實圖」 1514~「分門瘟疫易解方」 1542), 4기 (16세기 후반 ; 「禪家龜鑑諺解」 1579~「中庸諺解」 1590) 로 나눔으로써, 가능한 한 공시성(共時性)의 유지하는 데에 힘썼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16세기의 국어를 기술함에 있어서, 15세기의 언어 사실을 알 수 있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할 수 있는 여건과, 15세기와 16세기 사이에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공통적 언어사실과 색다른 언어사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뜻한다.

또한, 본고의 대상이 되는 16세기의 말재어찌씨의 범주에 있어서도, 15세기와 그 형태나 의미 및 쓰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적지 않게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굿, 굿드리, ᄂᆞ외야, 노의란, 노의여, 다하, 다함, ᄃᆞᆼ다이, 독벼리, 독버리, 매, 모지마라, 므스므라, 손지, 씨 ᄒᆞ획, 어듸쏜, 어듸쏜, 어듸썬, 어듯던, 어듯썬, 의식, 촐히, 좀히, ᄒᆞ무시, 현마」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15세기에 있어서는 매우 생산적으로 쓰이던 이들 어찌씨들은, 16세기에 들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초기의 국한된 문헌에만 보이다가 쓰이지 않게 된다.

15세기에 쓰이던 형태와 16세기에 나타나는 형태가 확연히 구별되는 예들로서는, 「거슨, 거싀, 거싀, 과션, 과션히, 구틔여, 도ᄅᆞ ᄒᆞ혀, 만슬에, ᄒᆞ힝혀」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16세기에 들어 새로이 등장하거나 세력을 확장한 것으로는, 「거의, 만일, 만일에, 맛ᄃᆞᆼ이, 맛ᄃᆞᆼ히, 반ᄃᆞ시, 아마도, 제발」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15세기에만 주로 쓰이고 16세기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어찌씨를, 16세기에 활발히 쓰이는 다른 낱말들과 뒤섞어서 함께 다루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15세기와 16세기, 혹은 16세기의 내부적인 변동, 16세기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기와의 사이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어찌씨의 역사를 가름할 만한 큰 변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들 시기 각각에 대한, 면밀한 고찰과 대조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15세기 이전과 17세기 이후의 경계를 이루는 16세기의 말본 체계 기술의 일환으로서의 의의를 지니는 동시에, 앞으로의 역사적인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는 작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I-1-3. 어찌씨에 관한 앞선 연구와 문제

이와 같은 시대의 가름이 문제가 되는 면에서는, 어찌씨의 말본 범주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역시 별 다름이 없다.

어찌씨의 체계 및 통어론적인 고찰을 시도한 기존연구에 있어서도, 적어도 15세기와 16세기에 관한 한, 두 시대를 갈라야 할 것으로 본 일은 별로 없다.

중세국어의 형태·조어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이숭녕(1981:384~389)나 허웅(1975:981~983)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어찌씨 자체가 어형의 변화가 없다는 특성으로 인해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민현식(1988)의 어간형(語幹形)의 어찌씨에 관한 논문이 있다.

어휘사적인 면에서의 연구로는 유창돈(1961;1975)을 들 수 있으며, 중국어로부터의 차용어에 관한 고찰의 남풍현(1968)에 어찌씨가 일부 다루어지고 있으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문헌자료의 분포, 대응 한어를 밝히고, 약간의 용례 붙이는 것으로, 당연히, 통어론적인 면에 관한 언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창돈(1961)에서는, 이조어의 어휘의 형태변천의 한 항목으로 어찌씨들의 변천에 관한 논의에서, 27항목의 어찌씨들이 언제 어느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어떠한 뜻으로 쓰였는가 하는 역사적인 변천 모습들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어찌씨들의 통어론적인 면에서의 기술은 볼 수 없으며, 이는 유창돈(1975)에서 불완전하나마, 약간의 해소가 된다.

유창돈(1975:393~453)은, 어휘사의 측면에서 어찌씨들의 조어 유형, 품사의 전성, 월에 있어서의 품사적·통어적인 제약 등에 관해 고찰하고 있으나, 「이조어」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시대에 따른 어찌씨의 형태나 통어론적인 특성의 변화되는 모습에 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부사연결의 구속성(拘束性)」에 관한 항(426쪽)에서 「품사적 구속성」과 「통사적 구속성」을 구별하면서, 앞의 것은 뒤따르는 피수식어의 품사적인 제약을, 뒤의 것은 「그 문장의 성분에 상응되는 종결형이 되도록 부사가 구속을 가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본고의 고찰 목적인 어찌씨의 말재와의 호응관계의 일부에 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의 예를 보면 「眞實로, 正히, 모로매, 엇뎨, ᄒᆞ다가, 비록, ᄃᆞᆼ다이, ᄒᆞ믈며」 등의 어찌씨가 「名詞의 敍述形을 꾸미는 副詞」(1)로, 「어루 시러」의 「어루」와 같이, 다른 어찌씨의 바로 앞에 설 경우의 어찌씨의 「다ᄆᆞᆫ, 본ᄃᆡ」 등의 어찌씨를 「副詞를 꾸미는 副詞」로, 「품사적 구속성」의 항목에서 취급함으로써, 월의 표면적인 구조에 있어서의 위치관계에만 눈길을 돌리고 있을 뿐, 월 전체와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결쌴코, 잠ᄭᆞᆫ도, 오히려, 아무리」등은 부정문에, 「부듸, 부ᄃᆡ」 등은 명령·청유문에, 「웨, 어찌, 어이, 므슴아라, 언마, 매, ᄒᆞ믈며, 어드리」 등이 의문문에 각각 쓰이는 점을 들어, 이를 「통사적 구속성」의 예로 들고 있다.

중세국어의 어찌씨에 관한 연구의 최근의 경향으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남성우(1986)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동의어 분석방법과, 이 방법에 준한 민현식(1987;1989a; 1989b)의 시간어찌씨나 처소어찌씨 등에 관한 유의어(類義語) 분석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중세국어나 현대국어를 막론하고, 어찌씨와 특정 문법형식과의 호응관계에 대한 인식이 싹트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말재어찌씨」의 범주를 설정, 이의 구체적인 호응현상을 논한 연구논문은 거의 볼 수가 없다.

이제까지의 어찌씨 연구의 그간의 경향을 볼 때, 말재어찌씨에 관한 분야는, 거의 미개척의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어에서 보이는 말재어찌씨의 통어론적인 특성(1)이, 중세국어에서도 마찬가지였는지, 혹은 다른 체계를 지니고 있었는지, 현대국어에서 쓰이는 말재어찌씨들이 중세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

(1).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제Ⅱ장에서 상세히 논하기로 한다.

하며 마찬가지의 기능을 지니는지 등에 관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I-1-4. 연구의 방법

앞의 (I-1)에 언급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의 방법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1-4-1. 빈도의 조사

이 글에서는, 16세기의 국어의 문헌자료에 나타나는 말재어찌씨의 분포를 조사, 각각의 문헌에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는가를 밝힌다.

이 빈도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16세기에 펴내어진 모든 문헌자료를 망라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16세기의 자료 중 「사성통해」(1517), 「훈몽자회」(1527), 「신증유합」(1576), 「천자문」(1583) 등은, 어찌씨가 나타나는 일도 매우 드물거니와, 그 말본적인 쓰임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제외하였다. 분석된 자료의 일람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I-2)에서 상세히 논하기로 한다.

이러한 조사는, 기존의 색인이나 사전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사실들을 발견하거나, 그 용례의 불충분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소홀하기 쉬운 것이다.

각 어찌씨의 분포를 조사하는 첫째 이유로는, 이 시기의 어찌씨들이 앞선 시기로부터 지속적으로 쓰여 왔는지, 이 시기에 쓰이기 시작하였는지, 혹은 이 시기의 어느 때엔가 소멸하는 어찌씨가 있는지 등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이유는, 분석대상의 어찌씨가 입말체나 글말체와 같은 문체적인 차이의 영향을 받는가 그렇지 않은가, 혹은 어느 특정한 (성격의) 문헌에만 국한된 쓰임을 보이는가, 아니면 모든 자료에 골고루 분포하는가를 알기 위함이다.

세째로는, 어떤 어찌씨가 어느 정도의 빈도로 쓰이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는, 어떤 하나의 범주를 이루는 어찌씨들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빈도가 높은 어찌씨가 그렇지 않은 어찌씨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문법적인 특성과 쓰임의 환경을 더 폭넓게 나타내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조사 작업의 결과는 (I-2-2)의 「16세기 말재어찌씨의 분포 (빈도)」에 관한 표에 나타내고, 권말의 <붙임>「16세기 말재어찌씨 색인」에 그 출전을 일일이 밝혔다.

I-1-4-2. 호응관계의 조사

앞의 빈도조사에 의해 수집된 말재어찌씨들이, 다른 문법적 요소와 월 안에서

드러내는 호응 (呼應) 관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밝힌다. ⑴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말재어찌씨가 월에 나타난 경우에, 그 월은 매우 국한된 특정한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것은 다음의 Ⅱ장에서 다루게 되는 바, 어찌씨와 풀이씨와의 공존 (共存) 관계 혹은 선택제약 (選擇制約) 과는 구별되어야 할 성질의 현상이다 (Ⅱ-2참조) .

말재어찌씨의 호응현상은, 풀이씨의 의향법의 씨끝 및 이음씨끝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씨끝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말재어찌씨가 월에 나타나는 일은 특정한 형식의 월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어찌씨는 월의 수의적인 성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며, 월의 어찌씨를 생략해도 월 자체의 문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어찌씨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들 말재어찌씨가 월에 나타나면, 원칙적으로, 뒤에 따라 나오는, 월의 의향법이나 이음법의 씨끝의 종류를 제한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뒤에 움직씨를 요구한다든가 그림씨를 요구한다고 하는 문법적인 성질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현상이다.

제Ⅲ장 이후의 각론에서 검증되는 바와 같이, 실제의 용례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한 어찌씨가 시킴법의 의향법과 호응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킴법의 씨끝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특정한 시킴법의 씨끝과의 호응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며 나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으란, -는, -도, -사} 등의 일부의 도움토씨가 말재어찌씨와의 호응 현상을 보이는 경우와, 섬숡말 등의 특정한 월 성분 등이 말재어찌씨와 호응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확인된다.

위와 같은 기초적인 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어찌씨가 어떤 짜임의 월에서 풀이씨의 씨끝 등에 의해 표현되는 말재와 어떤 호응관계를 이루는가를 중심으로 살펴 나가기로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드러난 말재어찌씨의 의미와 그 문법적인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이들 말재어찌씨의 하위범주를 설정, 각 범주별로 말재어찌씨의 구체적인 분포, 의미와 쓰임, 그리고 월에서 수행하게 되는 어찌씨의 문법적 기능과의 관련 등을 기술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16세기의 국어 어찌씨의 구문론적인 제 특성들에 관한 공시적이며, 체계적인 문법기술 뿐만 아니라, 현대 국어 나아가서는 언어의 일반문법의 기술에 공헌할 수 있는, 어찌씨에 관한 수식기능의 일반적 원리를 체계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

(1) . 「말재어찌씨」의 갈말은 쓰이지 않더라도, 어찌씨와 말재와의 호응관계에 관해 주목한 것으로, 이숭녕(1981), 이승욱(1967), 남풍현(1971a, 1971b)을 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제Ⅱ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I-2. 분석자료 및 말재어찌씨의 분포 (1)

I-2-1. 분석자료의 일람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16세기의 문헌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飜譯老乞大 (151?) ● 『老乞大 上』 《老上》 (2)
● 『老乞大 下』 《老下(3)》
②. 飜譯朴通事 (151?) ● 『朴通事 上』 《朴通》
③. 續三綱行實圖 (1514) 《續三》 (4)
④. 飜譯小學(六・七・八・九・十) (1517) 《小六/小七/小八/小九/小十》 (5)
⑤. 正俗諺解 (1518) 《正俗》
⑥. 朱子增損 呂氏鄕約諺解 (1518, 1574) 《呂氏/鄕約》 (6)
⑦. 二倫行實圖 (1518) 《二倫》
⑧. 簡易辟瘟方 (1524) 《簡易》
⑨. 分門瘟疫易解方 (1542) 《分門》
⑩. 父母恩重經 (1553) 《父母》
⑪. 百聯抄解 (1563) 《百聯》
⑫. 淸州 北一面 順天 金氏墓 出土 簡札(1565 이후) 《簡札》
⑬. 七大萬法 (1569) 《七大》
⑭. 初發心自警 (1577) 《初發》 (7)

---

(1). 이 밖에, 16세기 이외의 문헌의 용례를 인용할 경우에는, 약호(略號)를 쓰는 대신 책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한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16세기에 가장 가까운 문헌자료 중의 하나인 「三綱行實圖」(1490년 이후)에 관해서는 『諺解 三綱行實圖硏究』 및 『諺解 三綱行實圖硏究 索引』(志部昭平 著, 汲古書院, 1990, 東京)을 사용했음을 밝혀 둔다.
(2). 자료 일람에 보이는 《 》 속은, 본문에 인용하게 되는 용례의 출처, 「16세기 국어의 말재어찌씨의 분포(빈도)」, 그리고 <붙임>의 「16세기 말재어찌씨 색인」 등에 책 이름을 줄여서 쓰는 「약호」를 뜻한다.
(3). 본문에 인용할 용례의 출전표시의 경우에는 《老上/老下》로 표시하기로 하되, 이 책 전체를 가리킬 경우에는 「노걸대, 飜老」로 쓰기로 한다.
(4). 본고에서는 『朝鮮学報』 105집(1982)에 실린 『續三綱行實圖』를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5). 본문에서 용례를 인용할 경우에는 각 권별로 표시하기로 하되, 통계적인 사실을 밝힐 때는 「번역소학, 飜小」로 쓴다.
(6). 이 자료는, 「尊經閣本(1518)」과 「一石本(1574)」의 둘을 이용했다. 인용한 용례의 출전을 나타낼 경우에는, 앞의 책을 《呂氏》, 뒷책을 《鄕約》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7). 이 자료는, 「初發心自警」이란 제목으로 한 책에 묶여 있을 뿐 아니라, 자료의 내용이나 문체나 어휘적인 면에서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들을 따로 취급하지 않고, 책이름을 나타낼 때도 《初發》로 통일하여, 쪽수의 표시도 『誡初心學人文・發心修行章』(명지어문학 10) 및 『野雲自警序』(명지어문학 12・13)의 영인의 쪽수를 따라 이어 매기기로 한다.

● 『誡初心學人文』 / ● 『發心修行章』 / ● 『野雲自警序』

⑮. 重刊 警民編 (1579) 《警民》
⑯. 小學諺解 (1587) 《小學》
⑰. 孝經諺解 (1589) 《孝經》 [1]
⑱. 論語諺解 (1590) 《論語》
⑲. 孟子諺解 (1590) 《孟子》
⑳. 大學諺解 (1590) 《大學》
21. 中庸諺解 (1590) 《中庸》

I-2-2. 16세기 국어의 말재어찌씨의 분포(빈도)

앞에서 열거한 16세기의 문헌자료에 출현하는, 16세기 국어의 말재어찌씨의 목록과 그 출현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의 <표1>이다.

이 표는, 16세기의 문헌자료에서 확인되는 말재어찌씨의 목록과 그 빈도의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어찌씨가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는가 하는 점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각 자료는, 원칙적으로, 그 간행된 연도 순으로 배열했으므로, 16세기 백 년의 시기 상에 나타나는, 어찌씨의 쓰임의 시기, 어찌씨의 형태의 변화, 새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어찌씨의 출현 시기, 그리고 이 시기에 세력이 약화되거나 확장되어 가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씨의 형태는, 문헌에 나타나는 형태를 올림말로 잡아, 이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다.

그러나, 같은 어찌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가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장 빈도가 높은 어찌씨를 주된 올림말로 보고, 가나다 순에 어긋나기는 하더라도, 다른 형태를 주된 올림말 다음에 표시하는 일이 있다.

예를 들어, 「믈읫/믈의/몰의」(凡)의 순서로 배열하거나, 「비록/비로」(雖)에 보이는 배열순서가 그렇다.

이렇게 배열한 까닭은, 이들 각 형태의 빈도로 볼 때, 「믈읫(161)/믈의(1)/몰의(1)」, 「비록(272)/비로(2)」로 각각 나타나,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동일한 어찌씨의 변이형태를 한 자리에 모아서 보는 것이, 분포적인 특성이나, 문헌자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한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 본고에서는 『朝鮮学報』 27집(1963)에 실린 『孝經諺解』를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15세기의 말재어찌씨의 형태 및 분포와의 비교를 위한 자료로서, 「삼강행실도」의 빈도를 덧붙였다. 그러나, 표의 제일 아래에 표시된 빈도수의 「합계」에는 넣지 않았으므로, 이 합계의 수는 순수히 16세기 자료에 있어서의 빈도수를 나타낸다.

<표1> 16세기 국어의 말재어찌씨의 분포 (빈도)

어찌씨 / 약호(간행)	가령	가ᄉᆞ	가이	가히	감히	거ᄉᆞ	거싀	거시	거이	거의	결연히	계오	계요	계우	겨오	곧	과연	과연히	과연	과연히
三綱(1490)							2									4	2			
飜老(151?)						1	1							1		25	1			
飜朴(151?)		1												1		7	1			
續三(1514)				1										1			2			
飜小(1517)	1			9	4		1				1	1				6		1	1	
正俗(1518)			9	1																
呂氏(1518)				5																
二倫(1518)							1	1						1						1
簡易(1524)																				
分門(1542)	1															1				
父母(1553)																				
百聯(1563)																				
簡札(1565)												10			3					
七大(1569)																				
初發(1577)																				
警民(1579)				6																
小學(1587)				119	75				1	6	1	1	1			28			3	
孝經(1589)				6	11											1				
論語(1590)				120	20											10				
孟子(1590)				200	41					5						66			3	
大學(1590)				7						1						2				
中庸(1590)				25	4					2						1				1
합 계	2	1	9	504	155	1	3	1	1	14	2	12	1	4	3	147	4	1	7	2

어찌씨 / 약호(간행)	구틔여	구퇴야	구퇴여	그저	그져	굿	굿드리	ᄂᆞ외야	노의란	노의여	뇌여	능히	룽히	다ᄆᆞᆫ	다만	다믄	담ᄋᆞᆫ	다하	다합	당다이	당당이
三綱(1490)			4	1		7						2								15	
飜老(151?)		1	3	19	1	3			1	2		1		7		10		6	1		
飜朴(151?)			4	1		1				1				6		2		2			
續三(1514)			4																		
飜小(1517)			6									11	4	9		1					1
正俗(1518)			3																		
呂氏(1518)			1				2														
二倫(1518)			3	2										2							
簡易(1524)													1								
分門(1542)													1								
父母(1553)																					
百聯(1563)																					
簡札(1565)	1			4							1			12	6						
七大(1569)																					
初發(1577)			1					1				9									
警民(1579)																					
小學(1587)			8	1								94		11		3	1		2		
孝經(1589)												6									
論語(1590)			1									46		1							
孟子(1590)												108		3		1					
大學(1590)												15									
中庸(1590)												20									
합 계	1	1	34	27	1	4	2	1	1	3	1	310	6	51	6	17	1	8	3	0	1

어찌씨 / 약호(간행)	당시론	당시예	대가ᄒᆞᆫ디	대개ᄒᆞᆫ디	대뎌ᄒᆞᆫ디	대뎌혼디	대뎨ᄒᆞᆫ디	대도히	대되	도ᄅᆞᅘᅧ	도ᄅᆞ혀	도릐혀	도로혀	독벼리	독버리	마치	맛치	만실에	만이러	만이래	만일
三綱(1490)										3											
飜老(151?)	4	1	1	1					19		3	1		3	1	4			1	1	
飜朴(151?)	1							2	1		2					2					
續三(1514)									1												
飜小(1517)					5						2		4				1	1		9	
正俗(1518)					2																
呂氏(1518)																				17	
二倫(1518)																					
簡易(1524)																				1	
分門(1542)									3											2	
父母(1553)											2										
百聯(1563)																					
簡札(1565)									6				1			1					
七大(1569)																					
初發(1577)											1		1								
警民(1579)					2								1								
小學(1587)					2	1	2				4		3								42
孝經(1589)																					
論語(1590)																1					9
孟子(1590)											1		2								14
大學(1590)																					
中庸(1590)																					
합 계	5	1	1	1	11	1	2	2	30	0	16	1	12	3	1	8	1	1	1	30	65

어찌씨 / 약호(간행)	만일애	맛당이	맛당히	모ᄃᆡ	모ᄃᆡ모ᄃᆡ	모로매	모로미	모롬애	모롬이	모지마라	므ᄉᆞᄆᆞ라	므스므라	므스므러	므스므려	므슴호려	므슴홈여	므솜	므슴	믈읫	믈의	믈의
三綱(1490)						11				1		2									
飜老(151?)						7						3		5	1			1	4		
飜朴(151?)														1	1				2		
續三(1514)						1													1		
飜小(1517)	4	3				55	1												22		
正俗(1518)				1			7													1	
呂氏(1518)		2					1												34		
二倫(1518)																			1		
簡易(1524)	1					1													2		
分門(1542)						1	1												2		
父母(1553)																					
百聯(1563)																					
簡札(1565)				3	1						3										
七大(1569)						2															
初發(1577)	1			6		27	3												2		1
警民(1579)	2	1				8													2		
小學(1587)	1	9	33				4	7	19				1	1		1	1		41		
孝經(1589)																					
論語(1590)	11																	5			
孟子(1590)	28	6	3															7	9		
大學(1590)	1	1																	1		
中庸(1590)																			4		
합 계	49	24	36	10	1	102	18	7	19	0	3	3	1	7	2	1	1	13	161	1	1

어찌씨 / 약호(간행)	반ᄃᆞ기	반ᄃᆞ시	반ᄃᆞᆨ	반드시	번드기	본ᄃᆡ	본ᄃᆡ로	본ᄅᆡ	비록	비로	ᄉᆞᆫ지	ᄉᆡᆼ심도	ᄉᆡᆼ심이나	ᄉᆞᆨ졀업시	시러	시러곰	시혹	ᄡᅵ획	실로
三綱(1490)								4	5		5			1				2	
飜老(151?)					2	7	1		5					5					
飜朴(151?)		1							2				1	4					
續三(1514)						1			3										
飜小(1517)		25		6		7		1	41					1	1	1			
正俗(1518)					2				2					1			3		
呂氏(1518)		3							7										
二倫(1518)						1			1										
簡易(1524)									1										
分門(1542)																			
父母(1553)									2										
百聯(1563)		1	3																
簡札(1565)		1				3			8			1							
七大(1569)	1																1		
初發(1577)	10	2						3	13	2				4			5		2
警民(1579)		10							11										
小學(1587)		151		1		8			68					1		26			3
孝經(1589)		2							5							1			
論語(1590)		66				1			32							17			
孟子(1590)		96				4			52							57			
大學(1590)		9							3							1			
中庸(1590)		14							9							1			
합 계	11	382	3	7	4	32	1	4	272	2	0	1	1	16	1	104	9	0	5

어찌씨 / 약호(간행)	아마도	아ᄆᆞ라마나나	아ᄆᆞ려나	아마려나	어ᄂᆞ	어ᄂᆡ	어느	어늬	어늬제	언제	어ᄃᆡ	어듸	어드리	어듸ᄯᆞᆫ	어듸ᄯᅳᆫ	어듸ᄯᅧᆫ	어ᄃᆡᆺ던	어ᄃᆡᆺᄯᅧᆫ	어루
三綱(1490)											1	4	2			1	2	1	1
飜老(151?)	—	3	1	—	1	—	1	—	—	—	—	15	—	1	—	—	—	—	—
飜朴(151?)	—	—	—	—	—	—	—	—	—	—	—	15	—	1	1	—	—	—	—
續三(1514)	—	—	—	—	—	—	—	—	—	—	—	1	—	—	—	—	—	—	—
飜小(1517)	—	—	—	—	—	—	—	1	—	1	—	—	—	—	—	—	—	—	—
正俗(1518)	—	—	—	—	—	—	—	—	—	—	—	1	—	—	—	—	—	—	—
呂氏(1518)	—	—	—	—	—	—	—	—	—	—	—	—	—	—	—	—	—	—	—
二倫(1518)	—	—	—	—	—	—	—	—	—	—	—	—	—	—	—	—	—	—	—
簡易(1524)	—	—	—	—	—	—	—	—	—	—	—	—	—	—	—	—	—	—	—
分門(1542)	—	—	—	—	—	—	—	—	—	—	—	—	—	—	—	—	—	—	—
父母(1553)	—	—	—	—	—	—	—	—	—	—	—	—	—	—	—	—	—	—	—
百聯(1563)	—	—	—	—	—	—	—	—	—	—	—	—	—	—	—	—	—	—	—
簡札(1565)	1	—	19	3	—	3	—	—	—	1	9	—	—	—	—	—	—	—	—
七大(1569)	—	—	—	—	—	—	—	—	—	—	—	2	—	—	—	—	—	—	—
初發(1577)	—	—	—	—	—	—	—	—	—	—	—	—	—	—	—	—	—	—	1
警民(1579)	—	—	—	—	—	—	—	—	—	—	—	—	—	—	—	—	—	—	1
小學(1587)	—	—	—	—	—	—	—	1	—	—	—	—	—	—	—	—	—	—	—
孝經(1589)	—	—	—	—	—	1	—	—	—	—	—	—	—	—	—	—	—	—	—
論語(1590)	—	—	—	—	—	—	—	—	—	—	—	6	—	—	—	—	—	—	—
孟子(1590)	—	—	—	—	—	—	—	—	1	—	9	1	—	—	—	—	—	—	—
大學(1590)	—	—	—	—	—	—	—	—	—	—	—	—	—	—	—	—	—	—	—
中庸(1590)	—	—	—	—	—	—	—	—	—	—	—	—	—	—	—	—	—	—	—
합계	1	3	20	3	1	4	1	2	1	2	18	47	0	2	1	0	0	0	2

어찌씨 약호(간행)	어셔	엇뎌	엇뎨	엇디	엇디엇디	엇써	어써	엣뎨	역시	오직	오히려	의식	응당히	제발	젼혀	졍히	족히	진실로	진실히
三綱(1490)	2		40					2		6	1				2	1		2	
飜老(151?)				46						3					2	10		10	
飜朴(151?)				19						4					1	7		7	
續三(1514)	1		2	1						1		14						1	
飜小(1517)			5	49						30	9	2			2	3	2	25	
正俗(1518)			1	6						1	1	2				2		3	
呂氏(1518)										5						1			
二倫(1518)				7						1	1	2				·	1		
簡易(1524)				1						1						2		1	
分門(1542)										1									
父母(1553)		1	4												1			1	
百聯(1563)																			
簡札(1565)				52	1	4	1		1	2				1					
七大(1569)			8												1				
初發(1577)				20						13	1				1	1		2	1
警民(1579)				1															
小學(1587)			3	63						48	20		2			2	17	30	
孝經(1589)				4							1						1		
論語(1590)				94						13	10					3	11	13	
孟子(1590)				208						34	21						40	50	
大學(1590)										5							1	3	
中庸(1590)				2						7	3					1	8	4	
합 계	1	1	23	586	1	4	1	0	1	174	67	20	2	1	10	32	81	150	1

어찌씨 / 약호(간행)	ᄎᆞ마	촘아	촐하리	촐히	촘히	특별이	특별히	필연	ᄒᆞ다가	ᄒᆞᄆᆞ시	ᄒᆞᄆᆞᆯ며	ᄒᆞ믈며	ᄒᆞᆫ갓	ᅘᅵᆼ혀	힝혀	힝여	현마	혹	혹도
三綱(1490)	6			4					3		4			2	1		9		
飜老(151?)									22	1					1			4	
飜朴(151?)									4									2	
續三(1514)	5										2								
飜小(1517)	6		3			1			4		5		7		6			18	
正俗(1518)					1			1	2		4		5						
呂氏(1518)						3							1					21	
二倫(1518)	2								1		1				1				
簡易(1524)							1											1	
分門(1542)																		1	
父母(1553)																		3	
百聯(1563)																			
簡札(1565)	1			2									1		2	1	5		
七大(1569)									1										
初發(1577)									20		3		2						
警民(1579)			1										1					4	1
小學(1587)	2	7	5			1			1		4	1	4		3			34	2
孝經(1589)											3								
論語(1590)			3										1		1			5	
孟子(1590)	1	4									10	4	8		1			19	1
大學(1590)																			
中庸(1590)											1								
합 계	17	11	12	2	1	5	1	1	55	1	33	5	31	0	15	1	5	133	4

I-2-3. 자료의 성격과 말재어찌씨의 분포

위의 자료들은, 비록 같은 16세기의 자료라 하더라도, 그 간행시기, 간행된 지역, 저작자 (혹은, 번역자) 의 언어, 자료의 내용과 문체 등에 따라서, 분석 대상이 될 언어자료의 성격이 반드시 같은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간행시기와 말재어찌씨의 분포상의 관계에서 볼 때, 대체적으로 「번역노걸대」(151?)에서 「간이벽온방」(1524)에 이르는 초기의 문헌과, 「분문온역이해방」(1542)에서 「칠대만법」(1569)에 이르는 중기의 문헌, 그리고 「초발심자경」(1577)에서 「중용언해」(1590)에 이르는 말기의 문헌의 세 시기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세기와 비교해 볼 때, 15세기의 문헌에 쓰이던 어찌씨가 16세기에 들어 나타나지 않게 되거나, 16세기 초에 표기법이 바뀌어 버리는 예들이 몇몇 보인다. 「모지마라, 손ᄌᆞ, 어드릐, 어루」 등은, 16세기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ᄃᆞᆼ다이 → ᄃᆞᆼᄃᆞᆼ이」, 「도ᄅᆞ 혀 → 도ᄅᆞ혀/도리혀」, 「씨 ᅘᅬᆨ → 시혹」, 「어듸ᄯᅧᆫ/어듸ᄯᅥᆫ/어듸ᄯᅧᆫ → 어듸ᄯᆞᆫ/어듸ᄯᅳᆫ」, 「엇뎨/엣뎨 → 엇디」, 「ᅘᅵᆼ혀 → ᄒᆡᆼ혀/ᄒᆡᆼ여」 등이 16세기에 들어서의 현저한 표기법의 변화를 보인다.

한편, 16세기의 초기와 중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예들도 있다. 특히, 반치음을 포함한 낱말에서 반치음이 없어지는 일이 초기와 중기에 걸쳐 일어남을 보여 준다. 「거ᅀᅳ/거ᅀᅴ」가 중기의 「거ᄋᆡ」를 거쳐 말기에 이르러 「거의」로 통일이 되는 것이라든가, 초기에 보이던 「과ᅀᅧᆫ/과ᅀᅧᆫ히」가 중기 이후의 문헌에서 「과연/과연히」로 나타나는 일, 그리고 초기의 「만ᅀᅵᆯ애」가 이미 16세기 초기에 그 힘을 잃고 「만이레/만일에」와 「만일」에 그 자리를 내 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ᄀᆞᆺ, ᄀᆞᆺ드릐, ᄃᆞᆼᄃᆞᆼ이, ᄃᆞᆼ시론, ᄃᆞᆼ시예, 어듸ᄯᆞᆫ/어듸ᄯᅳᆫ」 등의 경우에는, 초기의 문헌에 약간의 용례를 보이다가, 중기 이후에는 전혀 발견할 수 없게 된다.

16세기의 초기에 나타나던 「계우」는, 중기의 「겨오/계요」를 거쳐 「계오」로 거의 합류되는 현상을 보인다.

16세기 전 시기에 걸쳐 둘 이상의 형태로 공존하는 예들 역시 적지 않게 나타난다. 「다ᄆᆞᆫ/다만/다믄」, 「도ᄅᆞ혀/도로혀」, 「모로매(모롬애)/모로미(모롬이)」, 「어ᄃᆡ/어듸」 등이 그러한 예이다.

16세기의 다른 문헌에는 보이지 않으며, 중기 이후의 시기에 한둘의 특정한 자료에서만 고립적으로 출현하는 어찌씨들이 몇몇 보인다.

「가령」, 「가ᄉᆞ」, 「ᄉᆡᆼ심도/ᄉᆡᆼ심이나」, 「아마도」, 「아ᄆᆞ려나마나/아ᄆᆞ려나/아마려나」, 「어느제/언제」, 「어루」, 「어셔」, 「역시」, 「ᄋᆞᆼᄃᆞᆼ히」, 「제발」, 「좀히」, 「필연」, 「현마」 등이 그러한 예들인데, 이 중 「현마」는 15세기에 비교적 자주 쓰이던 것이 16세기의 중기의 「간찰」에서만 볼 수 있다.

한편, ①~(21)의 자료는 각 문헌의 간행목적과 내용으로 볼 때, 크게 유교의 교화서(敎化書), 불경언해, 역학서(譯學書), 의학서(醫學書), 간찰(簡札), 시가(詩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교의 교화서는, 간행된 곳에 따라, 교정청(校正廳)을 중심으로 하여 중앙에서 간행된 것과, 지방에서 간행된 것을 구별할 수 있다. 앞의 것을 <교화서 I>, 뒤의 것을 <교화서 II>로 부르기로 한다.

16세기의 자료를 그 내용적 성격별로 갈라 보면 다음과 같다.

a. 역 학 서 : (번역)노걸대(151?), (번역)박통사(151?)
b. 의 학 서 : 간이벽온방(1524), 분문온역이해방(1542)
c. 불경언해 : 부모은중경(1553), 칠대만법(1569), 초발심자경(1577),
d. 교화서 I : 속삼강행실도(1514), 번역소학(1517), 소학언해(1587), 효경언해(1589), 논어언해(1590), 맹자언해(1590), 대학언해(1590), 중용언해(1590)
e. 교화서 II : 정속언해(1518), 주자증손 여씨향약언해(1518, 1574), 이륜행실도(1518), (중간)경민편(1579)
f. 간 찰 : 청주 북일면 순천 김씨묘 출토 간찰(1570 앞뒤)
g. 시 가 : 백련초해(1563)

위의 가름을 보면, (a)의 중국어 학습용의 역학서는 모두 16세기 초의 자료에 국한되며, 둘 다 최세진에 의해 번역된 것으로 자료상의 성격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화체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원문의 중국어를 직역하는 경향을 완전히 벗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노걸대>의 경우에 빈도가 매우 높은 어찌씨의 대부분이 고정적으로 특정한 중국어의 표현과 대응한다는 특징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다. 원문의 「便／곧」(25례), 「只／그저(21례), 다므(7례), 다믄(10례)」, 「都／다」(103례), 「却(34례) · 又(48례) · 也(18례) · 再(13례)／또」 등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1)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걸대>에는 주로 입말체에 자주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 어찌씨들도 보인다. 「아무라나마나(3), 아무려나(1)」가 그것인데, 이는 반드시 들을이를 전제로 하여, 들을이에 대한 부탁이나 당부의 월에 자주 쓰인다는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은, 16세기의 문헌자료 중 입말체가 가장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f)의 편지에 이들 어찌씨가 「아무려나(19례), 아마려나(3례)」의 형태로 자주 등장할 뿐 아니라, 반드시 편지 받는 이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거나 당부하는 월에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반면, (a, f) 이외의 문헌자료에서는 이 어찌씨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 자료의 입말체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a, f)에만 나타나는 어찌씨의 예로, 「므ᄉᆞ므라, 므스므라, 므스므려, 므슴홀여」 등이 있다. (2)

(f)의 간찰에는, 그 밖에도, 다른 자료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몇 가지의 어

(1). 졸고(1991c)의 색인 참조. 한편, <노걸대>의 정도어찌씨의 이러한 대응관계에 대해서는, 졸고(1991d)를 참조 바람.
(2). 그 밖의 문헌에서는, 다만 「소학언해」에 「므슴호려」가 한 번 나타날 뿐이다.

찌씨의 출현을 보여 준다. 「아마도, 역시, 제발」 등이 그것이다.

한편, (d, e)의 유교의 교화서에 속하는 것은, 16세기 전체 자료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뿐 아니라, 글말체의 전형적인 번역양식을 보여 준다. (1)

따라서, 빈도의 조사의 경우, 자연히 이들 자료에 의한 편중성이 생길 가능성이 예상된다.

실제로, 전체 출현 회수가 100회 이상인 어찌씨의 거의 대부분인 「가히／可(504례), 감히／敢(155례), 곧／便(147례), 능히／能(310례), 모로매／必(102례), 믈읫/凡(161례), 시러곰／得(104례), 엇디／何(586례), 죡히／足(81례), 진실로／眞(150례), 혹／或(133례)」 등의 어찌씨가, 빈도수에 있어, 다른 어찌씨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으로 빈번히 출현하는 것은, 바로 이들 문헌자료의 존재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현빈도가 높다는 사실이 반드시 당 시대의 언어사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교화서Ⅰ과 교화서Ⅱ는 그 출판된 곳의 차이 뿐만 아니라, 번역의 양식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교화서Ⅰ과 마찬가지로, 교화서Ⅱ 역시 전반적으로는 원전에 충실한 언해 양식을 보여 주지만, 경상도에서 번역·간행되었다는 점에서, 방언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 그것이다. (2)

이러한 방언적인 요소를 지닌 자료로서는, (e)의 자료 이외에도, (c)의 불경언해 자료 중, 경상도 방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칠대만법」(3), 전라도 방언이 보이는 「초발심자경」(4)을 들 수 있으며, (f)의 「간찰」에는 충청도 방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말재어찌씨에 관한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이들 자료에 있어서의 방언적인 요소로 인한, 어찌씨나 씨끝의 호응관계에 있어서의 특별한 차이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b)의 의학서는 질병의 각 증상의 설명과 그에 대한 처방을 쓴 것이다. 따라서 그 문체는 매우 단순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부분은 서술법의 {-으니라, -ᄂᆞ니라} 등의 씨끝에 의한 사실의 진술로 표현되고, 처방 부분은 시킴법의 {-으라}로 된 월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그 문체의 단순성으로 인해 말재어찌씨의 분포에 있어서도 그 빈도가 매우 낮아, 그다지 활발한 쓰임을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는, (c)에 속하는 「부모은중경」이나, (g)의 「백련초해」도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 준다. 특히 (g)는 한시로 된 원문을 번역한 것으로, 월

---

(1). 이들 교화서류의 번역양식에 대해서는, 이기문(1960), 남풍현(1971a; 1971b), 안병희(1973), 이숭녕(1973) 등이 참고가 된다.

(2). 안병희(1976), <呂氏鄕約諺解解題> (東洋學叢書 제5집) 참조.

(3). 「칠대만법」에 나타난 경상도 방언적인 요소에 관해서는, 오종갑(1982)에 상세히 검토되어 있다.

(4). 이에 대해서는, 성백인(1978)을 참조.

의 구조나 말재어찌씨의 호응관계 등의 통어론적인 말본범주에 관한 한, 그다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이상, 본고의 조사 대상이 된 문헌들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논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유교의 교화서의 비중이 높고, 특히 「번역소학」과 16세기 말기의 사서(四書)의 언해류 중 특히 「소학언해」, 「논어언해」, 「맹자언해」의 텍스트의 분량에 있어 다른 어느 문헌자료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므로, 특히, 이들 문헌이 민중의 교화를 위한 목적으로 편찬된 점으로부터 유래되는 바, {-올디(니)라, -올 거시(니)라} 등에 의한 당위법의 월이나, {-으니라, -ᄂ니라} 등에 의한 단정적인 월에 의한 표현법이 두드러진다.

동시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재어찌씨의 분포에 있어서도 이들 월과 가장 많이 호응하는 당위·시킴·금지·단정 등을 나타내는 어찌씨들이 압도적인 빈도로 출현한다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문헌의 내용적인 성격과 말재어찌씨의 분포상의 특징을 간추려 보면, 다음의 <표2-1>에서 <표2-4>의 표와 같다.

<표2-1>에서 <표2-4>는, 문헌의 성격과 분포상의 특징을, 말재어찌씨의 각 하위범주별로, 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통해, 우리는 각 범주의 어찌씨들이 문헌의 성격에 따라서, 상당한 분포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특히 <표2-1>의 경우, 백회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어찌씨 모두가, 원문(한문) 의 직역적인 언해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는 특징을 볼 수 있다. 각 어찌씨의 문헌성격별 분포의 해석에 관해서는, 다음의 제Ⅲ장에서 제Ⅵ장에 이르는 각론에서, 개관하기로 한다.

<표2-1> 문헌의 성격별로 본 「당위·시킴의 말재어찌씨」의 분포

갈래 / 어찌씨 / 구분		당위·시킴의 말재어찌씨														
		모로매	반드시	믈읫	맛당히	의식	모딗	구틔여	굿	굿드리	당당이	응당히	필연	감히	아무려나	어셔
15c三綱		11						4	7		15					2
역학	飜老	7		4				4	3						4	
	飜朴			2				4	1							
교화서 I	續三	1		1		14		4								1
	飜小	56	31	22	3	2		6			1			4		
	小學	30	156	41	41			8				2		75		
	孝經		2											11		
	論語		66					1						20		
	孟子		96	9	9									41		
	大學		9	1	1											
	中庸		14	4										4		
교화서 II	正俗	7	2	1		2	1	3					1			
	呂氏	1	3	34	2			1		2						
	二倫			1		2		3								
	警民	8	10	2	1											
의학	簡易	1		2												
	分門	2		2												
불경	父母															
	七大	2	1													
	初發	30	12	3			6	1								
簡札			3				3	2							22	
百聯			4													
합계		146	407	163	59	20	11	36	4	2	1	2	1	155	26	1

<표2-2> 문헌의 성격별로 본 「현실인식적 말재어찌씨」의 분포

갈래 / 구분	어찌씨	진실로	실로	정히	속절업시	과연	마치	ᄒᆞᄆᆞ시	능히	가히	족히	시러곰	어루	엇디	어듸	어ᄂᆡ	언제	므슴	어듸ᄯᆞᆫ	노의여	ᄎᆞ마	ᄉᆡᆼ심이나
		현실 인식의 말재 어찌씨																				
		평가·기대의 실현							가능					지움								
15c三綱		2		1	1	2			2				1	40	5			2	4		6	
역학	飜老	10		10	5	1	4	1	1					46	15	2		10	1	3		
	飜朴	7		7	4	1	2							19	15			2	2	1		1
교화서 I	續三	1				2				1				3	1						5	
	飜小	25		3	1	2	1		15	9	2	2		54		1	1				6	
	小學	30	3	2	1	3			94	119	17	26		66		1		4			9	
	孝經								6	6	1	1		4		1						
	論語	13		3			1		46	120	11	17		94	6			5				
	孟子	50				3			108	200	40	57		208	10		1	7			5	
	大學	3							15	7	1	1										
	中庸	4		1		1			20	25	8	1		2								
교화서 II	正俗	3		2	1					10				7	1							
	呂氏			1						5												
	二倫			2		1					1			7							2	
	警民									6				1								
의학	簡易	1							1					1								
	分門								1													
불경	父母	1												5								
	七大												1	8	2							
	初發	3	2	1	4				9				1	20						1		
簡札							1							58	9	3	1	3		1	1	1
百聯																						
합계		51	5	32	16	14	9	1	316	513	81	104	2	616	65	8	2	21	3	6	28	2

<표2-3> 문헌의 성격별로 본 「조건·양보의 말재어찌씨」의 분포

갈래 / 어찌씨 / 구분		조건·가정							양보								
		ᄒᆞ다가	만일	시혹	혹	힝혀	가령	가ᄉᆞ	비록	ᄒᆞ믈며	오히려	도ᄅᆞ혀	ᄎᆞᆯ하리	ᄎᆞᆯ히	다하	다함	당시론
15c三綱		3				3			5	4	1	3		4			
역학	飜老	22	2		4	1			5			4			6	1	5
	飜朴	4			2			1	2			2			2		1
교화서 I	續三								3	2							
	飜小	4	13		18	6	1		41	5	9	6	3				
	小學	1	43		36	3			68	5	20	7	5			2	
	孝經								5	3	1						
	論語		20		5	1			32		10		3				
	孟子		42		20	1			52	14	21	3					
	大學		1						3								
	中庸								9	1	3						
교화서 II	正俗	2		3					2	4	1						
	呂氏		17		21				7								
	二倫	1				1			1	1	1						
	警民		2		5				11			1	1				
의학	簡易		2		1				1								
	分門		2		1		1										
불경	父母				3				2			2					
	七大	1		1													
	初發	20	1	5					15	3	1	2					
簡札						3			8			1		2			
百聯																	
합계		55	176	9	137	16	2	1	274	38	67	29	12	2	8	3	6

<표2-4> 문헌의 성격별로 본 「한정의 말재어찌씨」의 분포

갈래 / 한정대상 / 어찌씨		한정의 말재어찌씨: 특정 월 성분						셈숱말			월 전체		
		그저	ᄒᆞᆫ갓	다ᄆᆞᆫ	오직	특별이	독벼리	대되	거의	계오	곧	대뎌ᄒᆞᆫ디	본ᄃᆡ
15c三綱		1			6				2		4		4
역학	翻老	20		17	3		4	19	2	1	25	2	8
역학	翻朴	1		8	4			3		1	7		
교화서 I	續三				1			1		1			1
교화서 I	翻小		7	10	30	1			1	1	6	5	8
교화서 I	小學	1	4	15	48	1			7	2	28	5	8
교화서 I	孝經										1		
교화서 I	論語		1	1	13						10		1
교화서 I	孟子		8	4	34				5		66		4
교화서 I	大學				5				1		2		
교화서 I	中庸				7				2		1		
교화서 II	正俗		5		1							2	
교화서 II	呂氏		1		5	3							
교화서 II	二倫	2		2	1				2	1			1
교화서 II	警民		1									2	
의학	簡易				1	1							
의학	分門				1			3			1		
불경	父母												
불경	七大												
불경	初發		2		13								3
簡札		4	1	18	2			6		13			3
百聯													
합계		28	31	75	174	6	4	32	20	20	147	16	37

Ⅱ. 말재어찌씨의 범주

Ⅱ-1. 「말재」의 정의

국어의 어찌씨의 연구에 있어서, 「말재」(陳述)란 갈말과 개념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최현배의 「우리말본」(1937:816~818, 1044)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말본」(1937:808~809, 816~819)에서는, 국어의 어찌씨를 때(時間)·곳(處所)·모양(狀態)·정도(程度)·말법(話法 또는 陳述)·이음(接續)의 여섯 가지로 가르고 있다. 이 「말법」이란 갈말은, 나중에 「말재」(話式, 陳述)로 고쳐졌다. (1)

「우리말본」에서는, 말재어찌씨를 「말하는 이의 뜻을 베푸는 태도에 관한 어찌씨」로 정의하고 있다. (2)

이것은 일반적으로, 「월의 내용(명제)에 대한 말할이의 심적태도」 등으로 규정되는 바, 「서법(敍法/mood, modality)」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3)

서법 (mood) 은, 이른바 언어의 기본적인 단위의 하나인 단어의 결합에 의해 월을 형성할 때, 이를 언어표현으로 성립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월(발화)」를 정의함에 있어서, 무엇 (월의 내용, 혹 명제) 을 「어떻게 전달하는가」로 나누어 볼 때의 「어떻게」에 관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말재어찌씨의 기능에 대해서는, 「그 풀이말(說明語)의 베픎(陳述)의 방법을 꾸미어서, 그 풀이말의 나타남에 일정한 재(式, 方式, 樣式)가 있기를 요구하는 것」(1983:599)으로 규정한다.

이는, 이 말재어찌씨가 그 꾸밈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풀이말 자체가 아니라 풀이말의 베픎(陳述)의 방법에 있음을 뜻한다. 동시에, 말재어찌씨는 월에서 반드시 풀이말의 나타남의 방식(말법의 형식)을 요구한다는, 어찌씨와 (풀이말

---

(1).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말법」 대신, 「우리말본」의 최종적인 갈말이라 할 수 있는 「말재」를 취하여 쓰기로 한다.
(2). 우리말본 (1937:816) 참조.
(3). 실제로, 최현배(1937:80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말재」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 부분에서 「말함의 법(話法, Modus)」이라는 갈말을 씀으로써, 말재란 「敍法」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지어진 갈말임을 엿볼 수 있다.
modus (言表態度) 는 일반적으로 「말할이가 발화하는 내용, 즉 言表事態이 대해, 말할이가 표명하는 태도」로 규정된다. 「ラルース言語学用語辞典」(J. Dubois 외 공저, 伊藤 晃 외 공역, 大修館書店, 1980, 東京) 참조.
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말본」에 있어서의 「말재」를 의미하는 여러 갈말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법(話法), 화식(話式), 진술(陳述) 등이 그것이다. 동시에, 「재」에 대해서는 식, 방식, 양식 등이 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말재어찌씨의 보람(特徵)」에 대한 설명부분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말재어찌씨는 그 풀이말에 일정한 재(式)의 나타남을 요구하는데, 이 「일정한 재」에는 구체적으로는 「단정(斷定), 의혹(疑惑), 가설(假設), 바람(願望)」 등이 있다. 「우리말본」(1983:600) 참조.

에 나타나는) 말함의 재(話式, Modus)와의 호응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말재어찌씨가 꾸미게 되는 「말재」란 결국, 말하는 이가 어떤 사실에 대해 전달하고자 할 때, 월에 드러나게 되는 말하는 이의 심리적인 태도의 부분이라 할 것이다. (1)

그러므로, 최현배(1937;1983)에서의 「말재」란 「서법」과 거의 같은 뜻으로 이해하더라도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세나 현대국어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말재어찌씨」의 범주에 대하여 고찰한 연구논문은 거의 볼 수가 없다.

다만, 박선자(1983:104~107)의 현대국어 어찌씨 분석에서 「말재어찌씨」란 갈말과, 다른 문법형식과의 공존관계에 관한 약간의 언급을 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박선자(1983)에서는, 말재어찌씨가 월어찌씨와 구별되는 특성으로서, 말재어찌씨가 항상 풀이말에 특정한 통어적인 의미특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말재어찌씨의 꾸밈의 대상을, 수행문 분석을 통해, 「서법형태소나 문법표지」 등으로 나타나는 수행동사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연구와는 색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것은, 말재의 형식에 대한 호응현상을 의미론적으로 재해석하여 설명하려 한 평가할 수 있으나, 풀이말에 나타나는 서법형태소나 문법표지에 관한 구체적인 「통어적 특성」은, 이미 앞선 최현배의 「우리말본」(1937;1983)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Ⅱ-2. 말재의 하위범주와 말재어찌씨의 갈래

「호응(呼應)」은 일반적으로 「문장 내에서 어느 특정한 단어가 나타날 때, 그 뒤에 그에 응하여 특정한 단어 혹은 문법형식이 따라나는 현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더 좁혀 말하자면, 「말함이의 판단의 태도나 감정 등을 담당하여 서법과 관련된 호응」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어찌씨의 호응에 있어서는, 최현배(1983:815)에서는 말재어찌씨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즉, 말재어찌씨가 월의 어찌꾸밈말이 될 적에, 그 풀이말에 일정한 말재 (話式) 이 있어서 그 꾸밈말과 서로맞음(相應)을 소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재어찌씨가 월에 있어서 「일정한 진술적 의미를 가진 형식과 호응하여 쓰임」을 가리킨다.

---

(1). 서법을 정의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O. Jespersen(1924)에서의 「월의 내용에 대한 말할이의 심적 태도」라는 정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말할이를 주체가 되어 월의 내용에 대해 갖는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게 되는, 주체적·작용적인 측면에서의 정의이다.
또 하나는 H. Sweet(1891) 등에서와 같이, 「주어와 술어 간의 제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형태」 혹은 「월 (혹은 발화)의 내용과 현실과의 제관계를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제 형식」이라는 정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월의 내용과 현실과의 관계, 혹은 주어와 술어와의 관계와 같은, 객체적·대상적인 측면으로부터 규정하는 방법이다. 工藤 浩(1989) 참조.

나아가, 그러한 풀이말의 재와의 호응관계에 따라, 말재어찌씨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가르고 있다. [1]

가. 풀이말에 단정(斷定)을 요구하는 어찌씨

①. 긍정적

a. 세게 함(強調的, 力說的) : 과연, 과시, 딴은, 진실로, 실로, 모름지기, 물론, 무론, 이례이, 이례로, 확실히, 정말, 참말

b. 틀림없음(斷定的, 必然的) : 斷然코, 꼭, 반드시

c. 비김(比較的) : 마치, 천성 (天成), 천연 (天然), 똑

②. 부정적 : 決코, 조금도, 털끝마치도

나. 의혹(疑惑)이나 가설(假說)을 요구하는 어찌씨

①. 풀이말에 의심스러운 말(疑惑, 質問, 反語 등)을 요구 : 왜, 어찌, 설마, 하물며

②. 풀이말에 추측의 말을 요구 : 아마, 글세

③. 가설(假設), 조건(條件)을 보임 :

a. 가설(假設) : 만약, 만일

b. 가용(假容) : 設令, 設使, 假使, 假令, 비록, 아무리, 암만

다. 바람(願望)을 보이는 어찌씨 ;

①. 풀이말에 마침법의 시킴꼴(命令形)을 요구 : 제발, 아무쪼록, 부디

②. 이음법의 거짓삼기매는꼴(假定的拘束形)을 요구 : 제발, 아무쪼록, 부디

이 말재어찌씨의 갈래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풀이말에 어떤 씨끝을 요구하는가에 따른 것이다. 假設條件의 씨끝을 요구하는 (나-③-b)와 이음법의 거짓삼기매는꼴(假定的拘束形)을 요구하는 (다-②)를 제외한 다른 모든 어찌씨의 경우에는, 월의 끝에 마침법의 씨끝을 요구한다.

한편, 중세국어의 어찌씨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의 어찌씨와 말재 간의 호응관계에 주목한 연구로는 이숭녕(1981)과 이승욱(1967), 남풍현(1971a, 1971b)을 들 수 있다.

이숭녕(1981:412~421)에서는, 앞서 언급한 최현배(1983)에서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어사(語辭) 간의 호응」에 주목, 현대어보다 15세기가 더 한층 뚜렷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명사의 격·후치사와 술어의 활용」, 「부사와 술어」 등의 호응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어찌씨가 술어와 호응하는 것으로서는 다음의 예를 볼 수 있다.

①. 명령법(ᄒᆞ라)·당위법(홀띠니라)·가능법(호리라)과 호응 : 반ᄃᆞ기

②. 가상법(假想法)의 {-거니/-어니 … -리오/-리여/-리잇고}의 구문과 호응 : 엇뎨, ᄒᆞ물며 등

③. {-곤(-온)/-거늘/-리어니 … -ᄯᆞ녀/-려/-리오}의 구문에 호응 : ᄒᆞ물며

(1). 「우리말본」(1937:817~819;1983:599~601)을 참조 바람.

한편, 이승욱(1967:13～14)에서는, 중세국어의 「진술부사」에 대해 「서술의 양식(樣式) 혹은 방식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어찌씨와 서술방식 사이에 일률적은 아니라도 논리적인 호응(concord) 관계로 성립된다고 보고, 진술부사를 구체적으로 다음의 둘로 나누고 있다.

①. 서술을 단정으로 이끄는 것
   a. 단정·필연성 : 모ᄃᆡ, 모로매
   b. 서술을 강조·역설 : 오직, 굿, 곳
   c. 부정의 단정 : 몯
②. 의혹(疑惑)이나 가정(假定)을 요구하는 것으로, 서술을 의문·추측·가설로 만듦 : 오히려, 엇디, ᄒᆞ물며, 매, 비록, 시혹

15세기 국어의 어찌씨의 호응관계 형성에 관해 가장 치밀하게 기술하는 동시에, 그러한 호응관계의 성격 및 유래를 밝히는 연구로서, 남풍현(1971a;1971b)을 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남풍현(1971a)에서는 「ᄒᆞ다가」와 「① -면, ② -거든, ③ -어도, ④ -올뎬 , ⑤ (ᄒᆞᆫ이)ㄴ 」 등과의 호응관계를 지적, 중국어의 문법적 영향으로 생겨 잉여적인 중복 표현으로 쓰이던 「ᄒᆞ다가」가 15세기에 고유국어의 가정법의 어미와 안정된 호응관계를 이루게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남풍현(1971b)에서는, 중국어의 통사 유형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국어에는 없던 새로운 자립형태가 등장, 이 자립형태가 중국어의 어순에 따라 배열됨으로써, 국어문법에 새로운 유형이 발달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 그러한 월의 유형을 다음의 셋으로 나누고 있다.

중국어로부터 차용하거나 영향을 받아 생긴 자립형태를 A, 그에 대등한 기능을 가진 고유어의 의존형태를 B라 할 경우, 그 세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①. A ··············B
②. ·······B, A······
③. ·······B······A·······B········

위의 ①은, 중국어의 영향에 의한 자립형태가 월이나 마디의 첫머리에 앞서고, 그와 동등한 기능의 고유어의 의존형태가 월이나 마디의 끝에 뒤따르는 것을 뜻한다.

②는, 고유어의 의존형태가 앞서고, 그 바로 뒤에 차용된 자립형태가 뒤따르는 형식이며, ③은 고유어의 의존형태가 차용 자립형태의 앞뒤에 나타남을 가리킨다.

남풍현(1971b)은, ①의 유형을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중국어의 영향에 의한 월 유형이 국어에 통합됨으로써 생기게 된 어사(語辭) 간의 호응관계를, 「ᄒᆞ다가, 비록, 어루, 시러, 能히, 可히, 足히, 반ᄃᆞ기, 당당이, 모로매, 모ᄃᆡ, 구틔여, 오직, 다문, 다민」 등의 구체적인 어찌씨를 들어 매우 소상히 논의하고 있다.

남풍현(1971a;1971b)은, 현대 국어에 보이는 어찌씨와 씨끝과의 호응관계의 많은 부분이, 중국어와의 접촉에 의한 차용의 결과임을, 15세기의 국어의 분석을 통하여 밝혀 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그러한 호응관계를 지닌 어찌씨들이 국어애 편입되어 안정된 자리를 잡았다고 할 경우에, 당시의 국어의 어찌씨의 체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자리에 속하게 되는지에 관한 분석에까지는 이르지 않아, 문제로 남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현대국어에 관한 최현배(1983), 15세기의 국어에 관한 이숭녕(1981)과 이승욱(1967), 남풍현(1971a, 1971b)에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어찌씨가 월에 있어서 다른 어사(語辭)와 호응하는 경우에 풀이말의 씨끝과 호응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어찌씨와 호응하는 씨끝은 반드시 고정적인 구조를 가진 월의 형식을 이루게 되며, 최현배(1981)에서와 마찬가지로, 본고에서는 바로 이것을 「말재」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월의 말재와 호응하는 어찌씨가 바로 국어의 「말재어찌씨」의 범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15세기 국어에서와 같은 호응관계가 과연 16세기의 국어에서도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호응의 특성을 지니는 어찌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한 이들은 말재와 어떤 양상의 호응관계를 보이는가에 대한 고찰을 통해, 16세기의 이들 말재어찌씨의 체계를 세움으로써 16세기 국어의 통어론의 기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된다.

Ⅱ-2-1. 호응과 공존

한편, 「호응(呼應)」과 「공존(共存)」(1)은 모두 월을 이루는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유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 둘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1). a. 거기에 그가 산다.
b. *거기에 학교가 산다. (2)

(1~2)의 각 예문에서 (a)의 월은 문법적으로 바르지만, (b)는 문법적으로 옳지 못하다. 「언어학사전」의 설명을 빌자면, (1a)의 「그」와 「산다」는 공존관계를 지니지만, (1b)에서는 움직씨 「산다」가 무정(inanimate)의 이름씨를 취할 수 없다는 공존관계 혹은 선택제약(selectional restriction)에 의해 옳지 못한 월이

(1). 「공존」 혹은 「공기」(cooccurrence)」관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요소가 문법적인 이탈성을 일으키지 않고 다른 요소와 동일한 문장, 구, 단어 안에서 나타날 때」 그 두 요소는 공존관계를 갖는다고 정의된다. (이정민·배영남 공저, 「언어학사전(개정증보판)」, 박영사, 1987, 서울, 224쪽 참조)
(2). 예문(1)은 「언어학사전」(1887;개정증보판), 224쪽」에서 따온 것이다.

된다.

그러나, 다음의 (2~3)은 위의 예와 다른 이유로 옳지 못한 월이 된다.

(2). a. 어서 가십시오.
b.* 어서 가십니까?
(3). a. 비록 힘들더라도 해 보겠습니다.
b.* 비록 해 보겠습니다.

(2)에서와 같이, 어찌씨 「어서」가 시킴월에 나타날 때(2a)는 자연스럽지만, 물음월에 나타날 때(2b)는 잘못된 월이 되고 만다.

(3)의 예문은 둘 다 씨끝 {-습니다} 에 의한 서술월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3b)는 홑월의 구조로, (3a)는 이음겹월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1) 이 경우, (3b)의 월이 비문이 되는 이유를 공존관계에 의한 제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3b)의 구성요소 모두가 (3a)에도 나타나 공통되어 있기 때문이다.

(3)의 어찌씨 「비록」이 월의 어느 요소와 호응하고 있는가는, (3b)가 옳지 못한 월이 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비록」은 (4b)에 보이는 것과 같은, 특정한 이음씨끝과 반드시 함께 나타나야만 바른 월을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1)과 (2~3)을 모두 「공존」 현상으로 설명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2) 그러나, 「공존」관계를 두 요소가 동일한 층위(여기에서는, 월)에 같이 나타나는가 같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선택적 제약이라고 한다면, 「호응」관계는 단지 공존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선택관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 적극적인 결합력을 지닌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이라 함은, (2~3)의 어찌씨 「어서, 비록」을 중심으로 볼 때, 이 어찌씨들은 그 뒤에 어떤 특정한 문법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함을 뜻한다. 이 두 요소 간의 관계는 의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를 양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호응」은 질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공존제약에 의한 표현이 자주 되풀이되어 쓰이는 동안에, 굳어져 특정한 문법형식에 의하지 않으면 어찌씨가 나타날 수 없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호응」은 「공존」 혹은 「공기」를 포함하는 것이나, 「공존제약」만으로는 모든 호응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관점에 선다.

Ⅱ-2-2. 말재의 호응 양식

말재어찌씨의 이러한 질적인 관계의 호응은, 풀이말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

(1). 이 글에서 쓸 갈말의 거의 대부분, 특히 씨의 갈래, 씨끝의 갈래, 월의 짜임에 관한 갈말들은, 최현배(1983), 허웅(1975;1989)에 준거하여 쓰기로 한다.
(2). 중세국어의 어찌씨에 관한 연구 중, 어찌씨와 피수식어의 공존관계에 주목한 것으로는 고정의(1985), 어찌씨와 피수식어·서법성과의 공존관계에 주목한 것으로는 김택구(1984) 등을 들 수 있다.

가 가장 주되며, 월의 서법적인 의미 형성에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토씨와 호응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한 월성분, 셈숱말, 월 전체와 호응하는 경우로 나타난다.

①. 네 모로매 일즈시 오나라<老下56b2>
②. ᄒᆞ다가 거려 제도 아니면 어느 저긔 여희여 나리오<初發80b3>
③. 神의 格홈을 可가히 度디 몯ᄒᆞ곤 ᄒᆞ물며 可가히 射ᄒᆞ랴<中庸16b05>

①에서는, 어찌씨 「모로매」가, 시킴법의 씨끝 {-으라}와 호응하여 월에 나타난 예이다. 말재어찌씨의 가장 큰 특징은 ①에서와 같이, 월의 의향법(1)의 씨끝과 호응, 나타날 수 있는 월의 유형에 제약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뒤집어 말하자면, 이와 같은 말재어찌씨가 월에 나타나면, 월의 의향법에 제한을 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뒤따르는 풀이말의 씨끝의 종류가 제한되게 된다는 것이다.
②는, ①과는 달리, 어찌씨 「ᄒᆞ다가」가, 뒤따르는 이음씨끝 {-으면}과 호응하는 예이다. ③의 경우에는, 어찌씨 「ᄒᆞ물며」가 월의 이음씨끝 {-곤}과 호응하는 예이다.
이 때의 「ᄒᆞ다가」나 「ᄒᆞ물며」 역시 반드시 그 호응하는 이음씨끝의 종류에 제약을 받는다.
이와 같이, 어찌씨가 월에 나타날 경우, 반드시 특정한 씨끝의 종류에 제약을 받거나 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①~③은 공통된 양상을 보인다.
①~③의 어찌씨들은, 씨끝과의 호응 면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지니는 반면, 그 호응 상대가 되는 씨끝이 의향법의 씨끝인가 (①) 이음법의 씨끝인가 (②, ③) 에 있어서, 그 성격을 달리 한다.
①의 부류에 속하는 어찌씨들은, 홑월에 나타나 그 풀이말의 의향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겹월의 구조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에, 마침마디(뒷마디)의 의향법의 씨끝과 호응한다.
②와 ③의 부류에 속하는 어찌씨들이 이음법의 씨끝과 주로 호응한다는 것은, 이 부류의 어찌씨들은 언제나 겹월 구조에 나타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②와 ③의 어찌씨들은, 겹월 구조에 나타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성격이 일치하지만, 월에서 어찌씨가 서는 자리가 서로 다르다.
즉, ②의 어찌씨는 겹월의 딸림마디(앞마디)에 나타나, 그 딸림마디의 풀이말의 이음씨끝과 호응하는데 비해, ③의 어찌씨는 원칙적으로 겹월의 으뜸마디(뒷마디)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②의 어찌씨는 뒤따르는 이음씨끝과 호응하는 데 비해, ③의 어찌씨는 그에 앞선 이음씨끝과 호응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1). 「의향법」의 정의 및 「마침법의 서법체계」에 관해서는, 허웅(1975) 및 김석득(1989)을 참조.
특히, 김석득(1989:7)에서는, 「서법」을 「말하는 주체가 행위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정의, 의향법에만 국한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④. ᄒᆞ다가 므ᄅᆡ 됴흠 구주므란 살 님재 제 보고 ᄒᆞ다가 므ᄅᆡ 來歷이 不明ᄒᆞᆫ 일라ᄂᆞᆫ ᄑᆞᄂᆞᆫ 님재 흔은자 맛ᄃᆞ리니<老下17a1, 3;19b1>

한편, 위의 ④에서는, 앞의 ①~③에서 본 바와 같은 씨끝의 형태로는 그 호응양식을 설명할 수 없는 예이다. 「ᄒᆞ다가」가 월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V-1)에서 살펴볼 것처럼, 언제나 그 딸림마디에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를 지닌 이음씨끝을 요구한다.

그런데, ④에는 그러한 부류의 씨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보조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씨끝 대신 도움토씨 {-으란, -으라ᄂᆞᆫ}에 의해서, 월의 가정적 의미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토씨에 의한 보조적인 말재의 표현 방법은, 매우 국한된 현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말재어찌씨와 호응관계에 가까운 말본적인 쓰임을 보인다는 것은 확실하다.

또한, 다음의 ⑤~⑦에 나타난 어찌씨 「그저, 거싀, 대가ᄒᆞᆫ디」의 경우에는, 앞의 ①~④에 나타난 바와 같은, 씨끝이나 도움토씨에 의한 호응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⑤. 우리 그저 뎨 드러 자고 가져<老上10b2>

⑥. 나ᄉᆞ가 거싀 ᄉᆞ십리만 ᄡᅡ해 다ᄃᆞ라<老上29b9>

⑦. 대가ᄒᆞᆫ디 져그나 좀곳 자면 ᄅᆡ싈 좀 낟브디 아니ᄒᆞ리라<老上57a3>

실제로는, ⑤~⑦의 경우에도, 어찌씨와 월의 의향법의 씨끝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제약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거의 아무런 제약이 없다.

오히려, ⑤의 경우에는 어찌씨에 뒤따르는 성분, 즉 위치말로 쓰인 「뎨」가 없는 경우에는 월의 뜻이 바뀌거나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많다. ⑥에서도, 어찌씨 「거싀」는 바로 뒤에 나타나는 셈숱말 「ᄉᆞ십리」와 호응한다.

그러나, ⑦의 경우에는, ⑤와 ⑥ 어느 것과도 다른 쓰임을 보인다. 즉, ⑦에서는 어찌씨와 호응하는 성분 혹은 대상을 형식적인 면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⑦에서는, 월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월에 진술된 사실이 일반성을 지닌 사실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우, ⑦에서 어찌씨 「대가ᄒᆞᆫ디」가 호응하는 대상을 찾아내는 것은, 결국 의미론적인 해석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말재어찌씨와 씨끝 · 토씨 · 월성분 등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말재와의 호응관계는, 그 호응도(결합력)의 강약의 문제이기도 하다.

①~③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어찌씨와 말재형식의 씨끝 (의향법 및 이음법의 씨끝) 과의 호응관계는 그 결합력이 가장 긴밀하다.

이러한 호응도(결합력)의 긴밀성은, 월에 나타나는 용례에 있어서의 빈도에 반영된다. 즉, 호응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혹은, 동일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종류의 씨끝이 빈번히 나타난다.

이것은, 호응하는 씨끝 범주가 좁으면 좁을수록, 호응하는 씨끝의 수가 적으

면 적을수록, 어찌씨와 씨끝의 호응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을 뜻한다.

이에 비하면, ④는 빈도도 낮을 뿐더러, 매우 특수한 쓰임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말재의 표현양식의 한 보조적인 수단이라 할만하다.

⑤~⑦은, ①~③과는 달리, 월의 씨끝과는 적극적 호응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호응도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⑤~⑦의 어찌씨는, 월의 일정한 풀이말의 형식과는 적극적인 호응현상을 보이지는 않더라도, 넓은 의미의 서술월에 국한된 서법상의 제약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Ⅱ-2-3. 말재와 말재어찌씨의 갈래

앞의 (Ⅱ-2-2)에서 언급한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월의 말재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어찌씨는, 월의 으뜸마디의 풀이말에 나타난 의향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어찌씨와, 딸림마디의 풀이말의 이음씨끝과 호응하는 어찌씨로 나뉜다. [1]

이음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어찌씨들에 있어서는, 그 자신이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서는가 뒷마디에 서는가에 따라 구별된다.

한편, 월의 서법적 제약을 그다지 적극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어찌씨 중에는, 월의 특정성분이나 셈숱말과 호응하는 것과, 월의 사실내용 전체를 한정(限定)하는 어찌씨들이 있다.

월의 으뜸마디의 풀이말의 의향법씨끝이 나타내는 말재와 호응하는 어찌씨는, 말할이의 태도가 들을이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월의 진술내용(사실)과 현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가에 따라서 다시 하위분류된다.

이들 어찌씨들이 구체적으로 의향법의 어떠한 범주와 호응할 수 있는가 하는, 호응 가능성에 따라 살펴 나가기로 하자.

Ⅱ-2-3-1. 당위·시킴의 말재

다음의 어찌씨들은, 으뜸마디의 풀이말에 시킴법의 씨끝을 요구하는 일이 가장 두드러진 것들이다.

(1). 네 모로매 일ᄌᆞ시 오나라<老下56b2>[2]

---

(1). 이들 갈말에 대해서는, 허웅(1983:247~281)을 참조 바람.

(2). 본고에서 중세국어의 용례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전을 표하되, 약호 뒤에 숫자로, 문헌에 나타나는 쪽을 나타낸다. 그리고, 쪽의 앞장을 a, 뒷장을 b로 쓰고, 그 뒤에 어찌씨가 나오는 줄(행)을 표시하기로 한다.
한편, 15세기의 「삼강행실도」 및 16세기의 「속삼강행실도」의 용례를 인용하는 경우, 쪽수 세 자리 중 첫자리의 숫자 1은 「효자도(孝子圖)」, 2는 「충신도(忠臣圖)」, 3은 「열녀도(烈女圖)」를 각각 뜻한다.

(2). 믈읫 ᄌᆞᆫᄒᆞᆫ 사ᄅᆞᆷ과 당샹읫 사ᄅᆞᆷ이 일 업시셔 져믄 사ᄅᆞᆷ의 집의 가되 닙고젼 오ᄉᆞᆯ 니브라<呂氏18a04-05/鄉約20a9>
(3). 죽 ᄡᅮ워 아므라나마나 골픈 ᄃᆡ 머그라<老上54a8>
(4). 쉬이 져를 고틸 거시니 구틔여 골 ᄇᆞ티기 말라<朴通13b2>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킴법의 씨끝에 의한 「시킴(命令)」의 말재와 호응하는 것을 가장 주된 기능으로 삼는 어찌씨들이 먼저 이 부류에 든다.

뿐만 아니라, 다음의 {-올디니라, -올거시라}와 같은, 서술법의 씨끝에 의한 월이, 의미상으로 「당위(當爲)」를 나타내는 경우, 이들 어찌씨가 적극 호응한다.

(5). 모미 재홧 근본이라 반ᄃᆞ기 ᄌᆞ조 뮈디 마롤디니라<初發56a6-7>
(6). 후에 ᄉᆡᆼ신 비호리ᄂᆞᆫ 맛당이 가ᄉᆞ매 담아 일티 마롤디니라<小八08b3>
(7). 믈읫 사ᄅᆞ믜 집의 드러가 사ᄅᆞ믜 글월을 보디 아니홀 거시라<小八22b3>

이 부류의 어찌씨가 {-ᄂᆞ니라} 등으로 대표되는 서술법의 씨끝에 의해 드러나는 「단정(斷定)」의 의미와 호응하는 경우가 있다.

(8). 이런 거ᄉᆞᆫ 모로매 화란이 좃차 잇ᄂᆞ니라<小十16a4>
(9). 德이 孤티 아니ᄒᆞᆫ디라 반ᄃᆞ시 隣이 인ᄂᆞ니라<論一38a09>
(10). 믈읫 음식 머고매 골히여 ᄇᆞ리며 머그며 호미 올티 아니ᄒᆞᄂᆞ니라<小八23a2>
(11). 내 아ᅀᆡ 일 죽고 다몬 ᄒᆞᆫ ᄌᆞ식이 이시니 리예 졀ᄉᆞ케 몯홀 거시니 오직 당당이 내 ᄌᆞ식을 ᄇᆞ릴 거시로다<小九071b3>

용례에 있어서는 그리 빈번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다음의 예와 같이, 어찌씨가 (서술법의 씨끝에 의해 드러나는) 말할이의 「의지(意志)」를 나타내는 월에 나타나는 예가 여기에 속할 것이다.

이 부류에는, 「모로매/모로미/모롬애/모롬이」, 「반ᄃᆞ시/반드시/번드기/번득」, 「믈읫/믈의/몰의」, 「맛당이/맛당히」, 「의식」, 「모ᄃᆡ」, 「구틔야/구틔여/구ᄐᆡ여」, 「굿」, 「굿드리」, 「당당이」, 「응당히」, 「필연」, 「감히」, 「아므라나마나/아므려나/아마려나」, 「어셔」 등의 어찌씨가 속한다.

Ⅱ-2-3-2. 현실인식의 말재

현실인식의 말재에는, 월의 진술내용에 대해, 그 사실성 등의 판단을 드러내는 경우와, 말할이의 예상 혹은 기대 대로 실현되었는가의 여부를 나타내는 쓰임이 두드러진다.

이때, 이러한 말재와 호응하는 어찌씨는, 의향법의 씨끝에 의한 말재와 호응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는, 앞의 「당위・시킴」의 말재어찌씨와 동일한 범주에 속

한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시킴 · 당위」 등의 서법적 의미와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

「말할이의 평가」란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월의 진술내용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어찌씨로서, 여기에는 「진실로」, 「실로」, 「정히」가 속한다. 이러한 진술내용의 사실성의 평가를 나타내는 어찌씨는, 주로 월의 마침법의 씨끝과 호응관계를 이루는데, 서술월과 강조 · 영탄법의 월과의 호응이 가장 빈번하다. 시킴법과 꾀임법과 호응하는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월의 진술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내용 자체에 대해 말할이가 보이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찌씨가 있는데, 여기에는 「속절업시」가 속한다.

이 어찌씨의 월에 있어서의 호응관계는 「사실성의 판단」을 나타내는 어찌씨와 크게 다르지 않다.

(12). 아젼의 도족ᄒᆞᆫ 거슨 젹디 아니ᄒᆞ니 일로 큰 죄롤 니보미 진실로 에엿브니라〈小七28b5-6〉
(13). 저희네는 진실로 잡사룸 아니라〈老上52a2〉
(14). 해 내 졍히 일즉 아디 몯 호라〈朴通66b9〉
(15). 네 그저 풀 갑슬 니ᄅᆞ라 속졀업시 간대로 갑슬 바도려 ᄒᆞ노괴여〈老下10b2〉
(16). 진실로 뎌리도록 만히 됴ᄒᆞᆫ 은이 업세라〈老下63b5-6〉
(17). 오ᄂᆞᆯ 비 오니 졍히 바독 두미 됴토다〈朴通22b5〉
(18). 王이 笑ᄒᆞ고 ᄀᆞᆯᄋᆞ샤ᄃᆡ 이 진실로 엇던 ᄆᆞᄋᆞᆷ이런고〈孟一21b01-02〉
(19). 네 졍히 므슴 비단 ᄒᆞ고져 ᄒᆞᄂᆞᆫ다〈老下26b6〉
(20). 므슴 속졀업시 겻고료〈老下63a4〉

이들 어찌씨는 특히, 마침법의 씨끝 중 서술법(12~14), 강조 · 영탄법(15~17)[1], 물음법의 씨끝(18~20)과 호응하여, 월의 진술내용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드러낸다.

한편, 다음의 (21~24)의 경우에도, 서술법과 강조영탄법의 말재와만 호응하는 어찌씨들을 볼 수 있다.

(21). 나쟈 바먀 셔긔 나ᄂᆞ니 과연 긔이ᄒᆞ도다〈朴通68a8〉
(22). 네 네 손ᄂᆞᆯ 더 두면 마치 됴ᄒᆞ리로다〈朴通23a8〉

---

(1). 넓은 의미로 본다면, 안맺음씨끝 {-아/어-, -거-, -도-, -노-, -다-, -샤-, -소-} 등에 의해 표현되는 「강조 · 영탄법」은, 「서술법」과 같은 층위의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허웅(1990:402~414) 참조.
그러나, 말재어찌씨 중 특히 「기대 · 예상의 실현」을 나타내는 어찌씨들과 같이, 강조 · 영탄법의 안맺음씨끝을 동반한 의향법의 씨끝과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적인 서술법의 서법과 구별하여 하나의 의미범주로 설정하는 편이 오히려 간결한 기술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법상의 의미적인 면에서 본다면, 특히 느낌을 나타내는 서술법의 씨끝 {-은뎌, -올쎠/-을셔, -고나, -고녀/-오녀, -ᄂᆞ매라} 등과 함께 이들 강조 · 영탄법의 안맺음씨끝을 동반한 씨끝은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 이 ᄒᆞᆫ가짓 치ᄉᆞ 맛다 / ᄒᆞ므시 됴타<老下32a9>
(24). 오ᄂᆞᆯ 아ᄎᆞᄆᆡ 가티 울오 ᄯᅩ ᄌᆞ칙 입ᄒᆞ디[?더]니 과연 아ᄉᆞ미 오고 ᄯᅩ 유뮈 오나다<老下04b2>

이들 어찌씨들도, (12~20)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월의 의향법의 씨끝과 호응관계를 이루는데, 언제나 강조·영탄법(21~23)과 서술법(24)의 의향법에 국한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여기서는, 월의 내용을 말할이의 이미 앞서 이루어진 예상이나 기대에 비추어, 그 기대나 예상이 그대로 실현되음을 나타내는 의미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를 「기대·예상 실현」의 말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호응하는 말재어찌씨로는, 「과연/과연히/과연/과연히」, 「마치/맛치」, 「ᄒᆞ므시」 등이 속한다.

(25). 큰 소ᄐᆡ 믈 두 말을 다마 집 가온ᄃᆡ셔 ᄉᆞᄆᆞ 환올 달히면 그 毒이 能ᄂᆞᆼ히 모딘 긔운을 업게 ᄒᆞᄂᆞ니라<簡易04b1>
(26). 士ㅣ 道애 志ᄒᆞ되 사오나온 옷과 사오나온 음식을 붓그리ᄂᆞᆫ 者ᄂᆞᆫ 足족히 더브러 議티 몯 ᄒᆞᆯ 꺼시니라<論一34a02>
(27). 아랫 位예 이셔 우희 獲디 몯 ᄒᆞ면 民을 可가히 시러곰 다ᄉᆞ리디 몯 ᄒᆞ리라<中庸31b07>
(28). 兄을 宜ᄒᆞ며 弟를 宜ᄒᆞᆫ 后후에 可가히 ᄡᅥ 國人을 ᄀᆞᄅᆞ칠이니라<大學18b07>
(29). 寡人ᄀᆞᄐᆞᆫ 者도 可가히 ᄡᅥ 民을 保ᄒᆞ리잇가 地ㅣ 方이 百里라도 可가히 ᄡᅥ 王 ᄒᆞ리이다<孟一13b04>
(30). 天德을 達ᄒᆞᆫ 者ㅣ 아니면 그 뉘 能ᄂᆞᆼ히 알리오<中庸52a02>
(31). 仁에 處티 아니ᄒᆞ면 엇디 시러곰 知타 ᄒᆞ리오<論一30a10-b01>

위의 말재어찌씨는, 월의 으뜸마디의 서술법의 씨끝(25~28) 및 물음법의 씨끝(29앞월의 예, 30~31)과 호응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삼는다.

한편, 이들 어찌씨들은, 위의 (30~31)과 같이, 물음법의 월에서는, 「반문(反問)」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어찌씨들이 서술법의 월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예에 있어서, 주어진 행위나 사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단정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이러한 말재를 「가능(可能)」의 말재로 부르기로 하자.

「가능의 말재어찌씨」가 시킴법의 월에 나타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으나, 일부 다음과 같은 쓰임이 보인다.

(32). 공경ᄒᆞ며 삼가 ᄃᆞᆫ걷녀 ᄡᅥ 바텨 가히 죠고매도 즐겨 ᄒᆞ여 셜워 ᄒᆞᄂᆞᆫ 렴을 두디 말라<警民02a09>

여기에 호응하는 어찌씨로는, 「가히/가이」, 「능히/릉히」, 「족히」, 「시러/시러곰」, 「어루」, 「좀히」 등이 있다.

한편, 다음의 어찌씨가 월에 나타나면, 반드시 월의 으뜸마디에 물음법의 씨

끝을 요구하여 반문으로 해석되거나, 혹은 지움월(否定文)을 요구한다.

(33). 내 다ᄅᆞᆫ ᄆᆞ숨곳 머그면 엇뎨 남지늘 ᄯᅡ 아래 가 보료<續三324a08>
(34). 몃 사ᄅᆞ미 공문리예 득도ᄒᆞ얏거든 너ᄂᆞᆫ 엇디 당샹고 취 듕에 륜회 ᄒᆞᄂᆞ다<初發40a4>
(35). 네 나히 한 ᄠᅳᆺ ᄒᆞ니 어ᄂᆞ 내 슈례ᄒᆞᆯ고<老上63b8>
(36). 政을 行호ᄃᆡ 獸를 率ᄒᆞ야 人을 食홈애 免티 몯 ᄒᆞ면 어ᄃᆡ 그 民의 父母 되옴이 이시리잇고<孟一12a05>
(37). 어듸 밧괴일 ᄇᆡ리 이시리오<老上53a7>
(38). 내 어듸ᄯᆞᆫ 간대엣 말 ᄒᆞ리오<老上18b5>

반문의 물음월과 주로 호응하는 말재어찌씨에는, 「엇뎨/엇디/엇뎌/엇ᄯᅦ/어ᄯᅦ/엣뎨」, 「어ᄃᆡ/어듸」, 「어ᄂᆞ/어느」, 「어느제/언제」, 「므ᄉᆞ므라/므스므라/므스므려/므스므려/므슴호려」, 「어듸ᄯᆞᆫ/어듸ᄯᅳᆫ」 등이 속한다. [1]

이들은 모두 본래 의문사로, 물음법의 씨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33~38)에서와 같이, 반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월의 진술내용에 대한 「지움」의 의미 혹은 「말할이의 강한 의지」를 의미하게 된다는 점에서 말재어찌씨의 한 부류를 이루게 된다.

한편, 다음의 (39~42)의 월에서 보는 것처럼, 언제나 지움법의 월과 호응하는 어찌씨들이 있다.

(39). 그 즁이 닐오ᄃᆡ 노의여 아니 호리이다<朴通37a5>
(40). 쉽사리 잠산 ᄒᆞ야 어즈러오믈 아쳐러 ᄒᆞᄂᆞ니ᄂᆞᆫ 결연히 일우리 업스니라 <小八38a4>
(41). 아비란 한 ᄃᆡ 무더 두고 ᄌᆞ시기 지비 ᄞᅧ난히 이쇼ᄆᆞᆯ ᄎᆞ마 몯 ᄒᆞ애라<續三106b01>
(42). ᄉᆡᆼ심도 그 혀옴 그리 혜디 마오<簡札070a02-03>

(39~42)에서는, 어찌씨 모두가 반드시 {아니, 없-, 몯, -디 말-} 등의 지움법의 형식과 호응하고 있다. 이들 지움법의 형식에 의해 드러나는 「지움」의 말재에 대응하는 어찌씨들을 「지움의 말재어찌씨」라 부르기로 하자.

이 부류에 속하는 말재어찌씨에는 「ᄂᆞ외야/노의란/노의여/뇌여」, 「ᄎᆞ마/촘아」, 「ᄉᆡᆼ심도/ ᄉᆡᆼ심이나」, 「결연히」 등이 있다. [2]

---

(1). 15세기에는 이 부류에 속하는 어찌씨로 「어드리」(何)가 쓰였으나, 본고의 조사 대상이 된 16세기의 문헌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 ᄂᆞᄆᆡ 늘근 어미ᄅᆞᆯ 치다가 乃終내 몯ᄒᆞ며 ᄂᆞᄆᆡ그에 오녀 ᄒᆞ고 고티면 어드리 世세間간애 ᄃᆞᆫ니리오<三綱105b02>
◎ 曹氏 盛ᄒᆞᆫ 저긔도 오히려 乃終내 호려 ᄒᆞ다니 ᄒᆞᄆᆞᆯ며 衰亡커니 어드리 ᄎᆞ마 ᄇᆞ리고 禽獸ㅣ 힝뎌글 내 엇뎨 ᄒᆞ리오<三綱311b17>
(2). 이 중 「ᄎᆞ마/촘아」와 「ᄉᆡᆼ심도/ ᄉᆡᆼ심이나」 등은 지움월에 나타날 뿐 아니라, 물음법의 월에 나타나 반문의 의미를 드러내는 기능을 겸하고 있다.

Ⅱ-2-3-3. 조건·양보의 말재

「조건·양보」의 말재는, 특히 이음겹월을 구성하는 조건·가정 및 양보의 의미를 지닌 이음씨끝에 의해 표시된다.

이 점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의 의향법(마침법)의 씨끝에 의해 드러나는 말재와 호응하는 어찌씨들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이 부류의 어찌씨는 다시, 호응하는 이음씨끝의 종류에 따라, 「조건·가정」의 말재어찌씨와 「양보·대조」의 말재어찌씨로 나눌 수 있다.

(43). ᄒᆞ다가 免帖곳 업스면 일뎡 세 번 마조믈 니브리라<老上04b9>
(44). 만이레 이리 조심ᄒᆞ야 ᄃᆞᆫ니면 곧 이 아랫 사ᄅᆞ미 노연 섬기논 이리 어니ᄯᆞ나<老下46a4>
(45). 힝혀 사라 이시면 나논 후에 ᄌᆞ식이 이시려니ᄯᆞ나<小九071b4>
(46). ᄆᆞᄉᆞ매 일숑을 져ᄇᆞ린 젼ᄎᆞ로 시혹 인도애 나면 부텨 전과 부텨 휘로도다<初發40b6>

(43~46)에 나타난 어찌씨의 공통적인 특성으로서는, 이음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형성하는 동시에 이음앞마디에 위치 한다는 점, 특히 이음법의 씨끝 중에서도 특히 조건 및 가정의 말재를 나타내는 제약법의 씨끝 {-거든, -으면} 등과의 결합이 압도적으로 빈번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이음겹월의 마침마디의 말재와과도 상당히 긴밀한 호응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47). ᄒᆞ다가 거려 졔도 아니면 어느 저긔 여희여 나리오<初發80b3>
(48). 만이레 몬져 과글이 로ᄒᆞ면 오직 제계 해홀 ᄯᆞᄅᆞ미니 엇디 ᄂᆞᆷ을 해ᄒᆞ리오<小七29a5-6>
(49). ᄒᆞ다가 ᄀᆞ장 디거든 안직 머추워 두어든 네 아모ᄃᆡ나 보라 가고려<老上70b3>
(50). 만이레 존ᄃᆡᆼ이 몰ᄒᆞ라 ᄒᆞ시거든 ᄀᆞ장 ᄉᆞ양ᄒᆞ라<呂氏20a01/鄕約23a3>
(51). 혹 눈비 오거나 ᄒᆞ거든 존ᄃᆡᆼ이 몬져 사ᄅᆞᆷ 브려 알외야 오디 말에 ᄒᆞ라<呂氏17b04/鄕約19b4>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어찌씨가 출현한 월에 있어서는 월의 끝마디에 서술법(43~45), 강조·영탄법(46), 물음법(47~48), 시킴법(49~51) 등의 서법과 호응할 수 있어, 특별한 제약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특히 {-으면, -거든} 등에 의해 표현되는 「조건(條件)·가정(假定)」의 말재와 호응하는 어찌씨에는, 「ᄒᆞ다가」, 「만이레/만일/만일에/만슬에/만이러」, 「혹/혹도/시혹」, 「힝혀/힝여」, 「가령」, 「가ᄉᆞ」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다음의 (52~58)에 나타난 어찌씨들도, 이음씨끝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형성하는 동시에 그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위치한다는 점, 겹월의 마침마디의 의향법과도 어느 정도의 긴밀한 호응관계를 이룬다는 점 등에 있어서는, 앞의

「조건 · 가정」의 말재와 호응관계를 가진 어찌씨와 공통적인 특성을 지닌다.

(52). 사ᄅᆞ미 비록 인뉴의 이시나 ᄆᆞᄉᆞᄆᆞᆫ 어리니라<父母11b04>
(53). 비록 큰 죄 업ᄉᆞ나 혼자 안호로 ᄆᆞᅀᆞᆷ애 붓그러온 주리 업ᄉᆞ라<小九051b9>
(54). 비록 죠고만 ᄯᅢ히 무굼디라도 힘써 넘어 갈라<警民11b06>
(55). ᄆᆞ슬히 급ᄒᆞᆫ 일이 이셔도 서르 가 구홀 거시니 ᄒᆞ물며 싀엄의게 잇거든 엇디 ᄇᆞ릴 것고<小九065a3>
(56). 神의 格홈을 可가히 度디 몯ᄒᆞ곤 ᄒᆞ물며 可가히 射ᄒᆞ랴<中庸16b05>
(57). 비록 내 자바 ᄒᆞᄂᆞᆫ 이리 다 올흡디라도 오히려 공순티 아니ᄒᆞᆫ ᄌᆞ식이 도외리니 ᄒᆞ물며 그 ᄒᆞ온 이리 올티 아니ᄒᆞ미ᄯᆞ녀<小七02b5>
(58). 비록 져젯 아히돌히 과ᄒᆞ여 ᄒᆞ나 도ᄅᆞ혀 일 아ᄂᆞᆫ 사ᄅᆞ매 더러이 너교미 ᄃᆞ외ᄂᆞ니라<小六26b1>

이음씨끝 {-으나, -을디라도, -곤} 혹은 {-으니}에 의해 드러나는 말재를, 「양보(讓步)」의 말재로 부르기로 한다.

그러나, 위의 용례에 나타난 말재어찌씨가, 「조건 · 가정」의 말재어찌씨와 서로 구별되는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 어찌씨의 어휘적 의미는 물론, 그 호응관계를 맺는 이음법의 씨끝의 종류가 다른 점이다.

즉, 「조건 · 가정」의 말재어찌씨」들이 조건 · 가정의 의미를 지닌 제약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양보」의 말재어찌씨는 제약법의 씨끝은 물론, 불구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을 주된 역할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 어찌씨가 이음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형성하는 경우에, 월에 나타나는 위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비록」은 그 자신이 겹월의 이음마디에 속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나(52~54), 「ᄒᆞ물며」, 「오히려」, 「도ᄅᆞ혀/도리혀/도로혀」, 「촐하리/촐히」, 「다하/다함」, 「당시론/당시예」 등은 양보법 · 비교법 등의 이음씨끝에 의한 마디를 앞세우고 뒷마디에 나타난다(55~58)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 한다.

여기에는 「비록/비로」, 「ᄒᆞ물며/ᄒᆞ믈며」, 「오히려」, 「도ᄅᆞ혀/도리혀/도로혀」, 「촐하리/촐히」, 「다하/다함」, 「당시론/당시예」 등이 속한다.

Ⅱ-2-3-4. 한정의 말재

이제까지 살펴본 어찌씨들과는 달리, 풀이말의 씨끝에 의한 말재와의 호응 현상을 보이지 않는 일군의 말재어찌씨가 존재한다.

다음의 (59~62)는, 어찌씨가 월의 「특정성분」의 출현을 요구, 이를 「한정(限定)」하는 예이다. 점선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그러한 특정성분을 가리킨다.

(59). 우리 그저 뎨 드러 자고 가져<老上10b2>
(60). 나는 그저 이리 닐오리라<老上18b8>

(61). 녀나문 ᄃᆞ리어든 수울와 과실 말오 혹 ᄒᆞᆫ갓 밥만 ᄒᆞ야두 므던ᄒᆞ니라 <呂氏31b03/鄕約37b8>

(62). 벼슬ᄒᆞᆯ 셩슈는 업다 오직 홍졍호미 맛당ᄒᆞ고 나ᄃᆞ리 흠도 원츌타 <老下71a9>

(59~62)의 어찌씨는, 월의 특정성분이 다른 대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나타낸다. 이 두 대상은 반드시 동일한 계열에 속한다. 「특정 성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월의 특정한 한 성분을 지시한다.

「특정성분 한정」의 말재와 호응하는 말재어찌씨에는, 「그저/그져」, 「ᄒᆞᆫ갓」, 「다믄/다만/다른」, 「오직」, 「특별이/특별히」, 「독벼리/독버리」 등이 속한다.

아래의 (63~66)은, 어찌씨의 한정을 받는 성분에 모두 공통적으로 셈숱말이 포함된 예이다.

(63). 여ᄉᆞᆺ 낫 면피예 ᄆᆡ ᄒᆞᆫ 나치 세 돈식 혜면 대도히 ᄒᆞᆫ 량 여듧 돈이로다<朴通32b9>

(64). 너희 대되 몃 사ᄅᆞᄆᆡ 몃 ᄆᆞᆯ오<老上67a5>

(65). 나ᅀᅡ가 거싀 ᄉᆞ십리만 ᄲᅡ혀 다ᄃᆞ라<老上29b9>

(66). 어듸 닐굽 발 ᄎᆞᆫ뇨 계우 닐굽 발 낟브다<老下29a4>

이들 어찌씨들은 비록 의향법이나 이음법의 씨끝에 의한 말재와는 호응하지 않는다.

대신, 셈숱말 이외의 특정성분(59~62) 혹은 셈숱말(63~66)의 출현을 요구하여, 이들과 의미론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매우 소극적인 호응관계 밖에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셈숱말 한정」의 말재와 호응하는 어찌씨로는, 「대되/대도히」, 「거싀/거ᄉᆞ/거시/거이/거의」, 「계오/계요/계우/겨요」 등을 들 수 있다.

이 두 부류의 어찌씨는 낱말 간의 대립적 계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월의 특정한 성분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특정한 부류의 어휘들과의 공존현상이 매우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월의 특정성분이나 셈숱말에 대한 한정에 그치지 않고, 어찌씨가 나타난 월이 나타내는 진술내용 전체를 그 한정의 대상으로 삼는 일도 있다.

(67). 이러ᄐᆞ시 서르 간슈ᄒᆞ면 곧 열분만 ᄒᆞᆫ 병이라도 닷분이나 덜리라 <老下47b2>

(68). 만이례 이리 조심ᄒᆞ야 ᄃᆞᆫ니면 곧 이 아랫 사ᄅᆞᄆᆡ 노연 셤기는 이리 어니ᄯᅡ나<老下46a5>

(69). 대가ᄒᆞᆫ디 져그나 좀곳 자면 긔실 좀 낟브디 아니ᄒᆞ리라<老上57a3>

(70). 나는 본ᄃᆡ 河南 일홈 란 진 子息이니 남지니 주그니 失節티 몯ᄒᆞᆯ 거시라<續三305a15>

「사실 한정」의 말재어찌씨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음겹월을 형성하여, 그 앞뒤 마디의 사실 간의 관계 속에서 한 사실을 한정적으로 강조하여 드러내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므로, 월에 있어서 의향법의 씨끝에 의해 드러나는 말재의 표현과의 호응 현상은 「월 전체(사실)」의 인 경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여기에는 「곧」, 「대가흔디/대개흔디/대더흔디/대더흔디/대데흔디」, 「본디/본디로/본릐」 등이 속한다.

이와 같은, 사실한정의 어찌씨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월의 마침법의 씨끝 중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서술법의 월에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인다.

씨끝에 의하여 말재가 표현될 경우에는, 이에 호응하는 말재어찌씨가 월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월에 있어서의 말재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씨끝과 어찌씨는, 서로 호응할 만한 통어론적인 성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씨끝과 어찌씨 간의 호응은 쌍방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씨끝에 의해 표현되는 말재에 호응하여 어찌씨가 수의적인 요소로 덧붙여져 나타날 수 있을 뿐이 아니라, 어찌씨가 나타남으로써 씨끝에 의한 의향법이나 이음법에 의한 말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에는, 월에서 어찌씨가 생략되더라도, 월에 나타난 구체적인 말재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 다룬 「한정」의 말재어찌씨의 경우에는, 말재어찌씨가 월에 나타나지 않는 한, 「한정」의 관계는 성립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한정」관계의 월에서는 어찌씨가 생략되면, 「한정」관계가 깨어지는 동시에 월의 의미가 달라져 버린다.

따라서, 한정의 말재어찌씨와 피한정어(被限定語)의 관계는 일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한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각 어찌씨는 모두 이 세 한정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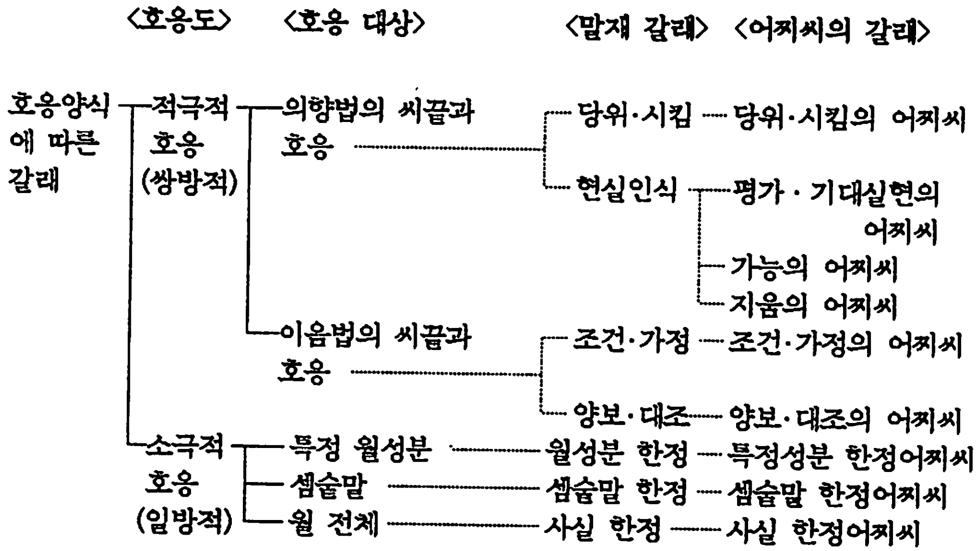
예를 들어, 「특정 월성분」의 한정어찌씨가 셈숱말과 호응하거나, 월의 진술내용 전체를 한정하는 예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반대로, 「사실」 한정의 어찌씨가 특정 월성분만을 한정하는 일 또한 적지 않다.

그렇다고 보면, 이들 세 부류의 한정 어찌씨의 갈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범주에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어찌씨의 실제의 쓰임을 보면, 셋 중의 어느 한 기능에 집중적으로 용례가 나타남으로써, 자료의 편중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각 용법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을 기본적인 기능으로 보아,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은 세 가지의 기능으로 각각 나누어서 기술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 말재와의 호응관계에 따른 어찌씨의 갈래를 간략히 표로 보이면 다음의 <표2-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2-5. 호응양식과 호응대상에 따른 말재어찌씨의 갈래



Ⅲ. 당위·시킴의 말재 어찌씨

16세기 국어의 당위·시킴의 말재어찌씨로는, 다음의 <표3-1>과 <표3-2>에 제시된 바의 어찌씨들이 있다. <표3>은 Ⅰ장에 제시한 <표2>를 더욱 정밀화하여, 이들 어찌씨들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빈도로 출현하는가를 알기 위해, 제Ⅰ장에서 언급한 문헌의 성격별로 배열한 것이다.

<표3-1>. 당위·시킴의 말재어찌씨의 문헌 성격별 분포

어찌씨 갈래		당위·시킴의 말재어찌씨														
갈래	어찌씨 약호(간행)	모로매	모로미	모롬애	모롬이	반ᄃᆞ기	반ᄃᆞ시	반ᄃᆞᆨ	반드시	번드기	믈읫	믈의	몰의	맛당이	맛당히	의식
三	綱(1490)	11														
역학	飜老(151?)	7								2	4					
	飜朴(151?)						1				2					
교화서 Ⅰ	續三(1514)	1									1					14
	飜小(1517)	55	1				25		6		22			3		2
	小學(1587)		4	7	19		151		1		41			9	33	
	孝經(1589)						2									
	論語(1590)						66									
	孟子(1590)						96				9			6	3	
	大學(1590)						9				1			1		
	中庸(1590)						14				4					
교화서 Ⅱ	正俗(1518)		7							2		1				2
	呂氏(1518)		1				3				34			2		
	二倫(1518)										1					2
	警民(1579)	8					10				2			1		
의학	簡易(1524)	1									2					
	分門(1542)	1	1								2					
불경	父母(1553)															
	七大(1569)	2				1										
	初發(1577)	27	3			10	2				2		1			
簡	札(1565)						1									
百	聯(1563)						1	3								
합 계		102	18	7	19	11	382	3	7	4	161	1	1	24	35	20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각 문헌의 성격에 따라, 이들 어찌씨들의 분포에 있어 상당한 편중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어찌씨들의 문헌상의 분포특성으로서는, 전반적으로, 교화서Ⅰ·Ⅱ에 속하는 자료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모로매, 반ᄃᆞ시, 믈읫, 맛당히, 구틔여, 감히」 등 비교적 빈도가 높은 어찌씨들이 모두 이러한 현상을 보인다. 그리고, 불경언해 중 「초발심자경」에 이 부류의 어찌씨가 많이 등장, 유사

<표3-2>. 당위·시킴의 말재어찌씨의 문헌 성격별 분포

갈래	약호(간행) \ 어찌씨	모ᄃᆡ	모ᄃᆡ모ᄃᆡ	구틔여	구틔야	구틔여	굿	굿드리	당다이	당당이	응당히	필연	감히	아ᄆᆞ라마나나	아ᄆᆞ려나	아마려나	어셔
三	綱(1490)					4	7		15								2
역학	飜老(151?)				1	3	3							3	1		
	飜朴(151?)					4	1										
교화서Ⅰ	續三(1514)					4											1
	飜小(1517)					6				1			4				
	小學(1587)					8					2		75				
	孝經(1589)												11				
	論語(1590)					1							20				
	孟子(1590)												41				
	大學(1590)																
	中庸(1590)												4				
교화서Ⅱ	正俗(1518)	1				3						1					
	呂氏(1518)					1		2									
	二倫(1518)					3											
	警民(1579)																
의학	簡易(1524)																
	分門(1542)																
불경	父母(1553)																
	七大(1569)																
	初發(1577)	6				1											
簡	札(1565)	3	1	1											19	3	
百	聯(1563)																
합계		10	1	1	1	34	4	2	0	1	2	1	155	3	20	3	1

한 특성을 보인다. 다만, 「감히」는, 교화서Ⅱ를 비롯, 다른 부류의 문헌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는, 이들 교화서Ⅰ·Ⅱ의 자료가, 문체적으로는 축자적인 한문 번역체로 되어 있으며, 내용상으로는 교훈적인 사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식, 굿, 굿드리, 당당이, 응당히, 필연, 어셔」 등은, 시기적으로 16세기 초기의 자료에 나타날 뿐, 중엽 이후의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아무라나마나/아무려나/아마라나」가, 「간찰」과 역학서의 「노걸대」에 국한하여 출현하는 것은, 이들 자료에 개인적인 부탁이나 당부를 하는 내용이 많은 때문으로 이해되며, 이는 입말체적인 문체의 반영으로 보인다.

이 부류에 속하는 어찌씨는, 말재와의 호응양식으로 보면, 뒤따르는 의향법의 씨끝과 호응하며, 의미론적으로는 특히 씨끝에 의해 표현되는 「당위」, 「단정」, 「의지」, 「당부」 등의 말재와 호응한다.

이들 어찌씨들이, 풀이말의 씨끝에 의해 표현되는 당위, 단정 혹은 의지 등의 서법적 의미 형성에 참여하므로, 시킴법과 서술법의 씨끝 중 당위의 의미를 지니는 것들과 활발히 호응하는 특징을 보여 준다.

(가). 【모로매 / 모로미 / 모롬애 / 모롬이 (須·必)】

가-0. 개관

앞의 <표1>과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어찌씨 중 「모로매」와 「모로미」는 16세기 초기의 문헌으로 부터 말기의 문헌에 이르기까지 전 시기의 문헌자료에 걸쳐 고루 분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모롬애/모롬이」의 형태는 말기의 「소학언해」 이외에서는 볼 수 없다.

이 어찌씨의 경우, 유교의 교화서류에 높은 빈도로 나타나면서도, 16세기 말기의 사서언해와 「효경언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 어찌씨와 거의 유사한 의미와 기능을 지닌 「반드시」와의 동의어 경쟁에 의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다른 문헌자료에 비해, 대화체나 입말체의 문체로 된 「박통사」(151?)나 「간찰」(1565경)과 등에는, 「모로매」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가-1. 마침법의 씨끝과의 호응

가-1-1. 시킴법의 씨끝과의 호응

「모로매」[1]가 마침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특히 시킴법의 씨끝과의

(1). 이하, 「모로매/모롬애/모로미/모롬이」를 대표할 경우에는, 가장 빈도가 높은 「모로매」를 취하기로 한다.

호응이 매우 두드러진다.

a. 모로매 … {-어라/-나라}
(1). 갈며 시므믈 모로매 일 ᄒᆞ라〈警民11b03〉
(2). 기음 ᄆᆡ기를 모로매 브즈러니 ᄒᆞ라〈警民11b04〉
(3). 지보와 ᄉᆡᆨ과ᄅᆞᆯ 보고 모로매 정념ᄋᆞ로 ᄃᆡ티 ᄒᆞ라〈初發65b3-4〉
(4). 네 모로매 미더 디녀 ᄒᆞᆫ 일도 어긔디 아니케 ᄒᆞ라〈初發46b6〉
(5). 네 모로매 일즈시 오나라〈老下56b2〉
(6). 病氣 서르 뎐염ᄒᆞ야 가문이 업게ᄉᆞ 다ᄅᆞᆫ 사ᄅᆞᆷᄋᆡ게 너주ᄂᆞᆫ 도로 모로매 미리 약도 머그며 방법ᄒᆞ야 마ᄀᆞ라〈簡易01b7/分門01b06〉

b. 모로매 … {-고려/-고라}
(7). 네 모로매 나를 ᄃᆞ려 벋 지ᅀᅥ 가고려〈老上07b9〉
(8). 아ᄆᆞ란 일 인ᄒᆞ야 우리 ᄃᆡ긔 오나든 小人을 ᄇᆞ리디 아니커시든 모로매 지부로 오고라〈老上44b9〉

「모로매」는, 위의 (a～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름지기, 반드시, 당연히」 등의 의미로 쓰여, 마침마디의 진술내용에 대한 말할이의 태도와 관련된 의미 기능을 담당한다.

'시킴월'을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기를 요구(청원)하는 방법'(1)이라고 정의할 경우, (a～b)에서 「모로매」가 관계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란, 그러한 「들을이에 대한 행위의 요구」가 절대적인 것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다음에서 보게 될 (c)에서도 마찬가지이다.

c. 모로매 … {-디 말라/마라}
(9). 모로매 존ᄒᆞᆫ 얼우ᄂᆞᆯ 어엿비 너겨 시ᄅᆞ ᄊᆞ화 ᄃᆞ토디 말라〈警民08a02〉
(10). 믈읫 시긔병 ᄒᆞᆫ 사ᄅᆞᄆᆡ 방의 드러 갈 저긔 모로미 혀롤 하ᄂᆞᆯ 우희 븓티고 힘 ᄆᆡ이 ᄡᅥ어 블감 므러 내 쉬디 마라〈分門17b02〉

(c)에서는 월의 마침마디가 지움법(否定法)으로 된 것들이다. 그런데, 지움법의 시킴월에 「모로매」가 나타날 때에는, 마침마디에 바로 나타나는 일은 드물다. (c)의 월에 공통된 바와 같이, 그 마침마디 자체가 씨끝 {-어} 에 의한 이음겹월을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이음겹월에 앞서는 「모로매」는 그 수식범위가 이음겹월의 앞마디에만 국한되는 경우와 뒷마디까지 포함하는 경우의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9)의 경우에, 어찌씨의 수식범위가 「존한 어른을 어엿비 여기는 일」과 「싸워 다투지 않는 일」 전체에 걸치는지 혹은 전자에만 국한되는지는 단언하기는 어렵다.

가-1-2. 꾀임법의 씨끝과의 호응

「모로매」가 꾀임월에 나타나는 일은 매우 드물다.

(1). 허웅(1975:516-519;1989:170) 참조.

d. 모로매 … {-져}

(11). 살 사르미 어듸 가 앏픠셔 즉재 은을 다 주리오 모로매 여러날 그숨 ᄒᆞ져〈老下58a1〉

가-1-3.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

가-1-3-1. 「당위」의 의미를 지닌 씨끝과의 호응

한편, 「모로매」가 당위(當為)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법의 월에 쓰일 때에는, 다음의 (e)에 보이는 것과 같이, 씨끝 {-올디니라/-올디라/-올디어다} 와 가장 빈번하게 호응한다.

e. 모로매 … {-올디니라/-올디라/-올디어다}

(12). 내 모매 죄장이 산과 바라 ᄀᆞᄐᆞᆫ 주를 아라 모로매 니참과 ᄉᆞ참과로 슬워 덜 주를 아롤디니라〈初發09a4〉

(13). ᄉᆞ리예 유해호미 업거든 모로매 안즉 좃촐디니라〈小七03a9〉

(14). ᄇᆡ홈은 모롬애 안졍ᄒᆞ야ᅀᅡ 홀 거시오 지조ᄂᆞᆫ 모롬애 ᄇᆡ화야 홀디라〈小學五015b04, 05〉

(15). ᄒᆞᆫ번 ᄃᆞᆫ니며 ᄒᆞᆫ번 머믈며 ᄒᆞᆫ번 좀좀ᄒᆞ욤을 모롬이 다 道理에 맛게 홈을 요구홀디니라〈小學五112a05〉

(16). 샤치ᄒᆞ고 빈난 이롤 금지ᄒᆞ야 모로매 져기 나ᄆᆞᆫ 거슬 두어 너기디 아니턴 일 나거든 ᄡᅳ몰 예비홀디니라〈小七50b5〉

(17). 이ᄀᆞ티 ᄒᆞ야 오라고 오라면…중싱올 제도ᄒᆞ야 인간과 텬상의 큰 복 바티 도외리니 모ᄃᆡ 모로미 힘 ᄡᅳᆯ디어다〈初發21a3〉

(18). 이롤 인ᄒᆞ야 도애 마쿄미 이셔 능히 나아 닷디 몯 ᄒᆞ리니 모ᄃᆡ 모로미 삼갈디어다〈初發16b6〉

(12~13)과 같이, {-올디니라/-올디어다} 가 쓰인 월이 홑월인 경우와는 달리, (14~18)과 다음의 (19)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이음겹월임을 알 수 있다. (19)에는 「모로매」가 모두 여덟 번 등장한다.

(19). 병ᄒᆞ니 잇거ᄃᆞᆫ 모로미[1] ᄌᆞ빗 무ᄉᆞ무로 간ᄉᆞᄒᆞ야 뎌히며/ 긱올 보아ᄃᆞᆫ 모로매[2] 깃거 마자 ᄃᆡ졉ᄒᆞ며/ 존댱올 맛나거ᄃᆞᆫ 모로매[3] 식식이 온공이 ᄒᆞ야 피ᄒᆞ며/ 도구롤 쟝만호ᄃᆡ 모로매[4] 검약이 족올 아라 ᄒᆞ며/…자ᄇᆞ며 노호매 모로매[5] ᄌᆞ녹ᄌᆞᄂᆞ기 ᄒᆞ야 ᄂᆞᆺ드러 돌보디 말며/ … 더러운 거슬 염코 슬ᄒᆞ여 말고 모로매[6] 좀좀코 말ᄒᆞ디 아니ᄒᆞ야 모로매[7] 잡념을 간ᄉᆞᄒᆞ여 마ᄀᆞ며/ 모로매[8] 아롤디니라〈初發05b1, 3, 4;06b3;07a1-2;07a2-3〉

(19)의 각 「모로매」는, 원문의 「須」를 충실히 옮긴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가 씨끝 {-으며} 에 의한 하위의 각 이음마디에 나타난다. 이들 각 이음마디는 다시 {-거ᄃᆞᆫ/-아ᄃᆞᆫ} ($19^{1\cdot2\cdot3}$), {-ᄃᆡ/-오매} ($19^{4\cdot5}$), {-고} (19^{6}), {-야} (19^{7}) 에 의한 이음겹월의 마침마디가 되는 복합적인 구

조로 되어 있는데, 「모로매」는 이러한 하위의 이음겹월의 마침마디에 나타난다.

(19)의 용례가 드러내는 사실은, 비록 원문의 충실한 직역에 의한 언해체의 독특한 현상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언해자의 인식 속에는 「모로매」의 의미작용이가 그 속한 마디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술법의 씨끝 {-(을 것이)라/-(을 것이)니라} 로 끝나는 월에 「모로매」가 나타나, 월의 내용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f. 모로매 … {-을 것이라/-을 것이니라}

(20). 후에 난 사ᄅᆞ미며 처엄 ᄇᆡ호ᄂᆞᆫ 또 모로매 제 氣象을 보와셔 고틸 거시라<小八14a6>

(21). 글 ᄇᆡ호ᄃᆡ 몬져 모로매 ᄲᅥ곰 ᄇᆡ호ᄂᆞᆫ 거시 므스 이런고 ᄒᆞ여 궁구ᄒᆞ여 아라…모로매 다 도리에 맛게 홀 거시니라<小八33b6;9>

(22). ᄆᆞᅀᆞᄆᆞᆫ 모로매 내 몸 얼굴 안히 이실 거시니라<小八05b5>

(23). 믈읫 모ᄃᆞᆫ ᄂᆞᆺ가오며 져믄 사ᄅᆞ미 이리 크니 져그니 업시 ᄌᆞ젼ᄒᆞ야 ᄒᆞᄃᆡ 말오 모로매 집 얼우늬게 무러 홀 거시니라<小七01a8>

가-1-3-2. 「말할이의 의지」의 의미를 지닌 씨끝과의 호응

여기에서, 「말할이의 의지」의 의미를 지닌 씨끝이라 함은, 서술법의 씨끝 중, 안맺음씨끝 {-으리-} 를 포함한 {-으리라/-으리니/-으려 (ᄒᆞ다)} 등을 가리킨다. 이를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범주로 세우는 것은, 어찌씨 「모로매」가 문법적인 호응관계를 맺는 경우에, 이들 씨끝의 결합꼴과 같이 나타나는 일이 매우 잦기 때문이다.

g. 모로매 … {-으리라/-으리니/-으려 (ᄒᆞ다)}

(24). 내 외요ᄅᆞᆯ 셩찰ᄒᆞ야 아라 샹녜 모로매 머리 여희요리라<初發04b6>

(25). 내 이 ᄉᆞᆫ숨 모시뫼 ᄌᆞᆯ면 아모 나리라 업시 모로매 너ᄅᆞᆯ 기들워ᅀᅡ 우리 도라갈 황호 사기ᄅᆞᆯ 의론호리니<老下56a9>

(26). 옥바치 ᄒᆞᆫ 빈혀를 ᄑᆞᄂᆞ니 ᄀᆞ장 공교ᄒᆞ야 모로매 돈ᄂᆞᆯ 칠십 만ᄋᆞᆯ 바도려 ᄒᆞᄂᆞ이다<小十15b9>

위의 (24~25)에서는 말할이의 의지, (26)에서는 행위의 주체자인 「옥바치」의 의지를 나타내는 월에 「모로매」가 나타나, 「반드시, 모름지기」 등의 뜻으로 쓰인다.

가-1-3-3. 「단정」의 의미를 지닌 씨끝과의 호응

그러나, 다음의 월은 반드시 「당위」(e~f)나 「말할이의 의지」(g)를 나타낸다고는 하기 어렵다.

h. 모로매 … {-ᄂᆞ니라}

(27). 술위ᄂᆞᆫ ᄆᆞ레 가면 ᄆᆞ레ᄂᆞᆫ ᄃᆞᆫ니ᄃᆡ 뭍ᄒᆞ야 모로매 ᄇᆡ로ᅀᅡ 싣ᄂᆞ니라 <老下44a4>

(28). 사오나온 일 하 ᄒᆞᄂᆞᆫ 집븐 모로미 나ᄆᆞᆫ 앙얼리 잇ᄂᆞ니라<正俗30a05>
(29). 이런 거슨 모로매 화란이 좃차 잇ᄂᆞ니라<小十16a4>

(h)의 경우, 공통적으로 월의 마침마디가 씨끝 {-ᄂᆞ니라} 로 끝나고 있다. 이때에는 월의 진술내용에 대해, 말할이가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의미가 강하게 표면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가-2.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모로매」가 이음법의 씨끝에 의해 이루어진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앞에서 살펴본 마침법의 씨끝과의 호응관계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

마침법의 씨끝과 호응한 경우에는, 그 마침법의 씨끝 (혹은, 안맺음씨끝과 결합한 꼴) 이 월 안에서 드러내는 의미적인 관계에 깊이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시킴월, 피임월, 당위·단정 및 의지의 서술월의 경우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바이다.

반면, 이 어찌씨가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음씨끝의 드러내는 의미와 호응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모로매」가 관여하는 의미 작용의 범위 (혹은, 한계) 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30). 시혹 ᄉᆞ뭇 듣ᄂᆞᆫ 혜ᄅᆞᆯ 지어 쉬온 ᄆᆞᄋᆞᆷ 내디 말고 반ᄃᆞ기 모로매 ᄆᆞᄉᆞᄆᆞᆯ 뷔워셔 드르면 반ᄃᆞ기 진긔 발ᄒᆞᆯ 쩌리 이시리라<初發14b1>
(31). 믈읫 論語와 孟子 보매 안직 모로매 니기 닑고 맛 드려 셩ᄉᆞᆫ의 말ᄉᆞᄆᆞᆯ 가져셔 내 모매 졀당케 ᄒᆞ고 다ᄆᆞᆫ ᄒᆞᆫ 바탕 말만 호미 맛당티 아니ᄒᆞ니<小八31b4>
(32). ᄇᆡᄂᆞᆫ ᄆᆞ레셔 조차 니고 무틔ᄂᆞᆫ ᄃᆞᆫ니디 몯ᄒᆞ야 모로매 술위로 시르며 술위ᄂᆞᆫ ᄆᆞ레 가면 ᄆᆞ레ᄂᆞᆫ ᄃᆞᆫ니디 몯ᄒᆞ야 모로매 ᄇᆡ로ᄡᅡ 싣ᄂᆞ니라<老下44a1;4>

위의 (30~32)의 예에서는, 각각 이음씨끝 {-으면}, {-고}, {-으며}에 의한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모로매」가 나타나 있다. 특히, (31)의 경우에는 {-고}에 의한 이음겹월 속에 다시 몇 단계의 이음겹월이 포함되는 복합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32)의 경우에는 {-으며}에 의한 이음겹월의 마침마디가 다시 {-어}에 의한 하위의 이음겹월을 형성, 그 속에 또 「모로매」가 다시 쓰이고 있다. (1)

이러한 월들의 구성으로 볼 때, 결국, 「모로매」의 의미작용은 이 어찌씨가 쓰인 이음겹월의 이음마디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

(1). 매우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월의 한 이음마디 안에 「모로매」가 겹쳐나는 것을 보여 준다.
◎ 일체 시즁에 바ᄅᆞ 모로매 방변을 모로매 더욱 힘ᄒᆞ야 디혯히ᄅᆞᆯ ᄡᅥ 제 ᄀᆞ장 마가 간ᄉᆞ홀디언뎡…삼계예 소사날 길흘 구코져 호미 엇디 올ᄒᆞ리오<初發19b5>

「모로매」는,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관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위의 의미를 드러내는 이음씨끝 {-올디니}와 호응하는 일이 많다. 이때, 「모로매」의 의미 작용 범위는, 월의 끝마디 전체에 걸치는 경우(33)와, 이음겹월의 앞마디나 뒷마디에만 국한되는 경우(34)로 나뉜다.

i. 모로매 ··· {-올디니}

(33). 오래 사괴오져 홇딘댄 모로매 공경ᄒᆞ욜디니 님금과 신하와 벋괘 다 공경ᄒᆞ기로 웃드믈 사믈디니라<小七45a5>

(34). 두루 ᄃᆞ니며 ᄀᆞ마니 이쇼매 모로매 어딘 버들 ᄒᆞ야 몸과 ᄆᆞᅀᆞᆷ과ᄋᆡ 가시ᄅᆞᆯ 골히야 ᄇᆞ룔디니<初發60a3>

(35). 그러나 ᄯᅩ 모로매 강면ᄒᆞ야 슈고로이 ᄒᆞᄂᆞᆫ 주를 어버ᅀᅵ 아디 몯ᄒᆞ시게 홀디니<小七04a3>

(36). ᄯᅩ 남진 얼유믈 모로매 내 집두곤 더으니로 홀디니<小七34a6>

(37). 며ᄂᆞ리 어두믈 모로매 내 집만 몯 ᄒᆞ니ᄅᆞᆯ 홀디니<小七34a8-9>

(38). 믈읫 말ᄉᆞ믈 모로매 튱후코 믿비 ᄒᆞ며 ᄒᆡᆼ뎍을 모로매 독실코 공경ᄒᆞ며 음식을 모로매 삼가고 존졀ᄒᆞ며 글ᄌᆞ굣 그ᅀᅵᄅᆞᆯ 모로매 반ᄃᆞ반ᄃᆞ기 졍히 ᄒᆞ며 양ᄌᆞ고ᄅᆞᆯ 모로매 단졍ᄒᆞ고 엄졍히 ᄒᆞ며 관ᄃᆡᄅᆞᆯ 모로매 싁싁고 졍졔히 ᄒᆞ며 거름거리며 밠 드듸기ᄅᆞᆯ 모로매 안셔히 샹심ᄒᆞ야 ᄒᆞ며 잇ᄂᆞᆫ 싸홀 모로매 졍다이 ᄒᆞ며 젹졍히 ᄒᆞ며 일ᄒᆞ기를 모로매 처ᅀᅥᆷ믜 ᄀᆞ장 ᄉᆡᇰ각ᄒᆞ며 말ᄒᆞ기ᄅᆞᆯ 모로매 ᄒᆡᆼ실ᄅᆞᆯ 도라보아 ᄒᆞ며 덛덛ᄒᆞᆫ 덕글 모로매 구디 자브며 그리호마 호믈 모로매 ᄃᆡ답을 므거이 ᄒᆞ며···홀디니<小八16a7;8;9;9-b1;b5;6;7;8;17a4;5;6>

(33)의 경우, 「모로매」는 이음씨끝 {-올디니}에 의한 이음마디 뿐만 아니라, 월의 마침마디의 {-올디니라}와도, 의미적으로 호응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38)의 경우는 앞의 (19)의 예와 마찬가지로, 각 이음마디에 의한 복잡한 이음겹월의 예로서, 역시 「모로매」의 한정의 범위를 이 월 전체라고 하기가 어렵다.

이는, (38)에 「모로매」가 각 마디에 겹쳐 출현한다는 사실과, 월 성분 사이에서의 「모로매」가 선 자리의 관계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38)의 「모로매」는 모두 월 (마디) 의 부림말과 풀이말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행위 그 자체의 당위성에 초점이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모로매」가 그 앞에, 조건을 나타내는 {-올딘댄/-올뎐} 등의 씨끝을 앞세우는 경우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당위적인 사실을 나타낸다.

j. ··· {-올딘댄/-올뎐} 모로매

(39). 이러ᄐᆞᆺᄒᆞᆫ 緣慮心올 그쵸딘댄 모로매 惺寂等持ᄅᆞᆯ ᄒᆞ야ᅀᅡ ᄒᆞ릴ᄉᆡ <七大21a3>

(40). ᄒᆞ다가 쵸가ᄒᆞᆫ 뇌지ᄅᆞᆯ 져ᄇᆞ리디 말고져 홇딘댄 모로매 명산올 향ᄒᆞ야 모지ᄅᆞᆯ 궁구호리니<初發70a4>

(41). 집블 올케 홀뎐 모로미 몸 닷고모로 비릇ᄂᆞ니<正俗05b07>
(42). 그 녀게 나ᅀᅡ가려 홀뎐 모로미 버븨게 ᄌᆞ뢰홀 거시라<正俗13b03>

그러나, (j)에 나타난 것과 같은 조건의 이음씨끝을 앞세우지 않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도 역시 「모로매」가 그 뒤에 {-어야/-어아/-어ᅀᅡ} 에 의해 당위적인 진술내용을 이끈다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다.

k. 모로매 … {-어야/-어아/-어ᅀᅡ}
(43). 남진도 모로매 겨지블 ᄉᆞ렴ᄒᆞ며 겨집도 모로매 남진의게 순ᄒᆞ야 … 남진도 다욱 노롤 ᄎᆞᄆᆞ며 겨집도 다욱 순ᄒᆞ요몰 님위예아 지비 되페티 아니ᄒᆞ리니<警民04a11;b01>
(44). 만겁에 맛남 어려오니 모로매 열문 계법을 디녀 날로 새로이 브즈러니 닷가 믈러나디 아니ᄒᆞ야 ᄉᆡ리 졍각올 일워 도ᄅᆞ혀 중싱을 제도호리니<初發79b3>

가-3. 기타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모로매」가 이름마디(45)나 매김마디(46)에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그 쓰임에 있어서는 위에 살펴본 바와 다름없다.

(45). 사롬미 모로매 이 ᄒᆞᆫ골ᄋᆞ티 세ᄉᆞ애 마솔 담박호미 보야호로 됴ᄒᆞ니<小八18a6-7>
(46). 오직 쉰 후에 긔우니 사오나와 모로매 술 고기롤 머게ᅀᅡ 살 리ᄂᆞᆫ 구틔여 그리 마라도 ᄒᆞ리라<小七18b7>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모로매」는 말할이가 진술내용에 대해 당위성을 부여하는 의미론적인 특징을 지니며, 따라서, 마침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 시킴법의 씨끝{-아라, -고려/-고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도, {-울디니라, -을디라, -을디어다, -을것이라, -어야/-어아/-어ᅀᅡ (ᄒᆞ다)} 등의 씨끝에 의한, 당위의 월에 현저하게 출현한다.
그 밖에, {-(ᄂᆞ)니라}에 의한 서술법의 월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월의 진술내용에 대한 강한 단정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 또한, 안맺음씨끝 {-으리-}를 포함한 {-으리라} 등의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 월에 나타난 행위를 이루고자 하는 말할이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나). 【반ᄃᆞ시 / 반ᄃᆞ기 / 반드시 / 번드기 / 번득(必·應·當然)】

나-0. 개관

「반드시」는, <표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6세기 전 시기에 걸쳐, 각 문헌 자료에 골고루 출현할 뿐 아니라 빈도가 매우 높다. 이에 비해, 나머지의 「반드 기/반드시/번드기/번득」 등은 특정한 자료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며 빈도의 면에서도 극히 낮아, 16세기에는 「반드시」의 형태가 압도적으로 빈번히 쓰이고 있음은 매우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 어찌씨들이, 극히 적은 수의 예를 제외하고는, 교화서Ⅰ·Ⅱ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데, 교화서Ⅰ에 비해, 교화서Ⅱ에는 그 나타나는 빈도가 그리 높지 않다.

한편, 「반드기」(전 11례)는, 16세기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초발심자경」(1577) 10례, 「칠대만법」(1569) 1례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볼 때 15세기에 생산적으로 쓰이던 「반드기」가 16세기에 들어서는 쓰이는 일이 거의 없어졌음을 시사한다. (1)

「반드시」는, 「번역소학」(6례)과 「소학언해」(1례)에 보일 뿐이며, 「번드기」는 「노걸대」와 「정속언해」에 각각 2례씩 나타난다.

「반드시」 역시, 「모로매」와 마찬가지로, 「모름지기 그러함」을 뜻하는 단정의 말재를 지닌 월과 「모름지기 그러해야 함」을 뜻하는 당위의 말재를 지닌 월에 특히 빈번히 나타나는 특징을 지닌다. 전자는 서술법의 월과 호응하며, 후자는 시킴월 혹은 꾀임월에 호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모로매」와 「반드시」는, 거의 유사한 환경에 쓰이면서도, 앞의 (가)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모로매」가 당위의 표현과 더 빈번히 호응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반드시」는 단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월과의 호응이 더욱 강한 특징을 보여 준다. (2)

「반드시」가 단정 및 당위의 사실을 나타내는 월과 호응하는 것은, 특히 월의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서술월을 구성하는 예가 가장 두드러진다. 그 밖에 물음법 및 시킴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일이 드물게 있다. 물음법의 월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문사를 수반하여, 반문으로 해석된다.

---

(1). 이기문(1976:182, 1978:115, 1985:62~63)에서는, 16세기에 들어 15세기의 「반드기」가 자취를 감추고 「반드시, 반드시」 일색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반드기」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고는 하기 어려움을 <표3-1>에서 알 수 있다.

(2). 고정의(1985:13)에서는, 15세기의 유의어 「모로매」와 「반드기」는 피수식어와의 선택제약의 양상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로매」의 경우, 「모로매 몬져 道得고져 ᄒᆞ니라<법화경언해1:240>」의 예를 들어, 움직씨·그림씨 이외에도 어찌씨를 선택할 수 있으나, 「반드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어찌씨의 선택제약 양상이 과연 다른가 하는 의문은 별도로 하더라도, 아래에 살펴볼 (23)의 용례와 같이, 16세기의 「반드시」는 「모로매」와 동일한 환경에 나타날 수 있음 뿐 아니라, 1590년 전후의 사서언해류에서 볼 수 있듯, 「모로매」의 많은 기능이, 「반드시」로 옮겨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1.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

이하, 어떤 서술법의 씨끝이 「반ᄃᆞ시」와 호응하는가, 그리고 그 경우에 월이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반ᄃᆞ시」가, {-으니라/-ᄂᆞ니라}등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서술월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진술 내용에 대해 말할이가 내리는 단정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에 국한된다.

a. 반ᄃᆞ시 … {-으니라 / -ᄂᆞ니라}

(1). 이 ᄀᆞᄐᆞᆫ 즁은 ᄒᆞᆫ갓 시 쥬믈 슈횸 ᄲᅳ니라 반ᄃᆞ기 삼계예 머리 내와ᄃᆞᆷ 어려오니라<初發74a2>

(2). ᄆᆞᄋᆞᆷ이 廣ᄒᆞᆷ애 體ㅣ 胖ᄒᆞᄂᆞ니 故고로 君子ᄂᆞᆫ 반ᄃᆞ시 그 意ᄅᆞᆯ 誠ᄒᆞᄂᆞ니라<大學12b07>

(3). 故고로 君子ᄂᆞᆫ 반ᄃᆞ시 그 獨을 삼가ᄂᆞ니라<大學11b01;12a06>

(4). 이런 故고로 君子ㅣ 큰 道ㅣ 이시니 반ᄃᆞ시 忠과 信으로 ᄡᅥ 얻고 驕와 泰로 ᄡᅥ 일ᄂᆞ니라<大學26b03-04>

(5). 됴ᄒᆞᆫ 일 만히 무ᅀᅥ난 지븐 반ᄃᆞ시 기븐 경ᄉᆡ 잇ᄂᆞ니라<朴通31a4>

(6). 德이 孤티 아니ᄒᆞᆫ디라 반ᄃᆞ시 隣이 인ᄂᆞ니라<論一38a09>

(7). 간사ᄒᆞᆫ 거즈 일로 ᄆᆞᄎᆞᆷ내 더프미 어려워 반ᄃᆞ시 죠예 ᄢᅢ디ᄂᆞ니라<警民14b03>

한편, 다음의 (b)에서 「반ᄃᆞ시」의 수식작용의 범위를 시사하는 예들을 볼 수 있다. (b)는 모두 이음씨끝 {-으며} 에 의한 이음겹월을 이루고 있는데, 그 앞마디와 뒷마디에 모두 「반ᄃᆞ시」가 쓰이고 있다.

b. 반ᄃᆞ시 … {-으며} 반ᄃᆞ시… {-ᄂᆞ니라}

(8). 과연히 이 道ᄅᆞᆯ 能히 ᄒᆞ면 // 비록 愚ᄒᆞ나 반ᄃᆞ시 明ᄒᆞ며 / 비록 柔ᄒᆞ나 반ᄃᆞ시 強ᄒᆞᄂᆞ니라<中庸34a04>

(9). 君子ㅣ 食終ᄒᆞᆯ ᄉᆞ이ᄅᆞᆯ 仁에 違ᄒᆞᆷ이 업ᄂᆞ니 // 造次애 반ᄃᆞ시 이예 ᄒᆞ며 / 顚沛예 반ᄃᆞ시 이예 ᄒᆞᄂᆞ니라<論一32a08;9>

(10). 먼 ᄃᆡ 行ᄒᆞ리 반ᄃᆞ시 갓가온ᄃᆡ로브터 홈 ᄀᆞᄐᆞ며 // 노픈 ᄃᆡ 오ᄅᆞ리 반ᄃᆞ시 ᄂᆞ존 ᄃᆡ로브터 홈 ᄀᆞᄐᆞ니라<中庸14b09;10>

(8~9)는, 「//」으로 표시된 {-으면, -ᄂᆞ니} 에 의한 이음겹월을 이루고, 그 뒷마디가 다시 「/」으로 표시된 {-으며} 에 의한 이음겹월을 이루는 이중적인 구조를 보인다.

(8~9)의 이음겹월을 이루는 앞마디와 뒷마디는 각각 다시 {-으나, 으며} 에 의한 하위의 이음겹월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반ᄃᆞ시」는 이 하위의 이음겹월의 뒷마디에 위치하여, 하위의 이음겹월을 그 수식의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10)의 경우에도, 월구조는 다르지만, 「반ᄃᆞ시」의 수식범위는 각각 앞마디와 뒷마디에 국한된다.

그러므로, 하위의 이음겹월의 뒷마디에 속한 「반ᄃᆞ시」의 의미 작용은 상위의

이음겹월에 미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반ᄃᆞ시」가 씨끝 {-으리라/-으리이다} 와 호응하는 경우, 그 앞에 조건·가정을 나타내는 이음씨끝 {-으면} 에 의한 앞마디를 취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c. ···{-으면} 반ᄃᆞ시 ··· {-으리라/-으리이다}

(11). 朋友로 더브러 交호ᄃᆡ 言홈애 信이 이시면 비록 學디 몯ᄒᆞ엿다 닐어도 나ᄂᆞᆫ 반ᄃᆞ시 學ᄒᆞ얏다 닐오리라<論一04a06;cf.小學一16a02>

(12). 맛당이 남진을 도와 그 ᄇᆞ죡ᄒᆞᆫ 이를 권홀 만ᄒᆞ면 반ᄃᆞ시 암ᄃᆞᆯᄀᆡ 새배 우러 지화롤 닐위유미 업스리라<小七36b4>

(13). 이러ᄐᆞ시 欲ᄒᆞᄂᆞᆫ 바롤 求ᄒᆞ면 心力을 盡ᄒᆞ야 ᄒᆞ여도 後에 반ᄃᆞ시 災ㅣ 이시리이다<孟一30a06>

(14). 내 집만 몯ᄒᆞ면 며ᄂᆞ리 싀어버싀 셤교믈 반ᄃᆞ시 며ᄂᆞ리의 도리로 ᄒᆞ리라<小七34b1>

(15). 글 ᄇᆡ호ᄂᆞᆫ 사ᄅᆞ미 반ᄃᆞ시 이롤 ᄆᆞᆯᄆᆡ 사마 ᄇᆡ호면 거싀 그르디 아니ᄒᆞ리라<小八31a6>

(c)에서의 「반ᄃᆞ시」는 앞마디에 진술된 가정적인 조건과, 뒷마디의 결과의 맺어짐이 절대적임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말할이의 판단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ᄃᆞ시」가, 서술법의 씨끝 중 {-올디니라/-올디라}와 호응하는 경우, 월의 진술내용에 대한 당위성의 의미가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 (1)

d. 반ᄃᆞ시 ··· {-올디니라/-올디라}

(16). 모미 재홧 근본이라 반ᄃᆞ기 ᄌᆞ조 뮈디 마롤디니라<初發56a6-7>

(17). 반ᄃᆞ시 그 어위 크고 누그러오며 ᄌᆞ샹ᄒᆞ고···말ᄉᆞᆷ 져그니를 구ᄒᆞ야 ᄒᆞ여곰 ᄌᆞ식의 스승을 사몰디니라<小學一03a07>

(18). 어듭히어든 門과 戶애 나며 드롬과 밋 돗ᄭᅴ 나아가며 飮食호매 반ᄃᆞ시 얼운의게 후에 ᄒᆞ야 비로소 ᄉᆞ양ᄒᆞ기롤 ᄀᆞᄅᆞ칠디니라<小學一04b01>

(19). 모로 뵈며 셔매 반ᄃᆞ시 방소롤 正히 ᄒᆞ며 기우려 듣디 아니케 홀디니라<小學一08a02>

(20). 父母ㅣ 겨시거든 멀리 遊티 아니ᄒᆞ며 遊호ᄃᆡ 반ᄃᆞ시 方을 둘띠니라<論一37a04>

(21). 힝실을 반ᄃᆞ시 정ᄒᆞ고 곧게 ᄒᆞ며 ᄃᆞᆫ니며 이쇼ᄆᆞᆯ 덛덛ᄒᆞᆫ 고ᄃᆞᆯ 두ᄃᆡ 반ᄃᆞ시 德을 든ᄂᆞᆫᄃᆡ 나아갈디니라<小學一13b08;10>

(22). ᄂᆞ비촐 整齊ᄒᆞ면 속 ᄆᆞᄋᆞᆷ이 반ᄃᆞ시 공경ᄒᆞᄂᆞ니 일 닐오 밤 들어든 자옷과 씌롤 반ᄃᆞ시 삼갈디니라<小學一14a03;4>

---

(1). 이승녕(1981:415~416)에서는, 語辭간의 호응관계의 실례로, 「반ᄃᆞ기」의 경우 ①명령법 {-으라} ②당위법 {-올디니라} ③가능법 {-으리라/-으리니} 의 문장구조에 나타나 술어와 호응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들고 있다.

특히, (21~22)에는 이음겹월의 앞뒤마디에 각각 「반드시」가 나타나는데, 이 경우 두 「반드시」 모두 당위의 씨끝 {-을디니라} 와 호응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씨끝 {-을거시라} 와 호응, (d)와 마찬가지로, 당위의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23). 나라흘 다ᄉᆞ리미 반ᄃᆞ시 몬져 그 집을 ᄀᆞᄌᆞ기 홀 거시라<大學15b06>

한편, 다음의 (e)에서와 같이, 서술법의 씨끝 {-ᄂᆞ더라} 와 호응하는 경우에는, 월의 진술내용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나타낸다.

e. 반ᄃᆞ시 … {-ᄂᆞ더라}

(24). 모미 반ᄃᆞ기 ᄆᆞᄎᆞ미 인ᄂᆞ더라<初發37b4>

(25). 보ᄃᆞ라온 옷과 이ᄃᆞᆫ 음식은 반ᄃᆞ기 은이 듕ᄒᆞᄂᆞ더라<初發50b3-4>

(26). 國家ㅣ 장ᄎᆞᆺ 興홈애 반ᄃᆞ시 禎祥이 이시며 國家ㅣ 장ᄎᆞᆺ 亡홈애 반ᄃᆞ시 妖□이 이셔…四體예 動ᄒᆞᄂᆞ더라<中庸36b02>

「반ᄃᆞ시」가 느낌을 드러내는 서술법의 씨끝 {-은뎌} 와 호응하는 예가 있다. 그러나, 빈도의 면에서 보면 그리 빈번히 나타나지는 않는다.

f. 반ᄃᆞ시 … {-은뎌}

(27). 君子ㅣ ᄃᆞ토ᄂᆞᆫ 배 업ᄉᆞ나 반ᄃᆞ시 射ㅣᆫ뎌<論一21a10>

(28). 訟을 드롬이 내 사ᄅᆞᆷ과 ᄀᆞᄐᆞ나 반ᄃᆞ시 ᄒᆞ여곰 訟이 업게 호린뎌<大學08b05>

앞서 (a~e)의 용례에서 살핀 바와 같이, 「모로매」는 월의 사실에 대한 말할이의 단정적 태도 혹은 당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주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모로매」가 서술법의 씨끝 {-더라} 와 호응, 월의 주체의 습관적 혹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일이 있다.

g. 반ᄃᆞ시 … {-더라}

(29). 지븨 이실 제도 반ᄃᆞ시 ᄉᆞᄉᆞ로 모믈 닷가 정제히 ᄒᆞ며 비록 쳐지라도 ᄃᆡ졉호믈 존엄ᄒᆞᆫ 얼운ᄀᆞ티 ᄒᆞ더라<小十03b1>

(30). 님금 술위 메ᄂᆞᆫ ᄆᆞᄅᆞᆯ 보와ᄃᆞᆫ 반ᄃᆞ시 술위 우희셔 구버 디내더라<小九083a8-9>

어떤 하나의 사실에 대한 「단정」과 「당위」는 시간성을 지니지 않으나, 여기서 말하는 「습관적 행위」를 나타낼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성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그 행위가 현실화되어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말할이의 인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나-2. 시킴법의 씨끝과의 호응

「반드시」의 경우, 앞의 (가)에서 살펴본 「모로매」와는 달리, 시킴법의 월에 나타나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h. 반드시 … {-으라}

(31). 형이 모로매 아올 ᄉᆞ랑ᄒᆞ며 아이 반ᄃᆞ시 형을 공경ᄒᆞ여 서르 믜여 원티 말라<警民06a10>

(32). 내의 지므를 ᄡᅢ여 아올디라도 더브러 혜아려 ᄃᆞ토디 말오 반ᄃᆞ시 구의예 고ᄒᆞ야 변졍ᄒᆞ라<警民10a06-07>

나-3. 물음법의 씨끝과의 호응

한편, 「반ᄃᆞ시」가, 매우 드물기는 하나, 물음법의 씨끝 {-니잇고} 와 호응하는 일은 일이 있다.

(33). 王은 ᄯᅩᄒᆞᆫ 仁義를 닐ᄋᆞ실 ᄯᆞᄅᆞᆷ이니 엇디 반ᄃᆞ시 利ᄅᆞᆯ 니ᄅᆞ시니잇고 <孟一03a09>

(33)의 경우, 의문사 「엇디」를 수반한 반문의 의미로 해석된다.

나-4.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반ᄃᆞ시」가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위치하는 경우, 특히 제약법의 씨끝 {-으리니, -ᄂᆞ니, -을디니} , 불구법의 씨끝 {-거니와} 등이 자주 쓰인다.

다음의 (다)에서 볼 「믈읫」의 경우, 월의 첫머리에 서는 일이 보통인데, 비해 「반ᄃᆞ시」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풀이말의 바로 앞에 선다는 어순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는, 특히 이음겹월의 구조를 지닌 월에 나타날 경우에, 어찌씨의 수식의 대상이 그 속한 마디에 국한될 가능성이 큼을 뜻한다.

「반ᄃᆞ시」가, 제약법의 이음씨끝 {-ᄂᆞ니/-으니} 에 의한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설 경우에는, 이 어찌씨와 호응하는 「사실의 당위성」은 그 속한 마디에만 국한되는 듯하다. 이는, 다음의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ᄂᆞ니} 에 의한 이음겹월의 앞마디 속에 {-으며} 애 의한 이음겹월로서 이루어져 있어 그 앞뒤마디 모두에 「반ᄃᆞ시」가 겹쳐 나타난다는 사실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34). 禍ㅣ며 福이 장ᄎᆞᆺ 니ᄅᆞᆷ애 善을 반ᄃᆞ시 몬져 알며 不善을 반ᄃᆞ시 몬져 아ᄂᆞ니 故고로 지극ᄒᆞᆫ 誠은 神 ᄀᆞᄐᆞ니라<中庸36b05;06>

(35). 아모제나 나타나 반ᄃᆞ시 앙어ᄅᆞᆯ 닙ᄂᆞ니 죄 업슨 사ᄅᆞᄆᆞᆯ 주기고 평ᄉᆡᆼ을 보젼ᄒᆞᆯ 재 녜록브터 잇디 아니ᄒᆞᄂᆞ니라<警民18a03>

한편, 다음의 예(36~3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ᄂᆞ니.-으니} 에 의한 이음겹월의 마침마디가, 서술법의 월 뿐만 아니라 물음법으로 된 예도 출현한다.

(36). 夫子ㅣ 이 邦에 니르샤 반ᄃᆞ시 그 政을 드르시ᄂᆞ니 求ᄒᆞ시ᄂᆞ냐 與

ᄒᆞᄂᆞ냐<論一05a08>

(37). ᄆᆞᅀᆞᆯ히 효근 사ᄅᆞ미 ᄒᆞᆫ 바ᄇᆞᆯ 어ᄃᆞ면 반ᄃᆞ시 몬져 어버ᅀᅵᄅᆞᆯ 머기ᄂᆞ니 엇뎨오<小七43a5>

(38). ᄒᆞᆫ 오ᄉᆞᆯ 어드면 반ᄃᆞ시 몬져 어버ᅀᅵᄅᆞᆯ 니피ᄂᆞ니 엇뎨오<小七43a7>

(39). 令尹子 文이 세 번 仕ᄒᆞ야 令尹이 도요ᄃᆡ … 녯 令尹의 政을 반ᄃᆞ시 ᄡᅥ 新 令尹에 告ᄒᆞ니 엇더ᄒᆞ니잇고<論一47b04>

「반ᄃᆞ시」가 제약법의 이음씨끝 중에서 {-으리니} 에 의한 이음마디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역시 그 이음마디를 수식범위의 한계로 한다.

(40). 듸킈여 간ᄉᆞᄒᆞ야도 목수미 반ᄃᆞ기 ᄆᆞᄎᆞ미 이시리니 소리 돕ᄂᆞᆫ 바횟굼그로 념불당을 삼고 ᄋᆡ슬피 우ᄂᆞᆫ 새로 깃븐 ᄆᆞᅀᆞ매 버ᄃᆞᆯ 사모리라<初發26b5>

(41). 그르슬 아래란 모나게 ᄒᆞ고 듧게란 두렵게 홈 ᄀᆞᄐᆞᆫ디라 반ᄃᆞ시 맛디 아니리니 오직 형뎨 ᄉᆞ랑호미 지극ᄒᆞ야 겨지븨 마릐 옮디 아니ᄒᆞ리ᅀᅡ 면ᄒᆞ린뎌<小七40a7-8>

(42). 올티 몯ᄒᆞᆫ 이리 잇거든 ᄌᆞ세 혜아려 쳐티ᄒᆞ면 반ᄃᆞ시 맛디 아닌 이리 업스리니 만이레 몬져 과글이 로ᄒᆞ면 오직 제게 해홀 ᄲᅮᄅᆞ미니 엇디 ᄂᆞᄆᆞᆯ 해 ᄒᆞ리오<小七29a5>

(40~41)의 경우, 이음씨끝 {-으리니} 에 의한 이음겹월의 마침마디가 서술법으로, (42)의 경우에는 물음법으로 된 예이다. 이 때,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위치한 「반ᄃᆞ시」가 그 겹월의 마침마디에까지 그 의미작용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데에는 의문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43)의 예에서는 「반ᄃᆞ시」가 제약법의 씨끝 {-어셔} 와 공기하여 그 앞마디에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그보다 상위의 이음겹월을 형성하는 {-올디니} 에 의한 당위의 이음겹월에까지 의미적인 영향력을 미치기가 어렵다 할 수 있다.

(43). 믈읫 집 얼우ᄂᆞᆫ 반ᄃᆞ시 례법을 삼가 가져셔 모ᄃᆞᆫ ᄌᆞ뎨며 집사ᄅᆞᆷᄃᆞᆯ 홀 제어흘디니 …흘디니라<小七50a7>

그리고 (41~42)의 경우에는, 「반ᄃᆞ시」가 속한 이음마디가 지움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반ᄃᆞ시」는 지움의 작용을 입지 않는다. 즉, 부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지움법으로 된 월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은, 아래의 (44)의 예를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44). 문 오래며 과실 남ᄀᆞᆯ 반ᄃᆞ시 방졍히 줄 혀게 ᄒᆞ고' 널오ᄃᆡ 구차히 어즈럽게 아닐 거시라 ᄒᆞ더라<小九096a1>

(44)에서는 「반ᄃᆞ시」가 부림말 「과실 남ᄀᆞᆯ」과 풀이말 「방졍히 줄 혀게 ᄒᆞ고」의 사이에 나타남으로써, 이 어찌씨가 이 앞마디에서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이음겹월의 앞마디가 씨끝 {-더니} 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는, 그리 빈

번하지는 않지만, (45~46)에서와 같이 나타난다.

(45). 그 몬누의 병ᄒᆞ엿거든 반ᄃᆞ시 친히 블 디더 죽을 글히더니<小九079a1>

(46). 公權이 나죄 도라올 제어든 반ᄃᆞ시 씌 씌여 믈 머리에 마조 기둘우더니<小九105a5>

「반ᄃᆞ시」가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나타나는 경우, 그 이음마디가 제약법 이외의 불구법의 씨끝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매우 드문 것이어서, 다음과 같은 {-거니와} 에 의한 단지 몇몇의 예를 볼 수 있을 뿐이다.

(47). 十室에 반ᄃᆞ시 忠信이 丘ᄀᆞᄐᆞᆫ 者ㅣ 잇거니와 丘의 學을 好홈만 ᄀᆞ디 몯ᄒᆞ니라 <論一52a10>

(48). 고ᄌᆞᆫ 쇠잔ᄒᆞ야도 반ᄃᆞ시 다시 펄 나리 잇거니와<百聯01b6>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반ᄃᆞ시」는, 마침법의 씨끝 중에서 특히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진술내용에 대한 단정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낸다. 그 밖에 시킴법 및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일이 드물게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ᄃᆞ시」가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제약법과 불구법의 씨끝을 앞세우는 일이 빈번함을 알 수 있었다.

(다). 【믈읫 / 믈의 / 몰의(凡·必)】

다-0. 개관

「믈읫」은, 16세기의 전 시기에 걸쳐 고루 분포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당위·시킴의 말재어찌씨와 마찬가지로, 특히 교화서Ⅰ·Ⅱ에 속하는 문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믈의」는 「정속언해」에 1례, 「몰의」는 「초발심자경」에 1례 등장한다.

「믈읫」(1)은, 당위·시킴의 말재 중에서도 특히 시킴월에 있어서의 쓰임이 두드러져, 월에 서술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의미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런데, 「믈읫」이 나타난 용례를 잘 살펴보면, 홑월에 나타나는 일은 거의 드물고, 풀이말의 바로 앞에 서는 일도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우, 「믈읫」은 월의 첫머리에 서거나 임자말 바로 뒤에 서서 풀이말을 구성하는 사건 전체의 의미와 관련을 맺는다.

그러므로, 「믈읫」이 나타난 월이 비록 이음겹월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월의 마침마디에 나타난 풀이말의 서법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이하, 빈도가 가장 높은 「믈읫」으로 대표하기로 한다.

다-1. 시킴법의 씨끝과의 호응

「믈읫」이 시킴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 그 씨끝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다음의 (a)에서와 같이, {-으라}가 쓰이고 있다.

a. 믈읫 … {-으라}

(1). 믈읫 두 번 절ᄒᆞ라<呂氏21a10/鄕約25a6>

(2). 약졍이 두 번 절ᄒᆞ거든 믈읫 위예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다 두 번곰 절ᄒᆞ라 <呂氏32b05/鄕約39b3>

(3). 믈읫 존ᄒᆞᆫ 사ᄅᆞᆷ과 댱샹읫 사ᄅᆞᆷ이 일 업시셔 져믄 사ᄅᆞᆷ의 집의 가되 넙고젼 오ᄉᆞᆯ 니브라<呂氏18a04-05/鄕約20a9>

(4). 믈읫 존ᄒᆞᆫ 사ᄅᆞᆷ과 댱샹잇 사ᄅᆞᆷ올 뵈요ᄃᆡ 문 밧긔 ᄆᆞᆯ ᄇᆞ려 밧긔셔 기ᄃᆞ리오고 유무 드리라<呂氏18a06-07/鄕約20b3>

(5). 믈읫 존ᄒᆞᆫ 사ᄅᆞᆷ올 됴문ᄒᆞᆯ 저긔 위두ᄒᆞᆫ 사ᄅᆞᆷ은 나ᅀᅡ가 말ᄉᆞᆷᄒᆞ거든 모다 절ᄒᆞ라<呂氏22b07/鄕約27a6>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믈읫」이 속한 월이 이음씨끝에 의해 이루어진 겹월의 구조(2~5)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믈읫」은 그 겹월의 마침마디의 서법과 호응관계를 이룬다.

(a)의 경우, 「믈읫」은 월의 첫머리에 서서, 뒤따르는 월 전체가 드러내는 일이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당위·교훈을 의미하고 있다.

(2~4)에서는, 겹월의 앞마디는 원칙적인 당위의 사실을, 그 뒷마디는 그 원칙적 사실의 부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미상, 앞마디와 뒷마디 모두가 월 끝의 시킴법의 씨끝의 의미작용 범위에 들게 된다.

이것은, 「믈읫」이 마침마디에 나타나는 경우(1~2)는 물론이며, 이음마디에 나타나는 경우(3~4)에 있어서도, 「믈읫」의 수식범위가 월 전체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데, (5)의 경우에는, 조건·가정의 의미를 지닌 제약법의 씨끝 {-거든}에 의한 겹월의 앞마디에 「믈읫」이 나타난다. 이 때에는, (a)의 경우와는 달리, 앞마디의 사실은 뒷마디의 당위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전제적인 조건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당위적 사실의 전제 조건은 이름법의 씨끝 {-음}에 토씨 {-애}가 이어진 {-으매}(6), 혹은 이름씨 「적」에 토씨 {-의}가 이어진 {(-을) 저긔}(7)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6). 믈읫 존댱잇 사ᄅᆞᆷ올 쳥ᄒᆞ야 음식호매 친히 가 닥ᄌᆞ 드리라<呂氏20a08/鄕約23b3-4>

(7). 믈읫 시긔병 ᄒᆞᆫ 사ᄅᆞ미 방의 드러 갈 저긔 모로미 혀ᄅᆞᆯ 하ᄂᆞᆯ 우희 븓티고 힘 ᄆᆡ이 벼어 블감 므러 내 쉬디 마라<分門17b01>

특히, (7)의 경우에는, 역시 당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찌씨 「모로미」와 한 월 안에 공존하고 있으며, 지움법에 의한 금지의 표현을 이루고 있다.

다음의 예문들은, 씨끝 {-고}에 의한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믈읫」이 출현한다.

(8). 믈읫 긔약ᄀᆞ티 아니ᄒᆞᆫ 사ᄅᆞᆷ을 약졍의 손ᄃᆡ 고ᄒᆞ야 힐문ᄒᆞ고 허믈 스ᄂᆞᆫ 칙이 스라<呂氏23b06/鄕約28b6>

(9). 믈읫 이롤 모로매 졍셩으로 힘써 ᄒᆞ고 간사ᄒᆞᆫ 거즈 이롤 쇠ᄒᆞ디 말라<警民14b01>

(10). 믈읫 우리 짐돌ᄒᆞᆯ 설어 주믈 지그기 ᄒᆞ고 쥬쉰 짓 거스란 그르자바 가디 말라<老上58b8>

(8~10)에서는, {-고}에 의해 이루어진 이음겹월의 앞마디의 진술내용과 뒷마디의 진술내용은 동등한 자격을 지니면서, 「믈읫」의 의미하는 바의 당위성을 띠게 된다.

다-2.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

한편, 「믈읫」이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월의 진술내용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경우와, 진술된 사실의 당연성에 대한 단정의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의 두 가지의 쓰임이 두드러진다.

「믈읫」이 월의 진술내용의 당위성을 나타내는 경우의 쓰임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시킴월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b. 믈읫 … {-올 거시니라/-올 거시라}

(11). 믈읫 주그니 섬기ᄂᆞᆫ 례도ᄅᆞᆯ 사니 위왇기두곤 후히 할 거시니라<小七07b5>

(12). 믈읫 거러 가다가 아ᄂᆞᆫ 사ᄅᆞᆷ이 ᄆᆞᆯ 타 가거든 피ᄒᆞᇙ 거시니라<呂氏19b08/鄕約22b8>

(13). 믈읫 사ᄅᆞᄆᆡ 집의 드러가 사ᄅᆞᄆᆡ 글월을 보디 아니ᄒᆞᇙ 거시라<小八22b3>

한편, 「믈읫」이 씨끝 {-올디니라}와 호응하여, 당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는 매우 드물게 다음과 같은 용례가 보인다.

c. 믈읫 … {-올디니라}

(14). 믈읫 혼인 의론호매 몬져 그 사회와 며느리의 텬셩과 ᄒᆡᆼ뎍과 가무네 례법이 엇던고 ᄒᆞ야 ᄉᆞᆯ피고 그 가수멸며 귀호믈 ᄒᆞᆫ갓 울워디 마롤디니라<小七32a2>

한편, 「믈읫」이 서술법의 씨끝 {-ᄂᆞ니라/-으니라/-라}와 호응하는 경우에는, 월의 진술내용에 대한 말할이의 단정을 나타내게 된다는 면에서, 앞의 (b~c)와는 구별된다.

d. 믈읫 … {-ᄂᆞ니라/-으니라/-라/-으리로다}

(15). 믈읫 이거시 그 처엄의 어디디 아니홈이 업서 ■然히 네 그티 감동홈을 조차 나타나ᄂᆞ니라<小學一題辭01a10>

(16). 믈읫 字 뜯과 篇 일훔과 사름의 姓名을 이믜 前젼의 사긴 이는 後에 두 번 사기디 아니흐니라〈小學-凡例01b09〉
(17). 믈읫 음식 머고매 골히여 브리며 머그며 호미 올티 아니흐니라 〈小八23a2〉
(18). 믈읫 이 열네 가지 이롤 내 다 깁피 솔피디 몯 흐는디라〈小八17b4〉
(19). 나라흔 이 빅셩의 의지흐인는 배니 믈읫 빅셩의 뻐 서르 사르며 서르 거느리 쳐 강흐니며 약흐니 드토와 안는 근심이 업소 밧쟈는 다 국가의 거느리 처 길어 내시는 은혜라〈警民01b04〉
(20). 제도 닷디 몯 흐고 또 누물 뇨란흐느니 믈의 도 마금 연을 말로 다으디 몯 흐리로다〈初發46b2〉

(d)에 나타난 「믈읫」은 뒤따르는 월 전체를 그 의미작용의 범위에 포함한다. (15~18)에서는 「믈읫」이 월의 첫머리에 나타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월의 내부적 구조로서는 겹월 속에 다시 임자말 구실을 하는 이름마디를 포함한 복합적인 짜임을 이루고 있다.
한편, (19~20)의 경우, 「믈읫」이 복합적인 구조의 이음겹월에 나타나는데, 「믈읫」의 수식의 범위가 뒤따르는 마침마디 전역을 포함한다는 면에서는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믈읫」은 그 뒤따르는 월의 진술내용에 대해 기정적인 혹은 단정적인 사실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3.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믈읫」이 이음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씨끝 {-올디니}와 {-느니}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의 경우에는 사실의 당연성에 대한 단정을, 후자의 경우에는 당위의 의미를 각각 드러낸다.
다음의 (e)는, 「믈읫」이 {-올디니}에 의한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위치하는 예이다.

e. 믈읫 … {-올디니} … {-으라}
(21). 믈읫 나와 그툰 사름을 뵈요디 문 밧긔셔 몰 브려 사름으로 유무 드리고 집 기슭 아래어나 혹 텽 그스이어나 셔셔 기들울디니…믈러 갈 저기어든 쥬신이 쳥흐야 계졀의셔 몰 트라 흐라〈呂氏18b10-19a01/鄕約21b3〉
(22). 믈읫 이바디예 모다 처엄 안조매 각별이 탁즈롤 두 기동 스이예 비셜흐고 큰 잔을 그 우희 노하 둘디니…향흐라〈呂氏21a01/鄕約24b4〉
(23). 믈읫 경하흐는 례롤 샹녯 례도곧티 호디 아못 거시나 줄디니 … 힘 뻐 흐라〈呂氏22b01/鄕約26b8〉
(24). 믈읫 져믄 사름을 가 볼 저기어든 몬져 사롬 보내여 알외욜디니

쥬신이 관디ᄒᆞ고 기들우거든 손이 와 문의 드려 ᄆᆞᆯ ᄇᆞ리거든 ᄃᆞ라 드려 나가 마자 읍ᄒᆞ고 당 우희 오ᄅᆞ디니…믈러가거든 계절릐 나ᅀᅡ가 ᄆᆞᆯ ᄐᆞ이라<呂氏19a05/鄕約21b9>

(21~24)에서 볼 수 있듯이, 수집된 용례 거의 모두가 월의 마침마디에 시킴법의 씨끝 {-으라}를 수반하고 있다. 이는 앞의 {-올디니}가 의미하는 바 사실의 당위성과 월의 끝의 시킴법의 씨끝 {-으라}의 의미가 서로 상응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디니}가 한 월에 두 차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두 마디가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월의 첫머리의 「믈읫」과 호응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믈읫」의 수식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제약법의 이음씨끝 {-ᄂᆞ니/-니}에 의해 이루어진 이음겹월에 「믈읫」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e)의 {-올디니}의 경우와는 달리, 마침마디의 의향법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이 보이지 않는다.

f. 믈읫 … {-ᄂᆞ니/-으니}

(25). 믈읫 血氣 인ᄂᆞᆫ 者ㅣ 尊ᄒᆞ며 親티 아니리 업ᄂᆞ니 故고로 ᄀᆞᆯ오ᄃᆡ 天을 配홈이니라<中庸51a01-02>

(26). 경하ᄒᆞ며 됴문ᄒᆞ며 서르 주미 믈읫 네 됴건이니 닐온 ᄒᆞᆫ ᄀᆞ약읫 사ᄅᆞᆷ이 깃븐 이리 잇거든 가 경하ᄒᆞ고…편지ᄒᆞ야 무ᄅᆞᆯ 저긔도 ᄯᅩ 그ᄅᆞ티 ᄒᆞ라<呂氏22a04/鄕約26a8>

(27). 비록 그러나 믈읫 유샹이 다 거즛 거시니 긔롱ᄒᆞ야 헐며 잔탄ᄒᆞ야 기료매 엇디 깃거ᄒᆞ며 엇디 슬허 ᄒᆞ리오<初發73a5>

제약법의 이음씨끝 {-ᄂᆞ니/-으니}에 의한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믈읫이 나타난 경우, 그 앞마디의 사실은 「당연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이 때 이음겹월의 마침마디의 서법으로서는 서술법(25), 시킴법(26), 물음법(27) 등이 나타나, 특별한 제약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제약법의 이음씨끝에 속하는 {-올디니}·{-ᄂᆞ니/-으니} 모두가 그 자체로 월을 마치는 쓰임이 매우 현저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의 (e~f)의 용례들에 있어서도, {-올디니, -ᄂᆞ니, -으니} 역시 {-올디니라, -ᄂᆞ니라, -으니라}에 상당한 쓰임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e~f)의 예에 있어서, 「믈읫」의 의미작용의 범위를 이들 이음씨끝의 뒷마디에까지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라). 【맛당이 / 맛당히 (宜·當)】

라-0. 개관

「맛당이/맛당히」는, 16세기의 문헌 중, 교화서 I·II에서만 볼 수 있다. 형태상으로는, 「맛당이」(24례)와 「맛당히」(36례)가 거의 비슷한 빈도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맛당이」가 초기와 말기의 문헌에 고루 나타나는데 비해, 「맛당히」는 말기의 「소학언해」(1587)과 「맹자언해」(1590)에서만 확인될 뿐으로, 이 두 자료에서는 「맛당이/맛당히」가 같이 쓰이고 있다.

「맛당히」[1] 역시 앞에서 살핀 「모로매」, 「반ᄃᆞ시」, 「믈읫」 등의 어찌씨와 마찬가지로, 당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일을 그 주된 기능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이들 어찌씨들은 당위의 의미를 지닌 씨끝들과 호응하는 호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1.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

「맛당히」가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 당위의 뜻을 나타내는 {-올디니라/-올디어다} 의 서술법의 씨끝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a. 맛당히 … {-올디니라/-올디라/-올디어다}

(1). 님금과 신하와 벋이 다 맛당히 敬으로 ᄡᅥ 웃듬을 삼올디니라<小學五076b04-05>

(2). 맛당히 네 녁 먼 ᄃᆡ 내텨 ᄒᆡ여곰 華夏로 더러여 믈 들이디 말에 홀디라<小學五041a02>

(3). 殷이 師롤 喪티 아니ᄒᆞ야신 제 능히 上帝ᄭᅴ 配ᄒᆞ엿더니. 맛당히 殷에 볼디어다<大學21b08-09>

「맛당히」가, (1~3)에서와 같이, 당위의 사실을 나타내는 월에 쓰이는 경우에는, 월의 서술내용을 이루는 행위를 꼭 실현해야 함을 단정적으로 나타내는데 참여한다. 물론, 이 단정적인 진술은 말할이에 의해 판단되어 선언되는 것이다.

꼭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서술되는 행위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것(1~2)만이 아니라, 지움월에 나타나 행위의 금지를 나타내는 경우(3)도 나타난다.

한편, 이러한 「당위성」은 다음(b)와 같이, {-을 거시니라/-을 거시라}와 같은, 서술법의 씨끝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b. 맛당히 … {-올 거시니라/-올 거시라}

(4). 션비 맛당히 天下읫 근심에 몬져 근심ᄒᆞ고 天下읫 즐김애 후에 즐길 거시라<小學六119a09>

(5). 믈읫 죽은이 셤기는 례도를 맛당히 산이 봉양키두곤 厚히 홀 거시니라<小學五041a02>

라-2. 시킴법의 씨끝과의 호응

「맛당히」가 시킴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일은,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용례가 나타난다.

---

(1). 이하, 「맛당이/맛당히」를 대표하여 쓸 때는, 빈도가 높은 「맛당히」를 쓰기로 한다.

c. 맛당히 … {-으라}

(6). 公이 맛당히 젹이 놈을 조ᄎᆞ라〈小學六128b08〉

(7). 오ᄂᆞᆯ날애 飮食ᄒᆞᄂᆞᆫ 허비예 ᄯᅩ 盡ᄒᆞ야 가니 맛당히 업우신 고ᄃᆞᆯ 조차 셔 어버잇긔 勸ᄒᆞ야 달아여 田宅을 두게 ᄒᆞ라〈小學六082a07-0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맛당히」의 경우, 「당연히, 마땅히」의 의미로 쓰여, 월의 진술내용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서의 「당위성」을 매우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3. 물음법의 씨끝과의 호응

「맛당히」가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 물음월에 나타나는 일은 그다지 빈번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용례가 발견된다.

d. 맛당히 … {-으리오/-으랴}

(8). 내 情에 일을 펴디 몯ᄒᆞ여시니 天地예 罪人이라 집을 엇디 맛당히 덥프리오〈小學六030a05〉

(9). 님금이 날ᄃᆞ려 무러시든 맛당히 實로 써 告ᄒᆞ랴 위ᄒᆞ야 맛당히 긔이랴〈小學六039b02〉

(8)은 반문으로 해석되나, (9)는 그러하지 않다. 반문의 (8)에서는 「집을 덥지 아니함」의 당위성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9)에서는 「맛당히」가 두 차례 나타나는데, 각각 「진실로써 고함」, 「속임」의 당위성을 나타내어, 당위적인 두 사실 중의 선택을 묻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4.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맛당히」가 이음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위의 (a~d)에 제시한 마침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위의 의미를 지닌 {-올디니}, {-올거시니} 등과의 호응이 가장 빈번히 나타난다. [1] 이 때, 「맛당히」는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위치한다.

e. 맛당히 {…-올디니} …

(10). 몬져 드러 안 사ᄅᆞᆷ이 ᄯᅩ 맛당이 구완홀디니 혹 잘 구완티 몯ᄒᆞ거든 ᄒᆞᆫ 긔약읫 사ᄅᆞᆷᄃᆞ려 닐어 구완케 ᄒᆞ라〈呂氏30b10/鄕約37a1〉

(11). 일이 피티 아니홈이 잇거든 맛당히 ᄌᆞ셔히 쳐티홀디니 반ᄃᆞ시 맛디 아님이 업스리라〈小學五061b04〉

f. 맛당히 {…-올 거시니} …

(12). ᄒᆞ기 날로브터 ᄒᆞᆯ 거슨 맛당히 이러ᄐᆞ시 홀거시니 그 일며 다뭇 몯홈은 내게 잇디 아님이 인ᄂᆞ니라… 내 엇디 구차히 ᄒᆞ리오〈小學六120a03〉

(13). 君子ᄂᆞᆫ 맛당히 그 衣冠을 正히 ᄒᆞ며 그 威儀를 자볼 거시니 엇디 머리를 헐글우고 …뽕달호라 니롬이 이시리오〈小學六109b04〉

(10~13)의 월에서 「맛당히」의 수식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표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이들 용례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각 이음겹월의 마침마디는 시킴법(10), 서술법(11), 물음법(12~13)으로 나타나, 특별한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맛당히」의 호응은, 이음씨끝의 한계를 넘지 않으며, 따라서 어찌씨의 수식의 범위는 이음마디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맛당히」는 월의 진술내용에 대해 당위성을 부여하며, 「당연히, 마땅히」의 의미로 쓰여, 월의 진술내용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미론적인 특성을 지닌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당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법의 씨끝 {-올디니라/-올디라}, {-올디니라/-올디라} 등과 매우 빈번히 호응하게 되며, 더러 시킴법의 씨끝{-으라}와 주로 호응하게 된다.

(마). 【의식(必)】

마-0. 개관

<표3-1>에서 볼 수 있듯이, 16세기의 문헌자료에 있어서의 「의식」은, 빈도수에 있어서는 20례로 나타나나, 모두 초기의 교화류의 언해에 국한되어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중, 특히 「속삼강행실도」에 14례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번역소학」·「정속언해」·「이륜행실도」에 각각 2례씩 나타난다.

마-1.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

「의식」의 쓰임에 있어서 주목할 것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같은 월 안에 시간적 의미를 지닌 어찌말을 수반하여, 반복·주기적인 행위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의식」은 서술법의 월에 쓰이는 것이 보통이며,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는 행위를 나타낸다는 면에서, 월의 풀이말에는 움직씨가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a. 의식 … {-오} … {-더라}

(1). 새배 니러 의식 무덤 알픽 가 울오 … 또 祠堂에 아춤나죄 의식 절ᄒᆞ고 … 일 잇거든 의식 告ᄒᆞᆫ 후에ᅀᅡ ᄒᆞ더라<續三106b02;06;09>

(2). 샹녜 샤명실이며 時享忌日 祭ᄒᆞᆯ 제 의식 울오 孝誠이 늙도록 더옥

---

(1).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의미상으로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씨끝과의 호응관계에 관한 특별한 문법적 표식 없이 쓰이는 일도 있다.
◎. 맛당이 삼갈 이리 남진 계집 언는 일만 ᄒᆞ니 업스니 져그나도 촘디 몯ᄒᆞ면 ᄆᆞᄎᆞᆷ미 ᄀᆞᆺ 업슨 이레 ᄢᅢ디ᄂᆞ니라<警民15a11>

지극더라〈續三136a13〉

(3). 후에 버슬ᄒᆞ야 비록 이리 거를 업서도 믹양 朔望애 의식 무덤의 가 뵈오 … ᄒᆞ더라〈續三132a13〉

(a)에는 모두 시간적인 의미를 내포한 「새배, 상녜, 매양」 등의 어찌말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모두 지난적 회상을 나타내는 안맺음씨끝 {-더-}를 포함한 월에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의식」은, 월에 나타난 그러한 시간적인 배경에 있어 어떤 행위가 반드시 주기적으로 행해졌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시간을 가리키는 어찌말이 월에 포함되는 대신에,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씨끝 {-어든/-거든} 이 쓰여, 앞의 (a)의 시간적 어찌말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 있다.

b. … {-어든/-거든} 의식 … {-더라}

(7). 어미 왕샹일 음식 주어든 왕람미 의식 몬져 맛 보니 어미 제 아ᄃᆞᆯ 주글가 ᄒᆞ여 아니터라〈二倫10b06〉

(8). 아비를 셤교ᄃᆡ ᄀᆞ장 효도ᄒᆞ야 ᄃᆞᆯ 초ᄒᆞᄅᆞ리어든 의식 수울와 차반 쟝만ᄒᆞ야 이받더라〈續三128a04〉

(9). 거상 바손 후에 影堂 짓고 믈읫 時節 거시어든 의식 몬져 祭ᄒᆞ고 孝誠이 지극ᄒᆞ더라〈續三125a12〉

(10). 일 잇거든 의식 告ᄒᆞᆫ 후에ᅀᅡ ᄒᆞ더라〈續三106b09〉

(b)에서는, 시간어찌말 대신 {-어든/-거든} 이 이끄는 이음마디에 의해 주기적 행위의 배경이 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이 때에도 모두 씨끝 {-더라} 로 끝나는 서술월에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간성의 어찌말이나 조건·가정의 이음씨끝 {-어든/-거든} 이 월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이, 이음씨끝 {-어} 에 의해 이끌리는 이음마디에 나타난 행위에 그 다음의 행위가 반드시 뒤따름을 나타내는, 이른바 습관적인 행위를 뜻하는 일이 있다.

(11). 공ᄉᆞ 파ᄒᆞ고 믈러 와 의식 그로 닐거 소내 칙을 노티 아니ᄒᆞ더라〈小九013b3-4;小十13b3-4〉

그러나, 16세기의 쓰임에 있어서는 매우 드문 일이기는 하나, 다음의 (12)의 경우에는 앞의 (a~b)의 예에서와는 달리 행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시간적인 의미는 볼 수 없다.

(12). 처ᅀᅥᆷ의 거슯 ᄢᅥ도 내죵애 의식 화동ᄒᆞ며 처ᅀᅥᆷ의 흐렛다가도 내죵앤 ᄒᆞᆫᄃᆡ 모ᄃᆞᄂᆞ니 이 아ᅀᆞᆷ미라〈正俗04a05〉

이와 같이, 특정한 시간성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 「의식」은 일반적인 사실을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2.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c. 의식 … {-더니} …

(13). 아ᄎᆞᆷ 나죄 의식 祭ᄒᆞᆫ 후에ᅀᅡ 밥 먹더니 나히 셜흔둘헤 주그니라<續三317b02>

(14). 제 아비 눈 몯 보거늘 나며 들 제 ᄆᆡ양 ᄢᅵ들며 飮食을 의식 親히 이받더니 어버이 두서날 ᄉᆞ이예 니ᅀᅥ 죽거늘 三年 侍墓ᄒᆞ고 어미 위ᄒᆞ야 ᄯᅩ 三年 거상ᄒᆞ니라<續三131a05>

(15). 아ᄎᆞᆷ 나죄로 祭ᄒᆞ며 나가며 드러올 제 의식 告ᄒᆞ며 時節 거슬 의식 祭ᄒᆞ고 ᄂᆞᄆᆞᆯ ᄀᆡᆼ도 먹디 아니ᄒᆞ며 죽도록 ᄒᆡᆫ 옷 니브니라<續三314a11;12>

(16). 어버이 셤교ᄆᆞᆯ ᄀᆞ장 효도ᄒᆞ야 ᄂᆞ미 됴ᄒᆞᆫ 飮食 주어든 의식 푸머다가 이받더니…ᄌᆞ라ᄂᆞᆫ 명일이어든 의식 ᄆᆞᅀᆞᆯ 얼운ᄃᆞᆯ 청ᄒᆞ야 아비ᄭᅴ게 獻壽ᄒᆞ더라<續三127a05;07>

「의식」이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나타나는 (c)의 경우에도, 위의 (a~b)의 예와 마찬가지로, 월 안에 반드시 「아ᄎᆞᆷ나죄, ᄆᆡ양, ~할 제」 혹은 씨끝{-어든}에 의한 시간적인 표현들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14~16)에는 「의식」이 두 차례씩 쓰여, 그 수식의 범위가 어찌씨가 쓰인 마디에 국한됨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식」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모로매, 반ᄃᆞ시, 믈읫, 맛당히」와는 그 성격과 쓰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즉, 이 어찌씨의 경우, 그 쓰인 월이 모두 서술월에 국한되며, 의향법의 씨끝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용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난적 회상의 {-다-}를 지닌 {-더라}와 주로 호응한다는 특성을 보인다.

(바). 【모ᄃᆡ(切·必·要)】

바-0. 개관

「모ᄃᆡ」는 빈도상으로 볼 때 그리 활발히 쓰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1] 16세기의 문헌자료에서는 「초발심자경」에 6례가 가장 많고, 「간찰」에 4례, 「정속언해」에 1례로 모두 11례가 보일 뿐이다.

당위적인 의미를 지니는 여늬 말재어찌씨와 비교해 볼 때, 「정속언해」를 제외하고는, 교화서Ⅰ·Ⅱ나 역학서·의학서 등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실로부터 볼 때, 16세기의 「모ᄃᆡ」는 그 세력이 매우 약해져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모ᄃᆡ」의 의향법의 씨끝과의 호응관계를 보면, 시킴법과 서술법의 씨끝에 국한된다.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사실의 단정을 나타내는 경우와 사실의 당위성을 드러내는 두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바-1. 시킴법의 씨끝과의 호응

「간찰」에 나타나는 용례의 「모딕」는 모두 시킴법의 씨끝{-어라}와 호응하는 특성을 보여 준다.

a. 모딕 ··· {-어라}

(1). 명디란 모딕 세 피리 되게 박과 보내여라<簡札010a12>
(2). 그롤 더 줄만덩 모딕 겻명디ᄀ티 고오니 히여라<簡札131a21>
(3). 지비 믈 든 것 모딕 희경이 올 제 보내여라<簡札133a01-02>
(4). 죵다롤 기드리고 잇노라 모딕 모딕 보내여라<簡札053a14>

(a)에서와 같이, 개인적인 부탁이나 의뢰를 하는 글에 있어서, 「모딕」가 시킴법의 씨끝 {-어라}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5)에서와 같이, 지움월로 된 시킴법 즉 금지월에 있어서도 「모딕」가 쓰인다.

(5). 모딕 제 간대로 존ᄒᆞ낭 ᄒᆞ고 놈 가비야이 너기디 말라<初發63a1>

(5)는, 씨끝 {-고} 에 의한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모딕」가 나타난 예이다. 이 경우, 「모딕」는 월의 마침법의 씨끝 {-으라}와 호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어찌씨의 수식범위는 월 전체에 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바-2.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

「모딕」가 서술법의 월에 나타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실의 당연성 즉, 단정을 나타내거나, 사실의 당위성을 드러낸다. 다음의 (1~2)는 모두 그 월이 이음겹월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모딕」는 이음겹월의 뒷마디에 위치하여, 「반드시, 모름지기」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예가 많지는 않아 단정적인 사실을 기술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b. 모딕 ··· {-ᄂᆞ니라}

(6). 네 닐우딕 덕기 호온자 아니라 모딕 이우지 잇ᄂᆞ니라<正俗13b01>

c. 모딕 모로미 ··· {-옴디어다}

(7). 도로혀 즁싱올 제도ᄒᆞ야 인간과 텬샹의 큰 복 바티 도외리니 모딕 모로미 힘 ᄡᅳᆯ디어다<初發21a3>
(8). 이롤 인ᄒᆞ야 도애 마쾨미 이셔 능히 나아 닷디 몯 ᄒᆞ리니 모딕 모로미 삼갈디어다<初發16b6>

특히, (c)에서는, 「모딕」가 당위의 의미를 지닌 씨끝 {-울디어다/-을디어다} 와 호응한다. 동시에, 유의어인 「모로미」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1). 유창돈(1961:300)에서는 「모딕」에 관해 「용비어천가」와 불경언해류에는 쓰였으나. 「두시언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곧 소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모딕」가 복합적인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예이다.

d. 모딕 … {-으리니}

(9). 우 업슨 보리 도롤 일우고져 홀딘댄 모딕 샹녜 평등훈 ᄆᆞᄋᆞᄆᆞᆯ 머고리니 ᄒᆞ다가 친ᄒᆞ니 소ᄒᆞ니 믜우니 고ᄋᆞ니 혜미 이시면 도는 더욱 멀고 업운 더 기프리라<初發76b6>

(9)에서는 「모딕」가 {-올딘댄}에 의해 이루어진 이음겹월의 뒷마디에 나타난다. 그 이음겹월은 다시 {-으리니}에 의한 서술법의 이음겹월의 앞마디를 이루는 복합구조로 되어 있다. 이 때의 「모딕」는, 앞의 (2~3)과 마찬가지로, 「항상 평등한 마음을 먹는」 일이 「도를 이루」기 위한 당위적인 사실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딕」는, 앞서 살펴본 당위·시킴의 어찌씨들과 마찬가지로, 시킴법과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할 수 있다. 시킴법의 씨끝으로서는 「어라」가, 서술법의 씨끝으로서는 {-ᄂᆞ니라, -올디니라} 등이 확인된다.

(사). 【구틔여 / 구틔야 / 구틔여(強·敢·須·必·彊·硬·固·當)】

사-0. 개관

16세기의 자료에 나타나는 「구틔여」의 분포를 보면, 전 34례 중 거의 대부분인 24례가 초기의 문헌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구틔야」는 「노걸대」에 1례, 「구틔여」가 「간찰」에 1례 나타날 뿐으로, 형태적으로는 「구틔여」로 굳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말기의 문헌에는, 「소학언해」에 8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빈도상으로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사-1. 시킴법의 씨끝과의 호응

「구틔여」(1)가 월의 의향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 시킴법의 씨끝과의 호응이 특히 현저하다. 이 경우, 거의 대부분의 용례에 있어, 풀이말에 {-디 말-}을 수반한다. 즉, 어찌씨 「구틔여」가, 씨끝{-으라}에 의한 시킴월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언제나 금지의 월로서 출현한다.

a. 구틔여 …. {말라}

(1). 쉬이 저를 고틸 거시니 구틔여 골 브티기 말라<朴通13b2>

(2). 너희 둘히 굿 구틔여 됴흠 구즘 분간ᄒᆞ거라 말라<老下57a4>

이때, 「구틔여」와 마찬가지의 당위·시킴의 의미를 드러내는 「굿」과 같은 어찌씨와 공존할 수도 있음을 (2)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 이하, 「구틔여」로 대표하기로 한다.

사-2. 피임법의 씨끝과의 호응

「구틔여」가 피임법의 씨끝(-져)와 호응하여 피임월을 이루는 예는 다음의 한 예가 출현할 뿐인데, 시킴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움의 풀이말 {-디 말-}을 포함하고 있다.

b. 구틔여 ···· {-디 마져}

(3). 즁돌 음식 ᄒᆞᄂᆞᆫ 집과 여러가짓 집돌홀 안직 구틔여 다 니ᄅᆞ디 마져 <朴通69b7>

사-3.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

「구틔여」가 서술법의 월에 나타나는 일은, 다음의 예에 국한된다. 앞서의 시킴법 및 피임법의 경우와는 달리, 지움월이 아닌 월(4~5)에도 이 어찌씨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4). 令女의 아자비 샹언ᄒᆞ여 曹氏와 혼인을 거졀ᄒᆞ고 구틔여 令女를 드려 가니라<小九061a1>

(5). 네 네 손늘 더 두면 마치 됴ᄒᆞ리로다 / 구틔여 이리 두라 니ᄅᆞ써 내 네 손 더 두려 우리 맛 버리져<朴通23a9>

(6). 내 죄ᄂᆞᆫ 가문을 다 주기샤도 맛당ᄒᆞ니 구틔여 거즛일로 소기ᅀᆞᆸ디 몯ᄒᆞ여이다<小九046b2-3>

(7). 새도록 이시면 아니 머겨도 ᄇᆡ 브르리니 구틔여 ᄏᆞᇰ딥 밧고디 말거시어니ᄯᆞ나<老上56a9>

사-4.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구틔여」가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나타나는 경우, 그 수식의 범위는 그 이음겹월의 뒷마디까지는 미칠 수 없다.

c. 구틔여 ···· {-으며} ··· {-올디니/-올디니라}

(8). 바비 ᄇᆡ 브를 ᄲᅮᆫ니오 구틔여 귀ᄒᆞᆫ 거슬 말며 오ᄉᆞᆯ 다ᄋᆞᆯ ᄲᅮᆫ니오 구틔여 빗내 말며 지블 살 ᄲᅮᆫ니오 구틔여 너로고 크게 말며 됴ᄒᆞᆫ 일 그ᄅᆞᆫ 일 손 보기에 너모 검박ᄒᆞ고 너모 샤치히 말며 너모 쟈게 홀 ᄲᅮᆫ니언뎡 너모 부허비 마롤디니 <正俗25a06-07;08>

(9). ᄂᆞᄆᆡ 일 구틔여 아디 말며 ···모로매 아롤디니라<初發05a1>

d. 구틔여 ···· {-어도} ᄒᆞ리라

(10). 오직 쉰 후에 긔우니 사오나와 모로매 술 고기롤 머게ᅀᅡ 살 리ᄂᆞᆫ 구틔여 그리 마라도 ᄒᆞ리라<小七18b8>

(c)의 경우, 특히 (8)에서는 벌임법의 이음씨끝 {-으며} 에 의한 이음겹월이 네 차례 되풀이된다. 이 때 각각의 이음마디에 모두 「구틔여」가 나타난다.

(9)에서는 불구법의 이음씨끝 {-어도} 에 의한 이음마디에 출현, 그 마침마디

에 역시 당위의 의미를 드러내는 「모로매」가 공기한다. 이 예는 「구틔여」의 수식의 범위에 이음겹월의 마침마디까지는 포함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구틔여」는 같은 월 안에서 {-디 말-} 과 강한 호응관계를 보인다. 그 외에도, 의도법의 이음씨끝 {-으려} 와 호응관계를 보이는 일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지움월의 예는 보이지 않는다.

e. 구틔여 … {-으려 (ᄒᆞ-)}

(11). 한 父母ㅣ 나저믄 주를 어엿비 너겨 남진 얼요려 커늘 孫氏 주거도 몯ᄒᆞ로다 ᄒᆞ더니 한아비 怒ᄒᆞ야 구틔여 얼유려 커늘<續三317a13>

(12). 제 아비라셔 져믄 주를 어엿비 너겨 구틔여 다ᄅᆞ니 얼요려 ᄒᆞ야 ᄒᆞ마 보낼 저긔 許梅 므례 드러 주그니<續三304a12>

(13). 劉氏 守節ᄒᆞ얏더니 구틔여 다와다 어루려 홀 사ᄅᆞ미 잇거늘<續三305a05>

사-5. 기타

「구틔여」가 나타나는 월이, 시킴월로 된 따옴마디를 포함하는 경우, 그 풀이말 「ᄒᆞ다」와 호응하는 일이 잦다.

(14). 유곤니 호온자 이셔 나가디 아니커늘 어버ᄉᆡ 형들히 구틔여 나라 ᄒᆞ대<二倫11a07>

(15). 구틔여 ᄐᆞ라 ᄒᆞ거든 그 명을 조ᄎᆞ라<鄕約21b2-3;呂氏18b10>

(16). 袞이 혼자 머므러 나가디 아니ᄒᆞ거늘 모든 父兄이 구틔여 니가라 ᄒᆞ대<小九073a5>

이 경우, 「구틔여」가 관련을 맺는 것은, 따옴마디의 시킴월이 아니라 풀이말 「ᄒᆞ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순적으로 「구틔여」가 「ᄒᆞ다」의 직전에 나타나는 예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을 종합하면, 「구틔여」가 의향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 시킴법과 꾀임법 그리고 서술법의 씨끝들과 적극적으로 호응한다. 이때에는, 언제나 풀이말에 「말다」를 요구한다.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수식범위는 「구틔여」가 속한 마디에 국한된다.

(아). 【감히(敢)】

아-0. 개관

16세기 문헌자료에 나타나는 「감히」는, 155례 모두가 교화서 I 에 속하는 문헌에서만 볼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시기적으로는 초기와 말기의 문헌 양쪽에

다 나타난다. 그러나, 초기의 문헌 중에서는 「번역소학」에 4례가 보일 뿐이고, 나머지는 「소학언해」를 비롯한 후기의 문헌에 빈번히 출현한다.

「감히」가 교화서 I 의 자료에 편중되이 출현하는데 비해, 교화서 II 의 자료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음은 매우 대조적이다.

「감히」는, 지움월 혹은 지움의 의미로 해석되는 반문의 물음월에 주로 나타난다.

아-1. 물음법의 씨끝과의 호응

「감히」가 물음법의 씨끝 {-으료/-으리잇고/-으리잇가} 등과 호응하여 물음월을 형성할 경우에는, 모두 반문으로 해석된다.

a. 감히 … {-으료/-으리잇고/-으랴}

(1). 나ᄂᆞᆫ 아ᄒᆡ어니 엇뎨 감히 顔孟을 ᄇᆡ호료〈小六11b3;c.f.小學四10b09〉

(2). 엇디 敢감히 ᄇᆡ호디 아니ᄒᆞ리잇고〈小學四21b05〉

(3). 父母 기ᄐᆡ신 얼굴을 가져 둔뇨ᄃᆡ 敢감히 공경티 아니ᄒᆞ랴〈小學二35b03〉

(1~2)에서는 의문사 「엇뎨, 엇디」를 동반한 물음월에 「감히」가 쓰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반문으로 해석된다. (3)에는, 의문사를 수반하지 않고 있으나, 반문으로 해석된다는 면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이때의 「감히」는 어떤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의미해석에 관여하는데, 불가능을 느끼고 판단하는 것은, 말할이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아-2.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

「감히」가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 당위성을 나타내는 씨끝 {-올디니라/-올디라} 등과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간혹 {-올 거시니라} 와 호응하는 일이 있다.

b. 감히 … {-올디니라/-올디라}

(4). 飮食을 남은 것 아니어든 敢감히 먹디 아니홀디니라〈小學二06b01〉

(5). 안해 잇디 아니커든 妾의 뫼심이 敢감히 나죄를 當티 말올디니라〈小學二51a08〉

(6). ᄒᆞᆫ적 말솜 냄애 敢감히 父母를 닛디 몯홀디라〈小學四19a02-03〉

c. 감히 … {-올 거시니라}

(7). 敢감히 ᄉᆞᄉᆞ로이 빌이디 몯ᄒᆞ며 敢감히 ᄉᆞᄉᆞ로이 주디 몯 홀 거시니라〈小學二13a04〉

(b~c)에서 볼 수 있듯이, 「감히」가 당위의 의미를 지닌 서술법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도, 그 풀이말에는 모두 지움법의 형식을 요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위의 의미를 지닌 서술법의 씨끝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사실의 전

달」(8), 「단정」(9), 「의지」(10)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씨끝과의 호응현상을 보여 준다.

d. 감히 … {-더라/-ᄂᆞ니라/-리이다}

(8). 아ᄃᆞᆯ와 아ᄎᆞᆫ 아ᄃᆞᆯᄃᆞᆯ히 섬 아래 버러 셔더니 椿이 안ᄌᆞ라 아니ᄒᆞ여든 津이 감히 안셔디 몯 ᄒᆞ더라<小九075b9>

(9). 님금이 命이 잇디 아니커시든 敢감히 즉제 ᄐᆞ며 넙디 몯 ᄒᆞᄂᆞ니라 <小學二40a10>

(10). 오직 감당티 몯홀가 젓ᄉᆞᆸ거니와 敢감히 命을 닛디 아니호ᄅᆡᆼ이다 <小學二46b01-02>

(d)의 용례에 있어서도, 지움법의 풀이말과 호응한다는 점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아-3. 시킴법의 씨끝과의 호응

빈도의 면에서 볼 때에 그다지 빈번하지는 않지만,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감히」가 시킴법의 씨끝 {-어라} 와 호응하는 일이 있다.

e. 감히 … {-어라}

(11). 어버이와 얼운을 봉양ᄒᆞ야 敢감히 교만ᄒᆞ고 쉭살홈을 내디 말라 <小學五20a04-05>

이때에도 역시, 지움법으로 된 풀이말을 반드시 동반한다는 특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4.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감히」가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나타나는 경우, 그 의미작용이 미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감히」가 속한 마디에 국한되는 경향이 강하다.

(12). 비록 그 位ㅣ 이시나 진실로 그 德이 업ᄉᆞ면 敢감히 禮樂을 作디 몯ᄒᆞ며 비록 그 德이 이시나 진실로 그 位ㅣ 업ᄉᆞ면 ᄯᅩᄒᆞᆫ 敢감히 禮樂을 作디 몯ᄒᆞᄂᆞ니라<中庸44b04;06>

(13). 내 본 이리 만ᄒᆞ니 너희ᄂᆞᆫ 엇디 이러ᄐᆞᆺ혼 이리 이시료 ᄒᆞ야시든 믈러 저허 감히 ᄒᆞᆫ 마ᄅᆞᆯ 내여 ᄇᆞ효왯 이를 아니ᄒᆞ닐 우리 이제 니르히 힘 니버 지블 보젼ᄒᆞ엿노소라<小七42a5>

(14). 싀부모ㅣ 만일 버근 며느리를 브리시거든 敢감히 몯며느리게 마초와 ᄡᅡᆨ호려 말올디니 敢감히 ᄀᆞᆯ와 ᄃᆞᆫ니디 몯ᄒᆞ며 敢감히 ᄀᆞᆯ와 긔걸티 몯ᄒᆞ매 敢감히 ᄀᆞᆯ와 안셔디 몯 홀디니라<小學二19b08-09;10, 20a01>

특히 (14)에서와 같이, 한 겹월 안에 「감히」가 수 차례 거듭나타나는 경우, 이 어찌씨의 의미작용의 범위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2～14)에서와 같이, 「감히」가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그 마침마디의 말재에는 거의 제한이 없어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히」는 서술법 및 물음법의 씨끝과 매우 폭넓게 호응하는 특징을 보이며,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특히 당위의 의미를 지닌 {-올디니라/-올디라} 등과의 호응이 두드러진다.

「감히」의 이러한 당위성 부여의 의미론적인 기능은, 비록 용례는 많지 않더라도, 시킴법의 씨끝 {-어라} 와의 호응을 허용한다.

한편, 「감히」가 나타나는 월의 풀이말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지움법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있어서는, 「구틔여, 굿, 굿드리」 등과 성격을 같이 한다. 이러한 측면만을 본다면, 이들 어찌씨는 뒤의 (Ⅳ-3)에서 다룰 「지움의 말재어찌씨」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히」 등이 「지움의 말재어찌씨」와 구별되는 점은, 그 호응관계에 있어서, 「당위 · 시킴의 말재어찌씨」와 더욱 가까운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자). 【굿(固·須·強·逼)/굿드리(必)】

자-0. 개관

<표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굿」은 16세기의 문헌에서는 초기의 역학서인 「노걸대」(3례)와 「박통사」(1례)에 나타날 뿐이며, 다른 자료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1)

한편, 「굿드리」 역시 「여씨향약언해」에 단 2례가 나타난다.

자-1. 시킴법의 씨끝과의 호응

매우 제한된 용례이긴 하지만, 「굿」(2)이 월의 의향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시킴법의 씨끝{-으라}와 호응하는데, 이때의 풀이말에는 금지를 의미하는 {-디 말-}을 수반한다. 이 점은, 앞서 살핀 「구틔여」와 매우 유사하다.

(1). 너희 둘히 굿 구틔여 됴흠 구숨 분간ᄒᆞ거라 말라〈老下57a4〉
(2). ᄯᅩ 구ᅀᅵ예 뻥케 주어 굿 새배 다돈게 말라〈老上32b4〉

특히, (1)의 예에서는 거의 유사한 쓰임을 보이는 어찌씨 「구틔여」와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3)

---

(1). 이에 비해, 15세기 말의 「삼강행실도」에는 「굿」이 7례 나타나 16세기의 문헌과 대조를 이룬다.
(2). 이하, 「굿」으로 대표하기로 한다.
(3). 서재극(1976:55)에서는, (1)의 「굿구틔여」를 「합성부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어찌씨가 공기하는 예는 위의 예 이외에는 발견할 수 없으며, 의미가 유사한 두 어찌씨가 이어나는 일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두 어찌씨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자-2.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곳」이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곳」이 속한 마디의 풀이말에는, 시킴법의 씨끝과 호응할 때와 마찬가지로, 금지의 {-디 말-} 을 수반한다.

(3). 네 ᄒᆞ마 풀오져 ᄒᆞ거니 ᄯᅩ 곳 네 가져 져제 가디 말오 그저 이 뎜에 두라<老上69b3>

(4). 만이례 시급히 쓰디 아니홀 것과 ᄯᅩ 해로온 이리 잇거든 곳드리 빌이디 마롤디니…스라<呂氏30b02;鄕約36a9>

(3~4)에서는, 이음씨끝 {-고; -을디니} 에 의한 이음겹월의 이음마디에 「곳」이 나타나는데, 두 예 모두 마침마디가 시킴법의 월로 끝난다.

한편, 다음의 (5)에서는 불구법의 이음씨끝 {-어두} 에 의한 이음마디에 「곳」이 등장하는데, 풀이말에는 {-디 말-} 대신에 {-디 아니ᄒᆞ-} 를 수반한다.

(5). ᄀᆞ장 져믄 사ᄅᆞᆷ이어든 곳드리 몰 브리디 아니ᄒᆞ야두 므던ᄒᆞ니라 <呂氏20a06;鄕約23b1-2>

이와 같이, 「곳, 곳드리」가 의향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시킴법과 호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어찌씨들이 풀이말 자리에 언제나 지움법의 형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Ⅳ-3)의 「지움의 말재어찌씨」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차). 【당당이 (必·應·當) // 응당히(應) // 필연 (必)】

차-0. 개관

「당당이」(1)는 15세기에는 비교적 자주 쓰였던 것으로 보이나, 16세기의 문헌자료에서는, 「번역소학」에 단 한 예가 나타날 뿐이다. 이에 비해 15세기말의 「삼강행실도」에서는 15례나 나타나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인다.

---

(1). 15세기의 「당다이」의 경우, 안맺음씨끝 {-리}를 포함한 씨끝바꿈꼴과 호응하는 경향이 짙다. 그리고, 유의어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되는 「맛당이, 반ᄃᆞ시 (반ᄃᆞ기)」에 비해, 그 쓰임의 분포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 닐오ᄃᆡ 내 히미 다오니 사라셔 恩德 몯 갑숩고 주거 가아 당다이 모딘 귓것 ᄃᆞ외야 도ᄌᆞ골 주규리이다 ᄒᆞ고 자펴 가아<三綱214b04>

◎ 내 도라올 理 업고 그듸 당다이 다른 지븨 가리로소니 이어긔 기리 여희노라<三綱314a10>

즉, 「당다이」가 월의 마침마디에 속해 있을 경우, 서술법의 월에 국한되는 특징을 보여, 물음법·시킴법·꾀임법의 월에서의 쓰임은 거의 보기 어렵다.

그러나, 월의 임자말의 인칭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어 보인다. 반면, 이음법으로 이루어진 월에 있어서는, 물음월 (반문) 과 시킴월에서도 나타난다.

◎ 王氏 우러 닐오ᄃᆡ 엇뎨 이런 마롤 ᄒᆞ시ᄂᆞ고 ᄒᆞ다가 업스시면 내 당다이 주구리니 다른 마리 이시리잇가<三綱326a14>

그러므로, 「ᄃᆞᆼᄃᆞᆼ이」는 16세기에 들어서는, 유의어 관계를 이루는 「모로매, 반ᄃᆞ시」 등의 다른 어찌씨에 비해, 그 쓰임이 완전히 약화되어 있었거나 소실 상태로 접어든 것을 알 수 있다.

(1). 내 아ᅀᆞ 일 죽고 다ᄆᆞᆫ ᄒᆞᆫ ᄌᆞ식이 이시니 리예 졀ᄉᆞ케 ᄆᆞᆯ홀 거시니 오직 ᄃᆞᆼᄃᆞᆼ이 내 ᄌᆞ식을 ᄇᆞ릴 거시로다<小九071b3>

(1)의 「ᄃᆞᆼᄃᆞᆼ이」는, 강조·영탄법의 씨끝 {-로다}와 호응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나, 의미적으로는 당위적인 의미로 쓰인 {-을것-}과 호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다음의 (2)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의미상으로는, 「모로매, 반ᄃᆞ시」의 쓰임과 다르지 않아, 자기의 자식을 죽게 해야 할 상황에서 그리하려고 하는 말할이의 의지, 혹은 그리해야 할 당위성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ᅌᅳᆼᄃᆞᆼ히」는, 「소학언해」에 2례가 나타난다. 「소학언해」에는, 다음의 (2)와 같이, 앞의 (1)과 동일한 용례가 보이는데, 여기에는 「ᄃᆞᆼᄃᆞᆼ이」 대신에 「ᅌᅳᆼᄃᆞᆼ히」가 쓰이고 있다.

(2). 내 아이 일 죽고 다ᄆᆞᆫ ᄒᆞᆫ ᄌᆞ식이 이시니 理예 可히 긋디 몯홀 거시라 오직 ᅌᅳᆼᄃᆞᆼ히 ᄉᆞᄉᆞ로 내 ᄌᆞ식을 ᄇᆞ릴 거시로다<小學六066a05>
(3). 楊子ᄂᆞᆫ 심텀ᄒᆞ고 안졍ᄒᆞ니 ᅌᅳᆼᄃᆞᆼ히 슈이며 長은 어드려니와 남운이ᄂᆞᆫ 됴히 주금을 어둠이 幸ᄒᆞ니라<小學六110b08>

(3)의 경우,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속하여, 「응당, 당연히」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월의 의향법에 있어서는, 서술법의 월에 쓰이고 있어, 「楊子가 벼슬을 얻을 것」이라는 결과가 당연한,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임을 단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필연」의 경우에도 16세기의 문헌에 있어서는 「정속언해」에 다음의 (4)에 제시한 예가 하나 보일 뿐이다.

(4). 이 다 하ᄂᆞᆯ히 올히 아니 너겨 하어버ᅀᅵ도 뎌ᄉᆡᆼ애셔 필연 니마 ᄢᅵᆼ긔 오뒤 돕디 아니ᄒᆞ리라<正俗10a08>

위에서 살펴본, 「ᄃᆞᆼᄃᆞᆼ이, ᅌᅳᆼᄃᆞᆼ히, 필연」 등은 수집된 용례의 수가 적어, 현단계에서는 호응관계의 특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여기에서는 문제의 제기에 그치기로 한다.

(카). 【아ᄆᆞ라나마나 (胡亂·不揀怎麼) / 아ᄆᆞ려나 (怎生) / 아마려나】

한편, 다음의 (카~타)의 어찌씨 「아ᄆᆞ려나」나 「어셔」는, 앞에서 살펴본 바의 당위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앞에 다른 어찌씨들과 그 의미적인 면에서 약간 성격을 달리 한다.

이 어찌씨들은, 월의 으뜸마디의 풀이말의 말재와 매우 적극적으로 호응할 뿐 아니라, 희망·소원·당부 등의, 주로 말할이의 감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여기에는 「아무려나마나」(1), 「아무려나」, 「아마려나」, 「어셔」 등이 속한다.
그러나, 16세기 말재어찌씨의 체계 속에서 볼 때, 이 범주의 어찌씨는, 다른 범주의 어찌씨들에 비해, 이에 속하는 낱말의 수나 쓰임의 빈도의 면에서 극히 빈약하다.

카-0. 개관

이들 어찌씨의 분포를 보면, 16세기 초기의 「노걸대」와 16세기 중엽 이후의 「간찰」 이외의 자료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노걸대」에서는 「아무려나마나」(3례), 「아무려나」(1례)가 보이는 반면, 「간찰」에서는 「아무려나」(19례), 「아마려나」(3례)가 나타난다.
이 어찌씨의 분포가 이렇게 제약된 이유는, 시대적인 이유보다는, 문헌자료의 문체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즉, 이들 어찌씨가 출현하는 두 자료는, 다른 자료에 비해서 비교적 입말체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I-2)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6세기 국어의 자료는 거의 대부분이 교화서를 중심으로 한 번역체, 직역체 등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어찌씨가 「노걸대」의 용례에서는 시킴법의 씨끝과, 「간찰」에서는 시킴법이나 꾀임법의 씨끝과 주로 호응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개인적인 부탁이나 제안 등으로 쓰이는 월 구조가 상대적으로 빈번히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1. 시킴법의 씨끝과의 호응

「아무려나」(2)는, 주로 시킴법의 씨끝과 호응, 「어찌되었든 상관없이」 혹은 「제발, 부디」라는 의미로 쓰인다.
다음의 용례는, 씨끝 {-으라} 와 {-오ᄃᆡ여} 등에 의해 이루어진 시킴월에 「아무려나」가 나타나는 것들이다.

a. 아무려나 … {-어라/-거라/-으라/-오/-오ᄃᆡ여}
(1). 아무려나 내 바다 빌 갑고 하 비디 비디거든 앗가온 것 더러 두어라 <간찰010a10>
(2). 아무려나 빋 곱히디 말라<簡札084a09-10>

(1). 허웅(1989:210)에서는, {-으나마나}를 불구법의 씨끝의 하나로 세우고 있다. 물론 씨끝의 체계에 주안을 둔다면 이는 당연한 처리방법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아무라나마나」나 「아무려나」를 하나의 어찌씨로 처리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이들 앞에 아무런 문법적인 요소를 동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다음에 뒤따르는 월의 서법적 표현과 호응한다는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와 비교하면 쉽사리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무숨조초 니르나마나 ᄒᆞ나므라ᄂᆞ니ᅀᅡ 살 님재라<老下31a06>
(2). 이하, 「아무려나」로 대표하기로 한다.

(3). 아므려나 견듸여 사라거라<簡札067a04>
(4). 쥭 쑤워 아므라나마나 곫픈 듸 머그라<老上54a8>
(5). 심심ᄒᆞᆫ 이리 이셔도 므ᄋᆞ물 자바 아므려나 편히 겨소<簡札049a04>
(6). 이므라나마나 혜디 말오 우리를 ᄒᆞᆫᄅᆞᆺ밤만 자게 ᄒᆞ듸여<老上49b3>

(1~2)의 「아므라나마나」는 들을이에 대한 시킴이 강제적이거나 구속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할이의 희망 혹은 요청이나 부탁에 가까운 것으로 느껴지게 한다. 이러한 시킴의 질적인 변화는, 「아므라나마나」에 드러나는 말할이의 태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카-2. 물음법의 씨끝과의 호응

「아므려나」가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 다음에 보이는 것과 같이, {-으랴, -뇨} 등이 쓰인다.

b. 아므려나 ··· {-으랴/-뇨}
(7). ᄒᆞ나리 우리 이룰 아ᄅᆞ시면 아므려나 이버ᄂᆡ 아니ᄒᆞ랴마는···<簡札067a05>
(8). 내 주글 저기 아니면 아므려나 아니 사라나랴<簡札166a18-19>
(9). 아므라나마나 네 나를 져기 쥭 쑤워 주듸 엇더ᄒᆞ뇨<老上55a6>

(7~8)의 경우에는 물음월이 반문으로 해석되어, 「아므려나」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든」 등의 뜻으로 쓰인다.
한편, (9)의 경우, 「아므려나」는, 「부디, 제발」의 뜻으로 해석되어, 말할이의 매우 정중한 요청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카-3.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

「아므려나」가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말할이의 의지, 소원 등을 나타내는 씨끝에 국한된다.

c. 아므려나 ···(-고져) ··· {-노라/-뇌/-어지라}
(10). 나도 아므려나 쉬 가고져 ᄒᆞ노라<簡札065a10>
(11). 아므려나 가 다시 ᄌᆞ식ᄃᆞ리나 ᄃᆞ리고 사다가 죽고져 ᄇᆞ라뇌<簡札152a10>
(12). ᄉᆡᆼ각 잇거든 보내고 아니 ᄉᆡᆼ각 잇거든 아마려나 ᄉᆡᆼ각 ᄂᆡ이리나 닙고져 ᄒᆞ뇌<簡札118a11>
(13). 아므려나 져기 ᄇᆞᆨ롤 ᄇᆞᆺ괴여 주어든 밥 지ᅀᅥ 머거지라<老上40a6>

카-4. 꾀임법의 씨끝과의 호응

「아므려나」가 꾀임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예는 매우 드물어, 다음의 예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d. 아무려나 … {-쟈}

(14). 아무려나 므스믈 누겨 잡녀를 말고 궁ᄒᆞ나 ᄌᆞ시 믈 니저셔 됴리 ᄒᆡ여 서르 사라다가 맛보쟈<簡札013a0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6세기 문헌상의 「아무려나」는 그리 생산적인 쓰임을 보이는 어찌씨는 아니다. 그러나, 입말체의 편지에서 특히 부탁이나 당부를 할 때에 주로 쓰인다는 특징을 보인다.

씨끝과의 호응관계에 있어서는, 시킴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말할이의 요청이나 희망등을 나타내는 것이 주된 기능으로 보인다. 이는, 용례는 적지만, 꾀임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 주로 말할이의 소원이나 의지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시킴법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타). 【어셔(速)】

「어셔」는, 16세기의 자료에서는 「속삼강행실도」에 다음의 단 한 예 밖에 보이지 않는다.

(1). 남진 얼유려 ᄒᆞ거늘 仇音方이 … 죽도록 고기와 마ᄂᆞᆯ 파 먹디 아니터라 ᄯᅩ 샹녜 어셔 주구리라 ᄒᆞ고 梳杞티 아니ᄒᆞ더니<續三316a11>

(1)에서 「어셔」는 씨끝 {-으리라} 에 의한 서술법의 월에 나타나고 있는데, [1] 이 경우 「어셔」는 「얼른 죽고 싶다」는 말할이의 소원 혹은 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

이상의 (가~타) 에서 살펴본 당위·시킴의 말재어찌씨와 의향법의 씨끝과의 호응관계를, 구체적으로 용례에 나타난 씨끝의 종류와 월의 말재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4>와 같다. [3]

---

(1). 고정의(1985:11)에서는, 15세기의 문헌에 있어서의 「어셔」에 대해, 다음의 예를 바탕으로 하여 시킴월과만 공존관계를 보이는 어찌씨로 분류하고 있다.

◎ 부텨 어셔 도외샤 衆生을 濟度ᄒᆞ쇼셔<월인석보2:42>

(2). 15세기 말의 「삼강행실도」에는 「어셔」의 예가 2례 나타나는데, 다음의 예는 본문의 (1)의 예와 마찬가지의 월이라 할 수 있다.

◎邦乂 ᄀᆞ장 구짓고 옷 밧고 곳갈 ㅂ지 텨 ᄇᆞ리고 어셔 죽가지라 커늘<三綱221b15>

한편, 다음의 월은 시킴월에 「어셔」가 나타나는 예이다.

◎도ᄌᆞ기 두 녁 겨틔셔 어셔 절ᄒᆞ라 ᄒᆞ고 ᄂᆞᆯ히 수플 곤거늘<三綱220a18-19>

(3). 표에 쓰인 「◎, ○」은 어찌씨와 의향법의 씨끝과의 호응가능성을 나타내는데, 「◎」은 그 호응이 매우 빈번한 경우를 나타낸다.

<표4> 당위·시킴의 말재어찌씨와 의향법의 호응관계

말재	뜻	씨끝	모로매	반드시	믈읫	맛당히	의식	모디	구틔여	감히	긋/긋드리	당당이	응당히	아무려나	어셔
의향법 서술법	당위	-을디니라, (-을디니)	◎	○		◎				○	○				
		-을디라	◎	○	○	◎				○					
		-을디어다	○			◎		○		○					
		-을것이라	◎		○	○				○		○	○		
		-{어야/어아/어사} (ᄒᆞ다)	○												
	단정	-다/-라	○		○									○	
		-(ᄂᆞ)니라, (-ᄂᆞ니/-으니)	○	◎	○			○	○	○			○		
		-으리라/-으리로다		○	○					○					○
		-으리이다		○											
		-논디라		○											
	의지	-으리라, (-으리니)	○							○					
		-으려/-고져 (ᄒᆞ다)	○											○	
	습관 느낌	-더라, (-더니)		○			○			○					
		-온뎌		○											
		-을써		○					○						
의향법 시킴법	시킴	-으라/-어라/-거라	◎	○	○	○		○						○	
		-고려/-고라	○												
		-오/-오ᄃᆡ여													
	금지	-(디 말/마)라	◎						○	○	○			○	
꾀임법		-저/-쟈	○											○	
		-(디 마)져	○						○						
물음법		-니잇고/-으리잇고		○						○					
		-을 것가/-으리잇가								○				○	
		-으랴/-으료/-으리오								○				○	
약속법 강조·영탄법		해 당 없 음													

<표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당위·시킴의 말재어찌씨들은 서술법 및 시킴법의 씨끝과 빈번히 호응함을 알 수 있다. 서술법의 씨끝 중, 특히 당위의 의미를 지닌 씨끝과의 호응 현상이 두드러진다.

「모로매」의 경우, 서술법·시킴법·꾀임법의 씨끝과의 호응이 가능한데, 당위의 서술법의 씨끝 및 시킴법의 씨끝과의 호응이 매우 활발하다.

「반ᄃᆞ시, 믈읫, 맛당히」도 분포상으로는 「모로매」와 유사하나, 각각 그 빈도로 나타나는 호응도에 있어서는 약간의 다름을 보인다. 「반ᄃᆞ시」의 경우, 단정의 의미를 지닌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이 특히 현저한 특징을 보인다. 「믈읫」은 당위·단정의 서술법씨끝과 호응하며, 「맛당히, 모ᄃᆡ, 옹당히」 등은 당위의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이 비교적 활발하다.

「구틔여, 굿, 굿드리」 등의 의향법의 씨끝과의 호응 상의 특징은 「모로매」 등과 거의 비슷하나, 풀이말에 지움법의 형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감히」의 경우, 분포 상의 특징은, 「모로매」에 필적할 만큼 폭넓게 쓰이는데, 풀이말에 지움법의 형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특성을 보인다.

한편, 「의식」은, 다른 어찌씨들과는 달리, 전적으로 지난적의 회상을 나타내는 {-더라} 등과의 호응 이외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아무려나」는, 주로 시킴법의 씨끝과 호응하거나 「의지」를 나타내는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찌씨들과 성격을 달리 한다. 특히, 당위의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예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Ⅳ. 현실 인식의 말재어찌씨

제Ⅱ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인식」의 말재는 월의 진술내용과 현실과의 관계에 대한 말할이의 인식이나 판단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월에 진술된 사실이 진실인가 아닌가, 말할이 자신이 예상하거나 기대한 바인가 아닌가, 현실적인 실현이 가능한가 등에 대한 말할이의 인식을 나타내는 언어적인 표현수단으로서, 말재어찌씨와 의향법의 호응관계가 성립된다.

이때, 현실인식의 말재와 호응하는 어찌씨는, 의향법의 씨끝과 호응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는, 제Ⅲ장의 「당위·시킴」의 말재어찌씨와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은 시킴법이나 당위의 서술법의 씨끝과는 호응하지 않고, 주로 단정(斷定)의 서술법, 강조·영탄법,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한다는 점에서 「당위·시킴」의 말재어찌씨와 구별된다.

이 범주에 속하는 어찌씨의 목록은, 이미 앞의 (1-2-3)장의 <표2-2>에 나타낸 바와 같으나, 구체적으로 이들 어찌씨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문헌에 나타나는가를 표로 보이면, 다음의 <표5-1, 표5-2, 표5-3>과 같다.

현실인식의 말재에는, 「평가·기대 (예상) 의 실현」의 말재, 「가능」의 말재, 「지움」의 말재 등이 포함된다.

월의 진술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평가 (판단) 를 나타내는 것을 「사실성의 평가」, 월에 나타난 진술내용(사실)이, 말할이 자신이 기대 혹은 예상한 바인가를 나타내는 말재를 「기대 (예상) 의 실현」의 말재라 하기로 한다.

월내용의 「사실성의 판단」을 드러내는 말재는 주로 단정적 서술법, 강조·영탄법·물음법의 의향법씨끝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이에 호응하는 어찌씨로는, 「진실로」, 「실로」, 「정히」를 들 수 있다. (1)

월의 사실성의 판단은, 월의 내용을 현실에 비추어 이루어지게 되며, 따라서 현실화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하는 시킴법이나 꾀임법의 씨끝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이들 어찌씨가 시킴월이나 꾀임월에 나타나는 일은 없다.

한편, 여기에는, 「속절업시」와 같이, 월의 진술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내용 자체에 대한 말할이의 감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어찌씨가 포함된다. 그 이유는, 이 어찌씨의 월에 있어서의 호응관계가 「사실성의 판단」을 나타내는 어찌씨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월에 진술된 사실에 대해, 그것이 말할이 자신이 이미 이전에 기대하고 있었거나, 예상했던 것임을 나타내는 수단을, 「기대 (예상) 의 실현」의 말재라 한다면, 이는 월의 사실을 현실과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말할이 자신의 기대(

(1). 현대국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부류에 속할 것으로 보이는 「분명이/분명히(分明)」는, 조사자료에서는 모두 양태어찌씨로만 기능하며, 말재어찌씨로서의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 ᄀᆞᄂᆞᆫ 시릐 분명이 다 잇ᄂᆞ니 엇디 ᄡᅳ디 몯 ᄒᆞ료<老上65a3>

◎ 아ᄂᆞᆫ 識은 제 時節 알디 아니ᄒᆞ야 分明히 아ᄂᆞᆫ 거시라<七大03a7>

◎ 온덕이며 원슈를 분명히 ᄒᆞ라<小八15b7>

예상)했던 사실과 비추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 말재는 단정적이거나 느낌을 나타내는 서술법, 강조·영탄법의 씨끝에 의해 드러난다. 여기에 호응하는 말재어찌씨로는, 「과션/과션히/과연/과연히」, 「마치/맛치」, 「ᄒᆞᄆᆞ시」 등을 볼 수 있다.

월의 나타난 행위나 사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말할이의 인식 혹은 판단을 드러내는 수단을, 「가능(可能)」의 말재라 한다면, 이는 현실이나 기대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전적으로 말할이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 혹은 판단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말재는, 주로 단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서술법 및 물음법의 씨끝에 의해 표현된다. 물음법의 씨끝에 의해 드러내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반어적 강조의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순수한 질문으로 해석되는 일은 비교적 드물다.

여기에 호응하는 어찌씨로는, 「능히/릉히」, 「가히/가이」, 「족히」, 「시러/시러곰」, 「어루」, 「좀히」 등이 있다.

한편, 월의 진술내용에 대한 「지움(否定)」의 뜻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서 때로는 반대의 사실에 대한 단언이나, 말할이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게 되는 수단을 「지움」의 말재라 할 수 있다. 이는, 물음법의 씨끝에 의한 물음월이 반문(反問)으로 해석되거나, 지움월의 형식에 의해 표현된다.

반문의 물음월과 주로 호응하는 말재어찌씨에는, 「엇뎨/엇디/엇뎌/엇셔/어셔/엣뎨」, 「어ᄃᆡ/어듸」, 「어ᄂᆞ/어느」, 「어느제」, 「언제」, 「ᄆᆞᄉᆞᄆᆞ라/므스므라/므스므려/므스므려/므슴호려」, 「어듸쏜/어듸쓴」 등이 속한다.

이들은 모두 본래 의문사로, 물음법의 씨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 의해 물음월이 반문으로 해석되는 경우, 월의 진술내용에 대한 「지움」의 의미 혹은 「말할이의 강한 의지」를 의미하게 된다는 점에서 말재어찌씨의 한 부류를 이루게 된다.

또 한편으로, 언제나 지움법의 월과 호응하는 어찌씨들이 있다. 이 부류에 속하는 말재어찌씨에는 「ᄂᆞ외야/노의란/노의여/뇌여」, 「ᄎᆞ마/초마」, 「싱심도/싱심이나」, 「결연히」 등이 있다.

Ⅳ-1. 평가·기대(예상) 실현의 말재어찌씨

(가). 【진실로 / 진실히 (誠·苟·委實·實·眞實·眞·眞箇·固·信)】

가-0. 개관

「진실로」는, 16세기의 전 시기에 걸쳐, 각 문헌자료에 고루 등장하는 편이다. 수집된 150례 중, 「맹자언해」(50례), 「소학언해」(30례), 「번역소학」(25례), 「논

표5-1. 현실인식의 말재어찌씨의 문헌 성격별 분포 (1)

어찌씨 갈래		현실 인식의 말재 어찌씨																		
		평가·기대(예상)의 실현												가 능						
갈래	약호(간행) \ 어찌씨	진실로	진실히	실로	정히	속절업시	과연	과연히	과연	과연히	마치	맛치	ᄒᆞ무시	능히	룽히	가이	가히	족히	시러	시러곰
三	綱(1490)	2			1	1	2							2						
역학	飜老(151?)	10			10	5	1				4		1	1						
	飜朴(151?)	7			7	4	1				2									
교화서 I	續三(1514)	1					2										1			
	飜小(1517)	25			3	1		1	1			1		11	4		9	2	1	1
	小學(1587)	30		3	2	1			3					94			119	17		26
	孝經(1589)													6			6	1		1
	論語(1590)	13			3						1			46			120	11		17
	孟子(1590)	50							3					108			200	40		57
	大學(1590)	3												15			7	1		1
	中庸(1590)	4			1					1				20			25	8		1
교화서 II	正俗(1518)	3			2	1										9	1			
	呂氏(1518)				1												5			
	二倫(1518)				2					1								1		
	警民(1579)																6			
의학	簡易(1524)	1													1					
	分門(1542)														1					
불경	父母(1553)	1																		
	七大(1569)																			
	初發(1577)	2	1	2	1	4								9						
簡	札(1565)										1									
百	聯(1563)																			
합	계	150	1	5	32	16	4	1	7	2	8	1	1	310	6	9	504	81	1	104

표5-2. 현실인식의 말재어찌씨의 문헌 성격별 분포 (2)

어찌씨 갈래		현실 인식의 말재 어찌씨																		
		가능		지움																
갈래	약호(간행) \ 어찌씨	어루	촘히	엇뎌	엇뎨	엇디	엇디엇디	엇셔	어셔	엣뎨	어ᄃᆡ	어듸	어ᄂᆞ	어ᄂᆡ	어느	어늬	어늬제	언제	므ᄉᆞ므라	므스므라
三	綱(1490)	1			40					2	1	4								2
역학	飜老(151?)					46						15	1		1					3
	飜朴(151?)					19						15								
교화서 I	續三(1514)				2	1						1								
	飜小(1517)				5	49										1		1		
	小學(1587)				3	63										1				
	孝經(1589)					4								1						
	論語(1590)					94						6								
	孟子(1590)					208					9	1					1			
	大學(1590)																			
	中庸(1590)					2														
교화서 II	正俗(1518)		1		1	6						1								
	呂氏(1518)																			
	二倫(1518)					7														
	警民(1579)					1														
의학	簡易(1524)					1														
	分門(1542)																			
불경	父母(1553)			1	4															
	七大(1569)	1			8							2								
	初發(1577)	1				20														
簡	札(1565)					52	1	4	1		9			3				1	3	
百	聯(1563)																			
합계		2	1	1	23	586	1	4	1	0	18	47	1	4	1	2	1	2	3	3

표5-3. 현실인식의 말재어찌씨의 문헌 성격별 분포 (3)

어찌씨 갈래		현실 인식의 말재 어찌씨																			
		지										옴									
갈래	약호(간행) \ 어찌씨	므스므려	므스므려	므습호려	므습홈여	므솜	므습	어드리	어듸산	어듸쓴	어듸썬	어딋던	어딋썬	누외야	노의란	노의여	뇌여	추마	촘아	싱심도	싱심이나
三	綱(1490)							2			1	2	1					6			
역학	飜老(151?)		5	1			1		1						1	2					
	飜朴(151?)		1	1					1	1						1					1
교화서 I	續三(1514)																	5			
	飜小(1517)																	6			
	小學(1587)	1	1		1	1												2	7		
	孝經(1589)																				
	論語(1590)						5														
	孟子(1590)						7											1	4		
	大學(1590)																				
	中庸(1590)																				
교화서 II	正俗(1518)																				
	呂氏(1518)																				
	二倫(1518)																	2			
	警民(1579)																				
의학	簡易(1524)																				
	分門(1542)																				
불경	父母(1553)																				
	七大(1569)																				
	初發(1577)													1							
簡	札(1565)																1	1		1	
百	聯(1563)																				
합	계	1	7	2	1	1	13	0	2	1	0	0	0	1	1	3	1	17	11	1	1

어언해」(13례) 등의 교화서Ⅰ의 문헌에 모두 118례가 집중되어 나타나는 데 반해, 교화서Ⅱ에서는 「정속언해」에 세 번 밖에 나타나지 않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밖에는, 「노걸대」(10례)와 「박통사」(7례)에 17례가 출현하는 점이 두드러지며, 다른 문헌에서는 1~4례가 나타날 뿐이다.

한편, 「진실히」의 형태로는 「초발심자경」에 단 한 곳에 보일 뿐이다.

「진실로」[1]는, 월의 진술내용에 대한 말할이의 사실성의 평가의 의미를 강하게 띠는 어찌씨로, 그 의미작용의 면에서 볼 때, 월의 진술내용이 말할이의 처지에서 사실 혹은 진실임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진실로」는 반드시 월의 의향법의 씨끝과 호응관계를 맺으며, 그러므로, 조건·가정의 말재어찌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이음법의 씨끝에 의한 말재의 형성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진실로」는, 단정·의지·느낌을 나타내는 서술법의 씨끝, 강조·영탄법,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지만, 시킴법, 꾀임법 및 약속법 등과는 호응하는 예를 보여 주지 않는다.

「진실로」는, 월에서의 위치에 관한 한, 월의 첫머리에 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외의 위치에도 꽤 자유로이 설 수 있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월의 의향법에 있어서 드러나는 말재를 중심으로 어찌씨 「진실로」가 어떠한 짜임의 월을 형성하게 되는가를 살피기로 한다.

가-1.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

「진실로」가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 월의 첫머리에 서는 경우와 그 밖의 특정한 위치에 나타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a. 진실로 … {-ᄂᆞ다/-으니라/-옴셔}

(1). 다문 거즈마를 잘 니ᄅᆞᄂᆞ니 진실로 나를 애돌와 주기 셟게 ᄒᆞᄂᆞ다 <朴通35b1>

(2). 아젼의 도족ᄒᆞᆫ 거슨 젹디 아니ᄒᆞ니 일로 큰 죄를 니보미 진실로 에엿브니라<小七28b5-6>

(3). 해 진실로 영노솜갑고 ᄉᆞ밋가옴셔<朴通15a2>

(a)에서는, 「진실로」가, 단정적 의미를 지닌 씨끝 {-ᄂᆞ다, -으니라}, 그리고 느낌을 나타내는 씨끝 {-옴셔} 등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진실로」는, 각 월의 진술내용의 사실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한다.

「진실로」의 월에 있어서의 위치는, (1)과 같이 뒷마디의 첫머리, (2~3)에서와 같이, 풀이말의 바로 앞 등으로 나타나, 위치의 이동이 자유스러운 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b)의 경우에는, 「진실로」가 지움월에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움의 내용전체가 어찌씨의 수식범위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 부정된 일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1). 이하, 「진실로」로 대표하기로 한다.

b. 진실로 … {-라/-으리라}

(4). 小人이 진실로 일즉 아디 몯 호라<朴通66b2>
(5). 저희네ᄂᆞᆫ 진실로 잡사ᄅᆞᆷ 아니라<老上52a2>
(6). 이런 갑새ᄂᆞᆫ 진실로 프디 몯 ᄒᆞ리라<老下11b6>
(7). 이러면 네 ᄆᆞᄅᆞ고져 ᄒᆞ노괴여 / 내 진실로 아니 호리라<老下19a7>

(b)는 모두 지움월의 예들로, 「진실로」는 지움의 「아니, 몯」을 포함한 월 전체와 호응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3)에서는 「일찌기 알지 못했다」는 것, (4)에서는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5)에선 「팔지 못한다」는 것, (6)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각각 사실 (진실) 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일들을 사실로 판단하는 것은 말할이이다. 또한 그러한 사실성은 결코 월의 진술내용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월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일들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은 전적으로 말할이에 의한 것이다.

가-2. 강조·영탄법의 씨끝과의 호응

「진실로」는, 월의 진술내용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므로, 그러한 사실성에 대해 강조하는 경우 강조·영탄법의 안맺음씨끝을 포함한 {-어라/-도다/-니라} 등의 씨끝들과 빈번히 호응한다.

c. 진실로 … {-어라/-도다/-로다}

(8). 진실로 올히 간난ᄒᆞ애라<老上54b1>
(9). 진실로 더리도록 만히 됴ᄒᆞᆫ 온이 업세라<老下63b5-6>
(10). 이 느즌 바ᄆᆡ 내 진실로 ᄇᆡ 곫패라<老上52b6>
(11). 內史ㅣ 술위예 안자시몰 ᄌᆞ득히 호미 진실로 맛당ᄒᆞ도다<小九086b9-87a1>
(12). 진실로 됴ᄒᆞᆫ 법이로다<朴通14a1>
(13). 진실로 정셰ᄒᆞᆫ 사ᄅᆞ미로다<朴通42b1-2>

가-3. 물음법의 씨끝과의 호응

다음의 (d)는, 「진실로」가 물음법의 씨끝 {-으냐/-온고} 등에 의한 물음월에 나타나는 예이다.

d. 진실로 … {-으냐/-온고}

(14). 그 ᄇᆞ드들 아디 몯 ᄒᆞ면 ᄯᅩ 단월의게 진실로 붓그럽디 아니ᄒᆞ냐<初發31b6>
(15). 님금이 高允ᄃᆞ려 무르샤ᄃᆡ 진질로[1] 太子의 니ᄅᆞᄂᆞᆫ 말와 ᄀᆞᆮᄒᆞ냐<小九046a9>

---

(1). 「진실로」의 오자로 보인다. 대응하는 중국어는 「信」으로 나타난다.

(16). 王이 笑ᄒᆞ고 ᄀᆞᄅᆞ샤ᄃᆡ 이 진실로 엇던 ᄆᆞ옴이런고<孟一21b01-02>

(14)는 반문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의 「진실로」는 월이 의미하는 바 진술내용 즉 「부끄럽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할이 (여기서는, 묻는이) 의 단정에 가까운 뜻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15~16)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15)의 경우에는 순수한 물음월로서, 「태자의 이르는 말과 같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15)의 경우에는 진술내용의 사실성 여부를 들을이에게 묻는 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15)의 월의 내용에 대한 사실성의 판단은 들을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16)의 경우는 의문사 「엇던」을 월에 포함함으로써, (14~15)와는 달리, 「어떤 마음인」 것이 진실이냐는 식의 해석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것이 어떤 마음으로부터인 것인지」 진실로 거짓없이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해석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16) 역시 (15)와 같이 월의 내용에 대한 사실성의 판단을 들을이에게 양도한 물음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4.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진실로」가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위치하는 경우, 뒤따르는 월의 사실성을 표시한다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다.

그러나, 「진실로」가 겹월의 앞마디에 나타남으로써, 겹월의 마침마디의 의향법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된다.

(17). 처엄 벼슬ᄒᆞᆫ 됴시 진실로 사ᄅᆞᆷ 어엿비 녀기ᄂᆞᆫ ᄆᆞᅀᆞᄆᆞᆯ 두면 사ᄅᆞᄆᆡ게 반ᄃᆞ시 거느리칠 주리 이시리라<小七26a1>

(18). 진실로 됴ᄒᆞᆫ ᄆᆞ리어니와 다ᄆᆞᆫ 그 병도 져기 이시며 ᄋᆞᆫ도 ᄇᆞ죡ᄒᆞ야 일즉 사오디 아니 호라<朴通63b5>

(19). 사회 진실로 어딜면 이제 비록 가난ᄒᆞ고 미쳔ᄒᆞ야도 엇더 다ᄅᆞᆫ 시져레 가ᅀᆞ멸며 귀티 아닐 주를 알리오<小七32b1;cf. 32b3>

(20). 진실로 나래 새롭거든 나날 새로이 ᄒᆞ고 ᄯᅩ 날로 새로이 ᄒᆞ라 <大學04b04>

(21). 어비 ᄇᆞ리고 주구미 진실로 ᄇᆞ회 나 내 향거시 이시면 어미ᄅᆞᆯ 어엿비 너길 거시니 슬허 말라<續三205b07>

(22). 나ᄂᆞᆫ 진실로 가난ᄒᆞ고 텬호니 그 녜ᄅᆞᆯ 지ᄃᆞᆼ티 몯, ᄒᆞ리로다<小九059a4>

(23). 주거 여흐믄 진실로 ᄎᆞᆷ디 몯ᄒᆞ거니와 사라셔 여희미 다옥 셜 ᄇᆞ도다 <父母10a06>

(24). 비록 이러ᄒᆞ나 지비 진실로 조브니 자디 몯 ᄒᆞ리라<老上49a6-7>

위의 용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음씨끝 {-으면, -어니와/-거니와, -으니, -거든, -으나} 등에 의한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진실로」가 나타날 때에

는, 겹월의 마침마디에는 서술법(17~18, 24), 물음법(19), 시킴법(20~21), 강조·영탄법(22~23) 등의 의향법의 씨끝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앞의 (가1~가3)에서 밝혀진 제약이 전혀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진실로」가 수식하는 영역은, 그 속한 이음마디에 국한된다. 즉, (17)의 예문에서는, 앞마디 「처엄 벼슬ᄒᆞᆫ 됴ᄉᆡ 사ᄅᆞᆷ 어엿비 너기ᄂᆞᆫ 모ᄉᆞᄆᆞᆯ 두」는 것이 진실이라면, 뒷마디의 사실이 성립함을 단정짓는 월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미 해석은 (18~24)의 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진실로」가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나타나는 경우, 그 꾸밈의 힘은 어찌씨가 속한 마디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제약은, 특히 (25)의 경우와 같이, 같은 어찌씨가 동등한 자격을 지니고 나열된 이음마디에 제각기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더욱 명백해진다.

(25). 小ㅣ 진실로 可히 ᄡᅥ 大ᄅᆞᆯ 敵디 몯ᄒᆞ며 寡ㅣ 진실로 可히 ᄡᅥ 衆을 敵디 몯ᄒᆞ며 弱이 진실로 可히 ᄡᅥ 強을 敵디 몯ᄒᆞᄂᆞ니<孟—30b01-03>

「진실로」는, 위의 각 예문(17~2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월에 나타나는 위치에 거의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 위치로서는, 겹월의 첫머리, 임자말의 바로 뒤, 풀이말의 바로 앞 등, 비교적 자유롭게 월 안에서의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가-5. 기타

그다지 빈번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로」가 매김법의 씨끝에 의한 매김마디에 출현하는 용례가 나타난다.

(26). 만이래 듣디 아니 ᄒᆞ거시든 진실로 이레 큰 해 업스니란 또 맛당이 곡지니 좃ᄌᆞ올디니<小七02b2>

(27). ᄌᆞ뭇 그 녜와 이제와 ᄃᆞ옴이 업손 거시 진실로 비르소 可히 行티 몯ᄒᆞᆯ 거시 아닌 줄을 아디 몯ᄒᆞᄂᆞ니라<小學—書題02b03>

(28). 어듸 진실로 ᄆᆞᆯ 사고져 ᄒᆞᄂᆞ니고<老下12b3>

(26~28)의 경우에도 「진실로」가 매김마디에 표현된 진술내용에 대한 사실성을 드러낸다는 점, 그리고 그 꾸밈의 범위가 매김마디에 국한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진실로」의 경우, 마침법의 씨끝 중 서술법, 강조·영탄법,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월의 진술내용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드러낸다.

한편, 「진실로」의 경우에는 이음겹월에 출현할 때의 수식범위는 그 속한 마디에 국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실로(實)】

나-0. 개관

「진실로」와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닌 「실로」는 그 쓰임이 매우 제약되어, 본고의 조사대상의 문헌에서는 16세기 말기의 「소학언해」(3례)와 「초발심자경」(2례)에 나타날 뿐이다.

나-1.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

「실로」가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예로는 다음의 (1)의 예가 나타난다.

(1). 궤며 셔안의 狼籍ᄒᆞ며…버리지와 쥐의 ᄒᆞ여 ᄇᆞ린 배 되ᄂᆞ니 실로 德을 더러이미 되ᄂᆞ니라<小學五117b08>

(1)의 「실로」는 단정의 의미를 지닌 서술법의 씨끝 {-ᄂᆞ니라}와 호응, 「덕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2.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실로」가, 다음의 (2~3)과 같이,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위치하는 경우, (가)의 「진실로」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사ᄅᆞᄆᆡ 목수미 슈유지간이라 실로 시시예 안보히 마로리니 ᄒᆞ다가 가 조ᄉᆞ관올 ᄉᆞ못디 몯 ᄒᆞ면 엇디 편안히 좀 자리오<初發62a1>
(3). 덕 업시셔 잔 달니 보미 실로 나는 붓그러오니<初發72b2>

(2~3) 모두 씨끝 {-으니/-으리니} 에 의한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위치, 각각 그 속한 마디의 진술내용에 대해, 그 말이 참이라는 사실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 【정히(正·端的·眞箇·精)】

다-0. 개관

「정히」는, 16세기의 자료에 있어서의 빈도면에서 보면, 초기의 문헌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역학서의 「노걸대」(10례)와 「박통사」(7례)에 가장 빈번히 나타난다.

「정히」가 말재어찌씨로 기능하여 월의 진술내용과의 의미적 관계를 맺는 경우, 앞서 (가~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진실로」, 「실로」와 마찬가지로, 월의 진

술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말할이의 판단을 드러낸다. (1)

「정히」는, 현실인식의 말재어찌씨에 속하는 다른 어찌씨들과 마찬가지로, 월의 의향법의 씨끝과 호응관계를 가진다. 특히, 강조·영탄법 및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이 그 중심을 이루며, 간혹 물음법의 씨끝과도 호응하는 일이 있다.

다-1. 강조·영탄법의 씨끝과의 호응

다음의 (a)는, 「정히」가 강조·영탄의 의미를 지닌 씨끝 {-도다/-로다}와 호응하여 출현하는 예인데, 이것은 「정히」가 말재어찌씨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의 가장 빈번하며 대표적인 쓰임으로 보인다.

a. 정히 … {-도다/-로다}

(1). 오ᄂᆞᆯ 비 오니 정히 바독 두미 됴토다<朴通22b5>

(2). 형아 네 닐오미 정히 올타<老下66b7; cf.老上54b7>

(3). 오ᄂᆞ리 스므이트리로소니 새배 정히 돌 볼ᄀᆞ리로다<老上25a4>

(4). 이 ᄌᆞ르믜 니ᄅᆞ논 갑시 정히 고ᄃᆞᆫ 마리로다<老下13b8>

(5). 이제 또 사ᄅᆞ믜 모ᄆᆞᆯ 어드나 정히 이 부텨 업ᄉᆞ신 후 말세로다 <初發41a1>

(6). 이제 이 칠월 립츄ㅣ 오 사신 제 ᄒᆞ니 정히 박핑이 틸 시져리로다 <朴通17b1>

(a)에서 볼 수 있는 「정히」의 쓰임을 보면, 「진실로, 실로」와 마찬가지로 월의 진술내용에 대한 사실성의 판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1)의 경우, 「(비가 오므로) 바둑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사실(즉, 진술의 내용)에 대해, 그것이 말할이의 처지로 볼 때에는 「정말로, 진실로」 그러하다는 해석이 성립한다. 이러한 해석은 (2∼6)의 용례 모두에 있어 공통적이다.

다-2.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

「정히」가 월의 진술내용에 대해, 그것이 말할이에게 있어서는 거짓이 아닌 참

---

(1). 그런데, 이 어찌씨의 경우 다음과 같은 모양어찌씨로서의 쓰임이 특히 현저히 드러나, 16세기에 이미 모양어찌씨와 말재어찌씨의 두 기능이 혼재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정히」의 「(똑)바로, 단정히, 올바르게」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모양어찌씨로서의 전형적인 쓰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歲拜ᄅᆞᆯ 정히 ᄆᆞ숨곳 두워 ᄒᆞ면 寒食나리라도 늣디 아니ᄒᆞ니라<朴通67a6>

◎ 모로 뵈며 셔매 반ᄃᆞ시 방소ᄅᆞᆯ 正정히 ᄒᆞ며 기우려 듣디 아니케 홀디니라 <小學一08a03>

◎ 약정이 나 하고 ᄀᆞ장 존ᄒᆞᆫ 사ᄅᆞᆷ으로 정히 서ᄅᆞ 향ᄒᆞ야 셔라<呂氏32a04/鄕約38b6>

◎ 風俗을 정히 ᄒᆞ며 어딘 사ᄅᆞᆷ 어두모로 웃드를 사몰디니<小九012a5>

◎ 글ᄌᆞ곳 그ᄉᆡᄅᆞᆯ 모로매 반독반독이 정히 ᄒᆞ며…<小八16b1>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본고의 「정히」의 빈도에 관한 통계는 이 두 쓰임을 갈라야 할 것이나, 쓰임의 비교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모두 포함하기로 한다.

된 것임을 주장하는 뜻을 나타낸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래 (b)와 같이,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b. 졍히 … {-다/-ᄂᆞ니라}

(7). 해 내 졍히 일즉 아디 몯 호라<朴通66b9>

(8). 밧긔 나면 졍히 사ᄅᆞᆷ 근심 ᄒᆡᄂᆞ니라<朴通54a6>

(b)에서 볼 수 있듯이, 「진실로, 실로」에 비해 볼 때, 「졍히」의 경우에는 서술법 중에서도 강조·영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일이 더 잦다.

(7)에서는 이 어찌씨가 지움월과 공기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졍히」는 지움월 전체를 그 꾸밈의 범위에 포함한다. 즉, 「일찌기 알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3. 물음법의 씨끝과의 호응

「졍히」가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월에 나타나는 일은 매우 드물지만, 다음과 같은 예가 보인다.

c. 졍히 … {-ᄂᆞ다}

(9). 네 졍히 므슴 비단 ᄒᆞ고져 ᄒᆞᄂᆞ다<老下26b6>

(9)는 의문사 「므슴」을 포함하고 있다. 「졍히」는 「진정으로 말하자면, 솔직하게 말하자면」에 가까운 의미로 해석되어 진술내용의 사실성의 판단이, 말할이로부터 들을이에게 옮겨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다-4.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이음겹월에 「졍히」가 쓰여, 그 겹월의 이음마디에 위치하는 경우, (가~나)의 「진실로, 실로」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자말의 바로 뒤에 위치하는 일이 많다. 이것은 특히 이음겹월의 앞뒤마디의 임자말이 다른 경우에, 어찌씨 「졍히」의 꾸밈의 범위가 이음마디에 국한된다는 사실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10). 이제ᄂᆞᆫ 졍히 섯ᄃᆞ리니 하ᄂᆞᆯ도 칩다<老下35b3>

(11). 人蔘은 졍히 그처시니 갑시 ᄀᆞ장 됴ᄒᆞ니라<老下02b2>

(12). ᄒᆡ 졍히[1] 나지니 져기 덥다<老上62b1>

위의 용례는 각각, 「이제는 섣달이다」(10), 「인삼이 그쳤다」(11), 「해가 (높아져서) 낮이 다 되었다」(12)라는 앞마디의 진술내용이 사실임을 말할이가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때, 「졍히」의 수식작용이 겹월의 마침마디에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1). 아세아문화사(1980)의 영인본 「原本 老乞大諺解(全)」의 이 부분은 글자가 약간 불분명하여, 「징히(正)」로 보이나 「졍히」가 바르다.

관한 한, 「정히」가 쓰인 자리 즉 어순관계로 볼 때, 부정적이다. 즉, (10~11)에는 앞뒷마디의 임자말이 서로 달리 나타나며, (12)도 뒷마디의 임자말이 겉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읽기에 따라서는 같은 임자말로도 다른 임자말(예를 들면, 날씨 등)로 볼 수도 있다.

한편, 다음의 (13~14)는 씨끝 {-고}에 의해 구성된 겹월의 이음마디에 「정히」가 쓰인 예이다.

(13). 하ᄂᆞᆯ히 곡식글 내요ᄆᆞᆫ 정히[1] ᄇᆡᆨ셩의 주우리믈 구호려코 하ᄂᆞᆯ히 가수면 집블 복 주샤미 정히[2] 가난ᄒᆞ니 가ᄉᆞ며니 서르 ᄌᆞ뢰게 ᄒᆞ시ᄂᆞ디니〈正俗27b03;04〉

(14). 우리 정히 ᄇᆡ 골ᄑᆞ고 목 ᄆᆞᆯ라 이신 저긔 쥬ᄉᆡᆫ이 이리 차반 주워 머기니 엇디 너를 니즈리오〈老上43b8〉

(13)에서는, 씨끝 {-고} 에 의한 겹월의 앞뒤마디에 각각 「정히」가 나타나, 이 어찌씨의 꾸미는 범위가 각 마디에 국한됨을 보여 준다.

그런데, (14)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여늬의 이음씨끝의 경우와는 달리, {-고}의 앞뒤마디가 모두 어찌씨의 수식의 범위에 든다. 그러므로, (14)는 「저긔」를 매기는 매김월 전체가 어찌씨의 수식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히」는 월에 진술된 사실의 참됨(사실성)에 대해 말할이가 주장한다고 하는 면에서, 「진실로, 실로」와 매우 유사한 의미기능을 수행한다.

씨끝과의 호응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강조·영탄법의 씨끝과의 호응이 특히 두드러지고, 그 밖에 서술법 및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라). 【속졀업시(徒·沒由來·空·虛·乾)】

라-0. 개관

16세기의 문헌자료에 있어서의 분포를 보면, 주로 초기의 문헌에 자주 등장하고 말기의 문헌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초기의 문헌을 구체적으로 보면, 「노걸대」 5례, 「박통사」 4례, 「번역소학」·「정속언해」에 각각 1례가 나타나며, 말기의 문헌에 있어서는 「초발심자경」에 4례, 「소학언해」에 1례가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 「진실로」와 「실로」는 뒤따르는 진술내용의 사실성에 관한 말할이의 판단 즉 평가를 나타내는데 대해, 「속졀업시」는 「속절없이, 어쩔 도리 없이, 헛되이, 쓸데없이」란 의미로 쓰여 월의 진술내용에 대한 말할이의 감정적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가~다)의 「평가의 말재어찌씨」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속졀업시」가 의향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 서술법과 강조영탄법,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예를 볼 수 있다.

라-1.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

다음의 (a)에 나타난 것과 같이, {-노괴여/-도쇠이다/-으리로다} 등의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나타나는 경우, 「쇽졀업시」는 그에 뒤따르는 진술내용에 대한 말할이의 태도를 드러낸다.

a. 쇽졀업시 … {-노괴여/-도쇠이다/-으리로다}
(1). 네 그저 풀 갑슬 니ᄅᆞ라 쇽졀업시 간대로 갑슬 바도려 ᄒᆞ노괴여<老下10b2>
(2). 小人이 매실 지븨 잇디 아니ᄒᆞ다니 얼우시니 어제 ᄒᆞᆫ디위 쇽졀업시 ᄃᆞ니시도쇠이다<朴通58b9>
(3). 나그내네 네 ᄀᆞ장 너므 바도려 말라 너희 둘히 쇽졀업시 일우디 몯ᄒᆞ리로다 <老下11a3>

「쇽졀업시」는 위의 (a)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월의 첫머리(1), 풀이말의 바로 앞(2~3)의 어느 위치에도 설 수 있다.

(1~2)에서는 각각 「값을 되는 대로 받으려 한다」, 「어제 한참 돌아다녔다」는 사실에 대해 그것이 쓸데없거나 헛된 것이라고 하는 말할이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말할이의 태도는 들을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월에서 진술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태도 즉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3)에서는, 지움의 월에 「쇽졀업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움월 전체가 이 어찌씨의 꾸밈의 대상이 된다. 즉, (3)의 「흥정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이 공허하며 쓸데없는 것이라는, 말할이의 판단이 여기에 드러난다.

라-2. 강조·영탄법의 씨끝과의 호응

「쇽졀업시」가 서술법의 월에서 드러내는 「진술내용에 대한 말할이의 태도」로서의 「쓸데없이」 등의 의미는 다음의 (4)와 같이 강조·영탄의 의미를 지닌 월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b. 쇽졀업시 … {-으리랏다}
(4). 뎨 가 석 ᄃᆞ리나 묵노라 ᄒᆞ야 집삭 무러 쇽졀업시 허비ᄒᆞ리랏다<朴通54a2>

(4)에서 「쇽졀업시」는, 「(시간을) 허비ᄒᆞ다」란 행위의 양태(모양)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허비ᄒᆞᆫ다」는 사실 자체가 헛된 것이라는, 말할이의 판단을 드러내는 일을 담당한다.

라-3. 물음법의 씨끝과의 호응

한편, 드물기는 하지만, 물음법의 씨끝 {-으료} 에 의한 물음월에 「쇽졀업시」가 나타나는 일이 있다.

c. 쇽졀업시 … {-으료}

(5). 므슴 <u>쇽졀업시</u> 겻고료<老下63a4>

(5)의 물음월은 반문으로 해석되는데, 「쇽졀업시」가 나타남으로써 「(흥정을 하면서) 다투는 일」이 쓸데없는 것임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서술법에서의 쓰임과 다름없다.

라-4.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쇽졀업시」가 이음법의 씨끝 {-어}, {-으며}, {-으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나타나는 경우의 의미와 수식의 범위를 살펴보자.

(6). 이제 <u>쇽졀업시</u> ᄂᆞᄆᆡ 겨집 도죽ᄒᆞ야 므슴 ᄒᆞᆯ다<朴通36b4>
(7). <u>쇽졀업시</u> 간대로 갑슬 ᄭᅬ와 므슴 ᄒᆞᆯ다<朴通32b4>
(8). 오ᄂᆞᆯ 잠ᄭᆞᆫ 담박ᄒᆞᆫ 이레 <u>쇽졀업시</u> 아ᄉᆞᆷᄃᆞᆯ 쳥ᄒᆞ야 수울도 츄ᆡ티 몯ᄒᆞ며 차반도 ᄇᆡ브르디 몯ᄒᆞ야샤이다<老下35a5>

(6~8)은, 모두 제약법의 이음씨끝 {-어} 에 의한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쇽졀업시」가 나타나는데, 그 마침마디가 (6~7)에서는 물음법, (8)에서는 서술법으로 되어 있다.

(6~7)은 마침마디가 씨끝 {-ㄹ다} 에 의한 반문의 물음월로, 「쇽졀업시」의 꾸밈의 대상은 이음마디에 국한된다. 즉, 「남의 계집을 도적한다」(6), 「되는 대로 값을 다툰다」는 사실이 쓸데없거나 헛되다고 하는 말할이의 판단이 이 어찌씨에 의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8)에서도 「친척들을 청한 일」이 쓸데없음을 나타낸다. [1]

한편, 다음의 (9~10)에는 벌임법의 이음씨끝 {-으며} 에 의한 이음마디에 「쇽졀업시」가 쓰이고 있다.

(9). 이ᄉᆡᇰ이 언메라 ᄃᆞᆺ디 아니코 <u>쇽졀업시</u>[2] 밤나ᄌᆞᆯ 디내며 언메나 쇽졀업ᄉᆞᆫ 몸 사로려 ᄒᆞ야 일ᄉᆡᇰᄋᆞᆯ ᄃᆞᆺ디 아니키뇨<初發37b2>

(1). 예문(9)의 경우, 「쇽졀업시」의 꾸밈의 범위의 해석에 있어, 「의심ᄒᆞ야」까지인지 「터져 주니」까지인지를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해석상의 모호성은 특히 벌임법의 씨끝과 공기하는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9~10)의 용례를 참조 바람>
그러나, 어느 쪽으로 해석되든, 앞의 「진실로, 실로」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평가의 말재어찌씨가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그 속한 이음마디만을 수식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는 다름이 없다.

(2). 이 용례의 경우, 의미해석에 따라서는 말재어찌씨라기보다는, 전적으로 그 뒤의 풀이말의 속성과 관련되는 모양어찌씨로 기능한다고 볼 수도 있다. (9)와 다음의 예는 모두 풀이말로 「디내다」가 쓰이고 있는데, 이 경우 월 (혹은 이음마디) 전체의 의미와 관련을 맺는다기보다는, 「어떻게 지내느냐」는 물음에 대한 응답에서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 양태어찌씨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 ᄒᆞᆫ ᄉᆡᇰ을 <u>쇽졀업시</u> 디내면 만ᄒᆞᆫ 겁에 ᄒᆞᆫ심ᄒᆞ리니 무상이 잠ᄭᆞᆫ ᄉᆞ시라 <初發61b5>

(10). 그 내흔 속졀업시 노로몰 즐기며 수우를 맛드러 잔 머구모로 노픈 이를 삼고 일 브즈러니 흐므로 용쇽흔 무리라 흐면 비호시 수이 거츠러 아라도 흐마 뉘우조미 어려오니라〈小六19b1〉

(9)에서는 「(수신을 하지 않고) 밤낮을 지내는 일」의 속절없음을, (10)에서는 「노름을 즐기는 일」의 속절없음 혹은 헛됨을 나타낸다. 이는 (9)의 경우, {-으며}의 뒷마디에도 (비록 풀이말의 형태이긴 하나) 「속졀업다」가 나타남으로써 앞마디의 어찌씨 「속졀업시」의 꾸밈의 영역이 그 자신이 속한 앞마디에만 국한됨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11)은 겹월의 이름마디에 「속졀업시」가 나타나는데, 이 경우 역시 이 어찌씨의 수식의 범위는 이름마디에 국한된다.

(11). 속졀업시 이받 졔ᄉ 아니흠몰 버거 흐노라〈正俗19b02〉

(11)은 「이바지나 제사를 하지 않는 일」에 대해, 그것이 쓸데 없거나 속절없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속졀업시」는, 월에 나타난 사실에 대해, 그것의 헛되다는 말할이의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월의 진술내용의 사실성을 드러내는 (가~다)의 어찌씨들과는 약간의 성격을 달리 한다.

그러나, 특히 의향법의 씨끝과의 호응관계에 있어서는, (가~다)의 어찌씨들과 똑같은 환경에 나타난다.

(마). 【과연 / 과연히 / 과연 / 과연히 (果·果然·果是)】

마-0. 개관

「과연」(1)의 경우, 16세기의 단계에서 형태의 변화를 겪는다. 16세기의 자료에는 「과연」(4례), 「과연히」(1례), 「과연」(7례), 「과연히 」(2례)의 네 가지의 형태로 출현한다.

이들 형태가 나타나는 시기를 보면, 「과연, 과연히」는 초기의 문헌에만 나타나며(2), 「과연, 과연히」는 초기와 말기의 양쪽 문헌에 다 나타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과연」은 「노걸대」(1례), 「박통사」(1례), 「속삼강행실도」(2례)가 나타나며, 「과연히」는 「번역소학」에 나타나는데, 이 책의 경우 「과연」의 형태로도 1례가 쓰이고 있다.

「과연」은, 초기의 「번역소학」(1례)과 말기의 「소학언해」(3례)와 「맹자언해」(3례)에 나타나며, 「과연히」 역시 초기의 「이륜행실도」(1례)와 말기의 「중용언

(1). 이하, 이들 형태를 대표하여 쓸 경우에는, 빈도가 제일 높은 「과연」을 쓰기로 한다.
(2). 참고로, 「번역노걸대」의 「:과·연」〈老下04b2〉은, 「노걸대언해」(1670)에서는 「果然」〈老乞大諺解 下04a04〉으로 나타난다.

해」(1례)가 보인다.

그러나, 이들 형태 중 「과연」이 7례로 제일 많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빈도의 면에서 그리 높다고는 할 수 없어,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쓰임의 빈도는 그리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과연」이 월의 씨끝과 호응을 한다는 것은, 그 나타나는 위치와 관련해 나누어 볼 수 있다.

「과연」과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씨끝과의 서법적 호응의 면에서 보면, 마침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와 이음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집된 용례에서는 「과연」이 홑월에 나타나는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과연」이 겹월에 나타나는 경우엔, 마침마디에 나타나는 경우와 이음마디에 나타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과연」이 월의 의향법의 씨끝과 호응관계를 이루는 것은, 서술법과 강조·영탄법에 국한된다.

마-1.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

먼저, 「과연」이 월의 끝마디에 서서,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예를 살펴 보기로 하자.

a. 과연 … {-나다/-으니라}

(1). 오ᄂᆞᆯ 아ᄎᆞᄆᆡ 가티 울오 ᄯᅩ ᄌᆞ치 임ᄒᆞ디[?더]니 과연 아ᄉᆞ미 오고 ᄯᅩ 유뮈 오나다<老下04b2>

(2). 叔咸이 호ᅀᆞ셔 侍病ᄒᆞ며 어믜 大便을 맛 보니 ᄡᅳ더니 果과然연 病이 됴ᄒᆞ니라<續三122a09>

(a)에서 보이는 「과연」의 의미론적인 특성으로서는, 월에 표현된 사실에 앞서는, 말할이의 어떤 전제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동시에 「과연」은 그러한 전제가, 현실적으로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 전제란, 어떤 주어진 사실에 근거한, 말하는 이의 기대 혹은 예상을 의미한다. (1)의 경우 「아침에 까치가 울고 재채기가 난」 사실로부터 「누가 찾아오거나 기별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말하는 이가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는 「모친의 대변의 맛이 써진」 사실로 부터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 혹은 예상을 말하는 이가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혹은, 말하는 이의 기대·예상의)의 근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a)에서와 같이, {-더니}와 같은 이음씨끝에 의해 표현되는 앞마디에 나타난다.

여기서, 「과연」이 나타내는 바는, 앞에 언급한 근거에 의해 말할이가 가진 기대나 예상이 실현되었음이다. 그리고, 이 실현된 사실은, 「과연」이 이끄는 마침마디에 구체적으로 진술된다.

또한, 「말하는 이의 기대 혹은 예상」은, 반드시 월의 일부분으로 꼭 명시되어야 할, 의무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과연」은 말하는 이에 의해 기대 혹은 예상된 사실이, 적어도 발화시에 있어서, 이미 실현되어야 (현실화되어야) 함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마-2. 강조·영탄법의 씨끝과의 호응

「과연」이 월의 끝마디에 나타나, 강조·영탄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의 실현이 발화시와 동시에 이루어짐을 뜻한다.

b. 과연 … {-도다}

(3). 나쟈 바먀 셔긔 나ᄂᆞ니 과연 긔이ᄒᆞ도다<朴通68a8>

(3)에서 「긔이ᄒᆞ다」고 말할이가 느낀 것은, 말하는 바로 이때이며, 그러한 느낌은 앞마디의 사실로부터 당연히 기대되는 바임을 알 수 있다.

마-3.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과연」이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나타날 경우, 그 이음씨끝으로는 {-으니/-ᄂᆞ니}·{-나늘/-어늘/-거늘}·{-은대} 등이 주로 쓰인다. 이들 월은 공통적으로, 어떠한 사실이 발화시에 있어서 이미 실현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 사실들은 문맥상의 어떤 또다른 사건에 의해 기대 혹은 예상되었던 것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향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마1~마2)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4). 그 나래 과연히 와 어믜게 절ᄒᆞ고 술 머그니 거경은 범식긔 지라 <二倫33a13>

(5). 죽은 나래 창애 나문 곡식이 이시며 고애 나문 쳔량을 두어 님금을 소기디 아니호리이다 ᄒᆞ더니 그 주구매 미처는 과연히 그 말와 ᄀᆞᄐᆞ니 이러ᄐᆞᆫ 사ᄅᆞ믄 진실로 大丈夫ㅣ라 닐엄디로다<小八20b1>

(4)에서는, 「그 날에 올」 것이라는 사실이, (5)에서는 {-더니}의 이음마디에 나타난 「그 말」이 죽은 후에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이 기대·예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월의 의미관계에서 볼 때 「과연」의 이와 같은 의미기능(영향력)은, 이음씨끝 {-으니/-ᄂᆞ니}를 뛰어넘어, 그 뒤의 월의 마침마디에는 이르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다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6). 남진이 과연 주거 도라오디 몯ᄒᆞ여늘 孝婦ㅣ 싀어미 효숌호믈 데ᄒᆞ디 아니ᄒᆞ야…내톨내 다ᄅᆞᆫ 남진 어를 ᄠᅳ디 업더라<小九055b5>[1]

(6)에서 예상대로 실현된 사실은, 「남진이 주거 도라오디 몯ᄒᆞᆫ」 것이며, 그 뒤의 마디의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6)에서는 남편이 防禦 갈 때에 예상한 대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뜻한다.

한편, 이와 같이 미리 기대 혹은 예상된 사실이 월에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자주 있다.

(1). (6)과 동일한 내용의 용례가 「삼강행실도」(1490)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果과然연 몯 도라 오나늘 싀어미를 나날 새삼ᄃᆞᄫᅵ 孝道ᄒᆞ야 乃終내 다ᄅᆞᆫ 남진 홇 ᄠᅳ디 업더니<三綱105a07-08>

(7). 어버이 제 ᄠᆞ들 아ᅀᆞ가 ᄒᆞ야 샹녜 盟誓호ᄃᆡ…홀ᄂᆞᆫ 제 어버이 果괴然션 남진 얼유려 ᄒᆞᆫ대 조이 알오 목 ᄆᆡ야 ᄃᆞ라 주그니라<續三 324a10>

(7)에서는 어버이가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재가시키려 할 것이라는 예상된 사실이, 「과연」의 의미하는 바, 어김없이, 좋건 싫건, 현실로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한편, 다음의 (8)에서는, 어찌씨 「과연히」가 복합적인 구조의 겹월의 첫머리에 위치해 있다. 이 경우에도 「과연히」는 뒤따르는 월 전체를 이루는 사건 간의 관계가 예상·기대의 실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8). 과연히 이 道ᄅᆞᆯ 能히 ᄒᆞ면 / 비록 愚ᄒᆞ나 반ᄃᆞ시 明ᄒᆞ며 비록 柔ᄒᆞ나 반ᄃᆞ시 強ᄒᆞᄂᆞ니라<中庸34a03>

(8)은, {-으면}에 의한 이음마디와 {-ᄂᆞ니라}에 의한 마침마디의 이음겹월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마침마디는 내부적으로 {-으며}에 의한 하위의 이음겹월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하위의 이음마디와 마침마디 역시 {-으나}에 의한 이음겹월 구조를 갖는다.

이 때의 어찌씨의 의미작용의 범위는, 앞의 (4~7)의 경우와는 달리, 겹월의 앞마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월 전체에 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8)의 「과연히」는 결국, {-으면} 에 의한 이음마디의 사실 (즉, 도를 능히 한다는 사실) 으로부터 기대되는 결과로서의 사실이 마침마디에 진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때의 「과연히」는, 이 두 사실의 사이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더욱 월의 의미를 명백히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8)의 예에서는「明ᄒᆞ며 強ᄒᆞ」는 사실이, 발화의 시점에 있어 현실화된 것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이는, 「道ᄅᆞᆯ 能히 ᄒᆞ면」이라는 선행의 월에서 보이는 조건이 만족될 경우에, 필연적으로 「明ᄒᆞ며 強ᄒᆞ」는 결과가 뒤따르게 된다고 하는, 말하는 이의 인식에 의한 것으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대나 예상은 반드시 발화시점에 있어, 현실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도, 말하는 이에게 현실화된다는 당연한 사실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과연」이 나타난 월은, 그 월에서 진술되는 사실에 시간적으로 앞선 어떤 전제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말할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 혹은 예상을 뜻한다. 그리고 「과연」은 그러한 기대 혹은 예상이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뜻하게 된다.

월에 있어서의 「말재」와의 호응관계에 있어서는, 의향법의 씨끝과 호응하는데, 이 경우 모두 서술법과 강조·영탄법의 씨끝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1) 한편, 「삼강행실도」의 다음 예에서도, 어찌씨 「과연」에 의해 함축된 예상이 월의 앞부분 (물결선의 밑줄 부분) 에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지비셔 당다이 남진 얼이리라 ᄒᆞ야 머리 무져 信ᄋᆞᆯ ᄒᆞ야 잇더니 後에 果과然션 얼유려 커늘…<三綱311a09>

(바). 【마치 / 맛치 // ᄒᆞᄆᆞ시(恰)】

바-0. 개관

「마치/맛치」는, 빈도의 면에서는 그리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16세기의 초기와 중기, 말기 문헌에 나타난다.

「마치」는, 초기의 역학서인 「노걸대」(4례)와 「박통사」(2례), 그리고 중기의 「간찰」(1례), 말기의 「논어언해」(1례)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한편, 「맛치」는 「번역소학」에, 「ᄒᆞᄆᆞ시」는 「노걸대」에 한 번씩 보일 뿐이다.

이러한 「마치/맛치//ᄒᆞᄆᆞ시」의 분포를 볼 때, 이 어찌씨가 상대적으로 입말체를 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에 주로 나타난다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바-1. 강조·영탄법의 씨끝과의 호응

「마치」[1]가 가장 두드러지게 호응하는 것은, 강조·영탄법의 씨끝을 들 수 있다. 다음의 (a)에서는 씨끝 {-로다/-도다} 에 의한 강조·영탄법의 월에 「마치」가 나타난다.

a. 마치 … {-로다/-도다}

(1). 네 네 손늘 더 두면 마치 됴ᄒᆞ리로다<朴通23a8>

(2). 네 ᄒᆞ마 ᄆᆞᆯ 폴라 가거니 우리 벋지여 가미 마치 됴토다<老上08b5>

(3). 우리 ᄆᆞᆯ 모라 가 하츄에 가 짐ᄃᆞᆯ 설엇노라 ᄒᆞ면 마치 ᄇᆞᆯᄀᆞ리로다<老上58b3>

(1~2)는, 마침마디의 풀이말이 그림씨인 경우인데, 나타나는 용례가 모두 「둏다」임이 특히 눈에 뜨인다. 이 점은 아래의 (b의 6)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마치」는, 그 속한 월이 나타내는 내용이 예상된 그대로 딱 맞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에서는, 「(바둑을 시작하면서) 네 수를 더 둠」을 조건으로 하면 딱 좋다는 사실, 즉 예상대로 잘 될 것임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2) 역시 이름마디의 「벗 지어 가」면, 그 사실로부터 예상되는 결과가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3)에서도 마찬가지로, 「말 몰아 가 짐을 다 실으」면 날이 밝을 것이라는 예상이 그대로 적중할 것임을 뜻한다.

바-2.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

「마치, ᄒᆞᄆᆞ시」가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도, 주로 느낌을 나타내는 씨끝과 호응하여 쓰인다.

(1). 이하, 「마치」와 「맛치」를 대표할 경우, 빈도가 더 높은 「마치」를 쓰기로 한다.

b. 마치 … {-을셔/-어다/-다}

(4). 졍히 도라갈 황호 사려 ᄒᆞ야 혜아림 일뎡티 몯 ᄒᆞ얏더니 마치 됴히 네 옴셔<老下66a6>

(5). 해 다 바ᄅᆞ 넘오ᄃᆡ 마치 히야다 진실로 졍세ᄒᆞᆫ 사ᄅᆞ미로다<朴通42b1>

(6). 이 ᄒᆞᆫ가짓 치ᄉᆞ 맛다 / ᄒᆞ무시 됴타<老下32a9>

앞서 언급한 대로, 「ᄒᆞ무시」는 위의 (6)의 용례 밖에 볼 수 없는데, (6)의 예는 (1~2)와 마찬가지의 풀이말이 쓰여, 그 성격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바-3.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한편, 다음에 보이는 것과 같이, 「마치」가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겹월의 뒷마디가 모두 씨끝 {-더라, -더시다} 에 의한 서술법으로 나타난다.

(7). 그 나그내 뽀여 어즐ᄒᆞ얏다가 ᄭᆡ야 나니 마치 捕盜官 와셔 거긔와 솔피거늘 그 나그내 즉재 고ᄒᆞ니 …더라<老上29b5>

(8). 呂榮公이 그저긔 맛치 열라믄 서를 머것더니 …公의 유덕ᄒᆞᆫ 器量이 이러 샹녯 사ᄅᆞᆷ두곤 ᄀᆞ장 다ᄅᆞ더시다<小九005a6>

이렇듯한 월에서 「마치」가 드러내는 의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예상의 실현」 만이 아니라 행위의 시간성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수 있다.
즉, (7)에서는 나그내가 그 처한 상황으로 보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 딱 맞게 포도관이 나타나 살폈음을 드러낸다. 이와 동시에 「마치」는 포도관이 그곳에 온 시간을 동시에 실현한다.
이러한 시간적인 의미는 (8)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8)에서는 「그저긔」에 드러나는 시간과 「마치」에 의해 이끌리는 뒷마디의 사실이 시간적으로 일치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마치/맛치, ᄒᆞ무시」는 의향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 강조·영탄법이나 서술법의 씨끝에 국한하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때, 「마치/맛치, ᄒᆞ무시」는, 「마침, 바로」 등의 뜻을 나타내, 그 속한 월 (마디) 의 사실이 그 이전에 예상되거나 기대된 바로 그것이거나,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드러낸다.

Ⅳ-2. 가능의 말재어찌씨

「가능(可能)의 말재어찌씨」는, 월의 진술내용 즉 사실이 현실로서 성립할 가능성에 대한 말할이의 판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월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이 실현될 만한 것인지, 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인지에 대한 말할이의

판단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월의 진술내용 즉 사실의 가능성의 판단을 드러내는 어찌씨로는, 앞에서 이미 제시한 <표5-2, 5-3>에 드러난 바와 같이, 「능히/룽히」, 「가히/가이」, 「족히」, 「시러/시러곰」, 「어루」, 「좀히」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가능의 말재어찌씨」는, 월의 으뜸마디의 서술법의 씨끝 및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삼는다.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예에 있어서, 「단정」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그리고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반문」으로 풀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 【능히 / 룽히 (能)】

가-0. 개관

「능히/룽히」는, 수집된 316(능히 310, 룽히 6)례의 용례 중 교화서Ⅰ에 모두 289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맹자언해」(108례), 「소학언해」(94례), 「논어언해」(46례) 등을 비롯, 「중용언해」(20례), 「대학언해」(15례), 「효경언해」(6례)로 나타난다. [1]

여기에 「번역소학」의 15례(능히 11, 룽히 4)를 더하면, 실로 304례가 이들 자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히/가이, 시러/시러곰, 족히」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의 언해류가 특히 한문의 원문에 충실히 하여, 거의 축자적인 번역에 의해 쓰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자료의 편중성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점은, 「능히/룽히」에 대응하는 한어를 보면 더욱 자명해진다. 즉, 「능히/룽히」는, 「대학언해」에 보이는 「克」(3례) 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能」을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기계적인 언해의 양상을 뒷받침해 준다.

한편, 「룽히」의 형태는, 「번역소학」에 4례, 「간이벽온방」·「분문온역이해방」에 각 1례가 출현할 뿐이다. 「번역소학」의 경우에는 「룽히」(4례)와 「능히」(11례)가 같이 쓰이고 있다.

가-1.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

「능히」[3]가, 다른 어떤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 월의 첫머리에 서는 일은

(1). 그런데 대조적인 것은, 15세기 말의 「삼강행실도」에서는 「능히」가 단 2례가 나타날 뿐이다. 16세기의 교화서Ⅰ 중에서도 초기의 자료에 속하는 「속삼강행실도」 및 교화서Ⅱ에 속하는 「정속언해」, 「이륜행실도」에서는 이 어찌씨를 볼 수 없으며, 말기의 「경민편」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2). 남풍현(1971:59~65)에는 15세기의 「어루, 시러, 能히, 可히, 足히」 등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어의 문법적 영향을 밝히려는 논의가 보인다.
(3). 이하, 「능히」로 대표하기로 한다.

매우 드물다.

(1). 帝典애 골오딕 능히 큰 德을 볼키다 ᄒᆞ니 다 스스로 볼키미니라<大學04a07>

(2). 네 能능히 救티 몯 ᄒᆞ리로소냐<論一21a01>

(1)의 따옴마디나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능히」가 홑월의 짜임으로 된 월에 나타나는 일은 그다지 흔치 않다.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능히」가 나타나는 월은 서술법과 물음법의 월에 국한된다.

「능히」의 전형적인 쓰임으로는, 다음의 (a)와 같이,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때, 「능히」는 이음마디를 그 앞에 세우고, 뒤따르는 뒷마디의 임자말 바로 뒤에 나타나는 일이 일반적이다.

a. … 능히 … {-ᄂᆞ니라/-ᄂᆞ다라/-노라}

(3). 큰 소퇴 믈 두 말 다마 집 가온딕셔 소합원 스므 환올 달히면 그 향이 릉히 모딘 긔운을 업게 ᄒᆞᄂᆞ니라<分門18b08;cf. 簡易04b1>

(4). 사롬의 彦聖을 그 무음애 됴히 너기미 그 입오로브터 남ᄀᆞ톨 쁘니 안이면 진실로 能능히 용납ᄒᆞᄂᆞ다라<大學24b09>

(5). 사롬이 다 골오딕 내 知호라 호딕 中庸을 골히야 能능히 期月도 딕히디 몯 ᄒᆞᄂᆞ니라<中庸05b02>

(6). 君子ㅣ 道롤 조차 行ᄒᆞ다가 塗에 半만 ᄒᆞ야 廢ᄒᆞᄂᆞ니 내 能능히 마디 몯 ᄒᆞ노라<中庸08a10>

「능히」가 이음마디를 앞세울 경우, 그 이음마디를 이루는 이음씨끝에는 제약이 없어 보인다. 「능히」는 각 월의 뒷마디가 드러내는 진술내용의 실현이 가능함을 뜻한다. 예를 들어, (3)에서는 「향이 모진 기운을 없애」는 일이 가능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예문(2)와 (5~6)은 지움월로 되어 있다. 이때는 「능히」가 지움월 전체를 수식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런데, 「능히」에 의해 이끌리는 뒷마디가 지움월인 경우에는, 뒷마디의 「기일을 지키기 못함」(5)과 「마는」(6) 일이 가능함을 뜻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5~6)의 지움월의 「능히」는 「능히 … 몯ᄒᆞ다」와 같은 지움월의 한 형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의 (7)에서와 같이, 「능히」가 벌임법의 씨끝에 의한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앞마디와 뒷마디에 모두 나타나는 일이 있다.

(7). 오직 仁ᄒᆞᆫ 者ㅣ아 能능히 사롬을 好ᄒᆞ며 能능히 사롬을 惡ᄒᆞᄂᆞ니라<論一31a03-04>

가-2. 물음법의 씨끝과의 호응

「능히」가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씨끝{-으리오/

-으료/-으리잇고}가 가장 빈번히 쓰인다.

b. … 능히 … {-으리오/-으료/-으리잇고}

(8). 天德을 達호 者ㅣ 아니면 그 뉘 能능히 알리오<中庸52a02>

(9). 겨지븨 서를 의거호야 귀히 도옵디라도 진실로 댱부의 뜯과 긔우니 이숩딘댄 능히 븟그려우미 업스려<小七33b6>

(10). 제 만이러 잡사루미며 릐려기 굿굿디 아니호면 엇디 능히 어긔오료<老上51b4>

(11). 民이 더블어 홈씌 亡코쟈 호면 비록 臺池와 鳥獸ㅣ 이시나 엇디 能능히 호올로 樂호리잇고<孟一05b07>

(b)의 예는, 「능히」가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 모두 반문의 의미로 해석됨을 보여 준다. 그리고, (9)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의문사를 수반한다는 특성을 보인다.

가-3.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능히」는 홑월에 나타나는 일은 드물고, 아래에서 살피게 될 것과 같이, 대개의 경우에 이음마디나 매김마디, 이름마디를 구성하여 겹월의 구조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앞의 (가-1)과 (가-2)에서는 그 이음겹월의 뒷마디에 나타나는 경우의 특성을 살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나타나는 예를 볼 수 있다.

(12). 힝티 어려온 힝올 능히 힝호면 존듕호미 부텨 고트리라<初發26a1>

(13). 人은 열번에 能능히 호거든 己는 千을 홀띠니라<中庸33b09; cf. 33b08>

(14). 스스로 능히 우후로 츳자 가 쉬운 일브터 비화셔 우후로 노푼 리에 통달홀 거시니라<小八05b1>

(15). 사룸의 彦聖을 違호야 호여곰 通티 몯게 호면 진실로 能능히 우리 子孫과 黎民을 保티 몯 호리니 또호 골온 위틔호린뎌<大學25a04>

(16). 君子ㅣ 大를 닐올딘댄 天下ㅣ 能능히 載티 몯 호고 小를 닐올딘댄 天下ㅣ 能능히 破티 몯 호ᄂ니라<中庸09b08>

(17). 원이 릉히 젼거티 몯홀신 天子ㅣ 일후믈 듣디 몯 호신디라<小九098b4>

(12~17)에서는 「능히」가 쓰일 수 있는 이음마디의 씨끝에 특별한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용례는 모두 그 마침마디에 있어 서술법의 월이라는 특성을 나타낸다. (16)의 경우에는, 「능히」의 의미작용의 범위가 그 이음마디에 국한됨을 시사한다.

한편, 다음의 (18~20)은 겹월의 마침마디가 물음월로 된 예이다.

(18). 子ㅣ 골ᄋ샤듸 能능히 禮讓으로 뻐 호면 國을 홈애 므서시 이시며 能능히 禮讓으로 뻐 國을 호디 몯 호면 禮에 엇디 호리오<論一

35a03-04>

(19). ᄒᆞ마 ᄂᆞᇰ히 ᄋᆡ심ᄋᆞᆯ ᄀᆞᆺ고 인셰ᄅᆞᆯ ᄇᆞ려 ᄇᆞ려니 ᄯᅩ 엇디 쇼ᄏᆞ로 겸당ᄒᆞ야 노니리오<初發69b5>

(20). 오직 天下읫 지극ᄒᆞᆫ 誠이ᅀᅡ 能ᄂᆞᇰ히 天下읫 큰 經을 經ᄒᆞ며 綸ᄒᆞ며 天下읫 큰 本을 立ᄒᆞ며 天地의 化育을 아ᄂᆞ니 엇디 倚ᄒᆞᆫ 배 이시리오<中庸51a10>

이들 (18~20)의 마침마디는 모두 의문사 「엇디」를 수반한 반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가-1)과 (가-2)에서 본 바와 같다.

다음의 (21~22)는 「ᄂᆞᇰ히」가 월의 매김마디에, (23~24)는 월의 이름마디에 나타나는 용례들이다.

(21). 사ᄅᆞᆷ이 飮食 아니리 업건마ᄂᆞᆫ 能ᄂᆞᇰ히 맛 알 리 젹으니라<中庸04a06>

(22). 말올디라 내 能ᄂᆞᇰ히 그 過ᄅᆞᆯ 보고 內로 ᄉᆞᄉᆞ로 訟ᄒᆞᄂᆞᆫ 者ᄅᆞᆯ 보디 몯게라<論一52a04>

(23). 이 닐온 오직 仁ᄒᆞᆫ 사ᄅᆞᆷ이ᅀᅡ 能ᄂᆞᇰ히 사ᄅᆞᆷ을 ᄉᆞ랑ᄒᆞ며 能ᄂᆞᇰ히 사ᄅᆞᆷ을 아쳐 홈이니라<大學25b03-04>

(24). 斐ᄒᆞᆫ 君子ㅣ여 ᄆᆞᄎᆞᆷ내 可히 닛디 몯 ᄒᆞ리로다 홈은 盛ᄒᆞᆫ 德과 지극ᄒᆞᆫ 善을 民의 能ᄂᆞᇰ히 닛디 몯 홈을 니ᄅᆞ니라<大學07b07>

(23)에서는 같은 이름마디 속에 벌임법의 이음씨끝 {-으며} 에 의한 이음겹월을 안고 있다. 이 이음겹월에는 「ᄂᆞᇰ히」가 앞마디와 뒷마디에 각각 나타나, 이 어찌씨의 꾸밈이 그 속한 마디에 국한됨을 보여 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ᄂᆞᇰ히」는 그 속한 월, 혹은 겹월의 경우에는 그 속한 마디를 꾸밈의 대상으로 한다. 이때, 「ᄂᆞᇰ히」는 서술법과 물음법의 씨끝에 국한하여 호응한다.

(나). [가히 / 가이(可·能)]

나-0. 개관

16세기에 국한하여 말하자면, 앞의 「ᄂᆞᇰ히」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이 시대의 자료 중에서도 후기의 자료에 속하는 사서(四書)의 언해류를 중심으로 하여, 교화서Ⅰ·Ⅱ의 자료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인다.

<표1>의 말재어찌씨의 분포표에 보인 바와 같이, 채집된 513 (가히 504, 가이 9) 의 용례 중의 거의 대부분이 「맹자언해」(200례), 「논어언해」(120례), 「소학언해」(119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비롯, 「중용언해」(25례) 등 교화서Ⅰ의 문헌에 편중되어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 밖에, 교화서Ⅱ에 속하는 「정속언해」에 10례(가이 9, 가히1), 「여씨향약언해」(5례), 「경민편」(6례)에, 비록 상대적으로 적은 수효이기는 하지만, 교화서Ⅰ과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여 준다. 이 중, 「가이」는 「정속언해」에만 나타난다.
교화서Ⅰ·Ⅱ를 제외한 그 밖의 갈래의 문헌자료에는 전혀 보이지 않음이, 앞서 「능히/릉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축자적인 번역체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히」[1]는, 「능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용례에 있어서 월의 마침마디는 서술법이나 물음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위나 시킴법의 월에 나타나는 일이 있어, 「능히」와 약간의 다름을 보인다.

나-1.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

「능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히/가이」는 그 어순적인 특징, 즉 이 어찌씨가 나타나는 월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홑월에 나타나는 일은 매우 드뭄고, 또한 월의 첫머리에 서는 예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신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겹월의 앞마디나 뒷마디에 속한다.

a. … 가히 … {-으리라/-니라}
(1). 微의 顯홈을 알면 可가히 더브러 德에 入ᄒᆞ리라<中庸52b09-10>
(2). 사ᄅᆞᄆᆡ 지비 이러ᄐᆞᆫ 여러가짓 이롤 잘 두어 ᄒᆞ면 비록 져므니라도 가히 졈졈 례의를 알에 ᄒᆞ리라<小七08a2>
(3). 사ᄅᆞᆷ이 道를 ᄒᆞ되 사ᄅᆞᆷ의게 멀리 ᄒᆞ면 可가히 ᄡᅥ 道ㅣ라 ᄒᆞ디 몯ᄒᆞ리니라<中庸10b08>

(a)는 「가히」가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한 예이다. 이러한 경우, 특히 두드러진 특성은 조건을 나타내는 이음씨끝 {-으면, -거든} 등에 의한 이음마디를 앞세우는 예가 빈번히 출현한다는 점이다.
「가히」의 의미는, 이와 같은 앞마디의 조건이 성취될 경우, 그 뒷마디의 사실이 「실현가능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의 마디는 결코 필수적인 호응요소라고는 할 수 없다.
(3)은, 「가히」가 나타난 겹월의 뒷마디가 지움법으로 된 예이다. 이는 앞의 「능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움월 전체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가히 … 몯ᄒᆞ다」와 같은 지움월의 한 형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2. 물음법의 씨끝과의 호응

「가히」는 위의 서술법 이외에 물음법의 월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
(1). 이하, 「가히」로 대표하기로 한다.

b. … 가히 … {-으리오/-으랴/-가}

(4). 八□로 庭에 舞ᄒᆞ니 이ᄅᆞᆯ 可가히 ᄎᆞᆷ아 ᄒᆞ곤 므스거슬 可가히 ᄎᆞᆷ아 몯 ᄒᆞ리오〈論一19a07-08〉

(5). 내종내 부귀를 ᄒᆞ고져 ᄒᆞᆫ돌 가히 득ᄒᆞ랴〈小十19a5〉

(6). 만일에 공경티 아니ᄒᆞ거나 공슌티 아니ᄒᆞ면 그 크며 져그믈 조차 셔 죄 닙기 반ᄃᆞᆺᄒᆞ리니 가히 저프디 아니ᄒᆞ며 가히 삼가디 아니ᄒᆞᆯ 것가〈警民02b01-2〉

「가히」가 물음월에 나타날 때는, 다음과 같이 반문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7). 神의 格홈을 可가히 度디 몯ᄒᆞ곤 ᄒᆞᄆᆞᆯ며 可가히 射ᄒᆞ랴〈中庸16b04-05〉

(8). 齊桓과 晉文의 事를 可가히 시러곰 드르리잇가〈孟一17b05〉

(9). 王의 키 欲ᄒᆞ시ᄂᆞᆫ 바ᄅᆞᆯ 可가히 시러곰 들으리잇가〈孟一28a09〉

「가히」가 물음월에 나타나는 경우, 어찌씨 「시러곰」과 공존할 수 있음을 (8~9)에서 알 수 있다.

나-3. 시킴법의 씨끝과의 호응

전술한 바와 같이, 「능히」와는 달리 「가히」는 시킴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 쓰임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듯하다.

(10). ᄆᆞᄋᆞᆷ과 힘을 다 ᄡᅥ ᄒᆞ야 막ᄌᆞ라 가히 죠고매도 여어봐 피ᄒᆞᆯ ᄆᆞᄋᆞᆷ을 두디 말며 혹 변시 오거나 국상이 나거ᄃᆞᆫ 공경ᄒᆞ며 삼가 ᄃᆞᆫ건녀 ᄡᅥ 바텨 가히 죠고매도 슬ᄒᆞ여 셜워 ᄒᆞᄂᆞᆫ ᄠᅳᆮ을 두디 말라〈警民02a06-09〉

나-4.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예에서는, 「가히」가 겹월의 마침마디에 나타난다. 그러나, 「가히」가 겹월의 앞마디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능히」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술법이나 물음법의 월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월의 끝마디의 씨끝과의 호응이 필수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가히」가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나타나는 경우, 특징적인 것은 다음의 가치법의 이음씨끝 {-음직/-엄직} 과 호응하는 예가 빈번히 등장한다는 점이다.

c. 가히 … {-음즉/-음직} …

(11). 옥개 드렷ᄂᆞ니 가이 살암직거든 살오미 이 넘운 사ᄅᆞᆷ믜 어려운 제구호미라〈正俗29b04〉

---

(1). 그러나, 다음과 같이 반문이 아닌 물음월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 寡人ᄀᆞᄐᆞᆫ 者도 可가히 ᄡᅥ 民을 保ᄒᆞ리잇가〈孟一13b04〉

(12). 한 긔약잇 사룸이 거즛 모딘 득명을 시러 잘 발명 몯 ᄒᆞ거든 내 힘 힘이 가히 그위예 가 닐엄직 ᄒᆞ거든 니ᄅᆞ고 내 계교ㅣ 가히 구완ᄒᆞ야 벗겸직 ᄒᆞ야든 벗규ᄃᆡ 혹 그 지비 인ᄒᆞ야 실소ᄒᆞ거든 모ᄃᆞᆫ 사룸이 주워 거느리 치라〈鄕約35b5/呂氏30a02〉

(13). 子ㅣ 公冶長을 닐ᄋᆞ샤ᄃᆡ 可가히 妻홈즉 ᄒᆞ도다 비록 □□ㅅ 中에 이시나 그 罪ㅣ 아니라 ᄒᆞ시고 그 子로 ᄡᅥ 妻ᄒᆞ시니라〈論一38b10〉

(c)에서와 같이 「가히」가 가치법의 이음씨끝 {-음직/-엄직} 과 호응하는 경우, 풀이말이 언제나 「ᄒᆞ다」로 나타날 뿐 아니라, (11~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건의 이음씨끝 {-거든} 이 뒤따른다는 특성을 보인다. (1)

(13)에서는 강조 · 영탄법의 월에 포함되어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의 서술법의 월에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나-1)과 다름없다.

그 밖의 이음씨끝에 의한 이음마디에 「가히」가 나타나는 예는 다음과 같다.

(14). ᄉᆞ믈히어든 가관ᄒᆞ야 비르소 禮ᄅᆞᆯ 비호며 可가히 ᄡᅥ 갓옷과 기블 니브며 … 너비 비호고 ᄀᆞᄅᆞ치디 아니ᄒᆞ며 소개 두고 내디 아니홀 디니라〈小學一05b07〉

(15). 仁티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可가히 ᄡᅥ 오래 約에 處티 몯 ᄒᆞ며 可가히 ᄡᅥ 기리 樂에 處티 몯 ᄒᆞᄂᆞ니 仁ᄒᆞᆫ 者ᄂᆞᆫ 仁을 安ᄒᆞ고 知ᄒᆞᆫ 者ᄂᆞᆫ 仁에 利히 너기ᄂᆞ니라〈論一30b07-08〉

(16). ᄀᆞᆯᄋᆞ샤ᄃᆡ 그러면 小ㅣ 진실로 可가히 ᄡᅥ 大ᄅᆞᆯ 敵디 몯ᄒᆞ며 寡ㅣ 진실로 可가히 ᄡᅥ 衆을 敵디 몯ᄒᆞ며 弱이 진실로 可가히 ᄡᅥ 強을 敵디 몯ᄒᆞᄂᆞ니〈孟一30b01-04〉

「가히」 역시 (16)에서처럼 이음겹월을 구성 그 이음마디에 나타나는 경우, 그 수식의 범위는 각 마디에 국한된다 할 수 있다.

한편, 「가히」가 이름마디나 매김마디의 구성성분이 되는 예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7). 誠의 可가히 掩티 몯홈이 이 ᄀᆞᆮᄐᆞᆫ뎌〈中庸16b08〉

(18). 君子의 可가히 밋디 몯 홀 바ᄂᆞᆫ 그 오직 사룸의 보디 몯ᄒᆞᄂᆞᆫ 반뎌〈中庸53a09〉

이상에서 「가히」가 겹월의 뒷마디에 나타나는 경우와 뒷마디에 나타나는 경우의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대체로 볼 때, 그 쓰임의 분포에 있어서는 앞서 살핀 「능히」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히」의 경우에는 시킴의 월에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물음월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반문으로 해석되는 경우와 일반적인 물음월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서, 「능히」와 다름을 보인다.

---

(1). 그러나, 이러한 구성이 월의 마침마디에 나타나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를 참고 바람.

◎ 故ᄅᆞᆯ 溫ᄒᆞ야 新을 知ᄒᆞ면 可가히 ᄡᅥ 師ㅣ 되엄즉ᄒᆞ니라〈論一13b09〉

(다). 【죡히(足)】

다-0. 개관

「가능」의 맘재어찌씨에 분류된 여늬 어찌씨들과 마찬가지로, 「죡히」의 경우에도, 16세기의 자료에 있어서는 자료의 성격에 따른 심한 편중성을 보인다. 그리고, 모두 81의 용례 중, 16세기의 초기자료에서는 「번역소학」(2례), 「이륜행실도」(1례)에 3례가 나타날 뿐이고, 나머지의 용례는 후기의 문헌, 특히, 교화서 I 에 집중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맹자언해」(40례), 「소학언해」(17례), 「논어언해」(11례), 「중용언해」(8례), 「대학언해」·「효경언해」(각 1례)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비교할 때, 교화서라는 점에서 성격을 같이하는 교화서Ⅱ의 자료에서는, 「이륜행실도」(1례)를 제외하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 매우 대조적인 분포를 보여 준다.

다-1.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

「죡히」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능히, 가히」와는 달리, 월에 있어서의 특정한 호응현상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용례의 「죡히」가 제약법의 이음씨끝에 의한 이음마디에 출현하며, 그 겹월 자체가 다시 상위의 겹월의 한 마디를 이루는 복합적인 겹월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죡히」의 경우, 다음의 (1)과 같이, 홑월 혹은 월의 마침마디에 나타나는 일은 매우 드물다.

(1). 이 ᄆᆞ옴이 足죡히 ᄡᅥ 王 ᄒᆞ리이다<孟一20a03-04>

「죡히」의 의미로서는, 앞서 살핀 「능히, 가히」와 마찬가지로 월의 진술내용의 실현가능성의 판단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1)에서, 「죡히」는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 「이 마음가짐이라면, 충분히 혹은 넉넉히 왕을 할 만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2.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죡히」의 경우에는, 다음의 용례에서와 같이, 겹월의 이음마디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내 回로 더브러 言홈을 日을 終홈애 어긔웃디 아니홈이 어린 ᄃᆞᆺᄒᆞ더니 退커든 그 私를 省혼ᄃᆡ ᄯᅩᄒᆞᆫ 足죡히 ᄡᅥ 發ᄒᆞᄂᆞ니 回ㅣ 어리디 아니ᄒᆞ도다<論一13a05-06>

(3). 내 力이 足죡히 ᄡᅥ 百鈞을 擧호ᄃᆡ 足죡히 ᄡᅥ 一羽를 擧티 몯ᄒᆞ며 <孟一23b05;05-06>

(4). 제 섬기ᄂᆞᆫ 사ᄅᆞᄆᆡ게 ᄆᆞᅀᆞᆷᄭᆞ장 ᄒᆞ다가 제 몸도 보젼티 몯ᄒᆞ니 이ᄂᆞᆫ

또 족히 니르디 몯ᄒᆞ리어니와<小十19a2>

「족히」는 그 어순상의 위치에 있어서 절대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월(혹은, 마디)의 임자말의 직후에 서는데, 다른 범주의 말재 어찌씨와 달리, 월의 첫머리에 서는 일은 거의 없다.

또 (3)에서 알 수 있듯이, 「족히」의 의미작용의 범위가 그 속한 마디에 국한된다고 하면, 「족히」가 이음겹월 등의 마침마디에 나타나 월이 끝나는 예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족히」의 쓰임은 (2~4)와 같은 이음마디에서의 쓰임이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족히」가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나타나는 경우, 그 마침마디가 서술법(5)과 물음법(6~7)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5). 明이 足족히 ᄡᅧ 秋毫의 末을 察호ᄃᆡ 輿薪을 보디 몯ᄒᆞ노라<孟一23b06-07>

(6). 今에 恩이 足족히 ᄡᅧ 禽獸에 미초ᄃᆡ 功이 百姓의게 至티 몯ᄒᆞ욤은 호욤로 엇디니잇고<孟一26b03-04>

(7). 王의 諸臣이 다 足족히 ᄡᅧ 供ᄒᆞᄂᆞ니 王은 엇디 이ᄅᆞᆯ 爲ᄒᆞ리잇고<孟一28b07>

또한, (2~4, 5~7)에서와 같이, 「족히」를 동반한 이음마디를 형성하는 씨끝으로서는 {-ᄃᆡ/-ᄂᆞ니}가 빈번히 등장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제약은 없어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족히」는, 월 혹은 마디에 드러난 진술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가부의 판단을 드러내는 것을 주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월에서의 쓰임으로 볼 때에는 앞서 살펴본 「능히, 가히」와는 달리, 「족히」가 속한 마디가 바로 월의 끝마침의 마디가 되는 일이 매우 드물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는, 월의 마침법의 씨끝과의 호응관계가 그리 긴밀하다고는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라). 【시러/시러곰(得)】

라-0. 개관

「시러/시러곰」은, 그 분포에 있어서, 16세기의 문헌에 있어서는, 교화서 I 에 속하는 언해류에만 나타난다. 이 점은 앞에서 살펴본 「능히」, 「가이/가히」, 「족히」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어찌씨는 특히 16세기 초의 문헌에는 별로 보이지 않고 말기의 문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모아진 105례 중, 초기의 문헌 중에는 「번역소학」에 2(시러 1, 시러곰 1)례가 나타날 뿐이고, 나머지가 모두 말기의 자료에 등장한다.

말기의 자료에는 모두 「시러곰」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용례의 거의 대다수가 「맹자언해」(57례), 「소학언해」(16례), 「논어언해」(17례)의 세 문헌에 집중, 「대학언해」·「중용언해」·「효경언해」에 각각 1례씩 출현한다.

「시러곰」(1)은 물음법과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한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문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라-1. 물음법의 씨끝과의 호응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시러곰」의 가장 전형적인 쓰임의 하나로,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물음월을 구성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물음월은 반드시 반문으로 해석된다.

「시러곰」이 반문의 물음월에 날 때에는 의문사를 동반하는 경우와 동반하지 않는 두 가지의 쓰임이 있다.

다음의 (a)는 「시러곰」이 의문사를 동반하여, 반문을 형성하는 예이다. 이 의문사는 수집된 모든 용례에서 「엇디」로 나타난다.

a. 엇디 시러곰 … {-으리오}

(1). 풍속기 이러ᄒᆞ면 엇디 시러 후티 아니ᄒᆞ리오<小七47a4>

(2). 아디 몯게라 엇디 시러곰 仁ᄒᆞ리오<論一47b07;48b04>

(3). 管氏ㅣ 三歸를 두며 官事를 攝디 아니ᄒᆞ니 엇디 시러곰 儉ᄒᆞ리오<論一27b06>

(4). 仁에 處티 아니ᄒᆞ면 엇디 시러곰 知타 ᄒᆞ리오<論一30a10-b01>

(5). 子ㅣ 골ᄋᆞ샤ᄃᆡ □은 慾ᄒᆞ거니 엇디 시러곰 剛ᄒᆞ리오<論一44b05>

(a)에서는, 「시러곰」이 호응하는 물음법의 씨끝이 {-으리오}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체의 단순성은, 「시러곰」의 쓰임이 매우 직역적인 언해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과 관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2)

한편, 다음의 (b)에서는 「시러곰」이 의문사를 수반하지 않고 반문을 구성하는 예를 볼 수 있다.

b. 시러곰 … {-으려/-으리잇가}

(6). 이제 누의 나히 늙고 나도 늙그니 비록 ᄌᆞ조 누의 위ᄒᆞ야 죽을 글히고져 ᄒᆞᆫ들 다시 시러곰 ᄒᆞ려<小九079a6>

(7). 齊桓과 晉文의 事를 可가히 시러곰 드르리잇가<孟一17b05>

(a～b)에 보이는 물음월들이, 모두 반문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그 꾸밈을 받는 진술내용에 대해 그 성립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

(1). 이하, 「시러곰」으로 대표하기로 한다.

(2). 안병희(1973:80)는, 번역의 양식의 차이에 관한 직역과 의역의 차이에 대한 논의 가운데에서, 「시러곰」이 직역체의 문장에서 「전후의 문맥을 분명히 해 주는 轉移語(transitonal word)」로 기능하는 어휘라고 설명하고 있다.

라서, 이들 월은 사실상 모두 지움월과 거의 동등한 의미를 지닌다.

라-2.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

「시러곰」이 서술법의 월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에 지움월에 나타난다는 특징을 지닌다.

c. 시러곰 … {-으리라/-으니라/-노라}

(8). 아랫 位예 이셔 우희 獲디 몯 ᄒᆞ면 民을 可가히 시러곰 다ᄉᆞ리디 몯 ᄒᆞ리라<中庸31b07>

(9). 君子ㅣ 예 니르롬애 일즉 시러곰 見티 몯 ᄒᆞ디 아니 ᄒᆞ얀노라<論一29a07>

이러한 분포적인 특성으로 볼 때는, 다음의 (Ⅳ-3)에서 살펴보게 될 「지움」의 어찌씨와 완전히 동일한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

그러나, 다음의 (10)과 같이, 이음씨끝 {-으려니와} 에 의한 겹월의 앞마디에 나타나는 경우(시러곰1)에는 지움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표현과 호응하는 예가 보인다.

(10). 夫子의 文章은 可가히 시러곰1 드르려니와 夫子의 性과 다ᄆᆞᆺ 天道 ᄅᆞᆯ 닐ᄋᆞ샤ᄆᆞᆫ 可가히 시러곰2 듣디 몯ᄒᆞᆯ 이니라<論一45a09;10>

(10)에서는 「시러곰2」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히」와 공존할 수 있으며(2), 이 어찌씨가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의 그 꾸밈의 범위가 자신이 속한 마디에 국한됨을 알 수 있다.

「시러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반문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와,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가 있다.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할 때에는, 극히 일부의 예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지움월에 나타난다.

(마). 【어루 // 조히(可)】

마-0. 개관

「어루」는 16세기의 자료에서는 「칠대만법」과 「초발심자경」에 각각 1례씩 나타날 뿐으로, 매우 국한된 쓰임 밖에 보여 주지 않는다.

한편, 「조히」 역시 그 쓰임은 거의 보이지 않아, 「정속언해」에 1례를 찾을 수

(1). 아래의 (11)과 같이 긍정의 표현과의 호응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시러곰」의 의미로 볼 때, 단순한 지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월의 진술내용의 「가능성」의 지움의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구별하기로 한다.

(2). (7~8)의 예도 마찬가지이다.

있을 뿐이다.

(1). ᄒᆞᄆᆞᆯ며 신하 샹사ᄅᆞᆷ의 지비 법제 뎡ᄒᆞᆫ니 이시며 세가니 그츨 주리 잇곤 좀히 샤치ᄒᆞ야 훗 이ᄅᆞᆯ 헤디 아니ᄒᆞ려<正俗25a06>
(2). 이ᄀᆞ티 어루 ᄂᆞᆾ히 정ᄒᆞᆫ 신심ᄋᆞᆯ 내야 도로 ᄲᅥ ᄆᆞ숨 사모미 엇뎌 □ 아니리오<初發17b5>
(3). 머리 센 할미ᄂᆞᆫ 어루 子息이 하며 져그며 어딜며 사ᄆᆞ 나오나오ᄅᆞᆯ 알리어니와 ᄀᆺ 난 가ᄉᆞ나히ᄂᆞᆫ 子息기 이시며 업스며 사오며 어디로ᄆᆞᆯ 몯내 알 기시니<七大15a2>

(1)의 「좀히」의 경우에는 물음법의 씨끝 {-으려}에 의한 물음월에 나타난다. 이때의 물음월은 반문의 의미로 해석된다. 「좀히」는 「사치하여 훗일을 헤아리지 않는 일」의 가능성에 대해, 반문을 통해, 불가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위의 (2~3)의 「어루」의 경우, 마침마디에 속하는 예는 볼 수 없고, 모두 겹월의 이음마디에 나타난다. (1)
이 중, (2)의 「어루」가 쓰인 겹월의 마침마디는, (1)의 「좀히」와 마찬가지로, 반문의 물음월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 월에는 거의 동등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ᄂᆞᆾ히」가 공존하고 있다.
한편, (3)의 월에서는 「어루」가 「몯내」와 대립하고 있어, 「ᄂᆞᆾ히」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IV-3. 지움의 말재어찌씨

여기서 「지움」이라 함은, 크게 두 가지의 문법 형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물음법의 씨끝에 의한 반문의 물음월이며, 또 하나는 반드시 지움법에 의한 지움월이다. 반문의 물음월의 경우, 월 형식상으로는 물음월이나, 월의 진술내용에 대한 말할이의 태도의 면에서는 지움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지움의 말재어찌씨」는 이러한 지움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월 형식과 호응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지움의 말재어찌씨는 월의 으뜸마디의 물음법이나 지움의 표현과 호응하게 된다.
특히, 반문의 물음월에 호응하는 말재어찌씨로서는, 원래 의문사로 물음월을 이끄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것들이며, 여기에는 「엇뎨/엇디/엇뎌/엇뎌/어뎌/엣뎨」, 「어듸/어듸」, 「어ᄂᆞ/어ᄂᆡ/어느/어늬」, 「어느제/언제」, 「므ᄉᆞᄆᆞ라/므스므라/므스므러/므스므려/므슴호려/므슴홀여」, 「므슴/므슴」 등이 속한다.
한편, 물음월에는 쓰이지 않고, 전적으로 지움월에 나타나는 일을 주된 기능으로 삼는 말재어찌씨에는 「어듸ᄯᆞᆫ/어듸ᄯᅳᆫ」, 「ᄂᆞ외야/노의란/노의여/뇌여」, 「ᄎᆞ

(1). 15세기 말의 「삼강행실도」에서도 「어루」를 한 예를 볼 수 있는데, 「어루」가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마침마디에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陳桓公이 王ᄭᅴ 有勢ᄒᆞ니 그ᄅᆞᆯ 브ᄅᆞ면 어루 뵈수ᄫᆞ리라<三綱203a10>

마/좀아」, 「싱심도/싱심이나」, 「결연히」 등이 속하게 된다.

(가). 【엇뎨 / 엇디 / 엇뎌 / 엇셔 / 어셔 / 엣뎨 (何·豈·敢·奈何·如何·安·何故)】[1]

가-0. 개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원래는 의문사로서 물음월을 이끎을 그 기능으로 삼는 「엇뎨/엇디/엇뎌/엇셔/어셔/엣뎨」가, 반문의 물음월에 나타나, 「지움의 말재어찌씨」로 전용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2]

순수한 의문사로서의 쓰임과 지움의 말재어찌씨로서의 쓰임은, 월 안에서의 의미기능에 의해 비로소 가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통계에서는 이를 가르지 않고 나타내기로 한다.

16세기의 이 형태의 말재어찌씨는 모두 616례 확인되는데, 이 중 「엇디」가 586례로 가장 빈번히 나타난다. 이에 비해, 15세기에 우세하던 「엇뎨」는 단 23례가 보일 뿐이며, 그 밖에 「엇셔」(3례), 「어셔」·「엇뎌」·「엇디엇디」(각 1례) 등이 보인다.

이 점으로 볼 때, 15세기의 자료에 자주 쓰이던 「엇뎨」와 「엇디」는, 그 쓰임의 빈도가 16세기로 들어와 역전됨을 알 수 있다.

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엇디」는, 많건 적건, 16세기의 거의 모든 자료에 골고루 분포하여, 전 시기에 걸쳐 매우 활발히 쓰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엇디」의 쓰임이 두드러진 문헌으로는, 「맹자언해」(208례), 「논어언해」(94례), 「소학언해」(63례), 「번역소학」(49례) 등 교화서 I 을 비롯, 역학서의 「노걸대」(46례), 「박통사」(19례)에도 비교적 자주 나타나며, 불경언해서인 「초발심자경」에 20례 출현한다.

중기의 「간찰」에도 52례가 등장하여, 문체나 문헌의 성격적인 차이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엇뎨」는 그 범위가 제한되어, 「칠대만법」(8례), 「번역소학」(5례), 「부모은중경」(4), 「속삼강행실도」(2례), 「정속언해」(1례) 등에 23례가 나타난다. 「엇뎌」는 「부모은중경」에 1례 나타날 뿐이다.

이 중, 16세기 초기의 「속삼강행실도」, 「번역소학」, 「정속언해」의 세 책에서

---

(1). 이 밖에 「엇뎨/엇디/엇뎌」에 대응하는 한어로는, 「可·可委·胡·甚麼·那裏·那·寧·庸·奚·奚可·怎·怎敢·怎生·怎的·怎麼·焉」 등이 있다.

(2). 다음의 한 예에서는 물음법의 씨끝을 볼 수가 없다. 문법적 오류로 보인다.

◎ 뎌 므릐 돌로셔 올던댄 두룬 하놀해도 다 잇거니 디나오는 싸히 엇뎨 젓디 아니ᄒᆞ며 方珠애셔 날던댄 엇뎨 사ᄅᆞ미 소놀 기드려ᅀᅡ 나며 虛空애셔 날던댄 虛空이 ᄀᆞᅀᅵ 업슬ᄊᆡ 무리 반ᄃᆞ기 ᄀᆞᅀᅵ 업슬디라<七大04b6;7>

는 「엇뎨」와 「엇디」가 혼용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 준다. [1]

그리고, 교화서Ⅰ에 비하여, 교화서Ⅱ의 자료에서는 그다지 큰 빈도를 보이지 않는 점이 특색이다.

가-1. 물음법의 씨끝과의 호응

「엇디」[2]가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 반문으로 해석되어 지움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물음법의 씨끝 {-으료/-으리오} 와 호응한다.

a. 엇디 … {-으료/-으리오/-으리잇고}

(1). 내 다른 ᄆᆞ숨곳 머그면 엇뎨 남지늘 ᄯᅡ 아래 가 보료<續三324a08>

(2). 사ᄅᆞᆷ브터 하ᄂᆞᆯ해 니르리 다 ᄃᆞᆼ겨 이실 거시어니 엇뎨 ᄃᆞᆯ와 구슬와 어우러 對ᄒᆞᆯ 時節를 기드려ᅀᅡ 나료<七大05a1>

(3). 진실로 조샹 ᄇᆞ드데 친ᄒᆞ며 소호미 업스면 주리며 치워 ᄒᆞᄂᆞ니를 내 엇디 어엿비 아니 너기료<小七49a5 安>

(4). 民이 더블어 ᄒᆞᆷᄭᅴ 亡코쟈 ᄒᆞ면 비록 臺池와 鳥獸ㅣ 이시나 엇디 能능히 호올로 樂ᄒᆞ리잇고<孟一05b07 豈>

「엇디」가 물음법의 씨끝 {-으료/-으리오} 와 호응하여 물음월을 형성하는 예는 매우 생산적이어서 거의 대다수의 용례를 점한다. {-으리잇고} 의 경우, 반문의 월을 형성하는 예는 숫적으로는 그리 많지는 않다.

(a)에서와 같이, 「엇디」가 반문의 물음월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지움월과 동등한 의미를 나타낸다. (1)에서는 「저승에서 남편을 대할 면목이 없음」을, (2)에서는 「달과 구슬이 어우러져 대할 시절을 기다리지 않고도 날 수 있음」을 뜻한다. (3)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4)에서는 「홀로 樂할 수 없음」을 각각 뜻한다.

한편, 위의 씨끝 {-으료/-으리오} 이외의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b. 엇디 … {-고/-올고/-으뇨/-눈다}

(5). ᄆᆞ슬히 급ᄒᆞᆫ 일이 이셔도 오히려 서르 가 구ᄒᆞᆯ 거시니 ᄒᆞᄆᆞᆯ며 싀엽의게 잇거든 엇디 ᄇᆞ릴 것고<小九065a3>

(6). 수리 셔울ㅅ 술집ᄃᆞᆯ해 비록 하나 져젯 수를 ᄒᆞ야 온들 엇디 머글고 <朴通02b2>

(7). 우리 남지니 ᄆᆞᆯ 업스면 엇디 디녈고 반 거름도 ᄃᆞᆫ니디 몯 ᄒᆞ리라 <朴通43b5>

---

(1). 참고로, 15세기의 「월인천강지곡 상」에는 「엇뎨」가 3례 보일 뿐, 「엇디」는 보이지 않고, 15세기 말의 「삼강행실도」에서는 「엇뎨」가 40례, 「엣뎨」가 2례 나타나, 역시 「엇디」는 보이지 않는다. 「이조어사전」(1964:557)에 의하면, 「두시언해」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든 15세기에는 「엇디」의 쓰임이 활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이하, 「엇디」로 대표하기로 한다.

(8). 우리 대되 여라믄 사ᄅᆞ미 엇디 두량 은읫 수를 머그뇨<老下39b2>
(9). 이 심이 ᄀᆞ장 됴ᄒᆞ니 엇디 등픔으로 보ᄂᆞ다<老下57a2>
(10). 너희 ᄒᆞ마 姑舅兩姨에셔 난 형뎨로ᄃᆡ 엇디 길조차셔 더러운 말소믈 회피티 아니ᄒᆞᄂᆞ다<老上16b7>

「엇디」가 이러한 반문의 물음월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거의 동등한 문법적 의미를 지니는 「ᄎᆞ마」와 공기할 수 있다.

c. 엇디 {ᄎᆞ마 / 감히} … {-으료/-으리오}
(11). 네 효ᄌᆞ 문녓 형뎨 이러ᄒᆞ니 ᄎᆞ마 엇디 해ᄒᆞ료<二倫23b03>
(12). 曹氏 알퍼 셩ᄒᆞ여 이실 제도 내종내 디녀 사로려 ᄒᆞ더니 ᄒᆞ물며 이제 쇠망ᄒᆞ엿거니 엇디 ᄎᆞ마 ᄇᆞ리리오<小九063b1>
(13). 賜ᄂᆞᆫ 엇디 敢감히 回를 ᄇᆞ라링잇고<論一43a06>
(14). 제 난 나래 더욱 슬허 홀 거시니 ᄯᅩ 엇디 ᄎᆞ마 술 먹고 풍류ᄒᆞ야 즐겨 ᄒᆞ료<小七23b1-2>

이 장의 뒤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ᄎᆞ마, 감히」는 언제나 반문의 물음월이나 지움월과 호응하는데, (c)에서와 같이 이 두 어찌씨가 공기하는 경우에는 그 어순에는 제약이 없는 듯하다. (예문14 참조)
다음에 보게 될 예는, 「엇뎨」와 물음법의 씨끝이 호응하는 물음월이 겹월의 구조를 지니는 예이다.

(14). 혼자 부귀를 누리고 아ᄉᆞ를 어엿비 아니 너기면 후에 엇뎨 조샹을 ᄯᅡ 아래 가 뵈ᄉᆞ오며 / 이제 어ᄂᆞ ᄂᆞ초로 ᄉᆞ당의 드러 가리오 <小七49a9>
(15). 믄득 빅년 니믈거늘 엇디 빅호ᄃᆡ 아니ᄒᆞ며 일싱이 언메완ᄃᆡ 슈힝 아니ᄒᆞ야 방일ᄒᆞ니오<初發27a4>
(16). 대예셔 나ᄂᆞ다 ᄒᆞ면 대바티 엇뎨 當네 ᄇᆞᄅᆞ미 업스며 죠ᄒᆡ셔 나면 죠ᄒᆡ 다기니 닥바릐 엇뎨 ᄇᆞᄅᆞ미 업스료<七大07b1;2>
(17). 내의 이젯 록이 엇디 미양 이시며 내 모민들 엇디 미양 사라시리오 <小十31a2;3>

(14)에서는, 「후에 엇뎨 조샹을 ᄯᅡ 아래 가 뵈ᄉᆞ오며」와 「이제 이제 어ᄂᆞ ᄂᆞ초로 ᄉᆞ당의 드러 가리오」가 대등한 자격으로 마침마디를 구성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15)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14)의 경우에는 「후에」와 「이제」, 「엇뎨」와 「어ᄂᆞ (ᄂᆞ초로)」가 서로 의미적인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15)의 경우에는 「믄득 빅년 니믈거늘」과 「일싱이 언메완ᄃᆡ」가 대립적 관계를 이루는 표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엇디」가 겹월의 짜임으로 된 월에 나타나는 경우, 실제의 의미작용이 미치는 범위는 그 속한 마디에 국한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암시는 (16~17)을 통해서 더욱 명백해진다. (16~17)에는 「엇뎨」가

씨끝 {-으며} 에 의한 이음겹월의 앞마디와 뒷마디 모두에 나타난다. 월 구조상으로도, 앞의 (14~15)와 마찬가지의 짜임을 보인다.

그러나, (14~15)의 예에서의 「엇디」가 모두 월의 끝의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엇디」와 물음법의 씨끝과의 사이에, {-으며} 이외의 이음법의 씨끝에 의한 겹월이 나타나는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8). 내 엇디 늙고 망녕도이여 ᄌᆞ손을 혜아리디 아니ᄒᆞ리오<小九089a5>
(19). 엇디 편안히 놀며 간대로 술 취ᄒᆞ야 사라 이셔도 시절의 다ᄋᆞᆫ 일 업스며 주근 후에도 일ᄏᆞᄅᆞ리 업게 ᄒᆞ리오<小十09b6>

(18~19)와 같은 경우에, 「엇디」가 각각의 이음씨끝과 호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월의 의미해석이 곤란해지고 만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엇디」가 지움의 말재어찌씨로 쓰일 경우에는 반드시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한다. 이때의 물음월은 반문으로 해석된다.

(나). 【어ᄃᆡ(惡) / 어듸(那裏·惡)】

나-0. 개관

16세기 문헌자료에서의 분포를 보면 「어듸」가 47례, 「어ᄃᆡ」가 18례 나타난다. 「어듸」는 특히 초기의 「노걸대」·「박통사」(각 15례씩), 「논어언해」(6례), 「칠대만법」(2례) 등에 나타나며, 「속삼강행실도」·「정속언해」·「맹자언해」에 각각 1례씩 나타난다.

한편, 「어ᄃᆡ」는 「간찰」과 「맹자언해」(각 9례)에 출현할 뿐,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앞의 「엇디」의 경우에 본 바와 같이, 「어ᄃᆡ/어듸」는 일반적으로는 장소를 나타내는 의문사인데, 반문으로 해석되는 물음월에 나타날 때, 지움의 말재어찌씨로 전용된다.

나-1. 물음법의 씨끝과의 호응

「어듸」[1]는 본래 의문사로서 쓰이는 것이므로, 언제나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게 되는데, 월의 의미상 다음의 세 가지의 유형으로 쓰인다.

(1). 네 오ᄂᆞᆯ 어듸 가ᄂᆞ다<朴通19b7>
(2). 어듸 가 사오나오니 가져 오료 다 됴ᄒᆞ니라<朴通31b5>

(1). 이하, 「어듸」로 대표하기로 한다.

(3). 어듸 진실로 ᄆᆞᆯ 사고져 ᄒᆞᄂᆞ니고<老下12b3>

(1)의 「어듸」는 그 본래적인 쓰임으로서 의문사로 쓰인 예이다. (3)의 경우에는 「정말로 말을 살 사람같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반문으로 쓰인 예이다.
그런데, (2)는 「어듸」의 바로 뒤에 풀이씨 「가다」가 나타나, (1)과 마찬가지로 장소를 나타내는 의문사로 쓰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월의 전후 문맥에 드러난 것처럼, 이 월이 「좋지 않은 물건은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경우, (3)의 반문에 매우 가까운 것으로 느껴진다.
이와 같이, 뒤의 풀이말 자리에 장소의 위치말을 요구하는 풀이씨가 쓰이면서, 월 전체의 의미로서는 지움월처럼 해석되는 경우, 특히 (2)에서와 같이, 중간적인 (또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중간적인 월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 살 사ᄅᆞ미 어듸 가 앏픠셔 즉재 은을 다 주리오<老下57b9>
(5). 魯애 君子ㅣ 업스면 이 어듸 가 이ᄅᆞᆯ 取ᄒᆞ리오<論一39b07>
(6). 이 하뎜에 내 아릐 ᄒᆞᆫ두번 ᄃᆞᆫ녀마ᄅᆞᆫ 다 니즈니 어듸 ᄉᆡᆼ각ᄒᆞ야 이시리오<老上60b3>
(7). 어듸 밧괴일 ᄇᆡ리 이시리오<老上53a7>

(4~5)에서와 같이, 「어듸」는 겹월구조로 된 월의 앞에 나타나, 그 바로 뒤의 풀이씨 「가다」와 의미적인 관계를 맺는 동시에, 월의 마침마디의 물음씨끝 {-으리오} 와 호응한다. 이러한 중간적인 예의 거의 대다수가 그 겹월의 이음마디 풀이말 자리에 「가다」를 포함한다.
(6~7)에서도 역시, 한편의 풀이씨가 「이시다」로 되어, 「어듸」가 이 풀이씨와 의미적인 관계를 맺는 동시에 문말의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한다.

「어듸」가 (3)에서 보인 것과 같은, 반문의 물음월에 나타나, 물음씨끝과 호응하는 예를 보기로 하자.

a. 어듸 ··· {-으료/-으리오/-으리잇고}
(8). 君子ㅣ 仁을 去ᄒᆞ면 어듸 일홈을 일오리오<論一32a02>
(9). 우리 남지니 형뎨 도의여셔 어듸 혜아리료<朴通72b3>
(10). 친동ᄉᆡᆼ 형뎨도 말ᄉᆞᆷ ᄌᆞᄉᆞᆷ 아니ᄒᆞᄂᆞ니 姑舅兩姨ㅅ ᄉᆞ이예 ᄯᅩ 어듸 무르료<老上17a3>
(11). 政을 行호ᄃᆡ 獸를 率ᄒᆞ야 人을 食홈애 免티 몯 ᄒᆞ면 어듸 그 民의 父母 되옴이 이시리잇고<孟一12a05>

(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듸」가 물음씨끝 {-으료/-으리오/-으리잇고} 와 호응하여 반문의 물음월을 형성할 경우의 의미는 지움월과 동등하다. 즉, (8)에선 「이름을 이루지 못함」, (9)에선 「헤아리지 않음」, (10)에선 「물을 필요가 없음」, (11)은 「백성의 부모가 되지 못함」을 각각 의미하게 된다.
한편, 다음의 (b)는 {-으료/-으리오/-으리잇고} 이외의 물음씨끝과 호응하여 반문을 이루는 용례이다.

b. 어듸 … {-고/-을고/-으뇨}

(12). 어듸 ᄉᆞ십릿 ᄯᅡ코<朴通12a2>
(13). 어듸 저우리 큻고<老下58b3>
(14). 어듸 닐굽 발 ᄎᆞ뇨 계우 닐굽 발 남브다<老下29a3>

(b)의 각 월 역시 (a)와 마찬가지로 지움월과 동등한 뜻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듸/어ᄃᆡ」 역시, 「엇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월의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물음월의 형성에 참여한다. 이때, 「어듸/어ᄃᆡ」와 함께 반문을 형성하는 씨끝으로는 {-으료/-으리오/-으리잇고}와 {-고/-을고/-으뇨} 등을 들 수 있다.

(다). 【어ᄂᆞ / 어ᄂᆡ / 어느 / 어늬 (怎麼·何) // 어늬제 / 언제 (害)】

다-0. 개관

「어ᄂᆞ/어ᄂᆡ/어느/어늬」(총 8례) 및 「어늬제, 언제」(총 3례)는, (가)에서 본 「엇디」에 비하면 극히 소수의 용례 밖에 보여 주지 않는다.

「어ᄂᆞ」와 「어느」는 「노걸대」에 각 1례씩, 「어ᄂᆡ」는 「간찰」(3례), 「효경언해」(1례)에, 「어늬」는 「번역소학」·「소학언해」(각 1례)에 출현할 뿐이다. 한편, 「어늬제」는 「맹자언해」(1례)에, 「언제」는 「번역소학」과 「간찰」(각 1례)에 극소수의 용례가 보인다.

다-1. 물음법의 씨끝과의 호응

이들 어찌씨들은, 반드시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 반문으로 해석된다는 특징을 보여 준다.

(1). 네 나히 한 ᄃᆞᆺ ᄒᆞ니 어ᄂᆞ 내 슈례홇고<老上63b8>
(2). 小人이 비록 나히 하나 어느 슈례홇고<老上64a4>
(3). 이우러 ᄇᆞ릃 드로미 되어ᅀᅡ 궁한 지븨셔 슬허 ᄒᆞᆫ둘 장ᄎᆞᆺ 다시 어늬 미치리오<小六17a4>
(4). ᄆᆞ옴애 ᄉᆞ랑ᄒᆞ거니 엇디 니ᄅᆞ디 아니리오마ᄂᆞᆫ 中心애 간ᄉᆞᄒᆞ야 ᄉᆞ거니 어ᄂᆡ 날 니즈리오<孝經19a08>
(5). 이 日은 어늬제 喪홇고<孟一05b04>
(6). 내사 ᄌᆞ식글 어ᄂᆡ 달이 혜리<簡札023a07>
(7). 듕병으로 ᄆᆞ수몰 하 ᄡᆞ니 견ᄃᆡ디 몯ᄒᆞ니 어ᄂᆡ 쫑 ᄌᆞ시기 알리<簡札073b08>

이들 어찌씨는, 모두가 물음법의 씨끝 {-을고/-으리오/-으리}와 호응, 물음월을 구성한다. 이때의 물음월 모두가 반문으로 해석되어 지움월과 같은 뜻을 나타내게 된다는 면에서 (1~7)의 모두가 공통된다.

(1~2)는, 「(먼저) 예를 받을 수 없음」을, (3)은 「장차 다시 미치지 못함」, (4)에서는 「잊을 수 없음」을, (5)는 「喪하지 않음」, (6)은 「자식을 달리 헤아리지 않음」, (7)은 「종이나 자식이 알 리가 없음」을 각각 의미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들 어찌씨들 역시, {-을고/-으리오/-으리} 등의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 그 물음월은 반드시 반문으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라). 【<u>므ᄉᆞᄆᆞ라 / 므스므라 / 므스므러 / 므스므려 / 므슴호려 / 므슴호려 / 므슴홀여 // 므ᄉᆞᆷ / 므슴 (甚麼·要甚麼·做甚麼)</u>】

라-0. 개관

이 어찌씨들의 16세기 문헌에서의 쓰임은 매우 한정되어, 「노걸대」와 「박통사」, 그리고 말기의 교화서 I 의 문헌의 일부 이외의 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그 형태는 일정하지 않아, 「므스므려」(7례), 「므ᄉᆞᄆᆞ라」·「므스므라」(각 3례), 「므슴호려」(2례), 「므스므러」·「므슴홀여」(각 1례)로 나타나며, 「므슴」의 경우 13례 나타나는 데 비해, 「므ᄉᆞᆷ」은 단 1례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므슴」과 풀이씨 「ᄒᆞ다」의 씨끝바꿈의 결합형이거나, 의문사이다.

이를 「지움의 말재어찌씨」에 포함하는 이유는 (Ⅲ)의 (카)에서 다룬 「아ᄆᆞ라나마나/아ᄆᆞ려나/아마려나」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아래에서 볼 용례에서 이들이 임자말이나 그 밖의 월성분을 전혀 취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다. 그리고 모두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되, 언제나 반문의 의미로 해석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라-1. 물음법의 씨끝과의 호응

「<u>므스므라</u>」[1]가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반문의 물음월을 형성할 때, 물음법의 씨끝으로는 {-으리오/-으료} (a)와 {-ᄂᆞ뇨} (b)의 두 가지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2]

a. <u>므스므라</u> ··· {-으리오/-으리/-으료/-ᄂᆞ뇨}

---

(1). 이하, 「<u>므스므라</u>」로 대표하기로 한다.
(2). 15세기 말의 「삼강행실도」에서는 물음법의 씨끝 {-으리잇고/-ᄂᆞᆫ다} 와 호응하는 예를 볼 수 있다.
◎ 곳 글 비혼 혀근 사ᄅᆞᄆᆡ 마론 <u>므스므라</u> <u>드르시리잇고</u><三綱207a11-12>
◎ 나아 가라 다른 ᄉᆞ랑ᄒᆞᄂᆞ니 잇거든 <u>므스므라</u> <u>잇ᄂᆞᆫ다</u><三綱302a09>

(1). 사디 아니 ᄒᆞ면… 므스므라 예 와셔 헤아리리오<老下12b8>
(2). 뇌여 잡말 말라코 이시니 므ᄉᆞᆷ 말 ᄒᆞ리<簡札041b10>
(3). 이 비단 갑슬 뉘 모ᄅᆞ료 므스므려 갑슬 쇠오리오<老下29b7>
(4). 므스므려 너 기들우료<老下20b3>
(5). 내 엇디 은 모ᄅᆞ리오 므슴호려 다ᄅᆞ니 ᄒᆞ야 뵈라 가리오<老上65a7>
(6). 虛空이 므슴 모기 메여 甘露 마시 아니리오<七大17b8> [1]
(7). 다ᄅᆞᆫ 사ᄅᆞ미 우리를 다가 므슴 사ᄅᆞᆯ 사마 보리오<老上05b9>

b. 므스므라 … {-ᄂᆞ뇨}
(8). 내 ᄒᆞ마 갑슬 알어니 므스므라 말 한 양 ᄒᆞᄂᆞ뇨<老下28a5>
(9). 이리도록 만ᄒᆞᆫ 흥졍에 므스므려 싯구ᄂᆞ뇨<老下64a2>
(10). 므스므려 ᄇᆡᄅᆞᆯ 밧고려 ᄒᆞᄂᆞ뇨<老上40a7>
(11). 내 므ᄉᆞ므라 오나뇨<簡札166a14;166b03>

c. 므스므라 … {-ᄂᆞᆫ고/-온고}
(12). 글로 므스므려 용심ᄒᆞ시ᄂᆞᆫ고<簡札190a20>
(13). 이만ᄒᆞᆫ 팔지면 므스므려 쳐ᄌᆞᄂᆞᆫ 삼긴고<簡札172a10>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므스므라」 역시 앞의 지움의 말재어찌씨와 마찬가지로, 물음법의 씨끝과만 호응한다는 점, 그리고 그 물음월은 반문으로 해석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므스므라」와 호응하는 물음씨끝으로는 {-으리오/-으료/-ᄂᆞ뇨/-ᄂᆞᆫ고/-온고} 등을 볼 수 있었다.

(마). 【어듸ᄯᆞᆫ / 어듸ᄯᅳᆫ(怎麽)】

마-0. 개관

「어듸ᄯᆞᆫ/어듸ᄯᅳᆫ」[2]은 16세기의 문헌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노걸대」와 「박통사」에서 모두 3례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노걸대」에 「어듸ᄯᆞᆫ」 1례, 「박통사」에 「어듸ᄯᆞᆫ」과 「어듸ᄯᅳᆫ」이 각 1례씩 출현한다.

---

(1). 그러나, 앞에서 살핀 「엇데/엇디/엇뎨, 어ᄃᆡ/어듸, 어ᄂᆞ/어느//어느제/언제」 등과 마찬가지로 「므슴/므ᄉᆞᆷ」 역시 본래의 의문사로서의 쓰임이 주된 기능이므로, 물음월에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반문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 뎐피 사 므슴 호려 ᄒᆞᄂᆞᆫ다<朴通31a9>

(2). 이것은 원래 의문사 「어듸」에 도움토씨 {-ᄯᆞᆫ/-ᄯᅳᆫ}이 결합한 형태이다. 이 도움토씨가 붙은 형태로는 언제나 반문의 물음월에 쓰이는 특징을 보이는 것을 감안, 여기서는 「어듸」와 구별하여 논하기로 한다. 한편, 「삼강행실도」에는 「어듸ᄯᅧᆫ」, 「어딧ᄯᅧᆫ」, 「어딧뎐」 등의 형태를 보여 주는데, 이들 모두가 반문의 물음월과 호응한다.
◎죽거든 죽디빙 어듸ᄯᅧᆫ ᄒᆞᆫ 가짓 臣下ㅣ 절홇 주리 이시리오<三綱220b02>
◎져비 遮日에 삿기 치ᄃᆞᆺ ᄒᆞ니 어딧ᄯᅧᆫ 오래 便安ᄒᆞ료<三綱215b09>
◎參政이 어딧뎐 아ᄅᆞ시리잇가<三綱225b14>

마-1. 물음법의 씨끝과의 호응

이 어찌씨는, 다음의 (a)와 같이, 언제나 물음씨끝과 호응하여 반문을 형성한다.

a. 어듸ᄉᆞᆫ … {-으리잇가/-으리오/-올다}

(1). 어듸ᄉᆞᆫ 샹급 ᄒᆞ시기를 ᄇᆞ라리잇가<朴通60a6>

(2). 내 어듸ᄉᆞᆫ 간대옛 말 ᄒᆞ리오<老上18b5>

(3). 네 어듸ᄯᆞᆫ 나ᄅᆞᆯ 이긜다<朴通22b7>

(a)의 월은 각각 「상급을 바랄 수 없음」(1), 「멋대로 말할 수 없음」(2), 「나를 이길 수 없음」(3)을 의미한다.

결국, 「어듸ᄉᆞᆫ, 어듸ᄯᆞᆫ」은 반문의 물음월과 호응하여 지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 【ᄂᆞ외야 / 노의란 / 노의여 / 뇌여 (更·再)】

바-0. 개관

이들은, 16세기의 문헌에서의 분포상으로 볼 때, 매우 적은 용례 밖에 볼 수 없다. 「노의여」는 「노걸대」(2례), 「박통사」(1례)에, 「ᄂᆞ외야」는 「초발심자경」(1례), 한편, 「노의란」은 「노걸대」(1례)에, 「뇌여」는 「간찰」(1례)에 각기 극히 적은 수의 용례가 보인다.

바-1.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

이들은, 「노의란」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거나, 이음겹월의 이음마디에 나타나는 동시에 풀이말에 반드시 지움법의 형식을 취해, 「두 번 다시, 다시는」의 의미로 쓰인다. (1)

그리고, 앞에서 다룬 어찌씨들과는 달리, 반문의 물음월과 호응하는 예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1). 그 즁이 닐오ᄃᆡ 노의여 아니 호리이다<朴通37a5>

(2). 나 니ᄀᆞ ᄂᆞᆷ 니ᄅᆞᆯ 법이 다 구죡ᄒᆞ란ᄃᆡ ᄒᆞ다가 내 오래 듀ᇢ디라도 ᄂᆞ외야 니ᄋᆞᆯ 고디 업스리라<初發45a4-5>

---

(1). 이와 관련해, 고정의(1985:10)에서는 「긍정문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 부정문에만 나타나는 부정극어」의 예로 「ᄂᆞ외, ᄂᆞ외야, 거슬ᄡᅵ, 몯, 아니, 잠간도, 니ᄅᆞ」를 들고 있다.

한편, 이주행(1990:824~825)에서는 「ᄂᆞ외, ᄂᆞ외야」를 「반복상(反復相)과 관련되는 시간부사」로 다루고 있다.

바-2.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이들 어찌씨들이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나타나는 것들이다.

(3). 노의여 ᄒᆞ나토 ᄀᆡ수ᄒᆞ리 업서 이제 관원 조차 ᄃᆞᆫ녀 ᄆᆞᄅᆞᆯ 자바<老下55b4>

(4). 모ᄃᆞᆫ 사ᄅᆞ미 노의여 말이디 아니ᄒᆞ니 제 ᄆᆞᅀᆞᄆᆞ로 쳔 간대로 ᄇᆞ수ᄃᆞ니 <老下49a9>

「ᄂᆞ외야/노의여」는, (1~2)와 같이, 뒤따르는 으뜸마디의 지움월과 호응관계를 맺는 한편, (3~4)에서와 같이 각 이음겹월의 앞마디의 지움월과 호응관계를 맺는 두 가지의 쓰임이 모두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바-3. 시킴법의 씨끝과의 호응

그러나, 「노의란/뇌여」의 경우에는 위의 (1~4)의 어찌씨들과는 「ᄂᆞ외야/노의여」와는 달리, 시킴법의 씨끝과 호응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5). ᄒᆞ마 이리 아니 완츌ᄒᆞ거든 노의란 지달 ᄡᅳ라<老上45b9>

(5). 뇌여 잡말 말라코 이시니 므슴 말 하리<簡札041b09>

(5)의 「노의란」은 「앞으로는, 다음부터는」의 뜻으로 해석될 뿐 아니라, 풀이말에 지움법의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킴법의 씨끝과 호응한다는 점에서, (1~4)의 「ᄂᆞ외야/노의여」와 구별된다.

(6)의 「뇌여」의 경우에도, 시킴법의 씨끝과 호응하고 있으나, 풀이말에는 지움법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사). 【ᄎᆞ마 / ᄎᆞᆷ아 (忍)】

사-0. 개관

「ᄎᆞ마」는 16세기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지만, 그 빈도에 있어서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거의 대개의 용례가 교화서Ⅰ의 「속삼강행실도」(5례), 「번역소학」(6례), 「소학언해」(2례), 「맹자언해」(1례)에 나타나지만, 교화서Ⅱ의 「이륜행실도」(2례)와 「간찰」(1례)에 출현한다.

이에 비해 「ᄎᆞᆷ아」는 16세기 말기의 자료, 예를 들어 「소학언해」(7례), 「맹자언해」(4례)에 나타날 뿐이다.

「ᄎᆞ마」(1)가 쓰이는 환경을 보면,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반문으로 풀이되는 경우와, 서술법, 혹은 강조·영탄법의 씨끝과의 호응이 가능하다.

(1). 이하, 「ᄎᆞ마」로 대표하기로 한다.

사-1. 물음법의 씨끝과의 호응

「ᄎᆞ마」가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 모든 용례가 반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월의 의미면으로 볼 때에는 다음의 (사-2)에서 살피게 될 지움월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a. ᄎᆞ마 … {-으려/-으랴/-으리아}

(1). ᄒᆞ마 그딋 겨지븨 ᄃᆞ외여시니 ᄎᆞ마 두 사ᄅᆞ믈 셤기려〈續三303a10〉

(2). ᄎᆞ마 너희돌ᄒᆞ로 가수멸오 귀ᄒᆞᆫ 즐거온 이ᄅᆞᆯ 누리게 ᄒᆞ려〈小七48a3〉

(3). ᄒᆞᄆᆞᆯ며 남지니 주글 저긔 날ᄃᆞ려 싀어미 셤굘 이ᄅᆞᆯ 니ᄅᆞ니 ᄎᆞ마 背叛ᄒᆞ려〈續三322b01〉

(4). 風俗의 사오나오 도ᄋᆡ유미 이러ᄒᆞ니 벼슬ᄒᆞ여 잇ᄂᆞᆫ 사ᄅᆞ미 비록 금티 몯ᄒᆞ나 ᄎᆞ마 도아ᄒᆞ랴〈小十33b5〉

(5). 내 벼슬 몯ᄒᆞᆫ 저긔 림해 나를 아더니 이제 ᄎᆞ마 ᄇᆞ리리아〈二倫39a10〉

(a)는 모두 {-으려/-으랴/-으리아} 에 의한 물음월에 「ᄎᆞ마」가 나타나는 예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은 모두 반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반문으로 해석되는 월에 「ᄎᆞ마」가 나타남으로써 의문사 「엇디」가 나타날 경우와 거의 동등한 의미를 드러낸다. 즉, 「ᄎᆞ마」와 「엇디」를 바꾸어 넣어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의 경우에는 「두 사람을 섬길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렇게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말할이가 된다. (a)의 (1~3, 5)의 월에서 임자말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모두 일인칭의 「나」로 해석되며 말할이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5)에서는, 따옴마디의 말할이(발화자)는 「셔회」이다. 따라서, 「림해를 버리는 일」은 참을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셔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ᄎᆞ마」가 말할이의 심정을 나타낸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a)의 (1~4)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4)의 경우에는 임자말은 「벼슬ᄒᆞ여 잇ᄂᆞᆫ 사ᄅᆞᆷ」이다. 그러나, 「금하진 못하더라도 돕지는 않음」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은, (4)의 말할이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월(1, 3~4)의 특징으로서는, 「ᄎᆞ마」가 속한 마침마디 앞에 제약법의 이음씨끝 {-으니} 에 의한 이음마디가 앞서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의 (b)를 포함해서, 「ᄎᆞ마」가 출현하는 월의 거의 대다수가 이러한 월의 구조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으로, 「ᄎᆞ마」가 반문으로 해석되는 물음월에 의문사 「엇디」를 수반하여 나타나는 예를 보기로 하자.

b. 엇디 ᄎᆞ마 … {-으리오/-으료}

(6). 曹氏 알픠 셩ᄒᆞ여 이실 제도 내죵내 디녀 사로려 ᄒᆞ더니 ᄒᆞᄆᆞᆯ며 이제 쇠망ᄒᆞ엿거니 엇디 ᄎᆞ마 ᄇᆞ리리오〈小九063b1〉

(7). 도즉ᄃᆞᆯ히 서르 도라보고 닐우ᄃᆡ 내 효ᄌᆞ 문녯 혱뎨 이러ᄒᆞ니 ᄎᆞ마

엇디 해ᄒᆞ료 ᄒᆞ고 다 ᄇᆞ리니라<二倫23b03>

(8). 제 난 나래 더욱 슬허 ᄒᆞᆯ 거시니 ᄯᅩ 엇디 ᄎᆞ마 술 먹고 풍류ᄒᆞ야 즐겨 ᄒᆞ료<小七23b2>

(6~8)에 보는 바와 같이, 「ᄎᆞ마」와 「엇디」가 같은 물음월에 공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엇디」가 「ᄎᆞ마」에 앞선다. 그리고, 그 앞에 {-으니} 에 의한 이음마디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a)와 일치한다.

「ᄎᆞ마」가 의미론적으로 말할이의 심정을 나타낸다는 면에서 본다면, (6)에서는 「나」, (7)에서는 「도즉둘」, (8)에서는 「일반적인 임자말」을 상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ᄎᆞ마 …못하리라」는 판단 혹은 감정은 (b)의 모든 예에 있어서 말할이(발화자)가 된다는 것은 (a)와 마찬가지이다.

사-2. 강조·영탄법의 씨끝과의 호응

「ᄎᆞ마」가 강조·영탄법의 월에 나오는 경우에도, 앞의 (사-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법적 특징은 그대로 유지된다.

c. ᄎᆞ마 … 몯 … {-어라/-으로다}

(9). 아비란 한 ᄃᆡ 무더 두고 ᄌᆞ시기 지비 편난히 이쇼ᄆᆞᆯ ᄎᆞ마 몯 ᄒᆞ얘라<續三106b01>

(10). 내 버스면 항거시 죄ᄅᆞᆯ 니브리니 항것 죄 아니피고 내 사로ᄆᆞᆯ ᄎᆞ마 몯ᄒᆞ로다<續三205a19>

(c)는, 씨끝 {-어라/-으로다} 에 의해 이뤄진 강조·영탄법의 월에 「ᄎᆞ마」가 나타난 예이다. 이때의 월은 모두 지움월로 되어 있다.

사-3. 이음마디·이름마디에 나타나는 경우

한편, 「ᄎᆞ마」가 이음법의 씨끝에 의한 이음마디 혹은, 이름법의 씨끝에 의한 이름마디에 나타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있다. 이 경우 역시 모두 지움월로 나타난다.

(11). 薛包ㅣ 나져 바며 울오 ᄎᆞ마 나가디 몯ᄒᆞ어… ᄒᆞ더라<小九021b9>

(12). 도즉ᄃᆞᆯ히 이러호모로 ᄎᆞ마 주기디 몯ᄒᆞ며…됴히 디내니라<小九020b6>

(13). 君子ㅣ 禽獸애 그 生을 보고 ᄎᆞᆷ아 그 死ᄅᆞᆯ 보디 몯ᄒᆞ며 그 聲을 듣고 ᄎᆞᆷ아 그 肉을 食디 몯ᄒᆞᄂᆞ니 일로 ᄡᅥ 君子는 □廚ᄅᆞᆯ 멀리 ᄒᆞᄂᆞ니라<孟一22a03>

(14). 내 엇뎨 즉재 죽디 아니ᄒᆞ리오마ᄅᆞᆫ ᄎᆞ마 죽디 아니호ᄆᆞᆫ 남진의 屍體 오나ᄃᆞᆫ 보아 送葬ᄒᆞ고 나도 그 겨틔 무류려 ᄒᆞ다니… ᄀᆞ장 울오 주그니라<續三327a12>

「ᄎᆞ마」가 이음마디(11~13) 혹은 이름마디(14) 속에 나오는 경우에도, 모두

월의 끝마침은 서술법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 준다.

이들 용례를 「이음법의 씨끝 혹은 이름법의 씨끝과의 호응」으로 독립시키지 않고 기타의 쓰임으로 보는 이유는, 「ᄎᆞ마」가 적극적으로 이음씨끝이나 이름씨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지움의 표현과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ᄎᆞ마」의 쓰임 중 가장 생산적인 것은,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반문의 물음월을 형성하거나, 강조·영탄법의 월에 나타나 말할이의 심정을 나타내는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지움월을 이루는 특징을 보인다.

(아). 【ᄉᆞᆼ심도 / ᄉᆞᆼ심이나 (敢)】

아-0. 개관

「ᄉᆞᆼ심도/ᄉᆞᆼ심이나」는, 그 빈도가 매우 낮아, 「간찰」에 「ᄉᆞᆼ심도」가 1례 발견되고, 「박통사」에 「ᄉᆞᆼ심이나」가 1례 보일 뿐이다.

아-1. 물음법의 씨끝과의 호응

「ᄉᆞᆼ심이나」가 물음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물음월을 형성할 경우에는, 반문으로 해석된다.

(1). ᄉᆞᆼ심이나 그리ᄒᆞ리잇가<朴通58b3>

(1)에서 「ᄉᆞᆼ심이나」는 물음법의 씨끝 {-으리잇가}와 호응, 「감히, 절대로」와 매우 유사한 뜻으로 쓰여, 이 물음월은 「절대로 그러하지 않다」는 반문으로 해석된다.

아-2. 시킴법의 씨끝과의 호응

「ᄉᆞᆼ심도」가 시킴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동시에, 그 풀이말에 지움법의 형식을 취하는 예를 (2)에서 볼 수 있다.

(2). ᄉᆞᆼ심도 그 혀음 그리 ᄒᆡ디 마오<簡札070a02-03>

(자). 【결연히 (決)】

자-0. 개관

위에 살펴본 각 어찌씨 이외에, 지움의 뜻을 나타내는 말재어찌씨로 「결연히」

를 들 수 있다. 그러나, 16세기 자료에는 「번역소학」과 「소학언해」(각 1례씩)에 서 나타날 뿐이다.

(1). 오직 ᄎᆞ자 ᄉᆡᆼ각ᄒᆞ야 ᄠᅳ들 ᄡᅥᅀᅡ 어들 거시니 쉽사리 잠ᄭᅡᆫ ᄒᆞ야 어즈러오믈 아쳐러 ᄒᆞᄂᆞ니ᄂᆞᆫ 결연히 일우리 업스니라〈小八38a4/ cf. 小學五116a06〉

「결연히」는 (1)에서와 같이, 서술법의 씨끝 {-으니라}와 호응, 그 풀이말에 지움법의 「없다」와 공존하고 있다. 이 때의 뜻으로는, 「절대로, 결단코」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Ⅳ장에서 다룬 각 어찌씨와 의향법의 씨끝 등과의 호응관계의 조사결과를 표로 하면 다음의 <표6-1>과 <표6-2>와 같다.

<표6-1>. 평가·기대실현 및 가능의 말재어찌씨와 의향법 씨끝의 호응관계

말재	뜻	씨끝의 종류	사실평가·기대실현: 진실로	실로	졍히	쇽졀업시	과연	마치	ᄒᆞᄆᆞ시	가능: 능히	가히	족히	시러곰	어루·ᄎᆞᆷ히
의향법 / 서술법	단정	-다/-ᄂᆞ다/-라	○		○		○	○	○					해당없음
		-(ᄂᆞ)니라, (-ᄂᆞ니/-으니)	○	○	○		○			○	○	○		
		-으리라/-으리로다/-으리이다				○					○	○		
		-도쇠이다				○								
		-괴여				○								
		-우라 (-노라)								○				
	의지	-으리라, (-으리니)	○											
	느낌	-은뎌 -을쎠/-을셔/-올서	○					○						
강조·영탄법		-어라	○											
		-도다/-로다	○		○		○	○						
		-으리랏다				○								
물음법		-온고	○											
		-온다/-는다			○									
		-으랴/-으려									○		○	
		-으료/-으리오/-으리잇고	○			○				○	○		○	
		-으리잇가											○	
		-으냐	○											
시킴법		-으라									○			
꾀임법 약속법		해 당 없 음												

<표6-2>. 지움의 말재어찌씨와 의향법 씨끝의 호응관계

말재	뜻	씨끝의 종류	엇디	어듸	어늬·언제	므슴	어듸쏜	ᄂᆞ외야	ᄎᆞ마	싱심이나	결연히
의향법 서술법	단정	-다/-ᄂᆞ다/-라									
		-(ᄂᆞ)니라, (-ᄂᆞ니/-으니)									○
		-으리라/-으리로다/-으리이다						○			
		-도쇠이다									
		-괴여									
		-우라 (-노라)									
	의지	-으리라, (-으리니)									
	느낌	-온뎌									
		-을쎠/-을셔/-올셔									
강조·영탄법		-어라							○		
		-도다/-로다							○		
		-으리랏다									
물음법		-온고/-올고	○	○	○	○					
		-온다/-ᄂᆞᆫ다/-올다	○	○			○				
		-으랴/-으려/-으리아							○		
		-으료/-으리오/-으리잇고/-리	○	○	○	○	○		○		
		-으리잇가					○			○	
		-으냐									
		-으뇨/-ᄂᆞ뇨	○	○		○					
	토씨	-고	○	○							
시킴법		-으라/-오						○		○	
끼임법		해당 없음									
약속법		해당 없음									

V. 조건 · 양보의 말재어찌씨

「조건 · 양보」는, 각종의 이음법 씨끝에 의해 표현되는, 조건이나 가정, 혹은 양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말재를 뜻한다. 이러한 말재형성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음씨끝과 말재어찌씨가 호응하는 경우, 이를 「조건 · 양보의 말재어찌씨」라 부르기로 한다.

이들 어찌씨들은, 앞의 Ⅲ~Ⅳ장에서 살펴본 말재어찌씨들이, 의향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 못지 않게, 매우 긴밀한 호응관계를 이룬다.

그리고, 「조건 · 양보의 말재어찌씨」는 그 호응하는 이음씨끝의 종류, 겹월에서의 어찌씨의 위치에 따라 나뉜다.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위치, 특히 제약법의 이음씨끝과 견고한 호응관계를 지닌 「조건 · 가정의 말재어찌씨」와, 이음겹월의 뒷마디에 위치, 특히 불구법의 이음씨끝과 견고한 호응관계를 지닌 「양보 · 대조의 말재어찌씨」의 둘로 대별된다.

V-1. 조건 · 가정의 말재어찌씨

「조건 · 가정의 말재어찌씨」에는 월의 풀이씨의 씨끝바꿈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나는 월의 서법형식과 적극적으로 호응하는데, 특히 겹월의 이음마디의 서법형식과의 호응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조건 · 가정의 말재와 특히 두드러진 호응관계를 보이는 말재어찌씨로는, <표7>에 나타난 바와 같이, 「ᄒᆞ다가」, 「만이레」(1), 「혹」(2), 「시혹」, 「힝혀」, 「가령」, 「가ᄉᆞ」를 들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적 특성으로서는, 첫째로는 이음씨끝과 호응하여 겹월을 형성하는 동시에 그 앞마디에 위치한다는 점, 둘째로는 이음법의 씨끝 중에서도 특히 조건 ·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제약법의 씨끝 {-거든}, {-으면}과의 결합이 압도적으로 빈번하다는 점, 세째로는 이음겹월의 마침마디의 서법과, 비록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매우 긴밀한 호응관계를 이룬다는 점, 네째로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조건 · 가정의 의미와 관련, 이들 어찌씨와 씨끝과의 호응에 의해 조건지어지거나 가정된 사실은, 발화시에 있어서 실현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조건 · 가정의 서법을 나타내는 씨끝과의 호응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ᄒᆞ다가」와 「만이레」를 먼저 살피고, 다음으로 접속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혹」과 「시혹」, 빈도면에서 그리 높지 않고 쓰임에 있어 비교적 단순한 양상을 보이는 「힝혀」와 「가령」, 「가ᄉᆞ」의 순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한다.

---

(1). 「만싈에」, 「만이러」, 「만일」, 「만일에」를 포함한다.
(2). 「혹도」를 포함한다.

<표7>. 조건 · 양보의 말재어찌씨의 문헌 성격별 분포

어찌씨 갈래		조건 · 가정의 말재어찌씨														
갈래	약호(간행) \ 어찌씨	ᄒᆞ다가	만실애	만이러	만이레	만일	만일에	시혹	씨혹	혹	혹도	ᅘᅵᆼ혀	힝혀	힝여	가령	가ᄉᆞ
三	綱(1490)	3							2			2	1			
역학	飜老(151?)	22		1	1					4			1			
	飜朴(151?)	4								2						1
교화서 I	續三(1514)															
	飜小(1517)	4	1		9		4			18			6		1	
	小學(1587)	1				42	1			34	2		3			
	孝經(1589)															
	論語(1590)					9	11			5			1			
	孟子(1590)					14	28			19	1		1			
	大學(1590)						1									
	中庸(1590)															
교화서 II	正俗(1518)	2						3								
	呂氏(1518)				17					21						
	二倫(1518)	1											1			
	警民(1579)						2			4	1					
의학	簡易(1524)				1		1			1						
	分門(1542)				2					1					1	
불경	父母(1553)									3						
	七大(1569)	1						1								
	初發(1577)	20					1	5								
簡	札(1565)												2	1		
百	聯(1563)															
합 계		55	1	1	30	65	49	9	0	133	4	0	15	1	2	1

(가). 【ᄒᆞ다가(若·怕·如)】

가-0. 개관

16세기 문헌자료에 나타나는 「ᄒᆞ다가」의 분포를 보면, 문헌의 내용적·문체적인 성격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하나, 특히 초기(1518년까지)의 문헌에 매우 빈번히 출현하는 특징을 보인다. 수집된 모두 55개의 용례 중 33례가 초기의 문헌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ᄒᆞ다가」는, 「노걸대」에 실로 22개의 용례가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같은 시기의 다른 문헌 (「박통사」 4, 「번역소학」 4, 「정속언해」 2, 「이륜행실도」 1) 들에도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중기 이후의 자료에서는, 「초발심자경」(1577)을 제외하고는, 초기와 같은 활발한 쓰임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이기문(1976:182, 1978:114~115)이나 남풍현(1971a:19)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15세기에 많이 사용되던 「ᄒᆞ다가」가 16세기 문헌에 와서 자취를 감추고 그 대신 「만일에」가 일반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나, 「ᄒᆞ다가」가 초기에 빈번히 쓰이다가, 빈도수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후기에 들어서 그 쓰임이 매우 약화된 듯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소멸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초발심자경」(1577)에도 「번역노걸대」에 못지않은 무려 20개의 용례가 출현하며, 「칠대만법」(1569)에서도 1례가 나타남으로써, 적어도 16세기의 중엽까지는 「ᄒᆞ다가」의 쓰임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

「ᄒᆞ다가」와 마찬가지로, 조건 및 가정의 의미를 지닌 이음법의 맺음씨끝과의 호응현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어찌씨의 하나인 「만일에/만이례」와의 쓰임의 분포와 비교해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명백해진다. (앞의 표7을 참조 바람)

「박통사」, 「정속언해」, 「이륜행실도」, 「칠대만법」 등에서는 「만일에」와 「만이례」등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 「ᄒᆞ다가」만이 나타나며, 「여씨향약언해」, 「간이벽온방」, 「분문온역이해방」, 「맹자언해」, 「대학언해」 등에서는 「ᄒᆞ다가」는 보이지 않고, 「만이례/만일에/만일/만싈애/만이러」 등의 형태만이 나타난다.

한편, 「노걸대」 (ᄒᆞ다가 22 : 만이례 2), 「번역소학」 (ᄒᆞ다가 4 : 만이례 9, 만일에 4, 만싈에 1), 「초발심자경」 (ᄒᆞ다가 20 : 만일에 1) 의 세 문헌에는 이 두 어찌씨가 동일한 문헌에 공존하는 현상을 보인다.

---

(1). 한편, 「ᄒᆞ다가」가 16세기의 중엽을 계기로 완전히 소멸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자료가 보인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번역노걸대」의 「ᄒᆞ다가」(22례)에 대해, 17세기의 「노걸대언해」(1670)에서도 「ᄒᆞ다가」 19례·「만일」 2례로 대응하고 있다. 이 밖에, 「노걸대언해」에만 「ᄒᆞ다가」로 나타나는 예가 1례 발견된다. 이는 17세기의 문헌에서도, 「ᄒᆞ다가」와 「만일」이 공존하는 실례가 될 것이다. 또한, 18세기의 「중간노걸대언해」(1795)에서는, 앞의 문헌과는 대조적으로, 「ᄒᆞ다가」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만일」 43례, 「萬一」 1례 (若 38례, 如 4례, 儻 1례, 萬一 1례) 만이 나타난다.

두 어찌씨가 공존하는 「노걸대」와 「초발심자경」에서는 압도적으로 「ᄒᆞ다가」가, 「번역소학」에서는 반대로 「만이례, 만일에」가 각각 우세한 양상을 보인다.
이를 볼 때, 비록 특정한 몇 문헌에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경우를 제외하자면, 「ᄒᆞ다가」가 적어도 「만이례, 만일에」와 유의어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16세기의 중엽까지는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ᄒᆞ다가」가 월에서 호응하는 씨끝은, 거의 대부분의 용례에 있어서, 반드시 조건의 의미를 지닌 이음씨끝에 국한된다. 그러나, 「ᄒᆞ다가」가 언제나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속하여, 결코 마침마디에는 나타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남풍현(1971a:11~13)에서는, 15세기의 문헌에서의 「ᄒᆞ다가」와 씨끝 등과의 호응관계로서, ① ᄒᆞ다가 ····-면, ② ᄒᆞ다가 ····-거든, ③ ᄒᆞ다가 ····-어도 ④ ᄒᆞ다가 ····-을대ㄴ ⑤ ᄒᆞ다가 ····-(ᄒᆞᆫ이) ㄴ 의 다섯가지의 유형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①~④는 씨끝과의, ⑤는 토씨와의 호응을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6세기에 있어서 「ᄒᆞ다가」의 호응관계의 특징으로서는, 먼저, 「ᄒᆞ다가」가 선행월에 위치하여 조건의 이음씨끝의 나타남을 요구할 경우에, 가장 현저하게 결합하는 씨끝으로서, 15세기와 마찬가지로, 역시 {-으면/-거든} 을 들 수 있다.

가-1. 제약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

「ᄒᆞ다가」가 출현하는 월의 특징으로서는, 「ᄒᆞ다가」가 이끌게 되는 이음씨끝에 의해 형성되는 조건의 월의 존재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음겹월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ᄒᆞ다가」는 반드시 이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위치하게 된다.
이 경우, 이음겹월을 이루는 맺음씨끝으로서는 {-으면, -거든, -올딘댄} 등의 이음법의 범주 중에서도, 특히 제약법 (구속법) 의 씨끝과의 결합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으면, -거든}에 거의 대다수의 용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ᄒᆞ다가」가 이들 씨끝의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와 호응함을 보여준다.

가-1-1. ᄒᆞ다가 ··· {-으면}

「ᄒᆞ다가」가 조건의 의미를 지닌, 이음씨끝과 호응할 경우, 뒤따르는 뒷마디는 서술법으로 끝마치는 경우와 물음법으로 끝마치는, 두 가지의 월의 형식이 두드러진다.
먼저, 이음겹월의 뒷마디가 서술법으로 끝나는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하자.

a. ᄒᆞ다가 ··· {-으면} ··· {-으리라}

(1). ᄒᆞ다가 免帖곳 업스면 일뎡 세 번 마조믈 니브리라<老上04b9>
(2). ᄒᆞ다가 구티 아니ᄒᆞ면 겨틧 사ᄅᆞ미 츔 받고 ᄭᅮ지즈리라<老下47a3>
(3). ᄒᆞ다가 더넝 옷곳 지ᅀᅳ면 나ᄅᆞᆯ 주리 이시리라<老下28b9>
(4). ᄒᆞ다가 친ᄒᆞ니 소ᄒᆞ니 믜우니 고ᄋᆞ니 혜미 이시면 도ᄂᆞᆫ 더옥 멀고

업은 더 기푸리라<初發76b7>

(5). 혼다가 이 말솜□ 티 아니면 후에 반드기 훈심이 만□지리라<初發84a6>

b. 혼다가 … {-으면} … {-으니라}

(6). 혼다가 볏덥피면 이 즘승돌히 먹디 아니흐리 만흐니라<老上18a3>

(7). 혼다가 터럭 글마니나 지극디 몯 호미 이시면 다 내 무수물 다 몯훈 셔히니라<小七24a8>

(8). 혼다가 몬져 콩을 주면 그 무리…딥프란 다 허뎌 더디누니라<老上24b5>

(9). 혼다가 디나가면 …人家ㅣ 업스니라<老上10a6>

(10). 혼다가 남부면 또 이 훈가짓 뵈 ᄠᅳ니 얻노라 흐면 또 훈돈 은을 쓰누니…살 사루미 져그니라<老下62b9>

(11). 네 이 아히돌히 혼다가 사룸 곳 도의면 세 가룻 길헤 가온디 둔닐 거시라<老下42b8-9>

c. 혼다가 … {-으면} … {-로다}

(12). 혼다가 이 虛空이댄돌 알면 내 甘露王 如來로다<七大17b7>

d. 혼다가 … {-으면} … {-어니ᄯᆞ나}

(13). 혼다가 저를 フ루쳐도 립신 몯흐고 사룸 도의디 몯흐면 그도 제 명이어니ᄯᆞ나 <老下42b3>

(14). 혼다가 봇 니피면 살 사루미 믿디 아니홀 거실시…갑슬 의론훈 후에 봇 니펴도 더듸디 아니커니ᄯᆞ나<老下31b2>

(a~d) 모두 {혼다가 …-으면}에 의해 이끌리는 이음월의 앞마디의 사실에 의해 유도되는 결론적인 사실로서의 당위(當為) 혹은 당연(當然)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때, 앞마디와 뒷마디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은 각각, 가정·조건 그리고 당위·당연이라는 의미특성 상, 결코 현실로서 존재하지 않는 사실, 즉 현실화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뒷마디가 의문문으로 마치는 경우는, 뒷마디에 반드시 의문사를 동반한 반문으로 나타난다.

e. 혼다가 … {-으면} {엇디/엇던/어듸/어느/뉘} … {-으리오/-으료}

(15). 혼다가 가 조수관울 수뭇디 몯흐면 엇디 편안히 좀 자리오<初發62a2>

(16). 혼다가 만일에 바드라온 활란이 이시면 엇디 혼자 사라 이시료<小九065a3-4>

(17). 무수매 혼다가 믜우니 고오니 가지리 부리리 업수면 모매 엇디 슈고와 낙과 셩과 쇠왜 이시리오<初發75b4>

(18). 혼다가 이フ티 리롤 알면 오직 제도 닷디 몯호물 훈홀 ᄲᅮᆫ니언뎡 엇디 말셰라 흐야 슬허 흐리오<初發45b1>

(19). 법계 평등호미니 ᄒᆞ다가 친ᄒᆞ니 소ᄒᆞ니 이시면…비록 즐가ᄒᆞᆫ돌 엇던 덕이 이시리오<初發75b1>

(20). 본릐 가지며 ᄇᆞ료미 업ᄉᆞ니 ᄒᆞ다가 츄ㅣ 새 업ᄉᆞ면 싱시 어ᄃᆡ 이시리오 <初發76a6>

(21). ᄒᆞ다가 거려 제도 아니면 어느 저긔 여희여 나리오<初發80b3>

(22). ᄒᆞ다가 능히 신심ᄋᆞ로 믈러나디 아니ᄒᆞ면 뉘 셩와 부텨 도외디 아니ᄒᆞ리오<初發82b5>

가-1-2. ᄒᆞ다가 … {-거든/-거ᄃᆞᆫ}

「ᄒᆞ다가」가 {-거든/-거ᄃᆞᆫ} 에 의해 이끌리는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으면} 의 경우보다는 훨씬 다양한 호응관계를 보이는데, 뒷마디가 당위의 의미를 지닌 서술법, 시킴법, 꾀임법으로 나타나는 일이 가장 많다.

f. ᄒᆞ다가 … {-거ᄃᆞᆫ/-어ᄃᆞᆫ/-거든} … {-올디니라}

(23). ᄒᆞ다가 ᄃᆞ토리 잇거ᄃᆞᆫ 두 말로 화합게 ᄒᆞ야 오직 ᄌᆞ빗 ᄆᆞᄉᆞᄆᆞ로 서르 향홀디언뎡 모딘 말로 ᄂᆞᆷ 샹케 마롤디니라<初發03a1>

(24). 좀좀ᄒᆞ야 안자셔 관호ᄃᆡ ᄒᆞ다가 의심된 ᄃᆡ 잇거ᄃᆞᆫ 너비 션각ᄭᅴ 뭇ᄌᆞ와…실터럭마도 범남이 마롤디니라<初發17b2>

(25). ᄒᆞ다가 병ᄒᆞ야ᄃᆞᆫ 잠싼 먹고 병 됴커든 ᄯᅩ 마롤디니라<小七18a8>

다음의 경우에는, 언해류의 문헌자료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ᄒᆞ다가」와 {-거ᄃᆞᆫ/-어ᄃᆞᆫ}에 의한 이음겹월이 겹쳐져 나타나 복합적인 겹월을 이룬다. 이 겹월 자신이 또 다른 이음겹월의 앞마디를 이루고 있는데, 역시 뒷마디는 {-올 거시온, -디 말며}에 의해 당위의 의미를 지닌 월을 형성하고 있다.

(26). ᄒᆞ다가 조ᄉᆞ로윈 일로 나갈 ᄃᆡ 잇거ᄃᆞᆫ 듀디인과 ᄯᅩ 즁령ᄒᆞᄂᆞᆫ ᄃᆡ 고ᄒᆞ야 간 고ᄃᆞᆯ 알게 ᄒᆞ며 ᄒᆞ다가 쇽가의 들 제어ᄃᆞᆫ 모ᄃᆡ 모로매 졍념올 구디 디녀…샤ᄒᆞᆫ ᄆᆞᄉᆞᄆᆞᆯ 흘려 내요ᄆᆞᆯ 삼가 말거시온… <初發11b2;12a7>

(27). ᄒᆞ다가 죵ᄉᆡ 좌애 올라 셜법호ᄆᆞᆯ 맛나거ᄃᆞᆫ 모ᄃᆡ 법에 어려온 혜ᄆᆞᆯ 지어 몯ᄒᆞ리로다 ᄒᆞ야 믈러날 ᄆᆞᄉᆞᆷ 내디 말며…<初發14a4>

이러한 당위 혹은 당연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월은, 다음과 같은 서술법의 씨끝의 {-으리라, -ᄂᆞ니라} 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g. ᄒᆞ다가 … {-거든/-거ᄃᆞᆫ} …{-으리라/-ᄂᆞ니라}

(28). 舍人하 ᄒᆞ다가 너옷 믿디 몯ᄒᆞ거든 다ᄅᆞ니 ᄒᆞ야 보라 ᄒᆞ면 믄득 올ᄒᆞ니 아니니를 보리라<朴通73b3>

(29). ᄒᆞ다가 빋 낸 사ᄅᆞ미 아모 것도 마가 줄 것 업거든 보인 ᄒᆞᆫ 사ᄅᆞ미 호온자 ᄀᆞᄅᆞ차 가 ᄑᆞ리라<朴通61b3>

(30). ᄒᆞ다가 가난ᄒᆞᆫ 사ᄅᆞ미 와 구ᄒᆞ야 빌 리 잇거ᄃᆞᆫ 비록 가난ᄒᆞ야 이신 것 업ᄉᆞ나 앗기디 마로리라<初發53a5>

(31). ᄒᆞ다가 외오디 몯ᄒᆞ야든 딕실 션ᄇᆡ ᄒᆞ야 어피고 세 번 티ᄂᆞ니라 <老上03b5>

이와 같이, 「ᄒᆞ다가」에 의한 이음겹월의 뒷마디가 당위나 당연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h)와 같이, 시킴법으로 마치는 경우이다.

h. ᄒᆞ다가 … {-거든} … {-으라/-고려}

(32). 버디 ᄒᆞ다가 됴티 몯ᄒᆞ야 구워 종과 구셔렛 ᄋᆞ금 맛나 잇거든 모ᄃᆞᆫ 벋ᄃᆞᆯ히 나ᅀᅡ가 구제ᄒᆞ라<老下46b9>

(33). ᄒᆞ다가 업거든 …가지 잇거든 가져 오라<老上41a1>

(34). ᄒᆞ다가 ᄀᆞ장 디거든 안직 머추워 두어든 네 아모ᄃᆡ나 보라 가고려 <老上70b3>

반면, 다음의 예에 있어서는, 뒷마디가 물음월로 끝나, 반문에 가까운 의미로 해석되므로, 역시 앞서 언급한 대로의 당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5). ᄒᆞ다가 령공이 ᄂᆞ믜게 할여 나가거든 그리 ᄒᆞᆯ 거시잇가<二倫39a10>

가-1-3. ᄒᆞ다가 … {-올딘댄}

「ᄒᆞ다가」가, 위의 {-으면, -거든/-거ᄃᆞᆫ} 등의 조건법의 씨끝 이외에, 다음과 같이, {-올딘댄}과 호응하여, 조건의 이음앞마디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

(36). ᄒᆞ다가 ᄒᆞᆫ딧 버ᄃᆞᆯ 긔롱ᄒᆞ야 ᄆᆞ니 눌러 올ᄒᆞ니 와 니ᄒᆞ여 닐올딘댄 이 ᄀᆞᄐᆞᆫ 중은 젼혀 니익이 업ᄉᆞ니라<初發03a4>

(37). ᄒᆞ다가 츌가ᄒᆞᆫ 넙지ᄅᆞᆯ 져ᄇᆞ리디 말고져 ᄒᆞᆯ딘댄 모로매 명산ᄋᆞᆯ 향ᄒᆞ야 모지ᄅᆞᆯ 궁구호리니<初發70a3>

결코, 용례의 수에 있어서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올딘댄}과 호응할 경우에는, (36)과 같이 사실의 당연성을 나타내는 경우와, (37)의 뒷마디의 당위성의 의미를 지닌 어찌씨 「모로매」가 의미하는 바 당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음은, {-으면, -거든/-거ᄃᆞᆫ} 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가-1-4. ᄒᆞ다가 … {-어}

매우 드물긴 하지만, 다음의 예와 같이 「ᄒᆞ다가」가 제약법의 이음씨끝 {-어}와 호응하는 일이 있다.

(38). ᄒᆞ다가 사ᄅᆞ미 제 사오나온 젼ᄎᆞ로 광명을 슈티 아니ᄒᆞ여 굴형의 ᄠᅥ러디며 ᄒᆡᄌᆞ애 ᄠᅥ러디ᄃᆞᆺ ᄒᆞ니라<初發17a2>

가-2. 불구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

「ᄒᆞ다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건 및 가정의 의미를 지닌 제약법의 이음씨끝 이외에, {-어도, -올디라도} 등의 불구법의 씨끝과도 호응할 수 있다.

i. ᄒᆞ다가 … {-어도/-올디라도} … {-으리라}

(39). ᄒᆞ다가 다시 사슬 ᄢᅢ혀 외오디 몯ᄒᆞ야도 免帖 내여 ᄒᆡ야 ᄇᆞ리고 …티기를 면ᄒᆞ거니와 …리라<老上04b5>

(40). 나 니코 놈 니홀 법이 다 구죡ᄒᆞ란ᄃᆡ ᄒᆞ다가 내 오래 듀홀디라도 ᄂᆞ외야 니의 홀 고디 업스리라<初發45a4>

가-3. 이음씨끝 이외의 것과의 호응

남풍현(1971a:12)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15세기에는 「ᄒᆞ다가」가 풀이씨의 씨끝 이외에도 도움토씨의 {-ㄴ} 과도 호응하는데, 16세기의 문헌 자료에는 이보다 더 복잡한 호응관계를 보여 준다.

가-3-1. 도움토씨 {-으란}

「ᄒᆞ다가」가, 이제까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가정 및 조건의 이음씨끝 이외의 문법형태와 생산적으로 호응하는 예로서, 도움토씨 {-으란} 을 들 수 있다.

(41). ᄒᆞ다가 ᄆᆞ릐 됴홈 구주므란 살 님재 제 보고 ᄒᆞ다가 ᄆᆞ릐 來歷이 不明ᄒᆞᆫ 일란ᄂᆞᆫ ᄑᆞᄂᆞᆫ 님재 ᄒᆞᆫ온자 맛ᄃᆞ리니<老下17a1, 3;老下19b1>

(42). ᄒᆞ다가 몬져 ᄆᆞ르리란 구의나깃 은 닷 량을 벌도 내여 ᄆᆞ르져 아니ᄒᆞᄂᆞᆫ 사ᄅᆞᆷ 주워 ᄡᅳ게 ᄒᆞ야도 잡말 몯 ᄒᆞ리니<老下17a6>

(43). ᄒᆞ다가 사ᄅᆞᄆᆡ 어딘 일란 그ᅀᅵ고 사오나온 일란 펴내요미 ᄀᆞ장 사오나온 이리라<老下44b7>

가-3-2. 의향법의 씨끝과의 호응

「ᄒᆞ다가」의 용례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다음의 (44)에서와 같이 「ᄒᆞ다가」가 마침마디의 한 성분으로서 위치하여, 마침법의 맺음씨끝과 호응관계를 이루는 일이 있다.

(44). ᄒᆞ다가 후에 미들고디 업슬가 ᄒᆞ야 부러 이 문긔 ᄆᆡᆼᄀᆞ라 ᄡᅳ져 <老下17a9>

가-3-3. 기타

다음의 용례에 있어서는, 「ᄒᆞ다가」가 어찌씨로서의 쓰이고 있다기 보다는, 풀이씨 「ᄒᆞ다」의 씨끝 바꿈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45). ᄒᆞ다가 어려온 제 ᄲᅳᆯ 것 업슨 저긔 내 쳔 앗기디 말오 벋들홀 주워 ᄡᅳ게 ᄒᆞ라<老下46b6>

(45)에서는 「어려온 제 ᄲᅳᆯ 것 업슨 저긔」가 생략되면, 월의 의미가 부자연스러워진다. 이 때, 「ᄒᆞ다가」가 직후의 「어려온」과 호응하는지 그 뒤의 어찌마디 전체와 관계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ᄒᆞ다가」가 유어어의 관계에 있는 어찌씨 「가ᄉᆞ」(假)와 공존하는 예가

보인다.

(46). 가ᄉᆞ ᄒᆞ다가 ᄂᆡ년희 믈어디거든 삼년을 맛다셔 갑 받디 말오 쓰리라 ᄒᆞ야 이러ᄐᆞ시 져ᄃᆞ려 글월 받고 ᄡᅳ이면 쉰 ᄒᆡ라도 믈어디디 아니 ᄒᆞ리라<朴通10b5>

(나). 【만이례 / 만일 / 만일에 / 만싈에 / 만이러 (若·萬一·如)】

나-0. 개관

<표7>에 나타나는 「만이례」[1]의 분포를 보면, 비록 형태상으로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지만, 16세기의 전 시기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16세기의 초기의 문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ᄒᆞ다가」와 매우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형태상으로는 수집된 146의 용례 중, 「만일」(65례), 「만일에」(49례), 「만이례」(30례)가 단연 두드러지며, 그 밖에 「만이러」와 「만싈에」가 각각 한 번씩 나타난다.

그리고, 「만일에」가 16세기의 초기의 문헌으로부터 말기의 문헌에 이르기까지, 비록 빈도수로는 크지 않을지라도, 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반해, 「만이례, 만이러, 만싈에」는 초기와 중기의 문헌에 국한되어 쓰이며, 「만일」은 말기의 문헌에 등장한다. [2]

「만이례」는, 「ᄒᆞ다가, 가령, 시혹, 혹, 혹도」와 더불어, 가정 혹은 조건의 의미를 지닌 이음씨끝과 호응관계를 이루는 특성을 보인다.

한편, 「만이례」의 수식의 범위, 즉 그 문법적인 힘이 미치는 범위는, 다음의 (1)과 같이, 동일한 월 안에 같은 어찌씨가 공존하고 있을 경우에,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 만이례 듣디 아니ᄒᆞ거시든 진실로 이례 큰 해 업스니란 ᄯᅩ 맛당이 곡지니 좃ᄌᆞ옵더니 만이례 어버ᅀᅴ 시기ᄂᆞᆫ 일로 외니라 ᄒᆞ야 내 ᄠᅳ들 바ᄅᆞ 힝ᄒᆞ면…공슌티 아니ᄒᆞᆫ ᄌᆞ식이 도외리니 ᄒᆞ물며 그 ᄒᆞ온 이리 올티 아니호미ᄯᆞ녀<小七02b1;3>

(1)에는 「만이례」가 두 번 쓰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앞의 「만이례」의

(1). 이하, 「만이례」로 이들 각 형태의 어찌씨를 대표하기로 한다. 그 까닭은, 첫째로는 이들의 대응 한어가 「若·萬一·如」로 모두 공통될 뿐 아니라, 두째로는 그 말본적인 쓰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며, 세째로는 이들 여러 형태들 중에서 「만이례, 만일에, 만이러, 만싈에」는 단지 표기법 상의 차이일 뿐이므로, 이들 형태 중 가장 빈도가 높은 「만이례」를 취하기로 한다.
(2). 그러나, 이것은 16세기의 문헌자료에 국한할 경우의 현상으로, 15세기의 「두시언해」에 「만일, 萬一에, 萬一」 등의 어찌씨가 쓰이고 있음이 남풍현(1968:284)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꾸밈의 힘이 미치는 범위는 뒤의 「만이레」가 나타나는 바로 앞까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이레」가 월에서 호응하는 씨끝으로는, {-거든, -으면} 으로 대표되는 조건 혹은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음법의 씨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만이레」는 이음법의 맺음씨끝 {-거든, -으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위치하여, 뒷마디에 서는 일은 없다.

나-1. 제약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

「만이레」가 월에 나타나면, 거의 대다수, 제약법(구속법)의 이음씨끝을 요구하여 이음겹월을 이루게 된다. 이 때, 「만이레」와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이루는 제약법의 맺음씨끝으로서는, {-거든, -으면, -은즉, -은댄} 등이 나타난다. 이 중, 「ᄒᆞ다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든} 과 {-으면} 과의 호응이 가장 현저하다.

나-1-1. 만이레 … {-거든}

「만이레」가 조건 및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맺음씨끝 {-거든} 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의 앞마디를 구성할 경우의 특징으로서는, 그 이음겹월의 마침마디가 시킴법으로 끝나는 예가 가장 두드러지다는 점이다.

a. 만이레 … {-거든/-어든} … {-으라}

(2). 만이레 존당이 물 ᄐᆞ라 ᄒᆞ시거든 ᄀᆞ장 ᄉᆞ양ᄒᆞ라<呂氏20a01/鄕約23a3>

(3). 만이레 아ᄉᆞᆷ이 왯거든 각별이 ᄎᆞ셔ᄒᆞ야 안치고 만이레 다른 손이 벼슬ᄒᆞᆫ 사ᄅᆞᆷ이 왯거든 벼슬로 안치고 만이레 벼슬 노픈 사ᄅᆞᆷ이 왯거든 비록 동향사ᄅᆞᆷ이라두 벼슬로 안치라<呂氏20b04;05;06/鄕約24a3-4;5;7>

(4). 만이레 사돈 잔치에 사돈짓 사ᄅᆞᆷ이 위두손이 ᄃᆞ외얫거든 비록 져머도 그 저믈 ᄃᆡ답ᄒᆞ라<呂氏21b07/鄕約25b7>

(5). 만이레 ᄌᆞ라아셔 간대로 놀며 제 몸을 몰라 가져 ᄃᆞᆫ니거든 ᄯᅩ 금지ᄒᆞ야 블의에 ᄲᅡ거디디 아니케 ᄒᆞ라<呂氏29b10/鄕約35b2>

(6). 만이레 져믄 사ᄅᆞᆷ이 손이 ᄃᆞ외야 수울 다 먹고 절ᄒᆞ거든 쥬신이 구러 바ᄃᆞ라<呂氏21b03/鄕約25b1>

(7). 만일에 님금이 무르시거든 안즉 내 닐온대로 ᄒᆞ라<小九044a8-9>

(8). 만이레 그 가ᄃᆞᆼ이 연괴 잇거나 혹 경하ᄒᆞ며 됴문홀 사ᄅᆞᆷ으로 나ᄀᆞᆫ 벼슬이 서ᄅᆞ 곧디 아니ᄒᆞ거든 그 버근 사ᄅᆞᆷ이 가 ᄒᆞ라<呂氏22a09/鄕約26b5>

한편, 「만이레」가 {-거든} 과 호응하여 이루는 이음앞에 뒤따르는 뒷마디가 마침마디를 이루지 못하고, 그 전체가 다시 설명법이나 벌임법의 맺음씨끝에 의해 또 다른 이음겹월의 앞마디가 될 경우에도, 앞서와 같이, 마침마디가 시킴법으로 되는 예를 발견할 수 있다.

b. 만이레 … {-거든/-어든} … {-으ᄃᆡ} … {-으라}

(9). 만이레 특별이 벼슬ᄒᆞᆫ 사ᄅᆞᆷ이 잇거든 존ᄒᆞᆫ 사ᄅᆞᆷ의 셔녁 겨틔 안조ᄃᆡ 람녁을 향ᄒᆞ야 동녁을 우 사ᄆᆞ라<呂氏33b05/鄕約41a3>

(10). 만이레 쥬신이 명ᄒᆞ야 ᄆᆞᆯ ᄐᆞ라 ᄒᆞ거든 세 번 ᄉᆞ양호ᄃᆡ … 구틔여 ᄐᆞ라 ᄒᆞ거든 그 명을 조ᄎᆞ라<呂氏18b08/鄕約21a9>

(11). 만이레 내 ᄆᆞᆯ ᄐᆞ고 존댱잇 사ᄅᆞᆷ이 거려 가거든 ᄇᆞ라 보거든 ᄆᆞᆯ 브려 나ᅀᅡ가 읍호ᄃᆡ… ᄒᆞ라<呂氏19b08/鄕約22b9>

c. 만이레 … {-거든/-어든} … {-고/-으며} … {-으라}

(12). 만이레 내 거려 가고 존댱이 ᄆᆞᆯ ᄐᆞᆺ거든 피ᄒᆞ고… ᄒᆞ라<呂氏19b07/鄕約22b7>

(13). ᄌᆞ식이 져머 의거 업슨 사ᄅᆞᆷ을 만이레 제 집이 가숨열어든 위ᄒᆞ야 긔걸ᄒᆞ야 그 ᄡᆞᄅᆞᆯ 검거ᄒᆞ며 혹 그위예 알외며… ᄒᆞ라<呂氏29b08/鄕約35a8-9>

d. 만이레 … {-거든/-어든} … {-올디니} … {-으라}

(14). 긔약잇 사ᄅᆞᆷ이 ᄌᆡ믈…올 다 서르 빌요ᄃᆡ 만이레…해로온 이리 잇거든 굿드리 빌이디 마롤디니…허믈 스ᄂᆞᆫ 칙의 스라<呂氏30b01/鄕約36a8>

(b)에서는 설명법의 맺음씨끝 {-우ᄃᆡ}, (c)에서는 각각 벌임법의 맺음씨끝 {-고}와 {-으며}, (d)에서는 제약법의 맺음씨끝 {-으니}를 포함한 {-올디니}에 이끌리는 이음겹월의 마침마디가 시킴법으로 나타난다. [1]

한편, 다음의 월에서는 「만이레」와 제약법의 조건씨끝 {-어든}이 속한 바 일차적인 이음겹월이 부정의 시킴법의 마침마디와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5). 만이레 특별이 쳥ᄒᆞ야 이바디ᄒᆞ거나 혹 마지어나 위뢰어나 젼송이어든 다 위ᄒᆞ야 쳥ᄒᆞᆫ 사ᄅᆞᆷ으로 위두손을 삼고…다 나콰 벼슬로 안치디 말라<呂氏20b08/鄕約24a8>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만이레」가 제약법의 맺음씨끝 {-거든}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시킴법의 마침마디와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서술법의 마침마디와 공기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16). 만이레 모ᄃᆞᆫ 손 듕에 나 하고 볏슬 노ᄑᆞᆫ 사ᄅᆞᆷ이 잇거든 특별이

---

(1). 허웅(1989:186)에서는 {-올디니}에 관해, 이를 녹아붙은 한 씨끝으로 보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씨끝의 분석이 주된 목적이 아니며, 어찌씨와의 호응관계에 있어서는, {-올디니}의 {-으니}만이 어찌씨와의 호응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면에서, 이 결합형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기로 한다.

받ᄌᆞ오ᄆᆞᆯ 위두손ᄭᅴ 받ᄌᆞᆸᄃᆞ시 ᄒᆞ되 그 손은 답례 아니ᄒᆞᆯ 거시라
<呂氏21b06-07/鄕約25b6>

(17). 만이레 과ᄀᆞ리 약 업거든 춤기ᄅᆞᆯ 고해 ᄇᆞᄅᆞ고 죠ᄒᆡ심으로 고침ᄒᆞ야 ᄌᆞ최음ᄒᆞ요미 됴ᄒᆞ니라<簡易05a8/分門18a09>

실제로는, 이 두 월의 경우, (16)의 {-을 거시라} 와 (17)의 {…-음이 됴ᄒᆞ니라} 의 표현형식에 의해 당위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약한 의미로서의 명령에 가깝다 할 것이다.

나-1-2. 만이레 … {-으면}

「만이레」가 제약법의 맺음씨끝 {-으면} 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형성하는 일은 {-거든} 의 경우에 필적할 할 만큼 빈번하게 나타난다. 또한 의미론적으로 「만이레」와 이 맺음씨끝과의 결합에 의해, 뒤따르는 마침마디의 내용에 대한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 있어서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들이 형성하는 이음겹월의 마침마디의 형식 즉 말재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거든} 과의 호응관계를 이루는 용례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예가 시킴법의 마침마디와 공존하고 있었음에 비해, {-으면} 과의 호응을 이루는 경우에는 시킴법의 마침마디를 지닌 이음겹월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 대신, {-으면} 과의 호응에 의해 이루는 이음겹월의 마침마디의 말재에 있어서는 물음월과 서술월이 가장 우세한데, 이 때는 반드시 의문사를 동반한 반문으로 해석된다.

e. 만이레… {-으면} … {엇디/뉘} … {-으리오/-으료}

(18). 재 만이러 잡사ᄅᆞ미며 ᄅᆡ려기 ᄀᆞᆺᄀᆞᆺ디 아니ᄒᆞ면 엇디 능히 어[?여]ᄀᆡ 오료<老上51b2>

(19). 만이레 부형 셤기ᄂᆞᆫ 도리로 셤겨…이러ᄐᆞᆺᄒᆞᆫ 졍셩도원 ᄡᅳ디 하면 엇디 사ᄅᆞᄆᆞᆯ 감동티 몯 ᄒᆞ리오<小七25b1>

(20). 만이레 몬져 과글이 로ᄒᆞ면 오직 제게 해ᄒᆞᆯ ᄲᅮᄅᆞ미니 엇디 ᄂᆞᄆᆞᆯ 해ᄒᆞ리오<小七29a5-6>

(21). ᄒᆞ다가 만일에 바ᄃᆞ라온 환란이 이시면 엇디 혼자 사라 이시료<小九065a4>

(22). 만일 人殺ᄒᆞ기ᄅᆞᆯ 嗜티 아니ᄒᆞᆫ 者ㅣ 이시면…沛然홈을 뉘 能히 禦ᄒᆞ리오<孟一17a07>

(e)의 (21)의 예문은, 유의어 관계에 있는 「ᄒᆞ다가」와 「만일에」가 같은 월에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만이레」가 속한 이음겹월의 마침마디가 물음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반드시 의문사와 공존하는 것이 아님은, 비록 단 하나의 예 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음의 예에서 알 수 있다.

(23). 만일에 공경티 아니ᄒᆞ거나 공순티 아니ᄒᆞ면 그 크며 져그ᄆᆞᆯ 조차셔

죄 넙기 반돗ᄒᆞ리니…가히 삼가디 아니홀 것가<警民02a10>

다음으로, 마침마디가 서술법인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하자.

f. 만이례 … {-으면} … {-으리라/-으니라/-어니ᄯᆞ나}

(25). 만일에 넙지 놉디 몯ᄒᆞ면 그 ᄇᆡ호미 다 샹녯사ᄅᆞᄆᆡ 이리라<小六11a9>

(26). 이제 ᄇᆡ홀 사ᄅᆞ미 만이례 능히 이리홀 주를 알면 顔子 孟子 ㅅ 이ᄅᆞᆯ 나도 ᄯᅩ 가히 ᄇᆡ호리라<小六09a4>

(27). 만싈에 능히 論語 孟子 ㅅ 가온ᄃᆡ 기피 구ᄒᆞ고 맛드려 쟝ᄎᆞᆺ 호워기 길워 일우면 ᄀᆞ장 됴흔 긔지리 나리라<小八32a9>

(28). 만이례 뎡졀 일흔 거슬 겨집 사마 내 모매 ᄡᅡ골 도외에 ᄒᆞ면 이ᄂᆞᆫ 내 모미 뎡졀을 일ᄂᆞᆫ 디니라<小七35a2>

(29). 만일에 몬져 올흔대로 ᄉᆞᆯ오면 죄ᄅᆞᆯ 측량티 몯ᄒᆞ리니 안 즉긔옴만 ᄀᆞᆮ디 몯ᄒᆞ니라<小九043b2-3>

(30). 만이례 이리 조심ᄒᆞ야 ᄃᆞᆫ니면 곧 이 아랫 사ᄅᆞᄆᆡ 노연 셤기ᄂᆞᆫ 이리 어니ᄯᆞ나<老下46a4>

나-1-3. 만이례 … {-은則/-은즉}

극히 적은 두 개의 용례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만이례」가 제약법의 맺음씨끝 {-은則/-은즉}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이루는 경우에는, 그 겹월의 마침마디가 모두 {-소서/-으라}에 의한 시킴법으로 나타난다.

(31). 王이 만일 이ᄅᆞᆯ 알ᄋᆞ신 則 民이 隣國에 하믈 ᄇᆞ라디 말ᄋᆞ소셔<孟一07b04>

(32). 나라히 만일에 블시에 거동이 이셔 혹 예놈이 와 침노ᄒᆞ거나 오랑캐 골왜거나 ᄒᆞ즉…피홀 ᄆᆞᅀᆞᆷ을 두디 말며…죠고매도 슬ᄒᆞ여 셜워 ᄒᆞᄂᆞᆫ 렴을 두디 말라<警民02a04>

나-1-4. 만이례 … {-올던대ᄂᆞᆫ}

「만이례」가, 제약법의 맺음씨끝 {-올던대ᄂᆞᆫ} 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이루는 다음의 한 예에 있어서도 역시 지움의 시킴법의 마침마디와 공존함을 보인다.

(33). 만이례 軍中에 갈던대ᄂᆞᆫ 허리에 ᄆᆡ여 모매 내디 말라<簡易11a3/分門11b05>

나-2. 이음씨끝 이외의 것과의 호응

「만이례」는, 「ᄒᆞ다가」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특정한 이음씨끝들과 빈번히 호응관계를 지님으로써, 그 이음법의 맺음씨끝이 의미하는 바의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주된 말본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이례」가 씨끝 이외의 말본적 요소와 호응하는 것으로는, 도움토씨 {-으란}

을 들 수 있는 점에서 있어서도, 「ᄒᆞ다가」와 거의 동등한 분포를 보인다.

나-2-1. 도움토씨 {-으란}

다음의 (33)에서는 「만이레」가 도움토씨 {-으란} 과 호응할 경우에는, 이음겹월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안긴겹월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 모ᄃᆞᆫ 나래 일 니러 약정과 부정과 딕월이 제 집의 힝례ᄒᆞ거나 만이레 족친 모도오ᄆᆞ란 맖오… ᄒᆞ라<呂氏31b04/鄕約38a1>

나-2-2. 기타

역시, 매우 드문 용례이기는 하지만, 다음의 예에서처럼 「만일에」가 그 뒤에 따르는 이음겹월의 어느 말본요소와 호응하는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34). 만일에 ᄒᆞᆫ낫 臣이 斷斷ᄒᆞ고 다ᄅᆞᆫ 지죄 업스나 그 ᄆᆞᄋᆞᆷ이 休休ᄒᆞᆫ디 그 용납홈이 인ᄂᆞᆫ ᄃᆞᆺ ᄒᆞᆫ디라<大學24b04>

(다). 【혹/혹도/시혹(或)】

다-0. 개관

16세기의 언해류의 문헌에 나타나는 「혹」은 거의 원문 (한어) 의 「或」에 대응하는데, 이 「或」에 대응하는 어찌씨로서는 「혹, 혹도, 시혹」의 세 가지가 나타난다. 수집된 16세기 문헌자료에서의 분포상으로는, 「혹」이 133례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시혹」이 9례, 「혹도」가 4례로 나타난다.

「혹」이 16세기 전 시기의, 각 문헌에 걸쳐 고루 분포하는 데 비해, 「혹도」는 16세기 말의 교화서에서만 볼 수 있다. 한편, 「시혹」은 「정속언해」, 「칠대만법」, 「초발심자경」에서 볼 수 있는데, 「혹」만큼의 활발한 쓰임은 보이지 않는다.(1)

「혹」(2)은, 앞서 살펴본 「ᄒᆞ다가, 만이레」와 마찬가지로, 이음씨끝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형성하여, 그 겹월의 앞마디에 위치하는 쓰임이 가장 현저한데, 이음법 중 제약법과 벌임법과의 호응 관계가 특히 두드러진다.

「혹」이 월에서 이음법의 맺음씨끝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형성하는 경우는, 제약법의 씨끝과 구속법, 벌임법의 씨끝과의 결합이 가장 우세하다.

(1). 「시혹(時或)」은 15세기에는 매우 생산적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풍현(1968:294)에서는 16세기 이후에 「혹시(或是)」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고에서 조사한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2). 이하, 가장 빈도가 높은 「혹」을 대표형으로 삼기로 한다. 또한, 「혹도」는, 어찌씨 「혹」에 도움토씨의 {-도}가 연결된 형태이므로, 엄밀히 보면 「혹」에 포함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도움토씨와의 연결이 16세기에 있어서는 말기의 「경민편」과 「소학언해」에만 드물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 통계표에서는 따로 세우기로 한다.

다-1. 제약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

「혹」이 제약법의 이음씨끝과 서로 호응하여 겹월을 형성할 때는, 「ᄒᆞ다가, 만이례」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거든, -으면} 과 호응관계를 맺는다.

다-1-1. 혹 … {-거든/-어든}

「혹」이 조건 혹은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음법의 씨끝 {-거든/-어든} 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형성할 때는, 그 이음겹월의 마침마디가 시킴법으로 끝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둘로 나누어진다.

a. 혹 … {-거든/-어든} … {-으라}

(1). 혹 다 ᄆᆞᆯ ᄐᆡᆺ거든 존ᄒᆞᆫ 사ᄅᆞᆷ이어든 피ᄒᆞ고 댱샹읫 사ᄅᆞᆷ이어든… 읍ᄒᆞ야 기ᄃᆞ려 디나가거ᅀᅡ 읍ᄒᆞ고 가라<呂氏19b05/鄕約22b4>

(2). 혹 그 집이 힘이 브죡ᄒᆞ거든 ᄒᆞᆫ ᄀᆡ약읫 사ᄅᆞᆷ이 ᄌᆡ믈을 빌이며 그 이ᄅᆞᆯ ᄀᆞᅀᆞᆷ아라 힘 ᄡᅥ ᄒᆞ라<呂氏22b03/鄕約27a1>

(3). ᄆᆞᆯ읫 아ᄂᆞᆫ 사ᄅᆞᆷ의 몽상 듣고 혹 머러 잘 가디 몯ᄒᆞ거든 사ᄅᆞᆷ 브려 티뎐 호ᄃᆡ…두 번 절ᄒᆞ고 우러 보내라<呂氏23a10/鄕約28a7>

(4). 혹 그 지비 인ᄒᆞ야 실소ᄒᆞ거든 모ᄃᆞᆫ 사ᄅᆞᆷ이 주워 거느리 치라<呂氏30a02/鄕約35b6>

(5). 만이레 그 가댱이 연괴 잇거나 혹 경하ᄒᆞ며 됴문ᄒᆞᆯ 사ᄅᆞᆷ으로 나콰 벼슬이 서르 ᄀᆞᆮ디 아니ᄒᆞ거든 그 버근 사ᄅᆞᆷ이 가 ᄒᆞ라<呂氏22a09/鄕約26b5>

앞의 (a)와 마찬가지의 환경에서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이나 가정을 내세울 때, 「혹」이 조건·가정의 제약법의 씨끝 {-거든} 과 호응하면서, 동시에 그 앞에 가림법 (선택법) 의 {-거나/-어나} 가 쓰이는 일이 많다.

b. 혹 … {-거나/-어나} … {-거든/-어든} … {-으라}

(6). 혹 눈비 오거나 ᄒᆞ거든 존댱이 몬져 사ᄅᆞᆷ 브려 알외야 오디 말에 ᄒᆞ라<呂氏17b04;鄕約19b4>

(7). ᄆᆞᆯ읫 서르 뵈요매 쥬인이 말ᄉᆞᆷ ᄆᆞᆺ고 다ᄅᆞᆫ 말ᄉᆞᆷ 아니ᄒᆞ거든 믈러가며 혹 쥬인이 게으른 비ᄎᆞᆯ 두거나 혹 뵈야호로 이ᄅᆞᆯ ᄒᆞ고져 ᄒᆞ야 손 믈러가ᄆᆞᆯ 기ᄃᆞ리거나 ᄒᆞ거든 다 고ᄒᆞ고 믈러갈 거시니라<呂氏18b06;7/鄕約21a7;8>

(8). 만이레 특별이 쳥ᄒᆞ야 이바디ᄒᆞ거나 혹 마지어나 위로어나 젼송이어든 다 위ᄒᆞ야 쳥ᄒᆞᆫ 사ᄅᆞᆷ으로 위두손ᄋᆞᆯ 삼고…다 나콰 벼슬로 안치디 말라<呂氏20b08/鄕約24a9>

(9). 이우제 혹 느즈완 이리어나 시급ᄒᆞᆫ 이리어나 잇거든 비록 ᄒᆞᆫ ᄀᆡ약잇 사ᄅᆞᆷ이 아니라두 몬져 드러 안 사ᄅᆞᆷ이 ᄯᅩ 맛당이 구완ᄒᆞᆯ디니 혹 잘 구완티 몯ᄒᆞ거든 ᄒᆞᆫ ᄀᆡ약잇 사ᄅᆞᆷᄃᆞ려 닐어 구완케 ᄒᆞ라<呂氏

30b08;10/[illegible]36b7;37a1>

「혹」이 나타나는 이음겹월의 뒷마디가 맺음법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라도, 당위의 사실을 나타내는 월에 있어서 「-울디니」로 연결되는 일이 있다.

(10). 或혹 시기신 이리 ᄒᆞ요매 울티 아니ᄒᆞ거든 ᄂᆞᆺ비ᄎᆞᆯ 화히 ᄒᆞ며 목소릐ᄅᆞᆯ 부드러이 ᄒᆞ야 …곡지니 좃ᄌᆞ올디니 …<小七02a7>

앞에서 살펴본 월들은 모두 월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들이 발화시에 있어서는 실현되지 않은 것들로서, 명령이나 당위의 사실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씨끝의 {-거든} 은 그 속한 월의 내용이 발화시에 있어서 이미 실현된 사실을 표현할 경우에 있어서도 쓰일 수 있으며, 이는 어찌씨 「혹」과의 호응관계를 이룰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1). ᄌᆞ조 도족을 맛나 혹 겁틱ᄒᆞ여 자바 가려 ᄒᆞ거든 江革이 믄득 울오 …비러 닐오ᄃᆡ…도족ᄃᆞᆯ히 이러호모로 ᄎᆞ마 주기디 몯ᄒᆞ며 혹 도족 피ᄒᆞ야 수믈 싸홀 ᄀᆞ르츄모로 어미 아ᄃᆞ리 다 어려운 저긔 됴히 디내니라<小九020b2;7>

(12). 椿이 ᄆᆡ양 갓가이 나가 혹 ᄒᆡ 기우도록 오디 아니 ᄒᆞ엿거든 津이 몬져 밥을 먹디 아니ᄒᆞ고 椿이 도라온 후에사 ᄒᆞᆷᄭᅴ 먹더니…<小九076b3>

다-1-2. 혹 … {-으면}

「혹」이 제약법의 씨끝 {-으면} 과 호응하는 경우, 위의 {-거든/-어든} 의 경우와는 그 월의 말재에 있어, 다름을 보인다. {-거든/-어든} 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그 속한 이음겹월의 마침마디가 시킴법으로 마쳐지거나, 또는 당위의 의미를 지닌 이음법의 씨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으면} 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킴법의 마침은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음법의 씨끝에 의해 또다른 이음겹월의 앞마디를 이루는 경우에도 {-울디니} 와 같은 당위의 의미를 지닌 씨끝과의 호응이 보이지를 않는다.

「혹」이 「-으면」과 함께 이음겹월을 이룰 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월의 형식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c. 혹 … {-으면} … {-ᄂᆞ니라/-로도다}

(13). 부모의 ᄆᆞᄉᆞᆷ은 영영 ᄉᆞ렴ᄒᆞ야 혹 우다가 ˙눈 멀면…주거 녕호니 되여도 닛디 아니 ᄒᆞᄂᆞ니라<父母14b07;08>

(14). ᄆᆞᄉᆞ매 일승을 져ᄇᆞ린 젼ᄎᆞ로 시혹 인도애 나면 부텨 전과 부텨 ᄠᅳ로도다<初發40b6>

(c)의 경우, 이음겹월의 마침마디가 마침법으로 끝난다. 다음의 (d)에서는, 「혹」이 이끄는 월이, 비록 월 전체의 마침마디를 이루지 못하고 또 다른 이음겹월의 앞마디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 앞마디는 의미상으로는 완결된 것으로 해

석되어 다음에 나타나는 마침마디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므로, (d)의 예문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음법의 씨끝이 맺음씨끝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5). 或혹 궤며 셔안의 흐러 이시며 칙을 권권이 흐러 ᄇᆞ려 만히 아히며 죵의 더러이미 도이며 ᄇᆞᄅᆞᆷ비며 벌어지며 쥐의 ᄒᆞ여 ᄇᆞ류미 ᄃᆞ외면 진실로 덕을 더러유미니<小八39b3>

(16). 치우며 더우미 그르츠며 或혹 과ᄀᆞ론 ᄇᆞᄅᆞᆷ과 ᄉᆡ론 비와 안개와 이스릐 헤여디디 아니ᄒᆞ면 사ᄅᆞᆷ이 해 모딘 병을 ᄒᆞ되 얼운아히 업시 다 ᄀᆞᄐᆞ야 모딘 귓거싀 긔운 ᄀᆞ톨신 疫癘ㅅ병이라 ᄒᆞᄂᆞ니<簡易01b1-2;分門01b01>

(17). 모미 늑적을 좃ᄂᆞᆫ 젼ᄎᆞ로 시혹 악츄ㅣ 예 떠러디면 ᄀᆞ장 신고ᄒᆞ며 ᄀᆞ장 슈고ᄒᆞ고 <初發40b4>

다-2. 불구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

「혹」이 {-어도/-어두} 등 불구법의 이음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혹」이 속한 이음겹월의 마침마디는 {-으니라/-ᄂᆞ니라} 에 의한 서술법으로 나타난다.

d. 혹 … {-어도/-어두} … {-으니라/-ᄂᆞ니라}

(18). 녀나믄 ᄃᆞ리어든 수울와 과실 말오 혹 ᄒᆞᆫ갓 밥만 ᄒᆞ야두 므던ᄒᆞ니라<呂氏31b03;鄕約37b8>

(19). 믈읫 두 번 절ᄒᆞ라 ᄒᆞᆫ되 시속을 조차 ᄒᆞᆫ 번 ᄒᆞ며 혹 읍ᄒᆞ야두 므던ᄒᆞ니라<呂氏21a10/鄕約25a6>

(20). 부모의 ᄆᆞ솜은 영영 ᄉᆞ렴ᄒᆞ야 혹 우다가 눈 멀면 혹 셜워 샹심병이 되며 혹 주거 녕호니 되여도 닛디 아니ᄒᆞᄂᆞ니라<父母14b07;08>

다-3. 벌임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

두 가지 이상의 행위나 사실을 열거할 경우, 「혹」이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이때에는 한 월 안에 「혹」이 두 번 이상 나타나는 일이 많아, 벌임의 이음씨끝과 결합할 경우, 그 앞이나 뒤에 두 차례 이상의 {-고/-으며} 가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보인다.

e. 혹 … {-고/-으며} …

(21). 머리 빗고 ᄂᆞᆺ 싯고 몬져 술 ᄉᆡ오ᄂᆞᆫ 약 먹고 혹 효근 샹화 먹고 후에 ᄉᆡ뎍 밍ᄀᆞ러…혹 민므레 양의 존동과 홍수 솔마 먹고<老下53b5;8>

(22). 혹 수울와 밥과 가지고 그 역ᄉᆞ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이바ᄃᆞ며 또 그 이ᄅᆞᆯ ᄀᆞ숨아라 흘디니라<呂氏23a05/鄕約28a1>

(23). 혹 글 니르며 혹 활 ᄡᅩ기 니겨<呂氏34a05/鄕約41b6;7>

(24). 나리 다ᄋᆞ도록 쉬돌 몯ᄒᆞ야 혹 뫼헤 가 나모 뷔며 혹 므레 가 고기 자바 ᄇᆞ세 드러 차반을 맛나게 ᄆᆡᆼᄀᆞ로<小九099a7>

(e)의 예에서와 같이, 「혹」이 벌임법의 이음씨끝과 빈번히 호응할 수 있음은, 「혹」이 조건 및 가정의 이음씨끝과 호응하여, 「ᄒᆞ다가, 만이레, 힝혀, 가령」 등에 의해 나타내 지는 조건(가정)의 말재를 형성하는데 참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ᄯᅩ, ᄯᅩᄒᆞᆫ」 등에 의해 표현되는 접속적인 기능을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다-4. 가림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

(다-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혹」의 접속적인 기능은 벌임법의 이음씨끝 {-고, -으며} 이외에, {-거나/-어나}와 같은 가림법(선택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을 가능케 한다.

이때, {-거나/-어나}와 「혹」의 위치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제약이 없이, 「혹」이 앞뒤의 {-거나/-어나}의 마디 모두에(f), 앞마디(g)나 뒷마디(h)에 자유로이 나타날 수 있다.

f. 혹 … {-거나/-어나} … 혹 … {-거나/-어나}

(25). 혹 이르거나 혹 늦거나 둥에 그저 예 가 자고 가져<老上10a4>

(26). 쥬인이 말솜 뭇고 다른 말솜 아니ᄒᆞ거든 믈러가며 혹 쥬인이 게으른 비출 둣거나 혹 뵈야호로 이룰 ᄒᆞ고져 ᄒᆞ야 손 믈러가믈 기들우거나 ᄒᆞ거든 다 고ᄒᆞ고 믈러갈 거시니라<呂氏18b06/鄕約21a7>

g. 혹 … {-거나/-어나} … {-거나/-어나}

(27). 나라히 만일에 블시예 거동이 이셔 혹 예놈이 와 침노ᄒᆞ거나 오랑캐 골왜거나 ᄒᆞᆫ즉 ᄆᆞ숨과 힘을 다 뻐 ᄒᆞ야…<警民02a04>

h. … {-거나/-어나} …혹 …. {-거나/-어나}

(28). 문 밧긔셔 ᄆᆞᆯ 브려 사ᄅᆞᆷ으로 유무 드리고 집기슭 아래어나 혹 텽그ᄉᆞ이어나 셔셔 기들울디니…<呂氏19a02/鄕約21b5>

(29). 글월ㅅ 글 번 조희예 大吉利 세 ᄌᆞ 쓰거나 혹 餘白 두 ᄌᆞ 쓰ᄂᆞ니라 <朴通62a4>

다-5. 의향법의 씨끝과의 호응

「혹」이 {-디 말-}에 의한 금지의 월에 나타나는 경우에, 마침마디 혹은 안김마디에 있으면서, 월 전체로서 「만에 하나라도 …디 말-」의 의미를 나타내는 일이 있다.

i. 혹 …. {-디 말-}

(30). 셤기믈 졍셩을 다ᄒᆞ야 혹 어즐ᄎᆞ디 말라<警民19a03>

(31). 들어는 효도ᄒᆞ고 나는 공경ᄒᆞ야 날 뮈매 或혹도 거슬ᄡᅳ게 마롤디니니 行홈애 남은 히미 잇거든 모시 외오며 샹셔 닐그며 으프며 놀애 블으며 춤 츠며 발 굴러 ᄉᆞ려믈 或혹도 넘디 마롤디니라<小學一書辭03a02;04>

(32). 시혹 ᄉᆞ뭇 듣는 혜ᄅᆞᆯ 지어 쉬온 ᄆᆞᄋᆞᆷ 내디 말고 반ᄃᆞ기 모로매 ᄆᆞ수ᄅᆞᆯ 뷔워셔 드르면 반ᄃᆞ기 진긔 발훌 져리 이시리라<初發14a7>

(33). 님금이며 웃사ᄅᆞᆷ올 밧ᄌᆞ와 워ᄃᆡᄒᆞ기를 …반ᄃᆞ시 믿비 ᄒᆞ야 혹도 게올러 늦드리오 마로미 ᄇᆡᆨ셩의 ᄒᆞ욜대예 이리라<警民02a02>

(i)의 (30)에서는 시킴법의 씨끝 {-으라}, (31)에서는 {-을디니라}, (32)에서는 {-고}, (33)에서는 {-음}이, 모두 그 앞의 풀이말로서 {-디 말-}과 결합하고 있다.

다-6. 이음토씨와의 호응

앞의 (다-3)과 (다-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혹」의 접속적 기능은, 매우 드물긴 하지만, 이음토씨의 {-과}를 써서 이름씨를 나열하여 한 성분을 이루게 하는 경우에, 그 한 요소에 쓰이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34). 고깃즙과 보육과 젓과 혹 고기ᄅᆞᆯ 져기 ᄲᅥ 마ᄉᆞᆯ 도울 만ᄒᆞ고<小七18b2>

다-7. 기타

「혹」이 위에 제시된 쓰임에서 벗어나, 씨끝이나 토씨와의 특별한 호응관계를 보이지 않고, 도리어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어 「가끔, 간혹, 때로」로 해석되는 일이 있다.

(35). 公孫弘이 샹해 겨신 ᄡᅥ해 뵈수아든 혹 잇다감 관ᄃᆡ 아니 ᄒᆞ더시니<小九041b6>

이와 같은 경우의 월의 내용에 있어서의 특성으로서는, (35)의 {-더니}에 의하여 드러나는 바, 그 월의 내용을 이루는 사건 혹은 행위가 발화시에 있어서 이미 현실화된, 즉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라). 【힝혀 / 힝여 (幸·若·庶或·如)】

라-0. 개관

「힝혀」[1]의 16세기에 있어서의 분포를 보면, 빈도적으로는 그다지 높다고는 할 수 없다.[2] 조사대상의 문헌자료에서는 단지 15개의 용례가 확인될 뿐인데,

(1). 「힝혀」와 「힝여」를 대표할 경우, 빈도가 높은 「힝혀」를 쓰기로 한다.
(2). 남풍현(1968:309)에 의하면, 15세기의 문헌에서 「힝혀」는 거의 대부분 한자표기로 나타나며, 「幸」에 대응한다. 16세기의 문헌에서는 한글표기가 주를 이루는 것과 대조적이다.

대체로 16세기 초기의 문헌 (「번역소학」 6례, 「노걸대」 1례, 「이륜행실도」 1례)에 나타나지만, 중기의 「簡札」(힝혀 2 ; 힝여 1), 말기의 「소학언해」(3례), 「논어언해」·「맹자언해」(각 1례) 등에도 나타난다.

「힝혀」가 월에서 호응하는 이음씨끝으로는, 제약법의 {-거든, -으면}, 불구법의 {-어도}에 국한된다.

라-1. 제약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

「힝혀」가 제약법의 이음씨끝 {-거든/-어든, -으면} 과 호응해 이음겹월을 형성하는 경우, 「힝혀」는 반드시 그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속한다. 이 때, 「힝혀」는 이들 씨끝에 의해 조건 지어지거나 가정된 사실이, 말하는 이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라-1-1. 힝혀 … {-거든/-어든}

어찌씨 「힝혀」가 제약법의 이음씨끝 {-거든/-어든} 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의 앞마디를 이루는 경우, 그 이음겹월의 뒷마디(마침마디)의 서법에 있어서는 거의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 같다.

다음의 (a)는 {-거든} 에 의해 형성된 이음겹월의 마침마디가 물음법으로 이루어진 예이다.

a. 힝혀 … {-거든} … {-올가}
(1). 힝혀 어버ᅀᅵ 업고 흘어미 도외여 가난ᄒᆞ고 의탁ᄒᆞᆯ ᄃᆡ 업스니 잇거든 다시 남진 어루미 올ᄒᆞᆯ가 만가<小七35b1>

또한, 이음겹월의 마침마디가 서술법으로 된 다음의 (b)의 예에서는, 앞의 (a)와는 달리, {-거든} 에 의해 조건 지워진 사실이 발화시에 있어 이미 현실로서 존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b. 힝혀 … {-거든} … {-더라}
(2). 맛 됴ᄒᆞᆫ 음식이 잇거든 믄득 갈 사ᄅᆞᆷ ᄒᆞ여 브텨 보내더니 힝혀 보내디 몯ᄒᆞᆫ 저기어든 몬져 입에 녀티 아니ᄒᆞ더라<小九077a2>

라-1-2. 힝혀 … {-으면}

{-거든/-어든}과 마찬가지로 조건·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으면}에 의해 형성되는 이음마디에 호응하는 「힝혀」의 경우, {-거든}의 예문에서 본 바와 같은 서술법(3)과 약속법(4), 물음법(5)의 월에 나타날 수 있으나, 시킴법의 월에 나타나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

c. 힝혀 … {-으면} … {-어니ᅀᅡ나}
(3). 힝혀 사라 이시면 나는 후에 ᄌᆞ식이 이시려니ᅀᅡ나<小九071b4>

d. 힝혀 … {-으면} … {-으마}
(4). 힝혀 유여히 갈 시저리면 곧 네 집 ᄎᆞ자 가마<老上45a1>

다음으로, 이음겹월의 뒷마디가 물음법으로 끝나는 경우를 보기로 하자. (5)의 물음월은, 의문사 「엇디」를 동반한 반문의 예이다.

e. 힝혀 … {-으면} … {-으리오}

(5). 이 톡 톤 나문 거시면 진실로 됴흔 일이어니와 힝혀 왼 일로 어든 거시면 이 도죽과 엇디 다루리오〈小九051b8〉

라-1-3. 힝혀 … {-ᄂᆞ니}

다음의 (6)은 「힝혀」가 제약법의 이음씨끝 {-ᄂᆞ니}와 호응, 마침마디가 시킴법으로 된 월에 나타나는 예이다. 그러나, 매우 드문 예이다.

(6). 형이 쓰귀를 너므 ᄒᆞ여 셰간니 다 배아면 모다 주으릴가 너겨 ᄒᆞ니 이제 힝혀 셰간니 반만 잇ᄂᆞ니 죡히 시졀례 쓰리니 형이 다시 집비와 셰간놀 자ᄇᆞ라〈二倫21a16〉

그러나, (6)의 경우, 「세간이 반 남아 있」는 사실은, 발화시에 있어서 이미 실현된 일로서 해석되며, 「힝혀」의 의미는 대응한어(幸)의 원래의 의미에 가까워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행히」의 의미로 느껴진다.

라-2. 불구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

「힝혀」가 이음겹월에서 불구법의 이음씨끝과 호응하는 예는, 그리 많은 용례를 보기 어렵다. (f)에서는 물음법, (g)에서는 서술법의 월에 나타난다.

f. 힝혀 … {-어도} … {-올다}

(7). 내의 살며 주구믄 아디 몯 ᄒᆞᆯ 거시니 힝혀 늘근 어미 잇고 녀ᄂᆞ 동싱이 효양ᄒᆞ리 업스니 내 몯 도라와도 네 내 어미를 효양ᄒᆞᆯ다〈小九055a7〉

g. 힝혀 … {-어니와} … {-으라}

(8). 그듸ᄂᆞᆫ 님금 겨신 ᄃᆞᆼ 안해 ᄃᆞᆫ니며 괴이ᄂᆞᆫ 신해니 죄 잇거든 몬져 올ᄒᆞᆫ 대로 엳ᄌᆞ오면 힝혀 죄룰 아니 주시려니와 ᄯᅩ 다시곰 소기ᄉᆞᆸ디 몯 ᄒᆞᆯ거시라〈小九043a9〉

라-3. 기타

다음의 (9)의 예는, {-도록}의 어찌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듯이 보이는데, 어순상으로 「힝혀」가 「하놀히」의 앞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9). 幸힝혀 이 자밧ᄂᆞᆫ 덛덛ᄒᆞᆫ 거시 하놀히 뭇도록 ᄇᆞ더러디미 업슨더라〈小學一 書題04a09〉

(마). 【가령(借·假令) / 가ᄉᆞ(假)】

마-0. 개관

「가령」과 「가ᄉᆞ」는, 그 쓰임이 매우 한정되어, 조사 대상의 문헌에 있어서는 「가령」이 단 2례, 「가ᄉᆞ」가 1례 확인될 뿐이다. 그리고 2례 모두가 이음씨끝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형성하며, 앞마디에 위치한다.

(1). 편운슈긔방은 가령 ᄌᆞ녀이어든 ᄌᆞ방 륙년니어든 륙방 향ᄒᆞ야 머그라 <分門14a01>

(2). 가ᄉᆞ ᄒᆞ다가 ᄂᆡ년희 믈어디거든 삼년을 맛다셔 갑 받디 말오 ᄡᅳ리라 ᄒᆞ야 이러ᄐᆞ시 저ᄃᆞ려 글월 받고 ᄡᅳ이면 쉰 히라도 믈어디디 아니ᄒᆞ리라<朴通10b5>

(1~2)는 조건 및 가정을 나타내는 제약법의 이음씨끝 {-거든/-어든} 과 호응하여, 앞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음겹월 전체가 (1)에서는 시킴법, (2)에서는 서술법의 서법을 지니는 예이다.

한편, 다음의 (3)는, 불구법의 이음씨끝 {-을디라도} 와 호응, 물음법의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용례이다.

(3). 가령 겨지븨 쳔량을 가져셔 가ᄉᆞ멸며 겨지븨 셔를 의거ᄒᆞ야 귀히 도욀디라도 진실로 댱부의 ᄠᅳᆮ과 긔우니 이슐딘댄 능히 붓그러우미 업스려<小七33b4>

V-2. 양보·대조의 말재어찌씨

말재어찌씨가 씨끝과 호응관계를 가지는 경우, (V-1)의 「조건·가정의 말재어찌씨」와 더불어 이음법의 씨끝과 가장 강한 결합력에 의해 맺어지게 되는 것이, 이 장에서 다루게 될 「양보·대조의 말재어찌씨」이다.

여기에는, <표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록/비로」, 「ᄒᆞᄆᆞ며/ᄒᆞᄆᆞ며」, 「오히려」, 「도ᄅᆞ혀/도리혀/도로혀」, 「출하리/출히」, 「다하/다함」, 「당시론/당시예」 등이 속하게 된다.

이들 어찌씨는, 다음의 세 가지의 특징에 있어서 각기 하위범주로 분류된다.

①. 이음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형성할 때, 그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어찌씨의 위치.
②. 호응관계를 이루는 이음법의 씨끝의 종류.
③. 이음겹월의 마침마디의 서법과 어느 정도의 긴밀한 호응관계를 이루는가 여부.

<표8>. 양보의 말재어찌씨의 문헌 성격별 분포

어찌씨 갈래		양보의 말재어찌씨														
갈래	약호(간행) \ 어찌씨	비록	비로	ᄒᆞ물며	ᄒᆞ믈며	오히려	도ᄅᆞ혀	도ᄅᆞ혀	도리혀	도로혀	촐하리	촐히	다하	다함	당시론	당시예
三	綱(1490)	5		4		1	3					4				
역학	飜老(151?)	5						3	1				6	1	4	1
	飜朴(151?)	2						2					2		1	
교화서 I	續三(1514)	3		2												
	飜小(1517)	41		5		9		2		4	3					
	小學(1587)	68		4	1	20		4		3	5			2		
	孝經(1589)	5		3		1										
	論語(1590)	32				10					3					
	孟子(1590)	52		10	4	21		1		2						
	大學(1590)	3														
	中庸(1590)	9		1		3										
교화서 II	正俗(1518)	2		4		1										
	呂氏(1518)	7														
	二倫(1518)	1		1		1										
	警民(1579)	11								1	1					
의학	簡易(1524)	1														
	分門(1542)															
불경	父母(1553)	2						2								
	七大(1569)															
	初發(1577)	13	2	3		1		1		1						
簡	札(1565)	8								1		2				
百	聯(1563)															
합계		272	2	33	5	67	0	16	1	12	12	2	8	3	5	1

「비록/비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①. 이음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형성하는 동시에 그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위치한다.

②. 이음법의 씨끝 중에서 불구법의 {-으나, -어도/-어두, -은들, -을디나/-을디라도} 등과의 호응이 현저하다.

③. 이음겹월의 마침마디의 서법과, 비록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긴밀한 호응관계를 이룬다.

「비록」은 ①과 ③에 관해서는 앞의 「조건 · 가정의 말재어찌씨」와 공통되지만, ②의 특성에 의해 구별된다.

즉, 「조건 · 가정의 말재어찌씨」들이 조건 · 가정의 의미를 지닌 제약법의 이음 씨끝과의 호응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비록」은 불구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을 주된 역할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양보의 말재어찌씨」로 부르기로 하자.

한편, 「ᄒᆞ믈며/ᄒᆞ믈며」, 「오히려」, 「도ᄅᆞ혀/도리혀/도로혀」, 「촐하리/촐히」, 「다하/다함」, 「당시론/당시예」는, ②와 ③에 관해서는 「비록」과 공통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①에 관해서는 이들 어찌씨들은 「비록」과 성격을 달리 한다. 이들 어찌씨들은, 이음겹월의 뒷마디에 위치하면서, 그 자신보다 앞서는 앞마디의 씨끝과 호응관계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어찌씨들은, 한 월을 구성하는 복수의 진술내용이 존재할 경우, 하나의 진술내용과 또다른 진술내용 간의 의미적인 관계를 대조함으로써, 이 둘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혹은 어느쪽이 바람직한가 하는 주관적인 선택을 드러낸다는 의미론적인 특징을 공유한다.

이때의 진술내용 간의 관계성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말할이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들 어찌씨는 진술내용 즉 사실에 대한 말할이의 판단 혹 태도를 반영한다.

대조의 관계를 이루는 두 진술내용은, 주로 이음겹월의 이음마디와 마침마디에 각각 표현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말재어찌씨는 이음마디와 마침마디의 양쪽과 의미적인 관계를 맺게 되며, 동시에 양쪽의 서법 관련의 표현과 호응관계를 갖는다. 이를 「대조의 말재어찌씨」라 부르기로 한다.

「ᄒᆞ믈며」는 앞뒤의 진술내용의 대조를 통해, 앞의 진술내용이 사실로서 존재함과 동시에, 뒤의 진술내용이 그보다 더욱 확실하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오히려」와 「도ᄅᆞ혀」 역시 두 진술내용 간의 대조적인 면을 포착한다는 면과, 앞의 진술내용이 사실로서 존재함을 긍정한다는 점에서는, 「ᄒᆞ믈며」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뒤의 진술내용이 앞의 진술내용에 대해 예상이나 기대 이외의 결과 혹은 선택을 나타낸다는 면에서 구별된다.

월을 구성하는 두 가지의 진술내용 간의 관계에 대한 말하는 이의 판단을 나타내는 어찌씨 「도ᄅᆞ혀」는, 그 두 내용 중의 주관적인 선택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오히려」와 구별된다.

(가). 【비록 / 비로 (雖 · 縱)】

가-0. 개관

「비록/비로」는, 16세기의 문헌자료의 거의 대부분에 나타날 정도로 활발히 쓰인 어찌씨의 하나인데, 모두 274례가 출현, 빈도상으로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비록」(1) 의 쓰임에 있어서는, 이음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형성하며,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월에 위치한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이 때 호응하게 되는 이음씨끝으로는 불구법의 {-으나, -어두} 가 가장 빈번히 나타난다.

가-1. 불구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

「비록」이 월에서 이음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앞마디에 나타나는 경우, 가장 생산적으로 쓰이는 것은 불구법의 씨끝 {-으나, -어두} 이다.

「비록」이 불구법의 이음씨끝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의 앞마디를 형성할 경우, 그 씨끝으로는 {-어도 / -어두} 가 압도적으로 빈번히 사용되어, 거의 대다수의 용례를 차지한다. 이 밖의 불구법의 이음씨끝으로서는, {-온들, -을더라도, -고도} 등이 나타난다.

가-1-1. 비록 … {-으나}

여기서는 어찌씨 「비록」이 이음씨끝 {-으나} 와 호응하여 이루게 되는 이음마디가 나타나는 월의 유형에 따라서 ① 마침법의 월에 나타나는 경우 ② 상위의 이음겹월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 ③ 매김마디에 나타나는 경우의 셋으로 나누어, 월의 구조 형성의 구체적인 유형을 고찰하기로 한다.

「비록」이 불구법의 씨끝 {-으나} 와 호응하여 이루어진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속해 있는 경우, 마침마디의 마침법 상의 서법제약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다음에 살펴 보게 될 것과 같이, 서술법 · 물음법 · 시킴법 등의 서법과의 공존이 가능하다.

이 중 빈도가 제일 높은 서술법에 나타나는 「비록」의 쓰임과 의미를 먼저 살펴 보기로 하자.

a. 비록 … {-으나} … {-니라/-ᄂᆞ니라}

(1). 사ᄅᆞ미 비록 인뉴의 이시나 ᄆᆞ숨온 어리니라<父母11b04>
(2). 賢티 몯ᄒᆞᆫ 者ᄂᆞᆫ 비록 이롤 두나 樂디 몯ᄒᆞᄂᆞ니라<孟一04a02>
(3). 사ᄅᆞ미 비록 주려 류리ᄒᆞ나 나ᄂᆞᆫ ᄇᆡ 브르며 다우며 편안ᄒᆞ야 그 ᄒᆡ ᄆᆞᆺ도로개 시름이 업ᄂᆞ니라<警民11b10>
(4). 비록 그 位ㅣ 이시나 진실로 그 德이 업ᄉᆞ면 敢감히 禮樂을 作디 몯

---

(1). 이하, 「비록」으로 대표하기로 한다.

ᄒᆞ며 비록 그 德이 이시나 진실로 그 位ㅣ 업ᄉᆞ면 ᄯᅩᄒᆞᆫ 敢감히 禮樂을 作디 몯 ᄒᆞᄂᆞ니라<中庸44b03;04>

b. 비록 … {-으나} … {-으리라/-으리이다}

(5). 비록 이러ᄒᆞ나 지비 진실로 조ᄇᆞ니 자디 몯 ᄒᆞ리라<老上49a6>

(6). 말ᄉᆞᆷ홈애 믿브미 이시면 비록 골오ᄃᆡ 혹문을 몯ᄒᆞ엿다 ᄒᆞ나 나는 반ᄃᆞ시 혹문을 ᄒᆞ엿다 닐오리라<小學一16a01>

(7). 구ᄒᆞ야 빌 리 잇거든 비록 가난ᄒᆞ야 이신 것 업ᄉᆞ나 앗기디 마로리라<初發53a6>

(8). 내 비록 敏티 몯ᄒᆞ나 請컨댄 맛부 試오리이다<孟一32a09-10>

c. 비록 … {-으나} … {-다/-라/-로다}

(9). 周ㅣ 비록 녯 나라히나 그 命이 새롭다<大學05a01>

(10). ᄂᆞᆷ 위ᄒᆞ며 날 위호미 비록 미묘ᄒᆞᆫ 션이나 이 다 륜회홀 싱ᄉᆞ인이라<初發70b6>

(11). ᄉᆞ랑호미 비록 사ᄅᆞᆷ미 얼린 ᄃᆞᆺᄒᆞ나 진실로 하ᄂᆞ래 근원ᄒᆞᆫ 거시로다<正俗04a06>

(a～c) 모두 불구법의 이음씨끝 {-으나}이 의미하는 바, 앞의 사실을 긍정하기는 하나 뒤에 부정적인 사실을 함축하는 때, 그 「앞의 (긍정된) 사실」에 뒤에 따를 (긍정된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음을, 「비록」이 의미함으로써, 서로 호응하는 예들이다.

이때에 뒤따르는 「부정적인 사실」은,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지움(否定)이 아니라, 반드시 앞의 사실 혹은 앞의 사실에 의해 당연히 추론될 만한 사실 혹은 결론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다음의 예들은, 이음겹월의 마침마디가 {-을고/-으리오/-으리잇고} 등의 씨끝에 의한 물음법으로 된 월들이다.

d. 비록… {-으나} …{엇디/어느} … {-을고/-으리오/-으리잇고}

(12). 小人이 비록 나히 하나 어느 슈례홀고<老上64a4>

(13). 진실로 블孝ᄒᆞ면 이제 비록 가ᄉᆞ며러 셩ᄒᆞ나 엇디 다ᄅᆞᆫ 시져레 가난ᄒᆞ며 쳔티 아니홀 주를 알리오<小七32b3>

(14). 民이 더블어 홈ᄭᅴ 亡코쟈 ᄒᆞ면 비록 臺池와 鳥獸ㅣ 이시나 엇디 能ᄂᆞᆼ히 호올로 樂ᄒᆞ리잇고<孟一05b06>

e. 비록 … {-으나} … (ᄎᆞ마) … {-랴}

(15). 風俗의 사오나오 도ᄋᆡ유미 이러ᄒᆞ니 벼슬ᄒᆞ여 잇ᄂᆞᆫ 사ᄅᆞ미 비록 금티 몯 ᄒᆞ나 ᄎᆞ마 도아ᄒᆞ랴<小十33b4>

(16). 비록 큰 죄 업ᄉᆞ나 혼자 안호로 무ᄉᆞᆷ애 붓그러온 주리 업스랴<小九051b9>

(d)는 의문사 「엇디/어느」, (e)의 (15)는 어찌씨 「ᄎᆞ마」를 동반한, 그리고

(16)는 의문사를 동반하지 않은 물음월로, 모두 의미적으로는 반문으로 해석되는 예들이다. 그러므로, 월의 의미에 있어서는, 위 (a~c)의 서술법의 월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씨끝 {-으나} 와의 호응에 의해 형성되는 이음겹월의 마침마디가 시킴법으로 나타나는 일은, 그리 생산적이지는 않은 듯하다.

f. 비록 … {-으나} … {-라}

(17). 비록 그러나 안직 니르라〈朴通67b5〉

(18). 사룸 주기는 노모란 목 버히고 훈디 사는 사루믄 비록 정을 아디 몯ᄒᆞ나 뉴 이 쳔리롤 보내고…주기라〈警民18a11〉

다음의 (19)은 당위의 의미를 지닌 씨끝 {-을디어다} 으로 끝나는 예이다.

(19). 비록 어두온 지븨 이시나 큰 손올 뒤톳ᄒᆞ야 고초며 나토믈 ᄒᆞᆫ가지로 ᄒᆞ며 안팟글 달이 마롤디어다〈初發67a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마침법의 월 이외에, 「비록」이 나타나는 매우 생산적인 월의 구조로서, 「비록」과 「-으나」의 결합을 포함한 이음겹월 전체가 또다른 상위의 이음겹월의 앞마디로 기능하는 다음의 예들을 들 수 있다.

다음의 (g~h)에서는, 「비록 …-으나」의 이음마디 전체가 제약법의 씨끝 {-으니/-노니/-ᄂᆞ니/-더니/-으리니} (g)나 불구법의 씨끝 {-으려니와/-건마는} (h)등에 의한 상위의 이음겹월의 앞마디로 기능한다.

g. 비록 … {-으나} … {-으니/-노니/-ᄂᆞ니/-더니/-으리니} …

(20). 上인 者는 비록 善ᄒᆞ나 徵홈이 업스니 徵홈이 업슨디라 民이 좃디 아닌ᄂᆞ니라〈中庸45b06〉

(21). 이 은를 비록 보나 진짓치 거즛치 내 모로노니 네 보람 두라〈老下14b6〉

(22). ᄆᆞᅀᆞᆷ애 誠으로 求ᄒᆞ면 비록 中티 몯ᄒᆞ나 머디 아니ᄒᆞᄂᆞ니 子養홈을 비혼 後에 嫁ᄒᆞᆯ 者ㅣ 잇디 아니ᄒᆞ니라〈大學16a08〉

(23). 네 검찰ᄒᆞᄂᆞᆫ 벼슬ᄒᆞ엿던 관원을 후에 내 벼슬이 비록 우히 이시나 녯 사루미 다 ᄉᆞ양ᄒᆞ며 피ᄒᆞ야 아래 좌애 안써니 풍속기 이러ᄒᆞ면 면 엇디 시러 후티 아니ᄒᆞ리오〈小七47a2〉

(24). 오놀아ᄎᆞᄆᆡ 비록 ᄂᆞᄆᆡ 허믈 니르나 다른 나래 머리 뫼화 내 허믈 니르리니 비록 그러나 믈읫 유상이 다 거즛 거시니 긔롱ᄒᆞ야 헐며 잔란ᄒᆞ야 기료매 엇디 깃거ᄒᆞ며 엇디 슬허 ᄒᆞ리오〈初發73a3;5〉

h. 비록 … {-으나} … {-으려니와/-건마는} …

(25). ᄃᆞ니며 비러 어더 머구믄 비록 붓그러온 ᄃᆞᆺ ᄒᆞ나 ᄆᆞᄎᆞᄆᆡ 참담ᄒᆞᆫ 지화 업스려니와 비ᄉᆞ기 지므를 어더 배브르 머그며 더이 넙다가… 모미 멸망ᄒᆞᄂᆞ니 므ᄉᆞ 거시 더은 주리 이쇼료〈警民16b04-05〉

(26). 木을 緣ᄒᆞ야 魚롤 求홈은 비록 魚롤 得티 몯ᄒᆞ나 後 ㅅ 災ㅣ 업스려니와…欲ᄒᆞᄂᆞᆫ 바롤 구ᄒᆞ면…後에 반ᄃᆞ시 災ㅣ 이시리이다〈孟一

30a03>

(27). 이제 그 오온 글월을 비록 可가히 보디 몯ᄒᆞ나 傳記에 섯거 날ᄂᆞᆫ듸 또 하건마ᄂᆞᆫ 닐글이…行티 아니ᄒᆞᄂᆞ니<小學一 書題02a09>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의 수식의 범위는, 의미적으로 볼 때, {-으니/-노니/-ᄂᆞ니/-더니/-리니} 나 {-으려니와/-건마ᄂᆞᆫ} 에 의한 상위의 이음마디 부분에 한정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이들 이음법의 씨끝이 생략될 경우, 즉 「비록」과 {-으나} 의 호응에 의해 이루어진 하위의 이음마디가 상위의 마침마디에 직접 이어질 경우에는 월의 의미가 달라져 버림을 뜻한다.

다음의 예에서는 「비록」이 {-으나} 와 호응하여 월의 매김마디를 이룬다.

(28). 비록 브즈러니 힘실ᄒᆞ나 디혜 업ᄉᆞ니ᄂᆞᆫ…<初發29b4>

(29). 비록 도힝이아 업스나 산실에 듀ᄒᆞ야 잇ᄂᆞ니ᄂᆞᆫ 모ᄃᆞᆫ 셩인이 이 사ᄅᆞ모로 깃븐 ᄆᆞᅀᆞᄆᆞᆯ 내시니<初發29a6>

(30). 비록 지조와 디혜 이시나 계힝 업ᄉᆞ니ᄂᆞᆫ 보뵈 고ᄃᆞᆯ 인도호ᄃᆡ<初發29b2>

가-1-2. 비록 … {-어도/-어두}

「비록」이 양보의 의미를 지닌 {-어도/-어두} 와 호응하여 이음겹월의 앞마디를 구성하는 경우, 그 앞마디가 쓰이는 환경에 따라서, 마침법의 월에 쓰이는 경우와 상위의 이음겹월의 이음앞마디를 이루는 경우의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으나} 와 호응하는 경우에 본 것과 같은, 매김마디를 이루는 쓰임은 보이지 않는다.

「비록」이 속한 이음마디가 단순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그 마침법의 서법에 있어서, 서술법 · 시킴법 · 물음법 · 강조영탄법의 네 가지 경우가 나타난다. 「비록」이 {-어도/-라도} 와 호응하여 서술법의 월에 쓰이는 예를 보기로 한다.

i. 비록… {-어도/-라도} … {-으니라/-ᄂᆞ니라/-으니라/-리라/-더라}

(31). 이리ᄒᆞ면 비록 상복을 니버셔도 시른 자상을 아니ᄒᆞᄂᆞᆫ 디니라<小七18b5>

(32). 비록 오분만 ᄒᆞᆫ 병이라도 닷분만ㅅ 병이라도 더어 열분이 도의여 가ᄂᆞ니라<老下47b7>

(33). 비록 사오나온 사ᄅᆞ미라도 서르 ᄉᆞ랑티 아니리 업ᄉᆞ니라<小七39a8>

(34). 言홈애 信이 이시면 비록 學디 몯ᄒᆞ엿다 닐어도 나ᄂᆞᆫ 반ᄃᆞ시 學ᄒᆞ얏다 닐오리라<論一04a05>

(35). 아비를 와 뵈요ᄃᆡ 비록 눈비 와도 폐티 아니터라<續三106a08>

(36). 스ᄉᆞ로 모믈 닷가 졍제히 ᄒᆞ며 비록 쳐지라도 ᄃᆡ졉호믈 존엄ᄒᆞᆫ 얼운ᄀᆞ티 ᄒᆞ더라<小十03b2>

(i)에서와 같이, 「비록」이 {-어도/-라도} 와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형성하는 경우, 그 마침마디의 서술법의 씨끝에는 특정한 제약은 없어 보인다.

한편, 「비록」이 {-어도} 와 호응하여 시킴법의 월에 쓰일 때는, 그 마침씨끝으로는 시킴법의 씨끝 {-으라} 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j. 비록 … {-어도(두)/-라도(두)} … {-으라}

(37). 만이레 벼슬 노픈 사름이 왯거든 비록 동향사름이라두 벼슬로 안치라<呂氏20b07;郷約24a7>

(38). 졍곳 둥ᄒᆞ거든 비록 쥬신이사 오솔 고텨 닙디 아니ᄒᆞ며 우디 아니ᄒᆞ야두 또 오솔 고텨 닙고 울라<呂氏23a03;郷約27b7>

(39). 사돈짓 사름이 위두손이 ᄃᆞ외얫거든 비록 져머도 그 저물 ᄃᆡ답ᄒᆞ라<呂氏21b08;郷約25b9>

(40). ᄒᆞᆫ 긔약잇 사름의 ᄌᆞ데 비록 칙애 스디 몯ᄒᆞ야두 또 모둔 사름을 조차 ᄎᆞ례로 절ᄒᆞ게 ᄒᆞ라<呂氏31b10;郷約38a8>

(j)에서와 같이 시킴월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떤 행해야 할 행위에 거침이 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해야 할 당위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음의 예에서는 「비록」이 마침법의 씨끝 {-으리오} 에 의한 물음월에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 때에는 「엇디」를 동반한 반문으로 쓰이는 특징을 보인다.

k. 비록 … {-어도} …엇디… {-으리오}

(41). 사회 진실로 어딜면 이제 비록 가난ᄒᆞ고 미쳔ᄒᆞ야도 엇디 다ᄅᆞᆫ 시져레 가수멸며 귀티 아닐 주를 알리오<小七32b1>

(k)에 있어서도 역시, 「비록」에 의해 이끌리는 이음마디에 표현된 사실의 인정과, 월의 마침마디에 표현된 사실은 앞마디의 사실에 반하는 성격의 것이라는 의미론적인 특징을 보인다.

l. 비록 … {-어도/-라도} … {-ᄂᆞ도다/-ᄂᆞ다/-로다}

(42). 비록 나의 옷듣 메지오 집 나거디 오라도 이ᄅᆞᆫ 모ᄅᆞᄂᆞ도다<父母02a04>

(43). 주근 사ᄅᆞ미 얼구리 서거 업서 디고 졍시니 흐러디여 비록 사ᄅᆞ며 솔며 디흐며 ᄀᆞᄂᆞᆫ 이리 이셔도 베플 ᄃᆡ 업슬 주를 ᄌᆞ모 모ᄅᆞᄂᆞ다<小七22a9>

(44). 이 비록 ᄒᆞᆫ 이리라도 경계되요ᄆᆞᆫ 여러 가지로다<小十19a8>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어찌씨 「비록」이 불구법의 씨끝 {-어도/-라도} 등과 호응하여 형성하는 이음마디가, 상위의 이음겹월의 한 성분으로 기능하는 경우에 어찌씨 「비록」의 수식의 범위는 하위의 이음겹월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비록」이 {-어도/-라도} 와 이음겹월을 형성, 상위의 이음겹월의 앞마디를 이루는 씨끝으로는 다음의 용례에서와 같이, 제약법·불구법·벌임법 등의 이음

씨끝들이 활발히 참여한다.

(45). ᄒᆞ마 孟氏의 거긔 期約ᄒᆞ나 비록 주거도 제 어미 依據ᄒᆞᆯ ᄃᆡ 업스니 願ᄒᆞᆫᄃᆞᆫ 가 셤겨지라 ᄒᆞ야ᄂᆞᆯ…<續三302a13>

(46). 비록 ᄀᆞ장 더운 저기라도 부모와 얼우신의 겨틔 이셔ᄂᆞᆫ 곳갈와 보션과 힝뎐을 밧디 아니ᄒᆞ야 衣服ᄒᆞ고 조심ᄒᆞ야 겨시더라<小九002b4>

(47). 비록 됴ᄒᆞ며 구즌 말을 드러도 ᄆᆞᄋᆞᆷ 뮈우디 마롤디니<初發72a7>

(48). 남진 업스니 잇거든 비록 먼 권당이라도 반ᄃᆞ시 위ᄒᆞ야 사회를 골와 얼요ᄃᆡ <小九103b8>

(49). 그 지극홈애 미처ᄂᆞᆫ 비록 聖人이라도 ᄯᅩᄒᆞᆫ 아디 몯 ᄒᆞᆫ 배 이시며 <中庸09b02;05>

(50). 후에 벼슬ᄒᆞ야 비록 이리 거름 업서도 미양 朔望애 의식 무덤의 가 뵈오<續三132a12>

가-1-3. 비록… {-은ᄃᆞᆯ}

「비록」이 불구법의 이음씨끝 {-은ᄃᆞᆯ} 과 호응하여 겹월의 이음마디를 형성하는 경우에, 그 이음겹월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의문사를 동반한 물음월로 나타난다.

m. 비록 … {-은ᄃᆞᆯ} … {엇디/엇던} … {-리오}

(51). ᄒᆞ다가 친ᄒᆞ니 소ᄒᆞ니 이시면 ᄆᆞᄋᆞ매 평등티 몯 ᄒᆞ리니 비록 츌가ᄒᆞᆫᄃᆞᆯ 엇던 덕이 이시리오<初發75b3>

(52). 내 이제 ᄐᆞᄂᆞᆫ 록이 비록 집안히 사ᄅᆞ미 다 금의를 니브며 귀ᄒᆞᆫ 차바ᄂᆞᆯ 머근ᄃᆞᆯ 엇디 몯홀가 분별ᄒᆞ리오마ᄅᆞᆫ…<小十30b7>

(m)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이 씨끝 {-은ᄃᆞᆯ} 과 호응한 겹월의 마침마디가 물음월인 경우에는 반문으로 해석되는 예가 두드러진다.

한편, 다음의 (53)에서는 의문사 없는 반문을 볼 수 있다.

(53). 이제 누의 나히 늙고 나도 늙그니 비록 ᄌᆞ조 누의 위ᄒᆞ야 죽을 글히고져 ᄒᆞᆫᄃᆞᆯ 다시 시러곰 ᄒᆞ려<小九079a5>

그 밖에, 매우 드물긴 하지만, 이음겹월의 마침마디가 강조·영탄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54). 네 비록 遼東人이로라 ᄒᆞᆫᄃᆞᆯ 내 믿디 몯 ᄒᆞ애라<老上50a1>

가-1-4. 비록… {-올디나/-올디라도}

어찌씨 「비록」이 불구법의 이음씨끝 {-올디나/-올디라도} 와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형성하는 경우, 숫적으로는 그리 많지는 않으나, 다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술법 및 시킴법의 월에 출현하는 예를 볼 수 있다.

(55). 사ᄅᆞ미 뎐뎐ᄒᆞᆫ 업이 업시 소ᄂᆞᆯ 놀오며 머그면 내 비록 도ᄌᆞ골 아닐 디라도 사ᄅᆞ미 반ᄃᆞ시 도ᄌᆞᄀᆞ로 나ᄅᆞᆯ ᄀᆞᄅᆞ쳐 잇다감 죄예 ᄢᅥ딜 저기 인ᄂᆞ니라<警民12a09>

(56). 비록 죠고만 ᄡᅡ히 무겁디라도 힘써 닐어 갈라<警民11b06>

(57). 사ᄅᆞ미 비록 간대옛 노로내 거긔 더을디나 내 모로매 화열로 ᄃᆞ졉 ᄒᆞ며 비록 강포ᄒᆞᆫ 사ᄅᆞ미 내 모ᄆᆞᆯ 텨 샹호미 이시며 내의 지므를 배여 아올디라도 더브러 헤아려 ᄃᆞ토디 말오 반ᄃᆞ시 구의예 고ᄒᆞ야 변졍ᄒᆞ라<警民10a04>

가-2. 도움토씨 {-도} 와의 호응

「비록」이, 이음씨끝이 아닌 도움토씨 {-도} 와 호응하는 듯이 보이는 예가 있다.

(58). ᄌᆞ뎨 허믈 잇거든 비록 머리 셰니도 다 티더라<二倫31a09-10>

(58)의 경우, 「비록」이 「머리 셰니도」의 부림말과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머리 셴」이란 매김마디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 「머리 셴이도」의 전체를 수식하며, 의미적으로 도움토씨 {-도} 와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예의 경우에는 표면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으나, 의미상으로는 {-도} 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면에서 시사적이다.

(59). 나믄 곡셔그로 존졀ᄒᆞ야 머그므로 녀름 지이예 소어블 일티 아니ᄒᆞ며 비록 가난ᄒᆞᆫ 히ᄅᆞᆯ 만나 주리기를 근심 아니ᄒᆞᄂᆞ니라<警民13b05>

(60). 션신이 호디 ᄒᆞ면 비록 어려온 고디 어렵디 아니코 계편이 용납디 몯게 ᄒᆞ면 편안ᄒᆞᆫ 고디 편안티 아니ᄒᆞ니라<初發67b3>

(59)의 「만나」는 「만나도」의 의미로, (60)의 「어려온 고디」는 「어려운 고디라도」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으로 볼 때, 씨끝 {-어도} 의 {-도} 가 생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이 불구법의 씨끝 {-어도} 와 매우 긴밀한 호응 관계를 이룬다는 점을 감안, 나중의 입장을 취해 도움토씨와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다루기로 한다.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은, 용례의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불구법의 이음씨끝과 호응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불구법의 이음씨끝 중에서도 {-으나, -어도/-어두, -온돌, -을디나/-을디라도} 등이 이러한 호응관계를 이룬다.

「비록」은 반드시 불구법의 이음씨끝에 의한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위치한다.

---

(1). 한편, 15세기 말의 「삼강행실도」에는, 「비록」이 불구법의 {-고도}와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형성하는 예를 다음의 단 1례 보여 준다.

◎ 내 비록 艱難코도 ᄒᆞᆫ 曾參을 길어 내요라<三綱114a04>

이 때, 이음겹월의 마침마디에 있어서는, 서술법 · 물음법 · 시킴법 등의 서법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나). 【ᄒᆞ몰며 / ᄒᆞ믈며(況·矧)】

나-0. 개관

「ᄒᆞ몰며/ᄒᆞ믈며」는, 16세기 문헌자료에 있어서의 전 시기에 걸쳐 고루 분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기의 문헌에서는 「번역소학」(5례), 「정속언해」(4례), 「속삼강행실도」(2례), 「이륜행실도」(1례)가 나타난다. 그리고 후기문헌에는 「맹자언해」(ᄒᆞ몰며 10례, ᄒᆞ믈며 4례), 「소학언해」(ᄒᆞ몰며 4례, ᄒᆞ믈며 1례), 「효경언해(3례), 「초발심자경」(2례), 「중용언해」(1례)가 각각 출현한다.

초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자료에는 「ᄒᆞ몰며」만이 나타나나, 말기의 「맹자언해」와 「소학언해」에는 「ᄒᆞ몰며」와 「ᄒᆞ믈며」의 두 가지 형태가 같이 나타난다.

「ᄒᆞ몰며」는, 다음에 언급할 「오히려, 도ᄅᆞ혀」와 마찬가지로, 이음씨끝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이룬다. 「ᄒᆞ몰며」와 호응관계를 갖는 이음법의 씨끝으로 가장 활발히 쓰이는 것은, 제약법과 견줌법의 씨끝이다.

나-1. 제약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

「ᄒᆞ몰며」가 제약법의 이음씨끝을 그 앞에 요구하여 이음겹월을 형성, 또한 그 마침마디에 위치하게 될 경우, 특히 {-으니} 와 가장 빈번히 공기하며, 그 밖에 {-거늘} 과 호응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ᄒᆞ몰며」는 월의 마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의 예외없이 반문으로 해석되는 의문문과 호응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의문사 「엇디」를 수반하게 된다.

이는, 「ᄒᆞ몰며」가, 그에 앞서는 제약법의 씨끝 {-으니, -거늘} 에 의해 이끌리는 이음마디의 진술내용의 조건 혹은 상황 아래에서는, 그 뒤의 마침마디의 진술내용이 반드시 성립함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임을 뜻한다.

나-1-1. … {-으니} ᄒᆞ몰며

「ᄒᆞ몰며」가, 그 앞의 조건 혹은 상황을 나타내는 제약법의 씨끝 {-으니} 와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구성하는 경우, 그 이음겹월은 마침마디가 반문의 의문문으로 끝나는 경우, 부름자리토씨 {-여} 혹은 임자자리토씨 {-이} 와 도움토씨 {-ᄯᆞ녀} 의 결합형인 {-이ᄯᆞ녀} 로 끝나는 경우, 그리고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그 외의 서술법의 월로 끝나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먼저, 「ᄒᆞ몰며」가 의문사 「엇디」를 수반한 반문의 물음월에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하자. (1)

a. … {-으니/-더니} ᄒᆞᄆᆞᆯ며 … 엇디 … {-고/-으리오}

(1). ᄆᆞᅀᆞᆯ히 급ᄒᆞᆫ 일이 이셔도 서르 가 구ᄒᆞᆯ 거시니 ᄒᆞᄆᆞᆯ며 싀엄의게 잇거든 엇디 ᄇᆞ릴 것고<小九065a3>

(2). 曹氏 알ᄑᆡ 셩ᄒᆞ여 이실 제도 내종내 디녀 사로려 ᄒᆞ더니 ᄒᆞᄆᆞᆯ며 이제 쇠망ᄒᆞ엿거니 엇디 ᄎᆞ마 ᄇᆞ리리오<小九063b1>

이음겹월에 나타난 「ᄒᆞᄆᆞᆯ며」는 기본적으로, 그 앞에 나오는 이음마디의 사실 (혹은 대상) 과, 뒤따르는 마침마디의 사실 (혹은 대상) 과의 비교 · 대조적인 면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ᄒᆞᄆᆞᆯ며」에는, 앞의 사실을 일단 인정한 위에, 그렇다고 하면 뒤의 사실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뜻이 함축된다.

(1) 에서는 「마을」과 「시어미」, (2) 에서는 「이전의 성하였을 제」와 「쇠망한 이제」의 서로 비교 · 대조되는 두 가지의 대상에 대해, 앞의 사실 (대상) 이 성립하거나 이미 성립한 경우에, 뒤의 사실 (대상) 은 두 말 할 필요없이 성립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1)을 예로 들면, 「마을에 급한 일이 있는 집이 있다면 가서 구해야 할 것」이며, 「시어미에게 급한 일이 있다면 더더욱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는 당위성의 의미를 지닌 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ᄒᆞᄆᆞᆯ며」가, 부름자리토씨 {-여} 로 끝마치는 월에 나타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

c. … {-거니} ᄒᆞᄆᆞᆯ며 … {-여}

(3). 이제ᄂᆞᆫ 풍쇽이 날로 사오나와 그 어버일 공경티 아니커니 ᄒᆞᄆᆞᆯ며 그 하나비여<正俗10a02>

(4). 그 어버일 ᄉᆞ랑티 아니커니 ᄒᆞᄆᆞᆯ며 그 아ᅀᆞ미여<正俗10a03>

(c)의 경우에 있어서도, 「ᄒᆞᄆᆞᆯ며」는 「어버일 공경하지 않는」 사실과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사실(3)과, 「어버이를 생각하지 않는」 사실과 「친척을 생각하지 않는」 사실(4)을 대조시키면서, 전자가 사실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렇다면 당연히 후자가 사실이라는 단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도움토씨 {-ᄯᆞ녀} 가 쓰인 예로는 다음의 예가 보인다. (2)

---

(1). 15세기 말의 「삼강행실도」에는, 「ᄒᆞᄆᆞᆯ며」가 의문사 「엇디」 없이 반문의 물음월을 형성하는 예가 나타난다. 이 때, 「ᄒᆞᄆᆞᆯ며」가 월에서 형성하는 의미와 그 기능에 있어서는, 위의 (a)에서와 마찬가지이다.

◎ 淸白ᄒᆞᆫ 사ᄅᆞ미 어엿블셔 / ᄒᆞ야 주ᄂᆞᆫ 바볼 받디 아니ᄒᆞᄂᆞ다 ᄒᆞᄂᆞ니 ᄒᆞᄆᆞᆯ며 드른 것 주ᅀᅥ 힝뎌글 더러ᄇᆡ리여<三綱309a08>

(2). 허웅(1989:71)에서도 역시 {-이ᄯᆞ녀} 에 대해, 임자자리토씨 {-이} 와 도움토씨 {-ᄯᆞ녀} 의 결합으로 분석, 「그러함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본고에서 주장하는 말재어찌씨 「ᄒᆞᄆᆞᆯ며」의 의미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d. … {-으리니} ᄒᆞ몰며 … {-이ᄯᅡ녀}

(5). 비록 내 자바 ᄒᆞᄂᆞᆫ 이리 다 올흘디라도 오히려 공슌티 아니ᄒᆞᆫ ᄌᆞ식이 도외리니 ᄒᆞ몰며 그 ᄒᆞ온 이리 올티 아니호미ᄯᅡ녀<小七02b6>

(c～d) 이외의 서술법의 월로 끝나는 경우에도 역시, 앞마디의 사실과 끝마디의 사실을 대조시키면서 뒷사실의 당연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e. … {-더니/-다니/-으니} ᄒᆞ몰며 … {-올셔/-으려/-ᄂᆞ니}

(6). 네 庾黔婁와 薛包의 힝뎍을 千載에 울워더니 ᄒᆞ몰며 ᄒᆞ나히 겸ᄒᆞ셔<續三122b04>

(7). 내 두 子息이 이시니 가히 資賴ᄒᆞ야 살기시며 ᄒᆞ몰며 남지니 주글 저긔 날 ᄃᆞ려 싀어미 셤굘 이ᄅᆞᆯ 니ᄅᆞ니 ᄎᆞ마 背叛ᄒᆞ려<續三322a15>

(8). 무덤믈 보고 겟거슬 내오져 너기ᄂᆞ다 ᄒᆞ니 ᄒᆞ몰며 분묘옛 나모 버히면 나라히 죄 주시고 무덤믈 파내닌 큰 죄ᄅᆞᆯ 닙ᄂᆞ니<正俗19a05>

나-1-2. … {-거늘} ᄒᆞ몰며

위의 (나-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씨끝 {-으니} 와 마찬가지로, 이음씨끝 {-거늘} 과 호응하는 경우에도 「ᄒᆞ몰며」가, 전후하는 두 사실의 대조성을 나타난다.

(9). 뵈 ᄧᆞᄂᆞᆫ 겨집도 니서 몸 ᄀᆞ리올 오시 업거늘 ᄒᆞ몰며 우리ᄂᆞᆫ 사만 손올 놀오거니 배 골ᄑᆞ며 치위ᄅᆞᆯ 엇디 염심ᄒᆞ리오<初發50b1>

(9)는, 의문사 「엇디」를 동반한 반문의 의문문인데, 「베짜는 여인도 몸 가릴 옷이 없다」는 사실과 「우리가 배 고프며 추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의 대조를 나타낸다. 이 때에도 역시 앞의 일이 사실로 존재하며, 따라서 뒤의 일이 더 더욱 사실임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2. 견줌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

「ᄒᆞ몰며」가 그 앞에 이음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또 하나의 예로, 견줌법의 씨끝 {-곤/-온/-고ᄂᆞᆫ} 과의 호응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때의 쓰임의 특징은 앞서 언급한 {-으니} 와 호응하는 경우와 일치한다.

이는 원래 「틀림 없는 사실을 앞에 내세우고서 그보다 더 명백한 사실을 그와 비교해서 강조한」[1] 다고 하는 「견줌법」의 씨끝의 의미와, 이미 (나-1)에서 밝힌 바와 같은 「ᄒᆞ몰며」의 의미기능이 일치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어울리기 쉬운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f～h)는 모두 반문의 물음법으로 마치는 월로서, (f)는 의문사 「엇디」가 쓰이는 예이며, (g)는 의문사가 쓰이지 않은 예들이다.

f. … {-고ᄂᆞᆫ} ᄒᆞ몰며 … 엇디 … {-으리오}

(10). ᄂᆞ미 공ᄋᆞ로 잇비 ᄒᆞ야 날 니케 홈도 오히려 올티 몯ᄒᆞ고ᄂᆞᆫ ᄒᆞ몰며

(1). 허웅(1975:608-9;1989:241)참조

ᄂᆞ미 명을 주겨 내 몸 살오ᄆᆞᆯ 엇디 ᄎᆞᄆᆞ리오<初發50a4>

g. …{-곤} ᄒᆞᄆᆞᆯ며 …{-으랴/-으려}

(11). 神의 格홈을 可가히 度디 몯ᄒᆞ곤 ᄒᆞᄆᆞᆯ며 可가히 射ᄒᆞ랴<中庸16b05>

(12). 뎌 귀호미 님구미시며 가ᅀᆞ며로미 나라ᄒᆞᆯ 두샤ᄃᆡ 오히려 존졀ᄒᆞ여 ᄡᅳ시곤 ᄒᆞᄆᆞᆯ며 신하 샹사ᄅᆞᆷ미 지비 법제 뎡ᄒᆞᆫ니 이시며 셰가니 그 ᄎᆞᆯ 주리 잇곤 ᄎᆞᆷ히 샤치ᄒᆞ야 ᄒᆞᆫ 이를 혜디 아니ᄒᆞ려<正俗25a04-05>

한편, 다음의 (i)는 부름토씨 {-여} (13)와 도움토씨 {-ᄯᆞ녀} (14)로 끝난 월의 예이다.

i. …{-고ᄂᆞᆫ/-온} ᄒᆞᄆᆞᆯ며 …{-여/-이ᄯᆞ녀}

(13). 시졀리 어즈러워 새도 ᄒᆞᆫᄃᆡ 몯 잇곤 ᄒᆞᄆᆞᆯ며 사ᄅᆞᆷ미여<二倫26a11-12>

(14). 소릐 드로매 샤ᄒᆞᆫ ᄆᆞᅀᆞᄆᆞᆯ 흘려 내요ᄆᆞᆯ 삼가 말거시온 ᄯᅩ ᄒᆞᄆᆞᆯ며 가ᄉᆞᆷ 혜디고 우ᅀᅮᆷ 낙닥ᄒᆞ야…간대로 ᄀᆞᄅᆞᆷ업ᄉᆞᆫ 힘을 지어 부텻게예 기피 어긔요미ᄯᆞ녀<初發12b3>

위에서 본 것과 같이, 「ᄒᆞᄆᆞᆯ며」는 대부분의 경우에 제약법과 견줌법의 이음씨끝과 호응하여, 그 이음겹월의 뒷마디에 위치한다. 이 때 쓰이는 제약법의 씨끝으로서는 {-으니, -ᄂᆞ니, -거니, -으리니, -거늘} 등이, 견줌법의 씨끝으로서는 {-고ᄂᆞᆫ, -곤/-온} 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음겹월에서의 「ᄒᆞᄆᆞᆯ며」는, 앞의 진술내용과 뒤의 진술내용의 대조를 통해 앞의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뒤의 사실이 그보다 더욱 확실한 가치를 지님을 드러낸다.

(다). 【오히려(猶·尙)】

다-0. 개관

16세기의 문헌자료에 있어서의 「오히려」의 분포상의 특징으로서는, 비록 전부 67개의 용례에 불과하기는 하나, 16세기의 전 기간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점이다.

초기의 자료에서는, 「번역소학」(9례), 「정속언해」(1례), 「이륜행실도」(1례)에 나타나며, 나머지는 주로 말기의 「맹자언해」(21례), 「소학언해」(20례), 「논어언해」(13례) 등에 집중되며, 그 밖에 「중용언해」(3례), 「초발심자경」(1례), 「효경언해」(1례)에 나타난다. (1)

「오히려」가 「비록」과 더불어 양보의 서법과의 호응관계를 이루는 어찌씨의 무

(1). 15세기 말의 「삼강행실도」(1490)에도 역시 단 1례만이 나타날 뿐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이미 이 시기에 있어 「오히려」의 쓰임이, 문헌자료에 있어서는, 그리 활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리에 속하는 동시에, 「비록」과 구별되는 점은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음법의 씨끝에 의한 이음마디와의 위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비록」의 경우에는 「비록」 자신이 양보의 의미를 지닌 이음씨끝에 의해 형성되는 이음마디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나, 여기에서 살펴볼 「오히려」는 이 어찌씨의 앞에 그러한 (양보의 이음씨끝에 의한) 이음마디를 요구한다. 따라서, 「오히려」는 이들 양보의 이음씨끝에 의한 이음겹월의 마침마디에 속하게 된다.

한편, 「오히려」가 월에서 이루는 호응관계는 대체로, 불구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한 공기관계가 두드러지며, 그 외에 설명법, 제약법 등의 이음씨끝과의 호응관계가 보인다. 그리고 월 안에서의 의미관계에 있어서 도움토씨 {-도} 와의 호응이 발견된다.

다-1. 불구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

「오히려」가 불구법의 이음씨끝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음겹월의 마침마디에 나타나게 된다. 이 때, 「오히려」와 호응하는 불구법의 이음씨끝으로서는 {-어도, -을디라도} 가 특히 두드러진다.

다-1-1. … {-어도} 오히려 …

「오히려」가 불구법의 이음씨끝 {-어도} 와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구성하는 경우, 다음의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이음겹월 전체로 다시 상위의 이음겹월의 이음마디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1). ᄆᆞᅀᆞᆯ히 급ᄒᆞᆫ 일이 이셔도 오히려 서르 가 구홀 거시니 ᄒᆞᄆᆞᆯ며 싀엄의게 잇거든 엇디 ᄇᆞ릴 것고〈小九065a2〉

(2). 伯高ᄂᆞᆫ 본 받다가 몯ᄒᆞ야도 오히려 조심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ᄃᆞ외리니 네 닐온 곤이ᄅᆞᆯ 사기다가 이디 몯ᄒᆞ야도 오히려 다와기 ᄀᆞᆮᄒᆞ려니와…〈小六15a3;5〉

(1~2)에서와 같이, 「오히려」가 쓰인 월에는 대조되는 두 가지의 사실 혹은 대상이 명시되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1)에는 「ᄆᆞᅀᆞᆯ」과 「싀어미」, (2)에서는 「伯高」와 「조심ᄒᆞᄂᆞᆫ 사ᄅᆞᆷ」, 그리고 「곤이」와 「다와기」가 각각 대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때, 「오히려」는 {-어도} 에 의한 이음마디에 표현된 사실 (혹은 대상) 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마침마디의 사실 (혹은 대상) 에의 선택(1) 혹은 예상 이외의 결과(2)의 존재를 나타낸다.

이러한 이음마디의 사실은 발화시에 있어서,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는 특징을 보인다.

다-1-2. … {-을디라도} 오히려

「오히려」가 양보의 의미를 지닌 이음씨끝 {-을디라도} 와 호응하는 일은, 다

음에 보일 단 한 예에 국한되지만, 앞의 {-어도} 와 마찬가지의 용법을 보인다.

(3). 비록 내 자바 ᄒᆞᆫ논 이리 다 올홀디라도 오히려 공슌티 아니ᄒᆞᆫ 즈식 이 도외리니 ᄒᆞ믈며 그 ᄒᆞᆫ은 이리 올티 아니호미ᄯᆞᆫ녀<小七02b5>

또 하나 주목할 점은, (1,3)의 예에서와 같이, 「오히려」가 양보의 서법과의 호응관계를 나타내는 어찌씨 「ᄒᆞ믈며」와 공기하여, {오히려 …으리니 ᄒᆞ믈며 …} 와 같은 특정한 월의 구조를 이룬다는 점이다. 이 경우의 마침마디는 {-고, -ᄯᆞᆫ녀} 를 동반하여, 반문의 의미를 지닌 물음법으로 나타난다.

다-2. 설명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

「오히려」가, 설명법의 이음씨끝과 호응하는 경우는, 다음의 (4~5)에서와 같이, {-ᄃᆞ|} 와 공기하는 것이 보통이며, (다-1)의 불구법의 이음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와는 달리, {-ᄃᆞ|} 에 의해 이끌리는 앞마디의 사실은, 발화시에 있어서, 이미 현실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론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 점은, (4~5)에 보이는 {-더니, -더라} 의 존재에 의해 뒷받침된다.

(4). 建이 늘거 머리 셰요ᄃᆡ 萬石君이 오히려 병이 업더니<小九085b3-4>

(5). 츈과 진괘 나히 여순 나마 다 자샹이 ᄃᆞ외요ᄃᆡ 진니 오히려 아ᄎᆞᆷ나 죄 문안커든…츈니 안ᄌᆞ라 아니ᄒᆞ면 진니 안ᄯᅥ 아니더라<二倫15a17>

(6). 柯ᄅᆞᆯ 잡아 ᄡᅥ 柯ᄅᆞᆯ 버휴ᄃᆡ 睨 ᄒᆞ야 보고 오히려 ᄡᅥ 멀리 너기ᄂᆞ니 <中庸11a06>

한편, 「오히려」가 설명법의 이음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도, 앞서 (1, 3)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찌씨 「ᄒᆞ믈며」와 공기하여, 두 가지의 사실 혹은 대상의 대조를 통해 {…ᄃᆡ 오히려 …곤 ᄒᆞ믈며 …으려} 와 같은 구조의, 반문의 의미의 의문문을 형성한다.

(7). 더 귀호미 님구미시며 가ᄉᆞ며로미 나라ᄒᆞᆯ 두샤ᄃᆡ 오히려 존졀ᄒᆞ여 ᄡᅳ시곤 ᄒᆞ믈며 신하 샹사ᄅᆞᄆᆡ 지비 법제 뎡ᄒᆞᆫ니 이시며 셰가니 그ᄎᆞᆯ 주리 잇곤 ᄎᆞᆷ히 샤치ᄒᆞ야 호 이를 헤디 아니ᄒᆞ려<正俗25a04>

다-3. 제약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

제약법의 이음씨끝과 호응하는 경우, 그 이음씨끝으로는 {-으면} 이 나타난다.

(8). 제 천량올 해자ᄒᆞᆯ 거시면 어딘 사ᄅᆞᆷ 도의디 아니호미 오히려 미커니와 제 힘 잇브디 아니ᄒᆞ며 제 천량 해자 아니ᄒᆞᆯ 거시로ᄃᆡ 그 ᄃᆡ내 엇뎨 어딘 사ᄅᆞᆷ 도의디 아니ᄒᆞᄂᆞ니오<小六32b5;cf.小六33a1>

(8)에서는, 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볼 때, 그러한 어진 사람이 되는 조건에 반할 경우를 대조하고 있으며, 그러한 대조적 의미

가 「오히려」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4. 도움토씨와의 호응

「오히려」가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는 일부의 도움토씨와 호응관계를 이루는 예 역시 적지 않이 발견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오히려」의 기본적인 의미로서의 앞 사실의 인정과 그에 따른 대조적인 사실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과 다르지 않다.

이에 쓰이는 도움토씨로서는 {-도} 가 대부분이며, {-ᄂᆞᆫ} 이 쓰인 용례도 1례 나타난다.

다-4-1. {-도} …오히려

다음의 (9~11)에서는 「오히려」가 그 대조의 대상이, 이음법의 씨끝이 아니라, 도움토씨 {-도} 에 의해 이끌어지는 예를 볼 수 있다.

(9). 오ᄃᆡ 시절에도 거상애 고기 먹ᄂᆞ니로 사ᄅᆞ미 오히려 고이ᄒᆞᆫ 이리라 ᄒᆞ니 <小七16a3>

(10). 곳갈 스ᄂᆞᆫ 례도 아니 ᄒᆞ연디 오라니 요ᄉᆞᅀᅵ 사ᄅᆞ믜 ᄆᆞᅀᆞ미 더욱 경박ᄒᆞ야 오히려 젓 머글 제 문득 곳갈 스이고<小七09a9>

(9)에서는 「오ᄃᆡ(五代) 시절」과 발화시로서의 현재를 대조, 「오ᄃᆡ 시절」에 「거상에 고기 먹는 일을 나무람」을 현재의 풍속과 대조하는 동시에, 그 풍속이 현재의 풍속에 비추어 볼 때, 예상이나 상식에 어긋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0)에서는 관례(冠禮)에 관한 풍속에 관하여 예와 이제를 대조하며, 관례를 안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 (즉, 젖먹이에게 관례를 하는 일) 이 행해짐을 의미한다.

(9~10)의 「오히려」는 공통적으로, 대조되는 두 가지의 사실 (대상) 의 어느 한 쪽의 처지에서 볼 때, 다른 한 편이 그 기대 혹은 예상에 반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한편,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오히려」가 어찌씨 「ᄒᆞ믈며」와 공기하여 대조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예는, 「오히려」가 도움토씨와 호응관계를 이루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11). ᄂᆞᄆᆡ 공ᄋᆞ로 잇비 ᄒᆞ야 날 니케 홈도 오히려 올티 몯 ᄒᆞ고ᄂᆞᆫ ᄒᆞ믈며 ᄂᆞᄆᆡ 명을 주겨 내 몸 살오믈 엇디 ᄎᆞᄆᆞ리오<初發50a3>

(12). 夫婦의 不肖로도 可히 뻐 能히 行호ᄃᆡ 그 지극홈애 미처ᄂᆞᆫ 비록 聖人이라도 ᄯᅩᄒᆞᆫ 能티 몯ᄒᆞᄂᆞᆫ 배 이시며 天地의 큼애도 사ᄅᆞᆷ이 오히려 憾ᄒᆞᄂᆞᆫ 배 인ᄂᆞ니 <中庸09b07>

다-4-2. {-ᄂᆞᆫ} … 오히려

「오히려」가 도움토씨 {-ᄂᆞᆫ} 과 호응, 앞의 (다-4-1)의 {-도} 와 같이, 대

조적인 사실 (대상) 의 서로 어긋남을 의미하는 예로서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다음의 예가 나타난다.

(13). 德의 [輕]홈이 毛ᄀᆞᆮ다 ᄒᆞ니 毛ᄂᆞᆫ 오히려 倫이 잇거니와 上天의 載ㅣ 聲이 업ᄉᆞ며 臭ㅣ 업다 홈이ᅀᅡ 지극ᄒᆞ니라<中庸55a04>

(13)에서는, 「毛」와 「上天의 載」와의 대조를 통해, 「毛」에 倫이 있는 사실이, 그 뒤에 따르는 대상의 처지에서 볼 때에는 그 기대 혹은 예상에 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히려」는, 특히 붙구법의 이음씨끝 {-어도, -을디라도}, 설명법의 이음씨끝 {-듸}, 제약법의 이음씨끝 {-으면} 과 호응관계를 이루어 그 뒷마디에 위치하며, 도움토씨 {-도, -는} 과의 호응관계를 이루는 예도 적지 않다.

이 어찌씨는 이음겹월의 앞마디의 사실을 인정한다는 면에서는 「ᄒᆞ물며」와 유사하나, 뒷마디의 사실에의 선택 혹은 예상 이외의 결과를 나타낸다.

(라). 【도ᄅᆞ혀 / 도ᄅᆡ혀 / 도로혀 (倒·還·反·亦)】

라-0. 개관

16세기 자료에서의 분포를 보면, 「도ᄅᆞ혀, 도ᄅᆡ혀, 도로혀」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 중, 「도ᄅᆡ혀」는 「노걸대」에 단지 한 예가 발견될 뿐, 다른 예를 볼 수 없다. (1)

반면, 나머지의 두 형태는 16세기의 전 기간에 걸쳐 공존한다. 「도ᄅᆞ혀」와 「도로혀」가 공존하는 자료로서는, 초기의 「번역소학」에 6례 (도ᄅᆞ혀 2 ; 도로혀 4), 중기 이후에는 「초발심자경」에 2례 (도ᄅᆞ혀 1 ; 도로혀 1), 그리고 말기의 「소학언해」에 7례 (도ᄅᆞ혀 4 ; 도로혀 3), 「맹자언해」 (도ᄅᆞ혀 1 ; 도로혀 2) 를 들 수 있다.

「도ᄅᆞ혀」만 보이는 자료로는, 「박통사」(2례), 「부모은중경」(2례)이 있으며, 「도로혀」만 나타나는 자료로서는 「간찰」(1례), 「경민편」(1례)이 있다.

「도ᄅᆞ혀」(2)는 앞서 고찰한 「오히려」 등과 함께, 한 월을 구성하는 진술내용간의 비교·대조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그 앞의 진술내용의 사실성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론적인 특성을 지닌다.

---

(1). 15세기말의 「삼강행실도」(1490)에는, 「도ᄅᆞ 혀」가 3례 나타난다. 한편, 이 어찌씨에 대해, 「고어사전」(1989:156)에는 「도ᄅᆞ혀/도ᄅᆞ 혀」의 두 표제어를 설정, 「도리어」라는 의미를, 「이조어사전」(1964:223, 224)에서는 「도ᄅᆞ혀/도ᄅᆞ 혀/도로혀」의 세 표제어를 설정, 마찬가지로의 뜻매김을 붙이고 있다.

(2). 이하, 이들을 대표할 때에는 「도ᄅᆞ혀」를 쓰기로 하는데, 이는 위의 여러 형태들 중, 「도ᄅᆞ혀」가 16세기 문헌에 있어서 가장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의 경우에는, 앞의 진술내용과 뒤의 진술내용의 상반성(相反性)을 나타내는데 비해, 「도ᄅᆞ혀」는 앞의 진술내용과 뒤의 진술내용은, 상식 혹은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는 순리적인 결과를 의미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런 면에서 「도ᄅᆞ혀」는, 앞의 진술내용 혹은 사실에 의해 비롯되는 뒷 진술내용 혹은 결과가, 말하는 이 자신의 예상에 어긋나거나, 혹은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도ᄅᆞ혀」가 월의 이음씨끝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형성, 그 마침마디에 위치할 경우에는 제약법, 설명법, 전환법 등의 이음씨끝이 여기에 참가한다.

라-1. 제약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

「도ᄅᆞ혀」와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이루는 제약법의 씨끝으로는, 조건을 나타내는 {-으면} 이 가장 빈번히 나타난다.
이 때에는, 조건의 의미를 지닌 이음씨끝에 의해 이루어진 이음마디에 진술된 사실과, 마침마디에 진술된 내용의 사실과의 관계를 「도ᄅᆞ혀」가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가 순리적인 것이기는 하나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와, 나중의 사실이 말하는 이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이가 판단한 경우의 둘로 나뉜다.

라-1-1. … {-으면} 도ᄅᆞ혀

a. … {-으면} 도ᄅᆞ혀 … {-ᄂᆞ니라/-ᄂᆞ니/-리라}
(1). 거즈 이ᄅᆞᆯ 고ᄒᆞ면 그 죄ᄅᆞᆯ 도로혀 닙ᄂᆞ니라〈警民14b11-15a01〉
(2). 진실로 밧긧 것 됴호ᄆᆞᆯ 득ᄒᆞᆯ 저기면 도로혀 제 몸과 ᄆᆞᅀᆞ미 블셔 스스로 몬져 사오나왯ᄂᆞᆫ 주ᄅᆞᆯ 아디 몯ᄒᆞᄂᆞ니라〈小八07a6〉
(3). 일훔 둔 거슬 다시 고텟다가 만이레 패ᄒᆞ여 나면 죄 니부ᄆᆞᆯ 도로혀 크게 ᄒᆞᄂᆞ니〈小七29b8〉
(4). 버믈 그리다가 일오디 몯ᄒᆞ면 도ᄅᆞ혀 가히 ᄀᆞᆮᄒᆞ리라〈小六15a8〉

(a)의 예에서는, {-으면} 에 의해 이루어진 이음마디와 월의 마침마디와의 진술내용 간의 관계에 있어서 모두 공통적으로, 후자가 전자에서 비롯한 순리적인 결과임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1)의 경우, 「거짓 일을 고하는」 일로부터 「죄를 입는」 일이 비롯되며, 이는 상식적으로 순리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2~4) 역시 전후의 진술내용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조적인 의미가 강한 「도ᄅᆞ혀」와 호응할 수 있는 것은, 마치마디의 진술내용이 말하는 이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의 (5)의 경우는, 전후의 진술내용이 결코 순리적인 인과관계를 이

루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예이다.

(5). ᄌᆞ라나면 도ᄅᆞ혀 ᄇᆞ효ᄒᆞᄂᆞ니〈父母13a10〉

(5)에서, 「자라나는」면 「불효하는」 사실은 결코 순리적인 것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말하는 이가 「자라나면 효도할」 것이라는 기대 혹은 예상을 가지고 있으며, 「불효하」는 일이 그 기대나 예상에 반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1-3. … {-으니} 도ᄅᆞ혀

「도ᄅᆞ혀」가 제약법의 씨끝 {-으니} 와 호응할 때에도, 월의 진술내용 간의 관계에 대한 말하는 이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다.

(6). ᄌᆞ른 ᄠᆞᆫ 거시 ᄒᆞᆫ 무들기만 ᄀᆞᆮ디 몯 ᄒᆞ니 도ᄅᆞ혀 뎌 사ᄅᆞᆷ을 다 ᄑᆞ라 줌만 ᄀᆞᄐᆞ니 업스니〈老下08a5〉

(7). 닐오미 올타 아니 가니ᅀᅡ 도ᄅᆞ혀 즐겁도다〈朴通54a4〉

라-1-4. … {-어} 도ᄅᆞ혀

(8). 열문 계법을 디녀 날로 새로이 브즈러니 닷가 믈러나디 아니ᄒᆞ야 ᄲᆞ리 정각ᄋᆞᆯ 일워 도ᄅᆞ혀 즁ᄉᆡᆼ을 제도호리니〈初發79b5-6〉

(8)의 예는,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기대나 예상의 어긋남이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미로는 해석되기 어렵다. 오히려, 이음마디에 나타난 사실 「믈러나」는 것을 부인하고, 그와 반대되는 일「중생을 제도하는 일」에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이음마디에서 부정된 「(도중에) 믈러나」는 일과의 관계에서 볼 때, 그에 반하는 선택임을 뜻한다.

라-2. 벌임법의 이음씨끝 {-고} 와의 호응

(9). 깃브미 뎡ᄒᆞ고 슬픈 ᄆᆞᅀᆞ미 도ᄅᆞ혀 나니 셜우미 간댱의 ᄆᆡᆺ놋도다 〈父母07b09〉

「도ᄅᆞ혀」가 벌임법의 이음씨끝 {-고} 와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이루는 경우에도, (9)에 보이는 바와 같이, 「기쁨이 그친」 사실과 「슬픈 마음이 나」는 사실과의 대조관계 속에서, 「기쁨」에 반하는 감정이 잃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다는 점에서는 다른 이음씨끝과의 호응관계와 다름이 없다. (1)

라-3. 설명법의 이음씨끝 {-ᄃᆡ} 와의 호응

(10). 내 몸 위호매 일일마다 됴히 ᄒᆞ고져 호ᄃᆡ 다ᄆᆞᆫ 내 ᄒᆞᆫ낫 몸과 ᄆᆞᅀᆞᄆᆞ란 도로혀 됴히 ᄒᆞ고져 아니ᄒᆞᄂᆞ니〈小八07a4-5〉

---

(1). 15세기의 「삼강행실도」에 나타난 다음의 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禮란 아니 ᄀᆞᄅᆞ치고 도ᄅᆞ 혀 내티일 힝뎌글 ᄒᆞ과뎌 ᄒᆞᄂᆞ니 장ᄎᆞ 무스게 ᄡᅳ리오〈三綱302b14〉

설명법의 이음씨끝 {-듸} 와 함께 이음겹월을 이루는 경우에도, 역시 (10)에서와 같이, 「도루혀」가, 「하고자 하는」 의지에 어긋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하려 한다는, 진술내용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라-4. 전환법의 이음씨끝 {-다가} 와의 호응

(11). 이러ᄒᆞ면 글 뷔호모로 ᄡᅥ 유익호믈 구ᄒᆞ다가 이제 도로혀 스싀로 해 ᄒᆞ논디라<小八30a9>

전환법의 이음씨끝 {-다가} 와 호응하는 경우에도,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의, 기대에 어긋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유발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도루혀」의 의미기능에는 변함이 없다.

라-5. 불구법의 이음씨끝 {-으나} 와의 호응

(12). 비록 져젯 아히돌히 과ᄒᆞ여 ᄒᆞ나 도루혀 일 아는 사루매 더러이 너교미 두외ᄂᆞ니라<小六26b1>

(12)와 같이, 불구법이 이음씨끝 {-으나} 의 경우에도 기대에 어긋난 결과를 뜻한다는 점에서 볼 때,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라-6. 기타

「도루혀」가 이음씨끝과의 호응관계를 이루지 않는 일은 매우 드문데, 다음의 (13)에서와 같이, 「도루혀」의 앞에 이음마디가 없이, 오히려 그 자신이 이음마디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그 의미와 기능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

(13). 高麗 ㅅ ᄯᅡ해 ᄑᆞ는 황회 ᄀᆞ장 됴ᄒᆞᆫ 거슨 도루혀 ᄑᆞ디 몯ᄒᆞ고 댜문 둘워 ᄡᅳᆯ 황회ᅀᅡ 맛당ᄒᆞ야 … 님자 어도미 ᄲᆞᄅᆞ다<老下66b4;6>

(13)에서는, 「가장 좋은 물건」이라면 당연히 잘 팔릴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나 예상에 비하여, 실제로는 그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14). 네 이리 간대로 바도려 ᄒᆞ디 말라 도리혀 네 흥졍 머믈을 거시라 <老下27a7>

한편, (14)에서와 같이, 가정 혹은 조건의 표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도, 암시적으로 「멋대로 값을 받으려 하면」이란 의미가 밑에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될 때에도, 「도루혀」는 역시 위와 같은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의 의미를 나타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루혀」는, 이음법의 씨끝과 호응관계를 이루어 뒷마디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씨끝으로서는, 제약법의

{-으면, -으니, -어}, 벌임법의 {-고}, 설명법의 {-듸}, 전환법의 {-다가}, 불구법의 {-으나} 등이 나타나, 「양보의 말재어찌씨」에 속하는 어찌씨들 중 가장 폭넓은 호응관계를 보인다.

「도르혀」의 경우에는, 앞마디의 사실에 대한 뒷마디의 사실의 성격에 따라, 「순리적인 결과이긴 하나 바람직하지 못한 것」, 「뒤의 사실이 예상이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마). 【출하리 / 출히 (寧)】

마-0. 개관

「출하리」는 16세기에 있어서의 빈도의 면에서 보면, 그다지 활발히 쓰이지는 않았다. 초기의 자료에서는 「번역소학」에 3례가 보일 뿐이며, 중기 이후 후기의 자료에서는 「소학언해」(5례), 「논어언해」(3례), 그리고 「경민편」(1례)에서 나타날 뿐이다.

한편, 15세기에 빈번히 쓰이던 「출히」(寧)은, 15세기 말기의 문헌인 「삼강행실도」(1490)에는 4례 나타나는데, 16세기에는 「간찰」에 2례가 보일 뿐이다.

「출하리」[1]는, 월의 진술내용 간의 관계에 대한 말하는 이의 태도 혹은 선택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오히려, 도르혀」와 함께, 대조의 서법관련의 어찌씨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출하리」 역시, 대조의 대상이 되는 복수의 사실을 한 월 안에 포함하게 되며, 그러한 의미와 관련된 불구법의 이음씨끝과 주로 호응관계를 이룬다. 이 때, 「출하리」는 이음마디에 속하게 된다.

「출하리」가 가장 빈번하게 호응하는 이음씨끝으로는, 불구법의 이음씨끝 {-을쑤니언뎡} 이며, 따라서 이러한 씨끝과의 호응구문에서 우리는 이 어찌씨의 핵심적인 의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마-1. 불구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

「출하리」가 불구법의 이음씨끝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의 이음마디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수집된 모든 예에 있어서 이음씨끝 {-을쑤니언뎡} 과 결합한다.

「출하리」가 이음씨끝 {-을쑤니언뎡} 과 호응, 이음마디를 형성하는 경우, 그 마침마디의 서법으로서는 거의 대부분이 서술법으로 나타나며, 시킴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출하리」가 드러내는 의미로서는, 이음마디와 마침마디에 진술된 두 가지의 사실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전자의 사실에 대한 말하는 이의 선택적 의지로 정의할 수 있다.

---

(1). 이하, 빈도가 높은 「출하리」로 대표하기로 한다.

a. 출하리 ··· {-올ᄲᆞ니언뎡}

(1). 내 출하리 죽을 ᄲᅳᆫ이언뎡 義엔 슈욕디 몯ᄒᆞᆯ 거시라<小九066a8-9>

(2). 님금을 셤기고져 ᄒᆞᄃᆡ 몬져 님금 소규미 올ᄒᆞ냐 출하리 두ᅀᅥᄒᆡᄅᆞᆯ 므늘ᄲᆞ니언뎡 가디 몯ᄒᆞᆯ 거시라<小九050a2>

(3). 출하리 주긇 ᄲᅮ니언뎡 ᄌᆞ손ᄋᆡ 이런 ᄒᆡᆼ뎍 이슈ᄆᆞᆯ 듣고져 아니ᄒᆞ노라 <小六13a9>

(a)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출하리」가·속한 이음마디의 사실과 마침마디에 진술된 사실이 대조되고 있다. 「출하리」는 반드시 그 속한 월의 진술내용에 있어서 말하는 이의 입장에서 볼 때, 부정적인 사실 간의 선택을 나타내는 특징을 지닌다. 이 때의 「부정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말하는 이에게 있어서 피해를 미치는 사실이 중심이 된다.

(1)에서는 「욕을 당하는」 일과 「죽는」 일의 두 가지 내용이 진술되며, 객관적으로 볼 때,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심한 피해를 미치거나 부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출하리」는 더 부정적인 쪽으로의 선택을 의미한다.

덜 부정적인 내용의 일은 월의 마침마디에 진술되며, 그보다 더 부정적인 내용의 일이, 「출하리」를 포함하는 이음마디에 나타난다.

다음의 (4)는 마침마디가 시킴법으로 끝나는 예이다.

(4). 사ᄅᆞ미 도족 되요미 다 주리며 치우미 나ᄂᆞ니 출하리 비러 머거 목수믈 ᄃᆞᆯᄲᆞ니언뎡 절도ᄒᆞ며 강도ᄒᆞ기ᄅᆞᆯ 말라<警民16b01>

(4)에서도 「절도하며 강도하는」 일과 「빌어 먹어 연명하는」 일과의 사이에서, 말하는 이가 후자를 더 부정적인 일로 의식하고 있으며, 일부러 후자를 택한다고 하는 일종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2. 견줌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

(마-1)에서는, 「출하리」가 불구법의 이음씨끝 {-올ᄲᆞ니언뎡} 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을 형성, 「출하리」 자신은 이음마디에 속하였다. 그러나, 견줌법의 이음씨끝 {-어론} 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월의 짜임새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b)에서는, 견줌법의 씨끝이 「출하리」에 앞서며, 따라서 「출하리」는 그 이음겹월의 마침마디에 선다.

그리고, 「출하리」가 두 진술내용 간의 주관적인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면에서는 마찬가지이나, (a)에서는 이음마디의 사실을, (b)에서는 마침마디의 사실을 선택한다는 면에서 다름을 보이기는 하나, 「출하리」에 의해 이끌리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월을 구성하는 진술내용의 성격에 있어서도 차이가 보인다. 앞의 (a)의 경우에는 이음마디와 끝마디의 진술내용이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다음의 (b)에 나타난 월을 분석하면, 이음마디의 그 진술내용이 꼭 부정적이지는 않은 점에 있어 약간의 다름이 있다.

b. … {-어론} 출하리 … {-욜띠오/-욜띠니라}

(5). 禮ㅣ 그 奢홈으로 더브러론 출하리 儉홀띠오 喪이 그 易홈으로 더브러론 출하리 戚홀띠니라<論—20a08-10>

(6). 그 奧애 媚홈으로 더브러론 출하리 □애 媚홀띠라<論—24a01>

(5)는 「사치함」과 「검약함」의 두 가지의 사실의 대조를 통하여, 전자보다는 후자를 택하여야 할 일반적인 당위성을 뜻하는 월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부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후자 (「검약함」) 의 경우에는 꼭이 부정적이라 할 수 없다. 이는 (6)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출하리」가 선택적 당위 (選擇的 當爲) 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 선택의 대상이 되는 일에는 긍·부정의 의미론적인 제약이 중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출하리」의 경우에는, 불구법의 이음씨끝 {-을쌴니언뎡}, 견줌법의 이음씨끝 {-어론} 과 호응관계를 이루며, 역시 이음겹월의 뒷마디에 위치한다.

이 어찌씨는 앞뒷마디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앞의 사실에 대한 말할이의 선택을 나타낸다는 의미론적인 특성을 보인다.

(바). 【다하 / 다함 (還·只·管的)】

바-0. 개관

「다하/다함」은, 16세기의 문헌에서는, 극히 제한된 분포를 보인다. 이 어찌씨의 분포는 16세기 초기의 자료에 편중된다. 「노걸대」에는 「다하」(6례)와 「다함」(1례)이 공존하여 나타나며, 「박통사」에는 「다하」가 2례 나타난다. 그 밖에, 「소학언해」에 「다함」이 2례 나타날 뿐, 다른 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다하」[1]의 분포가 이토록 제약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도로혀, 오히려」와 매우 유사한 의미와 기능을 지닌 탓으로 보인다.

「다하」가, 양보의 의미를 지니는 {-건마른, -어도} 등의 이음씨끝과 호응, 이음겹월의 마침마디에 위치, 앞마디의 사실 (말할이의 기대나 예상) 에 반하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도로혀」와 유사한 기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하」가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래에 상론할 것과 같이, 불구법의 이음씨끝{-건마른/-어도}, 벌임법의 이음씨끝{-고}, 제약법의 이음씨끝 {-으면} 등에 의한 이음겹월의 뒷마디에 서는 경우가 나타난다.

불구법의 이음씨끝과 「다하」가 호응하는 예로는, 다음의 (a)를 들 수 있다.

---

(1). 이하, 「다하」로 대표하기로 한다.

바-1. 불구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

a. … {-건마ᄅᆞᆫ/-어도} … 다하

(1). 본ᄃᆡ ᄇᆞᆺ괴일 ᄇᆡ리 업건마ᄅᆞᆫ ᄒᆞ마 나그내네 다하 빌ᄉᆡ<老上54a5>

(2). 그리 텨도 다함 저티 아닌ᄂᆞ니라<老上07a9>

(a)에서와 같이, 「다하」는 그 앞마디에 진술된 사실, 즉 (1)의 「본래 바꿀 쌀이 없다」는 사실 혹은 (2)의 「그리 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 말할이의 기대 혹은 예상과 뒷마디의 사실이 서로 반함을 의미한다.

이 때의 말할이의 기대 혹은 예상이란, (1)에선 「더 이상 부탁하지 않을 것」, (2)에서는 「두려워하거나 겁 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2. 벌임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

「다하」가 벌임법의 이음씨끝과 호응하는 예는, 다음의 씨끝 {-고} 와 호응하는 단 한 예 밖에 보이지 않는다.

b. … {-고} … 다하 … {-ᄂᆞᆫ다}

(3). 네 이런 갑새 ᄑᆞ디 아니ᄒᆞ고 네 다하 므스글 ᄉᆞ랑ᄒᆞᄂᆞᆫ다<老下13a3>

(b)는 의문사 「므슥」을 수반한 반문의 예인데, 「다하」가 물음월에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씨끝 {-고} 에 의한 이음마디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말할이의 기대나 예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경우의 「다하」 역시 앞마디의 기대에 대해 뒷마디의 사실이 거기에 반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바-3. 제약법의 이음씨끝과의 호응

한편, 다음의 (c)는 제약법의 이음씨끝 {-으면} 에 의한 이음겹월의 뒷마디에 「다하」가 출현하는 예로서, (4)의 문말에 보이듯이 강조·영탄법의 월에도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c. … {-으면} … 다하 …

(4). 이믜 이러ᄒᆞ면 갑시 다하 내게 셜웨라<老下14a2>

(5). 사ᄅᆞ미 간난ᄒᆞ면 다하 다랍고 빈 지여시면 거즈말 잘 ᄒᆞᄂᆞ니라<朴通35b4>

앞서 (라-1)에서 「도ᄅᆞ혀」가 (c)와 동일한 환경에 서면, 이음마디의 사실과 뒷마디의 사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후자의 사실이 순리적인 결과이긴 하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이가 판단한 경우와, 혹은 말할이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말할이가 판단한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위의 (c)의 경우에는 (4)는 기대의 어긋남으로, (5)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바-4. 기타

「다하」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겹월에 나타나, 그 앞뒤마디의 사실 간의 관계와 말할이의 판단을 드러내는 이외에, 다음과 같이 매김마디의 꾸밈을 받는 월의 성분과 호응하는 일이 있다.

(6). 이런 화ᄅᆞᆯ 네 다하 므스글 나ᄆᆞ라ᄂᆞᆫ다〈老下31a6〉
(7). 이 ᄆᆞᄅᆡ 앗가 ᄌᆞᄅᆞ미 일뎡ᄒᆞᆫ 갑시 다하 내게 셜웨라〈老下13a1〉

이런 경우에는, 매김마디에 진술된 사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대나 예상의 어긋남을 드러낸다. (6)의 경우 「이런」이란 매김마디에는, 그 앞의 문맥으로 보아, 「이렇게 좋은」이란 뜻이 함축되어 있으며, 따라서 말할이는 「당연히 흔쾌히 흥정에 응하리라」는 기대를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란다(물건의 흠을 잡는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7)에서는 매김마디의 「ᄌᆞᄅᆞᆷ이 정한 말값」이 말할이의 기대나 예상에 반하는 것임을 뜻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다하」의 경우에는, 이음법의 씨끝 중에서 불구법의 {-건마른/-어도}, 벌임법의 {-고}, 제약법의 {-으면}과 호응하여, 그 이음겹월의 뒷마디에 위치한다.
이 때, 「다하」는, 뒷마디의 사실이 말할이의 기대나 예상에 반함을 뜻하며, 그러한 기대와 예상은 이음겹월의 앞마디에 근거하게 된다. 단지, 벌임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그 앞마디의 사실 자체가 말할이의 기대나 예상을 나타낸다.

(사). 【당시론 / 당시예(還·且)】

사-0. 개관

「당시론/당시예」는, 16세기의 초기문헌 중에서도 「노걸대」와 「박통사」에서만 보이고, 다른 자료에선 찾을 수 없었다. [1] 이러한 분포적 특성은, 앞의 (바)에서 다룬 「다하/다합」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이면, 「노걸대」에서는 「당시론」이 네 번, 「당시예」가 한 번, 「박통사」에서는 「당시론」이 한 번 나타날 뿐이다.

(1).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노걸대언해」(1670)에서는 「당시롱」 4례 (上09b08, 41b10, 54a10; 下 19a02), 「당시론」 1례(上 38a09)가 확인된다.
그러나, 이것이 언해할 때에 받은 「(번역)노걸대」의 텍스트의 영향인지, 혹은 17세기의 중엽까지도 이 어찌씨가 쓰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아직 단언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조어사전」(1964:203)에는 「당시롱」의 표제어에 「박통사언해(중간)」(1677)의 용례가 하나 실려 있다. 한편, 「중간노걸대언해」(1795)에서는 1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로혀」로 바뀌고, 「당시롱」은 보이지 않게 된다.

「당시론」[1]은, 이제까지 살펴본 「비교·대조의 말재어찌씨」의 부류에 속하는 어찌씨와는 달리, 이음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이음겹월의 마침마디에 서는 예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시론」의 경우 말재와 관련된 문법형식과의 호응관계를 추출해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론」의 말재어찌씨로서의 자격을 잃게 하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대신, 이름법의 씨끝 {-옴} 에 위치자리토씨가 결합한 {-옴에} 를 앞세우는 다음의 예가 눈에 띈다. [2]

(1). 예셔 셔울 가매 당시론 五百里 우호로 잇ᄂᆞ니<老上10b8>
(2). 예셔 夏店에 가매 당시론 十里ㅅ 짜히 이시니<老上46b2>
(3). 예셔 뎨 가매 당시론 칠파릿 길히 잇고나<老上60a8>

(1~3)의 예는 모두 같은 구조와 의미를 지닌 월들이며, 그 뒤에 셈숱말로 된 월성분과 공기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 때의 「당시론」은, 「(…에 가는데는) 오히려, 아직도」란 의미로 해석된다.

굳이 이들 「당시론」의 기능을 해명하자면, 무리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전술한 「도ᄅᆞ혀」와 유사한 기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전후의 문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3)의 말할이와 들을이 모두가 얼른 목적지에 도착하고자 하는 일종의 「기대」를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아직도(오히려) 멂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는, 다음의 물음과 대답의 관계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4). 셔울셔 힝힝이 언제 나시리러뇨 / 몯 ᄒᆞ야 겨시더라 당시론 일엇다 <朴通53b3>

(4)의 경우, 전후의 문맥으로 볼 때, 앞월의 물음은 묻는이가 「벌써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예상)하고 던진 물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시론」은, 그 예상에 반하여 아직도 떠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5) 역시 예상의 빗나감을 뜻한다는 면에서는 마찬가지이다. [3]

(5). 뎌의 머글 밥은 ᄯᅩ 얻디 ᄒᆞ려뇨… / 지븨 당시론 바비 잇다<老上42b3>

(5)의 앞월은, 인가에 가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말을 지키고 있는 이의 밥이 혹 모자랄까 저퍼서 한 물음이며, 뒤의 월은 그에 대한 대답이다. 따라서, 앞의 월에서 묻는이는 「혹 밥이 모자랄」 것이라는 예상(또는 걱정)을 가지고 있으며, 뒤의 월의 대답에 나타난 「당시론」은, 그 예상(또는 걱정)과는 달리 밥이 아직

(1). 이하, 「당시론」으로 대표하기로 한다.
(2). 예문(1~3) 중 (1)을 제외한 (2~3)은 「중간노걸대언해」(1795)에서는 「도로혀」로 바뀐다. (「중간노걸대언해」 上42b04, 上60a10를 참조 바람).
(3). 예문 (5) 역시 「중간노걸대언해」(1795)에서는 「도로혀」로 바뀐다. (「중간노걸대언해」 上39a02를 참조 바람).

도 남아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시론」은, 앞에서 살펴본 (가~바)의 어찌씨들과는 달리, 특정한 말재의 형식과의 적극적인 호응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대조의 말재어찌씨」의 부류에 넣은 것은, 월의 사실과 현실과의 비교를 통해, 「기대 혹은 예상의 어긋남」이란 뜻을 더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도루혀」 등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V장에서 살펴본 「조건 · 가정의 말재어찌씨」(V-1)와 「양보 · 대조의 말재어찌씨」(V-2)에서 살펴본 각 어찌씨들이, 씨끝 혹은 토씨 등과 맺고 있는 호응관계를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9>와 같아진다.

<표9>. 조건 · 가정 및 양보 · 대조의 말재어찌씨와 씨끝 · 토씨와의 호응관계

		어찌씨의 자리	겹월의 앞마디							겹월의 뒷마디					
		어찌씨의 갈래	조건 · 가정						양보 · 대조						
말재		씨끝 · 토씨의 종류 \ 어찌씨	ᄒᆞ다가	만이레	혹·시혹	힝혀	가령	가ᄉᆞ	비록	ᄒᆞ믈며	오히려	도ᄅᆞ혀	ᄎᆞᆯ하리	다하	당시론
이음법	제약법	-으면	◎	◎	◎	○					○	○			
		-거든/-거ᄃᆞᆫ/-어든/-어ᄃᆞᆫ	◎	◎	◎	○	○	○							
		-을딘댄/-을딘대ᄂᆞᆫ	○	○											
		-은則/-은즉		○											
		-어										○			
		-ᄂᆞ니/-으니								○		○			
		-어도/-어두	○		○				○		○				
	불구법	-을디라도	○				○		○		○			○	
		-으나							○			○			해당 없음
		-을디나							○						
		-은ᄃᆞᆯ							○						
		-언뎡											○		
		-건마ᄅᆞᆫ												○	
		-어니와				○									
	벌임법	-고, -으며			○									○	
	설명법	-ᄃᆡ									○	○			
	견줌법	-곤/-온/-고ᄂᆞᆫ								○					
		-어론											○		
	가림법	-거나/-어나			○										
	전환법	-다가										○			
의향법	물음법	-을가	○												
	서술법	-을디니라			○										
	시킴법	-어라			○										
어찌법		-도록				○									
그밖	도움토씨	-으란	○	○											
		-ᄂᆞᆫ/-도								○					
	이음토씨	-과			○										

Ⅵ. 한정적 말재어찌씨

「한정적(限定的) 말재어찌씨」는, 월의 특정 성분 혹은 월 전체의 사실이 다른 대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나타낸다. 이 두 대상은 동일한 계열에 속한다. 「특정 성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월의 특정한 한 성분을 지시한다. 그러나, 꼭 한 성분만이 아니라 월을 구성하는 진술내용을 대상으로 삼는 일도 있다.

한편, 한정의 말재어찌씨가 월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크게 다음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1)

①. 임자말, 부림말, 어찌말 등의 월성분을 한정
②. 셈숱말의 공존을 요구하여, 셈숱의 범위를 한정
③. 풀이말의 특정 서법과 호응하여, 월의 진술내용의 한정

①과 같이, 셈숱말 이외의, 월의 특정 성분을 한정하는 어찌씨를 「특정성분 한정적 말재어찌씨」라 한다. 이들 어찌씨는 단어 간의 대립적 계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월의 특정한 성분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특정한 부류의 어휘들과의 공기현상이 매우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 무리에 속하는 어찌씨로는, 「그저/그져」, 「흔갓」, 「다문/다만/다믄/담은」, 「오직」, 「특별이/특별히」, 「독벼리/독버리」 등을 들 수 있다.

②의 쓰임은 엄밀히 본다면, 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적 말재어찌씨 중 「대되/대도히」, 「거싀/거스/거싀/거이/거의」, 「계오/계요/계우/겨오」 등은, ①에 비해서 ②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이 현저하게 나타나 특별한 하나의 범주를 이룰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따로 독립시키어 논하기로 한다.

한편, ③과 같이, 월의 진술내용 전체를 한정의 대상으로 삼는 어찌씨를 「사실 한정적 어찌씨」로 부르기로 하자.

여기에는, 「곧」, 「대가흔디/대개흔디/대더흔디/대더혼디/대뎨흔디」, 「본듸/본듸로/본릐」 등이 속한다.

이들 어찌씨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음겹월을 형성하여, 그 앞뒤마디의 사실 간의 관계 속에서 한 사실을 한정적으로 강조하여 드러내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므로, 월에 있어서 씨끝에 의해 드러나는 서법적인 표현과의 호응현상은 이러한 「사실 한정적」인 경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류를 기초로, 각 어찌씨들의 형태와 빈도를, 문헌자료의 성격별로 배열하면, 다음의 <표10>과 같다.

---

(1). 그러나, ①~③의 기능은 확연히 갈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 어찌씨가 이 세 기능을 겸하여 지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기서 세 갈래로 나눈 것은, 각 어찌씨 별로 어느 쓰임이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가, 즉 어느 것을 가장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표10-1>. 특정성분의 한정적 말재어찌씨의 문헌 성격별 분포 (1)

어찌씨 갈래		특정성분의 한정												셈숱말의 한정						
갈래	약호(간행) \ 어찌씨	그저	그져	혼갓	다문	다만	다믄	담온	오직	특별이	특별히	독벼리	독버리	대도히	대되	거스	거싀	거시	거이	거의
三	綱(1490)	1							6								2			
역학	飜老(151?)	19	1		7		10		3			3	1		19	1	1			
	飜朴(151?)	1			6		2		4					2	1					
교화서 I	續三(1514)								1						1					
	飜小(1517)			7	9		1		30	1							1			
	小學(1587)	1		4	11		3	1	48	1									1	6
	孝經(1589)																			
	論語(1590)			1	1				13											
	孟子(1590)			8	3		1		34											5
	大學(1590)								5											1
	中庸(1590)								7											2
교화서 II	正俗(1518)			5					1											
	呂氏(1518)			1					5	3										
	二倫(1518)	2			2				1								1	1		
	警民(1579)			1																
의학	簡易(1524)								1		1									
	分門(1542)								1						3					
불경	父母(1553)																			
	七大(1569)																			
	初發(1577)			2					13											
簡	札(1565)	4		1	12	6			2						6					
百	聯(1563)																			
합 계		27	1	31	51	6	17	1	174	5	1	3	1	2	30	1	3	1	1	14

<표10-2>. 한정적 말재어찌씨의 문헌 성격별 분포 (2)

갈래	어찌씨 갈래 / 약호(간행)	셈숱말한정 계오	셈숱말한정 계요	셈숱말한정 계우	셈숱말한정 겨오	월의 한정 곧	대가ᄒᆞᆫ디	대개ᄒᆞᆫ디	대더ᄒᆞᆫ디	대더혼디	대메ᄒᆞᆫ디	본ᄃᆡ	본ᄃᆡ로	본ᄅᆡ
三	綱(1490)					4								4
역학	飜老(151?)			1		25	1	1				7	1	
	飜朴(151?)			1		7								
교화서 I	續三(1514)			1								1		
	飜小(1517)	1				6			5			7		1
	小學(1587)	1	1			28			2	1	2	8		
	孝經(1589)					1								
	論語(1590)					10						1		
	孟子(1590)					66						4		
	大學(1590)					2								
	中庸(1590)					1								
교화서 II	正俗(1518)								2					
	呂氏(1518)													
	二倫(1518)			1								1		
	警民(1579)								2					
의학	簡易(1524)													
	分門(1542)					1								
불경	父母(1553)													
	七大(1569)													
	初發(1577)													3
簡	札(1565)	10			3									
百	聯(1563)											3		
합계		12	1	4	3	147	1	1	11	1	2	32	1	4

Ⅵ-1. 특정성분의 한정적 말재어찌씨

월의 특정한 성분, 예를 들어 임자말, 부림말, 어찌말 등의 성분을 가리켜, 그 성분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의 대상, 즉 동일 계열의 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성분이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어 결과적으로 강조하는 뜻을 강하게 하는 것을 「특정성분의 한정적 말재어찌씨」라 한다.

이 부류의 어찌씨로는, <표10-1>과 같이, 「그저/그져」, 「다몬/다만/다믄/담온」, 「혼갓」, 「오직」, 「특별이/특별히」, 「독벼리/독버리」, 「대도히/대되」, 「거싀/거싀/거싀/거싀/거의」, 「계오/계요/계우/겨오」 등을 들 수 있다. (1)

이 중, 「그저/그져, 다몬/다만/다믄/담온, 혼갓, 오직, 특별이/특별히」는 셈숨말 이외의 월의 특정성분의 한정과 사실의 한정을 주된 기능으로 삼는다. 한편 이들 어찌씨 외에도 「대도히/대되, 거싀/거싀/거싀/거싀/거의」는 월성분의 한정기능을 지니고 있으나, 이들은 특히 셈숨말과 호응관계를 이루어 이를 한정하는 일을 주된 기능으로 삼는다는 면에서 구별하여 다루기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찌씨의 기능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한 어찌씨의 쓰임 속에는 위의 두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누는 것은, 용례의 관찰에 근거하여 가장 빈번한 쓰임을 보이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삼고,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것은 부차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 【그저 / 그져 (只·尙·猶)】

가-0. 개관

「그저/그져」는, 본고의 조사대상이 된 16세기의 문헌자료에 있어서는 모두 28례 확인되는데, 그 중의 대부분인 20례(2)가 초기의 「노걸대」에 나타나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밖에는 「간찰」(4례), 「이륜행실도」(2례), 「소학언해」(1례)가 나타날 뿐이다.

가-1. 월의 특정성분의 한정

「그저」는, 용례의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그 바로 뒤에 나타나는 특정 월성분을 한정하여 강조하는 의미로 쓰인다. 「한정하여 강조하」는 것은, 어느 성

(1). 이 밖에, 「각별이/각벼리(特·別)」와 「독혀(獨)」을 이 부류의 어찌씨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용례의 수가 너무 국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별한 호응관계를 볼 수 없어, 본고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2). 이 중 「그져」가 1례 포함된다. <老上55a9> 참조 바람.

분과 대립적 관계를 지니는 (동일계열의) 다른 말 혹은 성분을 부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저」는, 월의 특정성분을 한정하여, 월에 드러나지 않은 대상을 부정함으로써 그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쓰임이, 월의 진술내용(사실)을 한정하는 쓰임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

월의 특정성분을 특별히 한정하여 강조하는 경우, 다음의 (a)에서와 같이 월의 장소를 나타내는 위치말을 한정하는 용례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a. 그저 … 어찌말 … {-져}

(1). 혹 이르거나 혹 늦거낫 등에 그저 뎨 가 자고 가져<老上10a5>
(2). 우리 그저 뎨 드러 자고 가져<老上10b2>
(3). 거릿 븍녀긔 잇는 뎜은 이 내 녯 쥬인 지비니 우리 그저 여긔 브리져<老上17b1>
(4). 우리 그저 뎌 신가의 가 　 쌀 밧고와 손조 밥 지어 먹고 가져<老上39a9>
(5). 그저 이 길 북녁 人家의 드러가 잘 듸 어드라 가져<老上46b3>
(6). 나그네들 ᄒᆞ야 그저 이 가개 아래 안자셔 밥 먹게 ᄒᆞ져<老上40b6>

(a)의 월은 모두 씨끝 {-져} 에 의해 이루어진 꾀임법으로 된 월이다. (a)의 각 월의 「그저」는 바로 뒤따르는 「뎨」(1, 2), 「여긔」(3), 「뎌 신가의」(4), 「이 길 북녁 人家의」(5), 「이 가개 아래」(6) 등의 곳어찌말을 한정함으로써,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곳임을 강조하여 드러낸다.

한편, 다음의 (b)는 {-으라} 에 의한 시킴월에 「그저」가 나타나는 용례이다.

b. 그저 … {-으라}

(7). 또 굿 네 가져 져제 가디 말오 그저 이 뎜에 두라<老上69b4>
(8). 너희 나그내네 그저 이 술웻방의 잘 듸 ᄒᆞ야 이시라<老上55a9>
(9). 네 이리곰 갑슬 닐어 므슴 홀다 네 그저 쫀 갑슬 니ᄅᆞ라<老下10b1>

위의 (a)와 마찬가지로, (b)의 시킴월의 경우에도 「그저」가 곳어찌말 「이 뎜에(7), 이 술웻 방의(8)」를 한정한다. (7)에서는 이음마디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져제」(에 팔러 가는 것)를 부정함으로써 「이 뎜」을 강조하여 드러내게 된다. (8)에서도 「이 술웻방」의 자리에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곳」을, 비록 월에

---

(1). 「그저」가 말재어찌씨로서 쓰이지 않고, 풀이말의 바로 앞에 나타나 직접 이를 수식하는 양태어찌씨적인 쓰임을, 여기서는 제외한다. 양태어찌씨로 쓰일 경우, 「여전히, 그냥」 등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 두움히 피셔 셧더니 ᄉᆞ개여 닐우듸 그디내 그저 겨시더니 오늘리 졈그니가 쉬어사 문밧긔 나니<二倫47a10>
◎ 콩갑과 뷧갑시 그저 녜 곧거니와 人蔘갑 곳 ᄀᆞ장 됴타<老下05a6>
◎ 후에 벼슬 놉피 도이연 그 문형이 그저 사랏더니 듸졉호믈 심히 위곡고 례대ᄒᆞ더라<二倫19a13>
◎ 내 그저 닐오듸 우리 예 ᄒᆞᆫ가지로 믈 깁ᄂᆞ다 ᄒᆞ야 니ᄅᆞ노라<老上37a3>
◎ 聘례로 ᄒᆞ면 안해 되고 그저 가면 妾이 되ᄂᆞ니라<小學一07b06>

표면화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부정함으로 「이 술윗방」을 더욱 강조하여 드러내게 된다.

한편, (9)의 경우, 부림말인 「풀 갑슬」의 바로 앞에 「그저」가 나타나, 이 성분의 단어와 동일한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값」을 의미적으로 배제하게 된다. 실제로 (9)의 월의 의미관계를 볼 때에, 배제되는 다른 값이란 흥정 석상에서 제시된 값임을 알 수 있다.

「그저」가 서술법의 월에 나타나는 경우, 주로 말할이의 의지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c. 그저 … {-으리라/-으마}

(10). 나ᄂᆞᆫ 그저 이리 님오리라<老上18b8>

(11). ᄒᆞ마 제 羊져제 니거니 또 머디 아니커니 내 그저 예셔 기들오리라<老下01b5>

(12). 네 닷돈 덜어라 말오 네 고디시근 갑슬 니르면 그저 ᄒᆞᆫ 마래 너를 가포마<老下22b7>

(13). 후에 쁘디 몯 ᄒᆞ면 내 그저 즛룸ᄃᆞ려 무려 밧고리라<老下14b9>

(c)의 (10~11, 13)은 씨끝 {-으리라}, (12)는 약속을 의미하는 씨끝 {-우마}에 의한 서술법의 월에서 「그저」가 그 월의 특정성분을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예이다.

서술법의 월에 나타난 경우 「그저」는 (10~11)에 보인 「이리, 예셔」와 같은 어찌말을 한정하여, 이들 어찌말과 동일 계열의 다른 대상을 배제함으로써 이를 강조하게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앞서 살펴본 (a~b)의 피임월이나 시킴월에서의 쓰임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한편, (12~13)에서는, 「그저」가 위치자리토씨 {-애, -ᄃᆞ려}를 동반한 위치말의 앞에 나타나 이를 한정하는 예이다. (12)에서는 「ᄒᆞᆫ 마래」를 한정함으로써 「두 말할 필요없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며, (13)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의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즛룸ᄃᆞ려」를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저」의 한정을 받는 대상이 되는 월의 성분은 반드시 단순한 구조를 지닌 한 성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4). 아리ᄂᆞᆫ 그저 세 돈애 ᄒᆞᆫ 근시기러니 이제ᄂᆞᆫ 풀리 업수모로<老下02b5>

(15). 앏피ᄂᆞᆫ 그저 ᄒᆞᆰ 텨 ᄆᆡᆼ곤 ᄃᆞ리러니 이제ᄂᆞᆫ 다 널 ᄭᆞ라 잇고<老上39a1>

(14~15)의 「세 돈애 한근식」, 「ᄒᆞᆰ 텨 ᄆᆡᆼ곤 ᄃᆞ리」와 같이, 위치말을 앞세우거나 매김말의 수식을 받고 있는 성분 전체를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물음월에 「그저」가 나타나는 예를 보기로 하자.

(16). 뎜간의 가미 어렵다 우리 그저 이 뎜터헤 가 뒤 ᄃᆞᆫ뇨미 아니 됴ᄒᆞ녀<老上37a9>

(17). 네 됴ᄒᆞᆫ 방의 우리ᄅᆞᆯ 재디 몯ᄒᆞ거든 그저 이 문앒 술윗방의 우리
를 ᄒᆞ룻밤 재게 호미 엇디ᄒᆞ뇨<老上47b3>

(16~17)의 경우, 「그저」가 한정하는 월성분 「이 뭇터헤」·「이 문앒 술윗방의」는 공통적으로 이름법의 씨끝 {-음}에 의한 이름마디의 한 성분으로 기능한다.

「그저」가 이들 성분을 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배제되는 대상은, 그 앞의 월(16)이나 이음마디(17)에 드러난다. (16)에서는 「뭇터」를 선택, 강조함으로써 그 결과로 「뭇간」이 배제되며, (17)에서는 「술윗방」에 의해 이 성분의 자리에 대체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됴ᄒᆞᆫ 방」이 배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정의 말재어찌씨로서의 「그저」는 월의 특정한 성분에 대체 가능한 다른 말을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러한 한정대상의 월 성분을 강조하여 드러내는 의미기능을 지닌다.

이러한 월성분을 강조하여 드러낼 때, 그 월은 꾀임법의 월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시킴법, 서술법, 물음법의 월에 쓰인 용례가 모두 확인됨으로써, 그 나타나는 월에 아무런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나). 【ᄒᆞᆫ갓(非徒·特·苟·惟·只·直設)】

나-0. 개관

「ᄒᆞᆫ갓」은 16세기의 문헌자료에 있어서, 모두 31례가 확인된다. 빈도면에서 그리 많이 쓰인 편은 아니나, 문헌성격에 관계없이 고루 분포한다.

초기의 자료에서는, 「번역소학」(7례), 「정속언해」(5례), 「여씨향약언해」(1례)로 나타난다. 그리고 중기 이후 말기에 이르는 자료에서는, 「맹자언해」(8례), 「소학언해」(4례), 「초발심자경」(2례), 「간찰」·「경민편」·「논어언해」(각 1례)가 출현한다.

나-1. 월의 특정성분의 한정

앞에서 고찰한 「그저」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월의 특정성분을 한정함으로써 강조하여 드러내는 기능으로만 쓰이는데 비해, 「ᄒᆞᆫ갓」 역시 월의 특정한 성분을 강조하는 기능이 매우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술내용 즉 사실을 한정하는 쓰임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월의 특정성분을 한정하는 경우의 「ᄒᆞᆫ갓」이 나타나는 환경으로서, 다음에 살펴보게 될 것과 같이, 한정을 받는 성분이 이름씨끝 {-음}이나 때로 도움토씨 {-만} 등을 수반함으로써 한정의 대상을 명확히 드러내는 유표적인 경우와, 그러한 특별한 지표를 볼 수 없는 무표적인 두 경우가 있다.

먼저 유표적인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하자. 유표적인 경우, 가장 현저하게 눈에

띄는 것은, 다음의 (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름마디를 이루는 씨끝 {-음}에 의해 월의 한 성분으로 기능하는 용례이다.

a. 혼갓 … {-음}

(1). 혼갓 후세에 치우며 주려 주구믈 저허 호모로 이 마리 잇ᄂᆞ니 그러 ᄒᆞ나 주려 주글 이른 ᄀᆞ장 젹고 뎡졀 일ᄂᆞᆫ 이른 ᄀᆞ장 크니라<小七35b3>

(2). 며느리ᄂᆞᆫ 가무니 글로셔 셩ᄒᆞ며 쇠ᄒᆞᄂᆞ니 혼갓 일시예 가ᄉᆞ멸며 귀호믈 울워러 겨집 사무면 뎨 가ᄉᆞ멸며 귀호믈 미더 그 남지를 가ᄇᆡ야이 너기며 그 싀어버ᅀᅵ를 므더니 너기디 아니리 져거 교만ᄒᆞ며…<小七33a3-4>

(3). ᄒᆞᆫ가짓 사ᄅᆞ미 혼갓 모도옴미 곧디 아니ᄒᆞ며<正俗23b08>

(4). 혼갓 ᄀᆞᄅᆞ치모로 좃디 아니홀가 ᄒᆞ샤<正俗11b05>

(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월의 이름마디는 부림말(1~2), 견줌말(3), 방편말(4)의 구실을 한다.

또한, 이들 성분을 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배제되는 대상이 같은 월의 일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1)의 경우 「정절을 잃는 일」을 배제함으로써, 「춥거나 굶어 죽는 일」을 강조하는 해석이 성립한다.

이와 같이 대조되는 두 대상이 같은 월에 나타나는 예로, 다음의 (5)를 들 수 있다.

b. 혼갓 … {-만}

(5). 녀나ᄆᆞᆫ ᄃᆞ리어든 수울와 과실 말오 혹 혼갓 밥만 ᄒᆞ야두 므던ᄒᆞ니라<呂氏31b03/鄕約37b8>

(b)에서는 한정의 대상이 되는 월성분이 도움토씨 {-만}을 수반하고 있는 인데, 「혼갓」의 앞에 「수울과 과실 말오」란 표현이 나온다. 즉, 「혼갓」이 한정함으로써 강조하는 「밥」과 대치될 수 있는 동일계열의 대상으로서의 「수울」과 「과실」을 부정하여 배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는, (a~b)와는 달리, 특정한 지표 없이 월의 특정성분을 한정하는 경우이다.

(6). 종첩들흔 혼갓 집 아비게 ᄉᆞ랑히오져 ᄒᆞ여 괴이면 아니 홀 일업시 ᄒᆞ다가 ᄒᆞᄅᆞᆺ날 남진니 그르 도외면 ᄇᆞ리고 다ᄅᆞ닐 셤기ᄂᆞ니<正俗06b01>

(7). 혼갓 보ᄇᆡ엣 거시 요괴로ᄋᆞᆫ 주를 알오 님금의 괴이여 우세 딛고 빗나미 보ᄇᆡ두곤 더 요괴로으물 아디 몯ᄒᆞ두다<小十18b5>

(8). 셩인니 혼갓 법졔롤 넘도 아니 ᄒᆞ며 몯 밋도 아니케 삼년놀 짐쟉ᄒᆞ여 밍근둘 효ᄌᆞ의 무ᄉᆞ미 홀리니<正俗17a08>

「혼갓」이 특별한 지표없이 월의 어느 성분을 한정할 때, 그 한정받는 성분의

한계를 정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이 경우에는 그 앞뒤의 표현이나 문맥에 의해 그 한계가 밝혀진다고 할 수 있다.

(6)에서는 「집 아비」와 「다룬이」, (7)에서는 「보뷔옛 것」과 「님금씌 괴이여 우세 딛고 빗남」, (8)에서는 「법졔」와 「무숨」에 의해 각각 동계열의 대상의 대립이 성립한다.

한편, 다음의 (9)의 경우는, 「ᄒᆞᆫ갓」이 부림말과 풀이말의 사이에 나타나, 결과적으로 풀이말의 바로 앞에 서게 되어,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어찌씨의 바로 뒷 성분이 한정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풀이말을 한정하는 예가 될 것이다. 이런 예는 매우 드문 일이다.

> (9). 믈읫 혼인 의론호매 몬져 그 사회와 며느리의 텬셩과 ᄒᆡᆼ뎍과 가무네 례법이 엇던고 ᄒᆞ야 솔피고 그 가ᄉᆞ멸며 귀호믈 ᄒᆞᆫ갓 울워디 마롤디니라<小七32a5>

그러나, 월 전체의 의미적인 상관관계로 볼 때, 「ᄒᆞᆫ갓」이 한정하는 대상은 풀이말이 아니라, 부림말임이 분명하다. 이는 앞부분에 나타난 천성이나 행적, 그리고 가문의 예법과 같은 계열을 이루면서 이에 대립되는 대상은 풀이말이 아니라, 「부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ᄒᆞᆫ갓」의 경우도 이 어찌씨가 쓰이는 월의 문말의 서법적인 제약은 보이지 않는다.

나-2. 사실의 한정

(나-1)에서는 「ᄒᆞᆫ갓」이 월의 일부를 이루는 성분을 한정하여 두드러지게 하는 구실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때에는 이 어찌씨의 바로 뒤 (예외가 없지는 않지만) 에 나타나는 특정성분을 그 한정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ᄒᆞᆫ갓」이 월의 한 성분만을 한정대상으로 삼지 않고, 월 (혹은 마디) 전체가 드러내는, 덩어리진 진술내용을 그 한정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있다.

이 두 한정대상의 차이는, 결국 양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의 특정성분만을 대상으로 하는냐 월 (겹월의 경우에는, 마디) 을 그 한정대상으로 하느냐의 다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면에서 보면 (a)의 경우도, 이름마디 역시 덩어리진 하나의 진술내용(사실)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하면 그 역시 「사실의 한정」적인 쓰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을 구별하기로 하는 이유는, (a)의 경우 그 이름마디가 월의 풀이말 자리에 나서는 일이 없으며, 반드시 월의 그 밖의 성분으로 쓰여 다음의 (c)와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ᄒᆞᆫ갓」이 「사실의 한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월 내부적인 호응관계를 보면 매인이름씨 {쑨} 에 이끌리는 매김마디에 나타난 사실을 한정하는 일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때, 「ᄒᆞᆫ갓」이 한정하여 드러내는 대상은 「ᄒᆞᆫ갓」과 매김씨끝 {-올} 에 의해

맺어지는 마디 전체가 된다.

c. ᄒᆞᆫ갓 … {-올 ᄲᅮᆫ(이 아니다)}

(10). 氣象이란 거슨 말솜과 거동이 가ᄇᆡ야오며 므거우며 ᄲᆞᄅᆞ며 랄호여 호매 유예블 거시니 ᄒᆞᆫ갓 君子 小人이 이예 와 갈아 날 ᄲᅮᆫ이 아니라 ᄯᅩ 귀ᄒᆞ며 쳔ᄒᆞ며 댱슈ᄒᆞ며 단명호미 일로브터 일뎡ᄒᆞᄂᆞ니라 〈小八14b1〉

(11). 글 ᄇᆡ홈도 ᄒᆞᆫ갓 글 외올 ᄲᅮ니 아니라 효도ᄒᆞ며 형 섬기며…〈正俗07b10〉

(12). ᄒᆞᆫ갓 머릿태ᄅᆞᆯ 곧게 ᄒᆞᆯ ᄲᅮ니 아니라 ᄆᆞ솜도 곧게 ᄒᆞᆯ 거시로다〈小十27a7〉

(13). 밧 가라 ᄡᅥ 디ᄆᆞ로브터 입과 모매 니ᄅᆞ리 ᄒᆞᆫ갓 사ᄅᆞᆷ과 쇼와 공녁이 해 둥ᄒ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ᄯᅩ 방ᄉᆡᆼ 손해호미 다옴 업ᄉᆞ니〈初發49b7〉

(14). 바ᄐᆡ 일ᄒᆞ기ᄅᆞᆯ ᄇᆞᄌᆞ러니 아니ᄒᆞ면…죄 주ᄂᆞ니 ᄒᆞᆫ갓 녀ᄅᆞᆷ짓는 지비 그러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누에 치며 뵈 ᄧᆞ며 ᄉᆡᆼ녕 ᄒᆞ며 홍졍ᄒᆞᄂᆞᆫ 사ᄅᆞ미 각각 그 이ᄅᆞᆯ ᄇᆞᄌᆞ러니 ᄒᆞ야 잠산도 게으르디 말면 오시며 바비 유여ᄒᆞᄂᆞ니〈警民12a04〉

d. ᄒᆞᆫ갓 … {-올 ᄲᅮᆫ(이다)}

(15). 나리 ᄆᆞᆺ도록 ᄂᆞᄆᆡ 시비 어즈러이 니ᄅᆞ고 바미 ᄆᆞᆺ도록 혼텀ᄒᆞ야 좀 즐겨 자ᄂᆞ니 이 ᄀᆞᄐᆞᆫ 즁ᄋᆞᆫ ᄒᆞᆫ갓 시 쥬ᄅᆞᆯ 슈ᄒᆞᆯ ᄲᅮ니라〈初發74a1〉

(c～d)에서는 굵은 글자로 된 부분 전체가 「ᄒᆞᆫ갓」의 한정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0)의 월에서는 「君子 小人이 이에 와 갈아 난다」는 사실과 「귀ᄒᆞ며 쳔ᄒᆞ며 댱슈ᄒᆞ며 단명호미 일로브터 일뎡ᄒᆞᆫ다」는 사실이 서로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11～14)에서도 각각 「글 외우는」 일과 「효도하며 형 섬기는 는」일(11), 「머릿모양을 곧게 하는」일과 「마음을 곧게 ᄒᆞ는」일(12), 「사람과 소의 공력이 매우 중(重)하다」는 사실과 「방생손해(傍生損害)가 없다」는 사실(14), 「농사짓는 집이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죄를 입는다」는 사실과 「누에 치거나 베 짜거나 장사하는 사람이 일을 부지런히 하면 부유해진다」는 사실(15)이 서로 대립관계를 이룬다.

한편, (15)에는 「(남의 일 이르고 잠만 자면) 시주해 주는 것을 얻을 뿐이라」는 사실과 대립되는 대상의 사실이 월에 나타나지 않지만, 전후의 문맥으로 부터 「도를 이룬다」는 사실과 대립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ᄒᆞᆫ갓」은, 월의 특정성분을 한정하여 강조하는 쓰임과 사실 (월 혹은 마디의 진술내용) 의 한정의 쓰임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이 두 기능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양적인 차이 즉 한정의 대상의 범위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ᄒᆞᆫ갓」의 한정의 대상은 특별한 문법적 표식을 동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정성분의 한정적인 쓰임일 때는 이름법의 씨끝 {-옴} 이나

도움토씨 {-만}, 사실의 한정적인 쓰임일 경우의 {-을 뿐이다/-을 뿐이 아니다} 등이 그 표식의 구실을 한다.

(다). 【다ᄆᆞᆫ / 다만 / 다믄 / 담ᄋᆞᆫ (只·但·直·唯)】

다-0. 개관

<표10-1>을 보면, 이 어찌씨는 16세기에 「다ᄆᆞᆫ(51례), 다만(6례), 다믄(17례), 담ᄋᆞᆫ(1례)」의 네 가지의 형태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다ᄆᆞᆫ」은 초기에서 말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쓰이고 있으나, 「다만」은 「간찰」(6례)에서만, 「다믄」은 주로 초기의 「노걸대」(10례), 「박통사」(2례), 「번역소학」(1례)에 나타나나, 말기의 「소학언해」(3례), 「맹자언해」(1례)에서도 확인된다. 「담ᄋᆞᆫ」은 「소학언해」(1례)에서만 볼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해, 적어도 16세기는 「다ᄆᆞᆫ」과 「다믄」이 거의 비슷한 세력을 지니고 공존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같은 자료 안에 이 두 형태가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는, 「노걸대」(다ᄆᆞᆫ 7; 다믄 10), 「번역소학」(다ᄆᆞᆫ 9; 다믄 1), 「박통사」(다ᄆᆞᆫ 6; 다믄 2), 「소학언해」(다ᄆᆞᆫ 11; 다믄 3), 「맹자언해」(다ᄆᆞᆫ 3; 다믄 1)로 나타난다.

「다ᄆᆞᆫ」[1]의 쓰임을 보면, 월의 특정성분 한정, 셈숱말 한정의 두 기능을 그 중심으로 삼아, 「다ᄆᆞᆫ」의 거의 대부분의 용례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경향이 그리 강하지는 않지만, 월에 나타난 진술내용 즉 사실을 한정하는 쓰임도 어느 정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다-1. 월의 특정성분의 한정

「다ᄆᆞᆫ」이 월의 특정성분에 대해, 그 성분과 대립하는 동일계열의 대상을 부정함으로써, 강조하는 뜻을 드러내는 경우, 한정대상이 될 수 있는 성분에는 제약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다ᄆᆞᆫ」의 한정을 받는 월의 성분은 도움토씨 {-만, -으란, -ᅀᅡ} 등을 수반하는 유표적인 경우와, 그러한 특별한 표지가 없는 무표적인 경우가 있다.

다음의 (a)는 도움토씨 {-만, -으란, -ᅀᅡ}을 수반한 월의 성분과 「다ᄆᆞᆫ」이 호응하는 예이다.

a. 다만 … {-만/-으란/-ᅀᅡ}

(1). 다믄 게만 됴ᄒᆞ니<老上11b1>

(2). 그 ᄆᆞ리 다ᄆᆞᆫ ᄏᆡᆼ만 골히여 먹고 딥프란 다 헤터 더디ᄂᆞ니라<老上24b6>

(3). 이제 ᄒᆞᆫ히 반이 도의도록 다믄 내 믿쳔만 갑고 ᄒᆞᆫ푼 니쳔도 갑포믈 즐겨 아니 ᄒᆞᄂᆞ다<朴通34b2>

(1). 이하, 가장 빈도가 높은 「다ᄆᆞᆫ」으로 대표하기로 한다.

(4). 이 高麗 ㅅ 말소믄 다믄 高麗ㅅ 싸해만 쁘는 거시오 中朝 싸해 오면 다 漢語 ᄒᆞᄂᆞ니<老上05b3>
(5). 사ᄅᆞ미 밧긧 거소로 내 몸 위호매 일일마다 됴히 ᄒᆞ고져 호되 다믄 내 ᄒᆞᆫ낫 몸과 ᄆᆞᅀᆞᄆᆞ란 도로혀 됴히 ᄒᆞ고저 아니ᄒᆞᄂᆞ니<小八07a4>
(6). ᄀᆞ장 됴ᄒᆞᆫ 거슨 도ᄅᆞ혀 ᄑᆞ디 몯ᄒᆞ고 다믄 듕워 쁠 황회삭 맛당ᄒᆞ야 도ᄅᆞ혀 님자 어도미 쌔ᄅᆞ다<老下66b5>

예문(1~4)에서는 한정대상의 월성분에 도움토씨 {-만}, (5)에서는 도움토씨 {-으란}, (6)에서는 도움토씨 {-삭} 가 결합하여, 그 한정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다믄」의 한정을 받는 대상이 되는 월성분은, 임자말(1, 6), 부림말(2~3, 5), 위치말(4) 등으로 나타나, 특별한 제약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성분과 의미적 대립의 계열관계를 이루는 말은, (2~6)에서와 같이, 같은 월에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2)에서는 「콩」과 「딥」, (3)에선 「(내) 밑쳔」과 「니쳔」, (4)에서는 「高麗 ㅅ 싸」와 「中朝 싸」, (5)에서는 「밧긧 것」과 「내 ᄒᆞᆫ낫 몸과 ᄆᆞᅀᆞᆷ」, (6)에서는 「듕워 쁠 황호」와 「ᄀᆞ장 됴ᄒᆞᆫ 것」이 각각 서로 대립관계를 이루어, 후자과 풀이말에서 보이는 의미적 연관을 부정함으로써, 전자의 존재를 더욱 강화하는 뜻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1)의 경우에는, 「게(거기)」와 대립하는 대상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그 전후의 문맥을 통해, 「다른 곳」이 「게」와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음의 (b)의 예에서는, (a)에서와 같은 도움토씨와 결합하지 않은, 월의 성분을 「다믄」이 한정하고 있는 무표적인 경우를 볼 수 있다.

b. 무표적인 경우

(7). 우리 거긔는 남지니 믈기리 아니ᄒᆞ고 다믄 겨지비 믈기리 ᄒᆞᄂᆞ니<老上36b3>
(8). 집 사ᄅᆞᆷ이 다 ᄃᆞ라나 숨고 다믄 싀업이 웃방의 잇더니<小九064a6>
(9). 우리 뎌긔는 됴ᄒᆞᆫ 것 구즌 것 모ᄅᆞ고 다믄 쳔ᄒᆞᆫ 거슬 골와 사ᄂᆞ니<老下66b9>
(10). 다믄 거ᄌᆞ마ᄅᆞᆯ 잘 니ᄅᆞᄂᆞ니 진실로 나ᄅᆞᆯ 애ᄃᆞᆯ와 주기 쉽게 ᄒᆞᄂᆞ다<朴通35a9>

「다믄」이 무표적인 월의 성분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그 성분은 임자말(7~8), 부림말(9~10)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정대상의 월성분과 대립적 계열관계를 이루는 말이 같은 월 안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7~9)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10)가 있다. 전자의 경우, (7)은 「남진」과 「겨집」, (8)은 「집 사ᄅᆞᆷ」과 「싀엄이」, (9)는 「됴ᄒᆞᆫ 것」과 「쳔ᄒᆞᆫ 것」이 각각 서로 대립적 계열관계를 이룬다.

예를 들어, (7)에서와 같이, 풀이마디에서 나타난 「물을 긷는」 행위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진」이 나타날 가능성(즉 남진이 물을 길을 가능성)을 배제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거짓」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낸다.

(10) 역시 월 안에 명시적으로 대립되는 대상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문맥으로 보아 「거짓말」과 대립되는 것이 「참말」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다문」의 한정을 받는 대상이 되는 월성분이, 다른 말의 꾸밈을 받는 경우이다.

(11). 녀느 거슨 마다 다믄 디븐 야청 직금 흉븨ᄒᆞᆫ 비단 ᄒᆞ고져 ᄒᆞ노니 <老下26b8>
(12). 글 닐구믄 다믄 ᄎᆞ자 ᄉᆡᆼ각ᄒᆞᄂᆞᆫ 사ᄅᆞ미 져프니 義理 졍ᄒᆞ고 기픈 디라<小八37b9>
(13). 녀느 ᄂᆞ무새ᄂᆞᆫ 다 업거니와 다믄 져린 외옷 잇다<老上41a5>

(11~13)에서는 모두 한정의 대상이 되는 「비단」, 「사ᄅᆞᆷ」, 「외」 등이 그 앞에 매김말을 동반, 전체 성분이 「다문」의 한정대상으로 구실한다.

아래의 (14)는, 한정대상의 부림말이 여럿의 이름씨를 이음토씨 {-과} 로 이어져 이루어진 예이다.

(14). 내 다믄 大官絹과 白綿絹과 蘇州絹과 水光絹과을 과ᄒᆞ노라<老下26a5>

한편, 이제까지 앞에서 살펴본 예들은, 이음겹월의 마디를 형성하거나, 홑월인 경우에 모두 서술법의 월이었지만, 다음의 (c)는 물음법, (d)는 시킴법의 월에 「다문」이 나타나는 예이다.

c. 다문 … {-으료}
(15). 이 은이 다믄 바믓 은이로소니 엇디 ᄡᅳ료<老上64b9>

d. 다문 … {-으라}
(16). ᄎᆡ음 머길 저근 다믄 콩므를 다가 버므려 주고 오경의 다ᄃᆞᆮ거든 홈ᄭᅴ 콩을 다 주워 머기라<老上24a9>

다-2. 셈숱말의 한정

(다-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문」이 월의 특정성분을 한정하는 또 하나의 예로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다음의 (e, f)에 보일 「셈숱말의 한정」의 경우이다.

e. 다문 … 셈숱말 … {-만}
(17). 다믄 두 량만 니ᄅᆞ디 말오 네 ᄯᅩ 닷돈만 더 ᄒᆞ야든 네게 ᄑᆞ로마 <老下23a2>
(18). 論語와 孟子 보매… 셩인의 말ᄉᆞᄆᆞᆯ 가져셔 내 모매 졀당케 ᄒᆞ고 다믄 ᄒᆞᆫ 바탕 말만 호미 맛당티 아니ᄒᆞ니<小八31b6>

(e)의 경우는, 어찌씨 「다문」의 한정을 받는 셈숱말이 포함된 월성분에 도움

토씨 {-만} 이 뒤따르는 예이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경우 역시 「다ᄆᆞᆫ」의 꾸밈의 대상이 명시화된 유표적인 예이다.

한편, 다음의 (f)에서는 그러한 표지로서의 도움토씨가 나타나지 않은 예를 볼 수 있다.

f. 다ᄆᆞᆫ … 셈숱말
(19). 내 다ᄆᆞᆫ ᄒᆞᆫ 낯 뎔운 깁 갇 뫼 잇다<朴通65b3>
(20). 세흔 여윈 ᄆᆞᆯ 다ᄆᆞᆫ 다ᄉᆞ시 됴ᄒᆞᆫ ᄆᆞ리로다<老下10a2>
(21). 내 아ᅀᆡ 일 죽고 다ᄆᆞᆫ ᄒᆞᆫ ᄌᆞ식이 이시니<小九071b2>
(22). 내 다ᄆᆞᆫ 이 아니 여러 ᄆᆞᆯ 모라 가며 ᄯᅩ 아ᄆᆞ란 쳔도 업ᄉᆞ니<老上27a6>
(23). 요제예 ᄒᆞᆫ 사ᄅᆞᄆᆡ 지븨셔 다ᄆᆞᆫ 아니 여러 나그내네를 ᄒᆞ야 잰 젼ᄎᆞ로<老上50a9>
(24). 그 앗이 ᄌᆞ라거놀 집 뎐디 지믈를 다 아ᅀᅮ 주고 다ᄆᆞᆫ 양 일ᄇᆡᆨ 나ᄆᆞ 낡 복식기 가지고 뫼헤 드러 가<二倫02a05>
(25). 이 심을 ᄃᆞ라 ᄒᆞ니 다ᄆᆞᆫ 일ᄇᆡᆨ 근이로다<老下58a6>

(f)에 나타난 바와 같이, 셈숱말이 다른 이름씨를 꾸밈으로써 한 성분을 이루어 임자말(19, 21)이나 부림말(22, 24) 혹은 풀이말(25) 등으로 쓰이는 경우와, 셈숱말이 그 뒤에 다른 이름씨를 수반하지 않고 바로 월의 임자말 성분으로 되는 경우(20)의 두 가지의 쓰임이 있다.

「다ᄆᆞᆫ」이 월에서 셈숱말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밖의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그 대립적 계열관계의 대상으로서 셈숱말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다ᄆᆞᆫ」이 출현하는 월의 서법상의 특징으로서는, 앞에 살펴본 서술법의 월 이외에도, 그리 빈번하지는 않지만, 다음의 (g)에서 볼 수 있는 꾀임법의 월에 나타나는 일이 있다.

(26). 머리 갓근 ᄃᆡ 두 낫 돈이오 밧돕 다ᄃᆞ믄ᄃᆡ 다ᄉᆞᆺ 낫돈이니 모도아 ᄒᆞ니 다ᄆᆞᆫ 열아홉 낫 돈을 ᄡᅳ리니 탕ᄌᆞᆺ 갑ᄉᆞ란 내아라 가져<朴通52b2>

다-3. 사실의 한정

「다ᄆᆞᆫ」이, 월의 한 특정성분만을 한정하지 않고, 월이 나타내는 사실 전체를 한정하여 강조하는 경우, 다음에 보게 되는 바와 같이 불구법의 이음씨끝 {-거니와} (27~29)나 설명법의 이음씨끝 {-ᄃᆡ} (30)에 의한 이음마디를 앞에 수반하여, 그 이음마디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단서를 붙이는 뜻으로 나타나는 일이 많다.

g. … {-거니와/-ᄃᆡ} 다ᄆᆞᆫ
(27). 진실로 됴ᄒᆞᆫ ᄆᆞ리어니와 다ᄆᆞᆫ 그 병도 져기 이시며 은도 브족ᄒᆞ야 일즉 사오디 아니 호라<朴通63b6>

(28). 긔ᄆᆡᆨ이 통ᄒᆡᆼᄒᆞ야 즉재 됴커니와 다ᄆᆞᆫ ᄉᆞᆫ 다리예 ᄀᆞ장 힘 업세라 <朴通39a4>

(29). 남경치ᄂᆞᆫ ᄆᆞ리 됴코 ᄯᅩ 빗나고 ᄀᆞᄂᆞᆯ어니와 다ᄆᆞᆫ 오래 닙디 몯 ᄒᆞᆯ 거시오<老下25a9>

(30). ᄒᆞᆫ 구렁잠블 ᄆᆞ리 잇ᄀᆞᆺ ᄉᆞᆯ 지고 셕대 됴코 세가 탈 호ᄃᆡ 다ᄆᆞᆫ 져기 거르메 ᄌᆞᄂᆞᄡᅳ고 져기 비로 잇고 ᄯᅩ 져기 굽ᄀᆞ리기 ᄒᆞ더라<朴通63a9>

한편, 「다ᄆᆞᆫ」이 매인이름씨 「ᄉᆞ, ᄉᆞ롬, ᄲᅮᆫ, 만[1], 줄」 등을 꾸미는 매김마디 전체 (아래 예에서 굵은 글자로 된 부분) 를 그 한정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h. 다ᄆᆞᆫ … {ᄉᆞ/ᄉᆞ롬/ᄲᅮᆫ/만/줄}

(31). 다ᄆᆞᆫ 뎐하애 올티 아니ᄒᆞᆫ 부뫼 업슬 ᄉᆞ라 ᄒᆞ여늘<小七04b5>

(32). 縣令이 主簿와로 화동티 몯호ᄆᆞᆫ 다ᄆᆞᆫ 아ᄅᆞᆷ뎌 ᄇᆞᄃᆞ드로 ᄃᆞ톨 ᄉᆞ니라 <小七25a3>

(33). 셩현의 일쳔 마리며 일만 마리 다ᄆᆞᆫ 사ᄅᆞᆷ으로 ᄒᆞ마 노화 ᄇᆞ렷ᄂᆞᆫ ᄆᆞᅀᆞᄆᆞᆯ 가져다가 거두워 다시 모매 드려 오게 코져 ᄒᆞᆯ ᄯᆞᄅᆞ미니 <小八05a8>

(34). 五十步로 ᄡᅥ 百步를 笑ᄒᆞᆫ 則 엇더ᄒᆞ니잇고 ᄀᆞᆯᄋᆞ샤ᄃᆡ 可티 아니ᄒᆞ니 다ᄆᆞᆫ 百步ㅣ 아닐 ᄲᅮᆫ이언뎡 ᄯᅩᄒᆞᆫ 走ᄒᆞᆷ이니이다<孟一07b03>

(35). ᄯᅩ 부려 더러오며 헌 옷 니버 시속을 고텨 일홈 어두믄 아니ᄒᆞ고 다ᄆᆞᆫ 내 셩에 마ᄌᆞᆯ 만 ᄒᆞ노라 ᄒᆞ시더라<小十35a1-2>

(36). 사ᄅᆞᆷ돌히 쳔량읫 거슬 가져다가 父母 ㅅ 긔 올여든 父母ㅣ 다ᄆᆞᆫ 깃븐 줄만 알오 내죵내 이거시 어드러셔 온 것고 ᄒᆞ야 묻디 아니ᄒᆞ니<小九051b5>

「다ᄆᆞᆫ」은,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쓰임에 있어서 월의 특정성분을 한정하여 드러내는 쓰임이 특히 두드러진다. 이때 어찌씨의 한정의 대상이 되는 성분은, 셈숱말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두 가지로 다시 나뉜다.

한편, 월의 사실내용을 한정하는 쓰임도 적지 않이 나타나, 특히 이름씨를 동반한 매김마디가 그 한정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라). 【오직 (只·惟)】

라-0. 개관

「오직」은 16세기의 전 시기에 걸쳐 거의 대부분의 문헌자료에 나타날 만큼 활

---

(1). 이러한 예는 「ᄒᆞᆫ갓」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 글 닐구ᄃᆡ ᄒᆞᆫ갓 잘 니ᄅᆞᆯ 만 ᄒᆞ고 잘 힝티 몯ᄒᆞᄂᆞ니<小八29b4>

발한 쓰임을 보인다. 본고의 조사대상의 문헌에서는 모두 174례가 수집되었다.

각 문헌별 빈도를 보면, 「소학언해」(48례), 「맹자언해」(34례), 「번역소학」(30례), 「초발심자경」·「논어언해」(각 13례) 등에 비교적 자주 쓰이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그 밖에, 「중용언해」(7례), 「대학언해」·「여씨향약언해」(각 5례), 「노걸대」(3례), 「박통사」(4례), 「간찰」 2례, 「속삼강행실도」·「정속언해」(1례), 「이륜행실도」·「간이벽온방」·「분문온역이해방」(각 1례) 등으로 나타난다.

라-1. 월의 특정성분의 한정

「오직」이 월에서 수행하게 되는 기능 중,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것은 월의 한 특정성분 (셈숱말을 제외) 에 대한 한정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앞에서 살펴본 「그저」, 「ᄒᆞᆫ갓」, 「다문」 등과 그 의미나 기능 면에서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오직」의 경우에도, 대립하는 동일계열의 다른 대상을 부정함으로써, 특정한 월성분을 드러내어 강조하게 된다. 이 때, 한정을 받는 대상이 되는 월성분에는 특별한 제약이 보이지 않는다.

앞의 (다-1)의 「ᄒᆞᆫ갓」의 경우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오직」이 월의 특정한 성분을 한정하는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의 용례에 있어서, 그 한정받는 성분에 {-ᅀᅡ/-만/-는/-으란} 등의 도움토씨가 수반된다.

(a). 오직 … {-ᅀᅡ}

(1). 君子ᄂᆞᆫ 中庸을 依ᄒᆞ야 世예 遯ᄒᆞ야 알옴을 보디 몯 ᄒᆞ야도 뉘읏디 아니ᄒᆞᄂᆞ니 오직 聖者ㅣᅀᅡ 能ᄒᆞᄂᆞ니라<中庸08b07>

(2). 이 닐온 오직 仁ᄒᆞᆫ 사ᄅᆞᆷ이ᅀᅡ 能히 사ᄅᆞᆷ을 ᄉᆞ랑ᄒᆞ며 能히 사ᄅᆞᆷ을 아쳐 홈이니라<大學25b03 cf.論一31a03>

(3). 오직 天下읫 지극ᄒᆞᆫ 誠이ᅀᅡ 能히 天下읫 큰 經을 經ᄒᆞ며 綸ᄒᆞ며 天下읫 큰 本을 立ᄒᆞ며 天地의 化育을 아ᄂᆞ니 엇디 倚ᄒᆞᆫ 배 이시리오 <中庸51a10>

(4). 오직 혬메 ᄉᆞ랑호미 지극ᄒᆞ야 겨지븨 마릐 옮디 아니ᄒᆞ리ᅀᅡ 면ᄒᆞ린 뎌<小七40a8>

(5). 후에 나ᄂᆞᆫ 사ᄅᆞ미 지조홀 셩이 놈두곤 더으니ᄂᆞᆫ 저프디 아니ᄒᆞ고 오직 글 닐구매 ᄎᆞ자 ᄉᆡᆼ각ᄒᆞ야 궁구ᄒᆞᄂᆞ니ᅀᅡ 저프니라<小八37b8>

(6). 오직 이러트시 ᄒᆞᆫ 후에ᅀᅡ 뎐하애 아비아ᄃᆞᆯ 도엿ᄂᆞᆫ 사ᄅᆞ미 일뎡ᄒᆞ리니<小七05a3>

위의 (a)에는 점선으로 표한 바와 같이 월의 임자말(1~5), 위치말(6) 등의 성분에 모두 도움토씨 {-ᅀᅡ} 를 동반하여 쓰이고 있다.

월의 한 특정성분이 어찌씨 「오직」의 한정을 받는 경우, 이 도움토씨의 존재

는 그 피한정어의 한정범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1)

이 때 피한정어로 기능하는 성분은, (1)의 「聖者」와 같이 한 낱말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2~6)과 같이 매김말을 수반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 외에도 다음의 (b)와 같은 도움토씨들에 의해 「오직」의 한정을 받는 월성분을 유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b. 오직 … {-만/-으란/-옷/-ᄂᆞᆫ}

(7). 이 여러 등약 등에 음식 머믄 것 고틸 거슬 머검즉ᄒᆞ니 오직 檳榔丸 ᄒᆞᆫ 복만 머글 거시니<老下40b5>

(8). 말ᄉᆞᆷ ᄇᆡ호ᄂᆞᆫ 사ᄅᆞᆷ을 조차 오직 이베만 츄ᅵ ᄒᆞ여 일우디 마롤디니라 <初發16a5>

(9). 사ᄂᆞᆫ 싸히 먼 사ᄅᆞᆷ은 오직 ᄉᆞ미삭만 몯고 ᄯᅩ ᄀᆞ장 먼 사ᄅᆞᆷ은 ᄒᆞᆫ히예 ᄒᆞᆫ 번곰 두 번곰 와도 므던ᄒᆞ니라<呂氏31a10/鄕約37b4>

(10). 만가짓 거ᄉᆞᆫ 가져 가디 몯 ᄒᆞ고 오직 업보옷 모ᄆᆞᆯ 좃ᄂᆞ니라<初發53b4>

(11). ᄌᆞ식글 ᄉᆞ랑컨마ᄅᆞᆫ 오직 이 아ᄉᆞᆫ 나디 아니 ᄒᆞ여셔 아비 죽그시거ᄂᆞᆯ 내 길어 내여 이만 도ᄋᆡ엿ᄂᆞ니<二倫12a11>

(12). 쥬신이 모ᄃᆞᆫ 손ᄋᆞᆯ 이바도ᄃᆡ 우히 ᄒᆞ던 례도 ᄀᆞᆮ디 홀디니 오직 수ᄋᆞᆯ 받ᄌᆞ올 제ᄂᆞᆫ 절ᄒᆞ디 말 거시라<呂氏21b06/鄕約25b5>

(13). 오직 쉰 후에 긔우니 사오나와 모로매 술 고기ᄅᆞᆯ 머게ᅀᅡ 살 리ᄂᆞᆫ 구틔여 그리 마라도 ᄒᆞ리라<小七18b6>

(b)의 용례에서도, 앞의 (a)에서와 같이 각각의 도움토씨가 결합된 월성분이 「오직」의 한정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직」이 월의 특정성분을 한정하는 경우, 다음의 (c)에서와 같이 특별한 도움토씨의 도움을 빌지 않는 무표적인 예가 있다.

c. 무표적인 경우

(14). 벼슬와 록괘 문의 미처 오디 몯ᄒᆞ고 문 밧긔 오직 구윗 쳔신 나 와 곡식을 뭃이며 ᄯᅩ 돈을 내라 ᄒᆞᄂᆞ다<小九098b6>

(15). 치식ᄒᆞᆫ 술위ᄅᆞᆯ ᄐᆞ디 아니ᄒᆞ고 오직 대로ᄒᆞᆫ 교ᄌᆞᄅᆞᆯ 타 프른 옷 니븐 죵 둘히 거러 미조차 가더라<小九106b1>

(16). 사ᄅᆞ미 날 어딘 줄 아디 몯 호무란 분별 마오 오직 내 ᄇᆡ호미 지극디 몯 호ᄆᆞᆯ 분별ᄒᆞ라<小六22a6>

(17). 벼슬흘 셩슈ᄂᆞᆫ 업다 오직 홍졍호미 맛당ᄒᆞ고 나ᄃᆞ리 흠도 휜촐타 <老下71a9>

---

(1). 용례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풀이씨의 씨끝 {-어ᅀᅡ} 의 일부를 이루는 {-ᅀᅡ} 의 경우에도 그 기능면에서는 위의 (a)와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오직 ᄌᆞ자 ᄉᆡᆼ각ᄒᆞ야 ᄠᅳ들 ᄲᅧᅀᅡ 어들 거시니 쉽사리 잠ᄭᆞᆫ ᄒᆞ야 어즈러오ᄆᆞᆯ 아쳐러 ᄒᆞᄂᆞ니ᄂᆞᆫ 결연히 일우리 업스니라<小八38a2>

(c)와 같이, 「오직」의 한정대상에 도움토씨와 같은 유표적인 수단이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정대상과 대립적 관계를 이루는 대상이 앞마디(14~16)나 앞의 월(17)에 나타난다.

(14)에서는 「벼슬, 록」과 「구읫 치ᄉᆡ」, (15)에서는 「치식한 술위」와 「대로ᄒᆞᆫ 교ᄌᆞ」가 각각 대립관계를 이룬다.

(16~17)은 이름법의 씨끝 {-옴} 에 의한 이름마디가 월의 임자말로 쓰인 예인데, (16)에서는 「사ᄅᆞ미 날 어딘 줄 아디 몯 ᄒᆞᆷ」과 「내 ᄇᆡ홈이 지극디 몯ᄒᆞᆷ」이, (17)에서는 「벼슬할 ᄉᆡᆼ슈」와 「훙졍홈」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월에서의 「오직」의 기능은, 서로 대립관계를 이 두 대상 중 전자를 부정하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후자를 강조하여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직」의 한정대상이 월의 풀이말 성분을 이루는 일이 있다.

(18). 子ㅣ ᄀᆞᄅᆞ샤ᄃᆡ 근심 업ᄉᆞ니ᄂᆞᆫ 그 오직 文王이신뎌〈中庸18b09〉
(19). 삼도 슈고 근본은 어ᄃᆡ로브터 니뇨 / 오직 이 다ᄉᆡᆼ의 졍을 탐호미라〈初發54a7〉
(20). 오직 ᄉᆡᆼ인은 性대로 ᄒᆞ시ᄂᆞᆫ 者ㅣ라〈小學一書辭02a02〉

「오직」의 어순에 있어서는, 풀이말의 바로 앞에 나타나는 경우(18)와, 월의 첫머리에 서는 경우(20)의 두 가지가 있다.

라-2. 셈숱말의 한정

한편, 「오직」의 경우에는 월에 셈숱말의 출현을 요구하여 한정하는 예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21). 벼슬 ᄒᆞ여셔 ᄒᆞ올 법이 오직 세 이리읫ᄂᆞ니〈小七27a5〉
(22). 오직 ᄒᆞᆫ가짓 ᄂᆞᆺ가온 은으란 날 주디 말오 됴ᄒᆞᆫ 은을 날 다고려〈老下14a3〉

특히, (22)에서는 셈숱말이 이끄는 「ᄒᆞᆫ가짓」은 「ᄂᆞᆺ가온 은」을 뜻하며, 이는 뒷마디의 「됴ᄒᆞᆫ 은」과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다.

라-3. 사실의 한정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정의 말재어찌씨의 기능은 그 쓰임에 있어서의 편중은 있을지라도, 그 대상의 범위에 따라 셈숱말 이외의 특정성분, 셈숱말, 월 전체의 사실을 각각 대상으로 하는 세 기능을 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직」의 경우에는 앞의 사실을 받아, 단서(但書)·제한(制限) 등을 붙이는 쓰임에 있어서, 사실의 한정적인 기능이 두드러진다.

다음에 보게 될 예들은 이음겹월의 뒷마디에 「오직」이 나타나, 앞의 사실에

대한 단서 · 제한을 강조하는 것이다.

d. … {-거니와/-ᄃᆡ} 오직 … {-더라/-으리라}

(23). 뎌긔 ᄒᆞᆫ 고라 ᄆᆞ리 이쇼ᄃᆡ ᄌᆡ조ᄂᆞᆫ 됴커니와 오직 뒷 지페 디더라 <朴通62b8>

(24). ᄒᆞᆫ 디픈 총이 ᄆᆞ리 잘 ᄃᆞ로ᄃᆡ 오직 앏거티더라<朴通63a1>

(25). 내 ᄂᆞᄆᆡ게셔 더은 이리 업거니와 오직 平生애 ᄒᆞ온 이리 ᄂᆞᆷ 더브러 몯 닐올 이리 업스리라<小十22a4>

(d)는 각각 불구법 및 설명법의 이음씨끝 {-거니와/-ᄃᆡ} 에 의한 이음겹월의 짜임을 이루고 있다. (23~25)는 모두 앞마디의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뒷마디의 사실이 앞의 사실과 대립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오직」이, 앞의 사실에 대한 단서 · 제한으로서의 사실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뒷마디가 당위 혹은 시킴의 월로 이루어진 예를 자주 볼 수 있다. 이 때에는, 「오직」이 이끄는 단서의 사실이 이음겹월의 뒷마디에 위치하는 일이 보통이다.

e. … {-언뎡} 오직 … {-올디니라}

(26). 기려 츄원호ᄃᆡ 모로매 문ᄌᆞ를 외와 ᄠᅳ들 관홀디언뎡 오직 음셩을 좃디 말며 소리 곡됴롤 됴화티 아니케 말며 존안올 공경ᄒᆞ여 보ᄉᆞ와 다ᄅᆞᆫ 경의 연ᄉᆞ 본ᄃᆞᆼ긔여 헤디 말롤디니라<初發08b6>

(27). 오직 부텨 셩인 말ᄉᆞ몰 의종홀디언뎡 용샹ᄒᆞᆫ 무릐 거즛말란 슌종티 마롤디니라<初發02b2>

(28). ᄒᆞ다가 ᄃᆞ토리 잇거든 두 말로 화합게 ᄒᆞ야 오직 ᄌᆞ빗 ᄆᆞᅀᆞ무로 서ᄅᆞ 향홀디언뎡 모딘 말로 ᄂᆞᆷ 샹케 마롤디니라<初發03a2>

(29). 긔 ᄃᆡ졉ᄒᆞ야 말ᄉᆞᆷ홀 ᄎᆞ애 가츄롤 펴디 말고 오직 원문의 불ᄉᆞ롤 잔탄홀 ᄲᅮᆫ니언뎡 고방의 가 잡일 보고 의혹 내디 말롤디니라<初發11a3>

(e)에서는, 불구법의 씨끝 {-언뎡} 에 의한 이음겹월의 뒷마디에 「오직」이 쓰이고 있다. (26~28)은 매인이름씨 {ᄃᆞ}, (29)는 {ᄲᅮᆫ} 을 꾸미는 매김마디 전체가 「오직」의 한정대상이 되고 있다.

「오직」이 월 전체의 사실을 한정의 대상으로 하여, 앞의 사실에 대한 단서 혹은 제한의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 (e) 이외에도, {-ᄃᆡ, -은댄} 등의 씨끝에 의한 이음겹월에 나타남을 허용한다.

f. … {-ᄃᆡ/-은댄} 오직 … {-올디니/-으라/-올거시라}

(30). ᄒᆞᆫ가짓 子書를 닐구ᄃᆡ 댱수란 해호려 말오 오직 졍히 니기 닐곰디니<小八35a2>

(31). ᄃᆞ려 셔셔 ᄂᆞᄆᆡ 례도롤 보게 호ᄃᆡ 오직 음식 회ᄎᆞ애 참예티 몯ᄒᆞ게 ᄒᆞ고 각별이 돈올 가도와 잠산 다ᄅᆞᆫ ᄡᅡ해 가 뎜심ᄒᆞ게 ᄒᆞ라<呂氏32a01/鄕約38b1>

(32). 위연ᄒᆞ며 되요믈 아로려 홀딘댄 오직 ᄯᅩᆼ을 ᄃᆞᆯ며 ᄡᅳ믈 맛볼 거시라 〈小九031b2〉

「오직」이 월의 사실을 한정하는 경우의 특징으로서는, (f)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정대상과 대립을 이루는 것이 특정한 월성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오직」의 한정을 받는 사실은, 위의 (e)에서와 같이, 매인이름씨에 이끌리는 매김마디를 구성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난다.

g. 오직 … {ᄯᆞᄅᆞᆷ/줄/ᄲᅮᆫ/바}

(33). 만이레 몬져 과글이 로ᄒᆞ면 오직 제게 해홀 ᄯᆞᄅᆞ미니 엇디 ᄂᆞᄆᆞᆯ 해ᄒᆞ리오〈小七29a6〉

(34). 이제 다시 예셔 더으게 ᄒᆞ야 만히 남게 ᄒᆞ면 오직 ᄌᆞ손을 게읔우ᄆᆞᆯ ᄀᆞᄅᆞ칠 ᄯᆞᄅᆞ미니라〈小九089b1〉

(35). 내 ᄌᆞ구믄 벌에 즘승 ᄀᆞᆮᄒᆞ야 앗갑디 아니 ᄒᆞ려니와 오직 내 항거시 죄 업시매 마자 귀향 가ᄂᆞᆫ 주ᄅᆞᆯ 셜워 ᄒᆞ노라〈續三205b03〉

(36). ᄒᆞ다가 이ᄀᆞᆮ티 리ᄅᆞᆯ 알면 오직 제도 닷디 몯호ᄆᆞᆯ ᄒᆞᆫ홀 ᄲᅮ니언뎡 엇디 말셰라 ᄒᆞ야 슬허 ᄒᆞ리오〈初發45b3〉

(37). 君子의 可가히 밋디 몯 홀 바ᄂᆞᆫ 그 오직 사ᄅᆞᆷ의 보디 몯 ᄒᆞᄂᆞᆫ 바엔뎌〈中庸53a10〉

한편, 「오직」이 월의 사실을 한정하는 경우의 독특한 예로서, 다음과 같이 월의 따옴마디의 사실 전체를 한정하는 것들을 들 수 있다.

(38). 今에 民의 產을 制호ᄃᆡ…凶年에 死亡에 免티 몯게 ᄒᆞᄂᆞ니 이ᄂᆞᆫ 오직 死ᄅᆞᆯ 救호ᄃᆡ 贍티 몯홀까 恐ᄒᆞ거니 어ᄂᆡ 겨를에 禮義ᄅᆞᆯ 治ᄒᆞ리오〈孟一34a03〉

(39). 어듸ᄯᅡᆫ 상급 ᄒᆞ시기를 ᄇᆞ라리잇가 小人는 바티ᄉᆞ오미ᅀᅡ 올ᄒᆞ니 오직 워두로 ᄡᅳ시과뎌 원ᄒᆞ노이다〈朴通60a8〉

(40). 오직 나ᄒᆞᆫ 후에 ᄇᆞᄅᆞᆷ 들가 전노라〈朴通55b4〉

(41). 弘이 듣고 괴이히 너겨 묻ᄂᆞᆫ 주리 업고 오직 ᄃᆡ답ᄒᆞ야 닐오ᄃᆡ 포육 ᄆᆡᆼᄀᆞᆯ라 ᄒᆞ고 안ᄊᆡ놀…〈小九078a3-4〉

이때에는 따옴마디를 요구하는 풀이씨 (恐ᄒᆞ다, 원ᄒᆞ다, 젓다, ᄃᆡ답ᄒᆞ다) 가 쓰이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 「오직」의 분포를 종합해 볼 때, 월의 특정성분이나 월 전체의 사실을 한정하여 강조하는 쓰임이 매우 활발한 대신, 셈숩말과 호응하여 한정하는 쓰임은 극히 제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앞으로 살펴볼 「대되/대도이」, 「거싀/거스/거싀/거이/거의」나 「계오/계요/계우/겨오」와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마). 【특별이 / 특별히 (特·異)】

마-0. 개관

「특별이」는 16세기 문헌 중 「여씨향약언해」에 3례, 「번역소학」 및 「소학언해」에 각각 1례씩 나타날 뿐이며, 「특별히」의 경우에도 「간이벽온방」에 1례가 나타날 뿐으로, 그 쓰임이 매우 국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1. 월의 특정성분의 한정

앞에서 살핀 각 어찌씨 「그저, ᄒᆞᆫ갓, 다믄」과 마찬가지로, 「특별이」[1]의 경우에도, 월의 특정성분을 한정하는 쓰임이 현저하다.

(1). 만이례 특별이 벼슬ᄒᆞᆫ 사ᄅᆞᆷ이 잇거든 존ᄒᆞᆫ 사ᄅᆞᆷ의 션녁 겨틔 안조ᄃᆡ 남녁 을 향ᄒᆞ야 동녁을 우 사ᄆᆞ라<呂氏33b05/鄕約41a3>

(2). ᄉᆞ려ᄒᆞ샤 특별히 行副護軍 臣 金順蒙…을 命ᄒᆞ사<簡易序2b1>

(3). 손 등에 나 하고 벼슬 노ᄑᆞᆫ 사ᄅᆞᆷ이 잇거든 특별이 받ᄌᆞ오ᄆᆞᆯ 위두 손ᄋᆡ 받ᄌᆞᆸᄃᆞ시 호ᄃᆡ 그 손은 답례 아니 홀 거시라<呂氏21b07/鄕約25b6>

마-2. 사실의 한정

한편, 「특별이」가 다음에 보이는 것과 같이, 풀이말의 바로 앞에 나타나는 경우, 의미상으로 볼 때, (4)에서와 같이, 어찌씨의 앞에 위치한 부림말을 포함하여 월에 나타난 사실 전체를 한정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4). 신해 되여셔 님금을 소기디 아니호문 貞졀ᄒᆞ니 그 죄ᄅᆞᆯ 특별이 ᄇᆞ려 어딘 줄을 나토아 내요미 맛당ᄒᆞ도다<小九047b1>

(5). 만이례 특별이 쳥ᄒᆞ야 이바디ᄒᆞ거나 혹 마지어나 위로ᄒᆞ어나 젼송이어든 다 위ᄒᆞ야 쳥ᄒᆞᆫ 사ᄅᆞᆷ으로 위두손을 삼고<呂氏20b08/鄕約24a8>

즉, (4)의 어찌씨 「특별이」는, 이름마디를 이루는 「그 죄를 ᄇᆞ려 어딘 줄을 나토아 내욤」을, (5)에서는 「청하여 이바지하는」 행위를 한정한다고 볼 수 있다.

「특별이」의 경우, 그 용례가 매우 국한되어 있어 그 쓰임을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위의 (1~3)과 같이 월의 특정성분만을 한정하는 경우와, (4~5)에 보이는 바와 같이 월의 진술내용 전체를 한정하는 두 가지의 쓰임이 있을 수 있다.

(바). 【독벼리 / 독버리 (偏)】

(1). 이하, 「특별이」로 대표하기로 한다.

바-0. 개관

「독벼리」의 경우, 16세기의 문헌에서의 쓰임으로서는 「노걸대」에 4례(독벼리 3 ; 독버리 1)가 나타날 뿐이다.

바-1. 월의 특정성분의 한정

(1). 독벼리 내라 ᄒᆞ야 외방의 나ᄃᆞ리 아니 홀가<老上41b5>
(2). ᄯᅩ 여라믄 사ᄅᆞ미 머글 ᄲᅮ니 아니라 아랫 번당은 독벼리 아니 머그려<老下39b5>
(3). 네 독벼리 모ᄅᆞᄂᆞ고나<老上27a1>
(4). 내라 독벼리 너를 ᄇᆞ리려<老上45a3>

「독벼리」의 쓰임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1)에 보이는 것과 같이 어찌씨에 뒤따르는 임자말 「나」를 한정하는 경우와, (2~4)와 같이 뒤따르는 성분이 아니라 오히려 앞에 나타난 성분 「아랫 번당」(2), 「너」(3), 「나」(4)를 각각 한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제까지 보아온 어찌씨들과 약간 다름을 보인다.

그리고 월의 서법상의 특징으로서는 물음월(1~2, 4)과 강조·영탄법의 월(3)에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독벼리」의 경우, 그 쓰임에 있어서, 월의 특정성분을 한정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앞에서 다룬 「그저, ᄒᆞᆫ갓, 다믄, 특별이」와 매우 유사한 기능을 가지나, 어찌씨의 앞에 서는 성분을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용례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Ⅵ-2. 셈숱말의 한정적 말재어찌씨

이들 어찌씨들은, 월의 특정한 성분의 한정적 기능을 지닌다는 면에서, 위에서 살펴본 「특정성분의 한정적 말재어찌씨」와 공통된 일면을 지닌다.

「셈숱말 한정적 어찌씨」는, 반드시 같은 월에 셈숱말의 출현을 요구하는 것을 가장 주된 기능으로 삼는다는 면에서, 셈숱말보다는 다른 월성분의 한정기능을 지닌 어찌씨들과 구별된다.

이 부류에는 「대되/대도히」, 「거ᅀᅳ/거싀/거시/거ᅀᅵ/거의」, 「계오/계요/계우/겨오」가 속한다<표10-1, 표10-2참조>.

(가). 【대되 / 대도히 (共通·通該·共·通·大家)】

가-0. 개관

「대되/대도히」의 32례(대되 30, 대도히 2)는, 16세기의 초기와 중기의 자료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초기의 자료 중에서는 「노걸대」(대되 19)에 출현하며, 「박통사」(대되 1 ; 대도히 2) · 「속삼강행실도」(대되 1)에 나타나며, 중기의 자료에서는 「분문온역이해방」(대되 1)과 「간찰」(대되 6)에 보인다.

가-1. 셈숱말의 한정

「대되」[1]는, 거의 대부분의 용례에 있어서, 월에 나타난 셈숱말과 호응하여 이를 한정하는 쓰임을 보여 준다. 이 점에 있어서, 같은 「월의 특정성분의 한정적 말재어찌씨」에 속하는 (가~바)의 「그저, ᄒᆞᆫ갓, 다ᄆᆞᆫ, 오직, 특별이, 독벼리」 등과 약간의 다름을 보인다.

즉, 「그저, ᄒᆞᆫ갓, 다ᄆᆞᆫ, 오직, 특별이, 독벼리」 등이 셈숱말 이외의 월성분을 한정하는 쓰임이 두드러지는데 비해[2], 「대되」와 「거의」의 경우에는 셈숱말과 호응하여 이를 한정하는 기능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또한 앞에 고찰한 「그저, ᄒᆞᆫ갓, 다ᄆᆞᆫ, 오직, 특별이, 독벼리」 등의 어찌씨들은, 한정대상의 월성분과 대립적 계열관계를 이루는 다른 말 (대상) 을 부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정대상의 성분을 강조하여 드러내게 되는 「배타적 한정관계」를 보인다.

이에 대해, 셈숱말에 대한 한정을 나타내는 「대되」와 「거의」, 「계오」는, 「다ᄆᆞᆫ」의 경우에 본 바와 같이, 셈숱말 간의 배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일도 있으나, 대립적 관계를 이루는 한정대상을 상정하기 어려운 용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를 앞의 「배타적 한정관계」와 구별하여, 「비배타적 한정관계」라고 하기로 하자. 이러한 셈숱말의 비배타적인 한정관계를 나타내는 어찌씨들은, 셈숱에 대한 헤아림 (見積) 혹은 셈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셈숱에 대한 헤아림 혹은 평가를 나타내는 경우, 아래의 (a)에서와 같이, 조건을 나타내는 제약법의 이음씨끝 {-으면} 에 의한 이음마디에 나타난 사실을 근거로 하는 월의 구조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a. … {-으면} 대되 (셈숱말)

(1). 우리 셜흔 사ᄅᆞ미 각각 돈 일빅곰 내면 대도히 돈이 삼쳔 나치로소니 유예 ᄡᅳ리로다<朴通01b9>

(2). 여숫 낫 면피에 ᄆᆡ ᄒᆞᆫ 나치 세 돈식 혜면 대도히 ᄒᆞᆫ 량 여듧 돈이로다<朴通32b9>

(3). 이 여숫 가지에 드리면 쉰 량 은이니 대되 ᄉᆞ빅 량 은이니 ᄒᆞᆫ 큰 지블 삭 물오 드러 이쇼리라<朴通20b9>

---

(1). 이하, 「대되」로 대표하기로 한다.

(2). 이 중, 「다ᄆᆞᆫ」의 경우에는, 셈숱말을 한정하는 기능과 그 외의 성분을 한정하는 기능이 거의 대등하게 혼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정적 말재어찌씨」는, 많건 적건, 이 두 기능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어찌씨에 따라서 어느 쪽 기능이 강하게 겉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 스믈 근에 열량식 ᄒᆞ면 대되 헤니 쉰량이로다〈老下59a2〉

(a)에서 볼 수 있듯이, 어찌씨 「대되」는 「다 합하면, 통틀어」라는 의미로 쓰여, 월의 셈숱말을 드러내어 그 셈숱의 개략적인 최저한도를 나타냄으로써 강조한다.[1]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대되」의 한정을 받는 셈숱말의 경우, 월성분으로서는 잡음씨 {-이다}를 동반하여 풀이말 자리에 서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a)에서와 같은 전제조건의 앞마디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어서, 다음의 (b)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 예들인데, 이러한 전제조건의 표현이 없이 「대되」가 나타난다.

b. 전제되는 조건이 없는 경우

(5). ᄒᆞ나ᄒᆡᆷ 갑슬 니ᄅᆞ라 / 대되 一百四十兩 銀을 바도리라〈老下10a8〉

(6). 모도와 언머만 갑새 ᄑᆞᆯ오져 ᄒᆞᄂᆞᆫ다 / 내 대되 석량 은을 바도리라〈老下22a3〉

(b)에서는, 「대되」의 한정대상인 셈숱말이 월의 부림말로 쓰인 예이다.

한편, (a · b)의 경우, 홑월에 나타나는 경우는 물론이고, 겹월에 나타난 경우에 이음마디에 서건 마침마디에 서건 관계없이 그 월의 끝마디는 모두 서술법의 월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다음의 (c)이 나타난 예들을 보면, 물음법의 월에 있어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c. 대되 … {몇/언머} … {-고/-ᄂᆞᆫ고/-으뇨}

(7). 너희 대되 몃 사ᄅᆞᄆᆡ 몃 ᄆᆞᆯ오〈老上67a5〉

(8). 대되 언머고〈老上62a6〉

(9). 밤마다 먹는 딥과 콩이 대되 언머만 쳔이 드ᄂᆞᆫ고〈老上11b9〉

(10). 우리 대되 여라믄 사ᄅᆞ미 엇디 두량 은읫 수를 머그뇨〈老下39b1〉

(c)의 경우, 셈숱의 헤아림을 나타내는 「대되」가 나타남으로써, 그 물음월에 반드시 셈숱을 나타내는 의문사 「몇」, 「언머」등이 호응하여 나타나야 함을 보여 준다.

특히, (10)은 의문사 「엇디」를 동반한 반문에 「대되」가 나타난 예인데, 이 때 이 어찌씨는 바로 뒤의 임자말 「여라믄 사ᄅᆞᆷ」의 셈숱을 한정한다.

한편, 다음의 (d)에서는 「대되」가 시킴법의 월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다.

d. 대되 … (셈숱말) … {-으라}

(11). 집사ᄅᆞ미 대되 남지ᄂᆞᆫ 열 낫 겨지븐 스므 낫솔 머그라〈分門05a02〉

---

(1). 다음은 「대되」가 셈숱말과 관계없이 월에 나타난 예이다. 이 경우 「대되」는 「대체로」에 가까운 뜻으로 해석된다.

◎ 네 보람 두어ᅀᅡ 대되 편안ᄒᆞ리라〈老下65a5〉

◎ 우리 다 니러ᅀᅡ 대되 므슴 노ᄒᆞ리로다〈老上64a6〉

(12). 칠월 초닐웻날 집사ᄅᆞ미 대되 블근 ᄑᆞᆺ 두 낟곱 나ᄎᆞᆯ ᄒᆡ님 향ᄒᆞ야 ᄉᆞᆷ기라<分門08a05>

앞의 (a~d)를 통해 볼 때, 한정적 말재어찌씨 「대되」는, 비록 피임법의 월의 예가 보이지는 않지만, 월의 마침법의 서법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정적 말재어찌씨의 일반적인 특성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다음의 (e)에는 「대되」의 한정대상어로서의 셈숨말 자리에 「반」과 「다」가 쓰이고 있다.

e. 대되 … {반/다}

(13). 이 칠ᄒᆞᆫ 그릇 연장들 바ᄂᆞᆫ 대되 뵈로 ᄡᆞ니오 바ᄂᆞᆫ 플 드리고 칠ᄒᆞᆫ 거시라<老下33b1>

(14). ᄯᅩ 神仙敎法의 ᄉᆞ무ᄉᆡ 즛두드린 즙을 립츈 디난 쳣 경ᄌᆞ 나래 집 사ᄅᆞᆷ 대되 다 하나 져그나 머그면 시긧 병 고티리라<分門04b06>

(13)에서는, 「대되」와 셈숨말의 위치관계가 다른 용례에서와는 달리 반대로 되어 있다. 이는 「대되」가, 앞의 (바)에서 살펴본 「독벼리」와 마찬가지로, 월에 있어서 그에 앞서는 성분을 한정하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거싀 / 거ᄉᆞ / 거ᄉᆡ / 거ᄋᆡ / 거의 (庶·略·約·幾·將·尙)】

나-0. 개관

이들 어찌씨는 빈도의 면에서 보면 그리 활발히 쓰인 어찌씨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초기와 말기의 문헌에 걸쳐 모두 20례가 출현하여, 형태를 바꾸어 가면서도 꾸준히 쓰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분포를 보면, 「노걸대」에 「거ᄉᆞ」·「거싀」가 각각 1례씩, 「번역소학」 「거싀」가 1례, 「이륜행실도」에 「거ᄉᆡ」·「거싀」가 각각 1례씩으로 나타난다.

한편, 「간이벽온방」(1524)으로부터 「경민편」(1579)에 이르는 시기의 각 문헌에서는 위의 어느 형태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말기의 문헌에는, 「거ᄉᆞ, 거싀, 거ᄉᆡ」의 형태는 쓰이지 않게 되고, 「거의」로 통일되게 된다. 「소학언해」에 「거의」가 6례, 「거ᄋᆡ」가 1례 나타나는 것을 비롯하여, 「맹자언해」에 「거의」가 5례, 「중용언해」, 「대학언해」에 「거의」가 1례 나타난다.

「거의」[1]는 월의 특정한 서법형식과 필수적인 호응은 하지 않는다. 대신,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월의 셈숨말로 이루어진 성분과 호응[2], 셈숨에 대한 평가

---

(1). 이하; 빈도가 가장 높은 「거의」로 대표하기로 한다.

(2). 고정의(1985:4~5)에서는 「거싀」를 정도어찌씨로 보아, 「상태동사를 수식하는 한편, 동작이나 상태의 완결에 극히 근접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기술하고 있다. 현대 국어에 있어서의 「거의」에 대해서는 졸고(1991a:247~249) 참조.

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 때의 「평가」란 무엇에 대한 평가인가에 따라, 한정을 받는 셈숱말의 셈숱에 대한 근접성을 나타내는 경우와, 어떤 행위의 결과에 기인한 상태에의 (넓은 의미의 셈숱이라 할 수 있는) 심리적 거리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심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론적인 특성은, 월 (주로 풀이말의 부분) 의 성분과의 공기관계에 반영된다. 「거의」 의 월에 있어서의 다른 월성분과의 공기관계는 크게, 풀이말의 앞에 셈숱말을 동반하는 경우와, 그러한 셈숱말 없이 직접 풀이말의 바로 앞에 「거의」 가 위치하는 경우의 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나-1. 셈숱말의 한정

「거의」가 월의 셈숱말에 의한 성분과 호응하여, 이를 한정하는 예로서는 다음의 (a)를 들 수 있다.

a. 거의 … 셈숱말

(1). 伯康의 나히 거의 여ᄃᆞᆫ이어늘 公이 위와도ᄅᆞᆯ 아비ᄀᆞ티 ᄒᆞ며<小九079b6>

(2). 내 몬졋 버늬 北京의 녀러 올 제 네 이 뎜 셧녁겨틔 거ᅀᅳ 이십릿 ᄯᅡ해 ᄒᆞᆫ 곧 ᄃᆞ리 믈어 디여 잇더니<老上26a7>

(3). 나ᅀᅡ가 거ᅀᅴ ᅀᅵ십리만 ᄯᅡ해 다ᄃᆞ라<老上29b9>

(a)에 나타난 「거의」는 모두 그 뒤의 풀이말(1)과 위치말(2~3)로 쓰이고 있는 셈숱말의 성분과 호응하고 있다.

이 때, 「거의」가 셈숱말과 호응하여 나타내는 의미는, 셈숱말이 나타내는 셈숱에의 근접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근접성은, 셈숱말의 셈숱을 최고점으로 하는 것으로서, 결코 그보다 많거나 넘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해, (1)에서는 「거의」에 의해 한정지어 지는 「伯康의 나이」는 결코 여든을 넘을 수는 없으며, 여든에 근접한 셈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에서의 「무너진 다리가 있는 곳」은 결코 「이 뎜」에서 이십리를 넘을 수 없으며, (3)의 「나아가 다다른 곳」 역시 이십리를 넘을 수 없다.

여기서의 「근접」의 정도는 주관적인 것으로, 말할이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거의」에 의해 나타내지는 근접적 거리는 객관적으로 셈숱화할 수 없다.

나-2. 사실의 한정

(나-1)에서 언급한 「거의」에 의해 드러나는 의미로서의 「근접성」은, 이 어찌씨가 셈숱말 없는 월의 풀이말의 바로 앞에 날 때에도 같은 이치로 적용된다.

b. 거의 …풀이말

(4). ᄒᆞ개 어엿비 너겨 ᄒᆡ여 보니 제 잠 메온 거시 거ᅀᅴ ᄎᆞᆯ갈가 식브거늘 다 주니라[…略當其數…]<二倫43b09>

(5). 그런ᄃᆞ로 글 ᄇᆡ호ᄂᆞᆫ 사ᄅᆞ미 반ᄃᆞ시 이ᄅᆞᆯ 말ᄆᆡ 사마 ᄇᆡ호면 거싀 그르디 아니ᄒᆞ리라<小八31a7>

(b)의 「거의」는 모두 그 뒤에 풀이말을 이끌어 호응하고 있는데, 이 중 (5)는 지움월에 나타난 예이다.

(4)에서는 원문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월의 표면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셈숱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거싀」는 그러한 셈숱을 충족시킨 상태로의 근접성을 나타낸다. 한편, (5)에서는 글을 배운 결과로서의 「그르지 않게 된 상태」에 가까워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거의」 역시 월의 셈숱말과 호응하여 이를 한정하는 쓰임을 지니고 있으며, 이때 그 셈숱말에 의해 나타내어 지는 셈숱에의 근접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거의」가 셈숱말 없는 월에 나타나 풀이말의 바로 앞에 설 경우에도, 추상적인 셈숱으로서의 「결과나 상태」에의 근접성을 나타낸다.

(다). 【겨오 / 겨요 / 겨우 / 겨오 (纔·僅·剛·剛剛的)】

다-0. 개관

이 어찌씨는 16세기 자료상에서, 「계오」(12례), 「계요」(1례), 「계우」(4례), 「겨오」(4례) 위의 네가지 형태를 보여준다. 이 중, 「계요/계우」는 초기의 자료에 간혹 나타나다가 곧 자취를 감추고 만다. 「계오」는 「번역소학」에 단 1례가 나타날 뿐이고, 「계우」는 초기의 「노걸대」·「박통사」·「속삼강행실도」에 각각 1례씩 나타난다.

한편, 중기의 자료인 「간찰」(1563경)에는, 「계오」(10례)와 「겨오」(3례) 두 가지의 형태가 같이 쓰이고 있다.

이 어찌씨의 경우, 앞서 살핀 「거의」와 마찬가지로, 「계오」(1) 역시, 셈숱말 성분과 호응하는 경우와 풀이말의 바로 앞에 서는 두 가지의 쓰임을 보인다.

전자의 경우, 셈숱에 대한 말할이의 평가를 드러낸다는 점, 그리고 후자의 경우 풀이씨의 직전에 위치하여, 양태어찌씨와 유사히, 풀이말을 꾸미면서, 그 풀이말의 드러내는 행위에 대한 심리적인 평가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거의」와 「계오」는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 준다.

다-1. 셈숱말의 한정

아래의 (a)는 「계오」가 셈숱말과 호응하는 예이다.

a. 계오 …셈숱말

(1). 이하, 빈도가 가장 높은 「계오」로 대표하기로 한다.

(1). (呂榮公이) 계오 열설 머거셔 쇠 치운 저긔며 덥고 비오ᄂᆞᆫ 저긔도 뫼ᅀᆞ와 … 안ᄌᆞ라 아니ᄒᆞ시거든 안셔 아니ᄒᆞ시더라<小九002b1>

(2). 열여ᄉᆞᆺ신 제 草溪 잇ᄂᆞᆫ 安近이ᄅᆞᆯ 어러 계우 두ᅀᅥ 나ᄅᆞᆯ ᄒᆞ야 죽거늘 <續三317a05>

(3). 어듸 닐굽 발 ᄎᆞ뇨 계우 닐굽 발 남브다<老下29a4>

(a)와 같이 「계오」가 월의 셈숱말을 한정하여 드러내는 경우, 그 셈숱말이 나타내는 셈숱과 현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의」와 「계오」는 구별된다.

(나-例1). 伯康의 나히 거싀 여든이어늘<小九079b6>

(나-1)에서도 살핀 바 「거의」는 월에 나타난 셈숱에 대해 현실은 그 셈숱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근접성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점으로 볼 때 「거의」가 관여하는 경우의 현실과 월에서의 셈숱의 관계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위에 재인용한 (나-例1)의 예문에서의 「伯康의 나이」는 현실적으로 「여든」이라고 할 수 없으며, 「여든」이 곧 될 직전의 나이를 뜻한다. 따라서, 월의 셈숱치와 현실의 셈숱치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a)에 드러난 「계오」의 경우에는, 월의 셈숱과 현실의 셈숱은 일치한다. 즉 (1)에서의 「呂榮公의 나이」는 현실적으로도 「열 살」이며, (2)의 「혼인한 뒤 安近이 죽은 것」은 현실적으로도 「두어 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월의 셈숱=현실의 셈숱」의 등식(等式)이 성립하는 월에서의 「계오」의 의미적 기능이란, 바로 그 셈숱에 대한 말할이의 태도이다. 이 태도는 상식적으로 요구되는 셈숱치이거나, 말할이가 원래 기대하고 있거나 한 셈숱치에 비해, 현실의 셈숱치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즉, (1)의 경우, 그 뒤따르는 내용의 효도를 할만한 나이 (상식 혹은 기대치)에 비해 呂榮公의 실제 나이는 훨씬 어리다고 하는 평가를 나타낸다. 그리고 (2)의 경우, 남편인 安近이 상식이나 기대에 비해 너무 일찌기 죽었다는 평가가 이 어찌씨에 의해 드러나게 된다.

한편, (3)의 경우에는 「비단의 길이」가 현실적으로 「닐굽 발(七托)」이라고는 할 수 없는 예이기는 하나, 실제의 길이는 「닐굽 발 남븐」 길이라고 할 수 있어, 「계오」는 바로 그 「닐굽 발 남븐」 길이 (즉, 현실의 길이) 에 대한 말할이의 평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2. 사실의 한정

「계오」가 그 뒤에 셈숱말이 나타나지 않는 월에 쓰이어, 특히 풀이말의 직전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계오」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b. 계오 … 풀이말

(4). 갈ᄒᆞ로 머리ᄅᆞᆯ 티니 피 두ᅀᅥ 되나 흐르거늘 이비누의 숨겨 내여

계우 사라나니라<二倫19a08>

(5). 흔 간 . 방의 다ᄉᆞᆺ 사ᄅᆞ미 계우 안잣ᄂᆞᆫ 거셔 / 이ᄂᆞᆫ 줘<朴通41b1>

(4)의 경우, 글의 주인공인 두연(杜衍)이 「칼을 맞아 피를 두어 되나 흘리고도 살아났다」는 진술과 현실은 일치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5)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4)의 「칼로 머리 맞고 피를 두어 되나 흘리고도 살아난다」는 것이나, (5)의 「한 방에 다섯 사람이 앉는다」 것은 말할이의 상식이나 기대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계오」 역시 말할이에 의한 사실에의 평가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나-1)에서 논한 의미기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오」는, 월의 셈숱말의 성분과 호응하여, 그 셈숱말이 나타내는 셈숱치를, 그에 대한 말할이의 상식 혹은 기대와의 관계에 비추어서 평가하는 의미를 지니며, 한편으로는 셈숱말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월이 나타내는 진술의 내용과 그에 대한 말할이의 상식 혹은 기대와의 관계에 비추어서 평가하는 의미를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Ⅵ-3. 월의 한정적 말재어찌씨

여기서 살펴볼 「곧」, 「대가ᄒᆞᆫ디/대개ᄒᆞᆫ디/대뎌ᄒᆞᆫ디/대뎌흔디/대뎨ᄒᆞᆫ디」, 「본ᄃᆡ/본ᄃᆡ로/본릐」는, 주로 월의 진술내용 전체를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어찌씨들이 쓰이는 월은 기본적으로 서술월에 국한된다. 겹월의 이음마디에 서는 경우에도, 그 월의 마침마디는 서술월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앞의 (Ⅵ-1)과 (Ⅵ-2)에서 다룬 어찌씨들과 크게 다른 점은, 「월의 한정적 말재어찌씨」의 경우에는 월의 특정성분 혹은 셈숱말을 한정하는 기능을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 【곧(便·則·輒)】

가-0. 개관

「곧」은 16세기의 자료에서 수집된 용례 중 단 1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역학서와 교화서Ⅰ의 자료에서만 보인다. 역학서에서는 「노걸대」의 25례, 「박통사」의 7례의 분포를 보인다.

한편, 교화서Ⅰ에 나타나는 분포를 보이면, 「맹자언해」(66례), 「소학언해」(28례), 「논어언해」(10례), 「번역소학」(6례), 「대학언해」(2례), 「효경언해」·「중용언해」(각 1례)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이외에, 「분문온역이해방」에 1례가 나타날 뿐, 교화서Ⅱ에 속하는

문헌들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곧」이 월에 나타나는 형식은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 제약법의 씨끝 및 도움토씨 {-ᄂᆞᆫ/-ᄋᆞᆫ} 과의 호응;
  - ①. … {-으면/-거든/-어사/-어ᄂᆞᆫ} 곧 …
  - ②. … {-ᄂᆞᆫ/-ᄋᆞᆫ} 곧 …
  - ③. … {-으니/-어} 곧 …
- 불구법의 씨끝 및 도움토씨 {-도} 와의 호응;
  - ④. 곧 … {-어도/-라도} …
  - ⑤. 곧 … {-도} …
- A 곧 B
  - ⑥. A이 곧 B이다
  - ⑦. 월의 첫머리에 서는 경우

가-1. 제약법의 씨끝 및 도움토씨 {-ᄂᆞᆫ/-ᄋᆞᆫ} 과의 호응

위의 ①은, 「곧」의 용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법이라 할 수 있다. 「곧」은, 아래의 (a)에서와 같이, 이음씨끝 {-으면} 에 의해 형성되는 이음겹월의 뒷마디에 위치한다.

a. … {-으면} 곧 … {-으리라/-ᄂᆞ니라}

(1). 너를 쇼화ᄒᆞᆯ 약을 주리니 머그면 곧 ᄒᆞ야곰 일 업스리라<老下40a9>

(2). 장부 동ᄒᆞ야 ᄒᆞᆫ두번 동ᄒᆞ면 곧 밥 먹고져 ᄒᆞ야 ᄉᆞ랑ᄒᆞ리라<老下41a1>

(3). 이러ᄐᆞ시 서르 간슈ᄒᆞ면 곧 열분만 ᄒᆞᆫ 병이라도 닷분이나 덜리라<老下47b2>

(4). 모딘 병이 들어든 즉재 처섬 병 ᄒᆞᆫ 사ᄅᆞ미 오ᄉᆞᆯ ᄲᅡ라 조케 ᄒᆞ야 밥 ᄶᅵᄂᆞᆫ 시ᄅᆞ예 ᄶᅵ면 곧 병이 뎐염티 아니ᄒᆞᄂᆞ니라<分門21a09>

(5). 고ᄃᆞᆫ 갑ᄉᆞᆫ 녁량이니 ᄋᆞᆫ을 가져 오면 곧 그 제라<老下30a1>

(a)에서는 공통적으로 「곧」이 조건의 이음씨끝 {-으면} 의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다. 즉, 겹월의 뒷마디의 첫머리에 나타난다.

그리고, (a)의 월은 모두 그 마침마디가 서술법의 월을 이루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1~3)의 마침마디에는 씨끝 {-으리라} 가, (4)에는 {-ᄂᆞ니라}, (5)에는 {-라} 가 각각 쓰이고 있다.

의미상으로 볼 때, 이들 월의 앞뒤마디의 관계에 있어서, 앞마디에 의해 도출될 수 있는 개연적인 다수의 사실 (결론 혹은 결과) 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한다.

「곧」은 이러한 다수의 사실 가운데에서 다른 모든 개연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동시에, 뒤따르는 마침마디 (혹은, 뒷마디) 의 사실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Ⅵ-1)과 (Ⅵ-2)에서 본 바와 같이, 한정의 말재어찌씨가 특정한 월성분이나 셈숱말을 한정하는 경우의 원리와 동일하다.

다음의 (b) 역시 씨끝 {-거니ᄯᆞ나/-어니ᄯᆞ나} 에 의한 서술법의 월에 「곧」이 출현하는 예이다.

b. … {-으면} 곧 … {-거니ᄯᆞ나/-어니ᄯᆞ나}

(6). 네 각벼리 닷분만 됴ᄒᆞᆫ 은을 밧고와 주면 곧 올커니ᄯᆞ나<老上65b2>

(7). 비록 므슴 어려운 고디 이시리오 그를 고티면 곧 그제어니ᄯᆞ나 <朴通64a1>

(8). 만이레 이리 조심ᄒᆞ야 ᄃᆞ니면 곧 이 아랫 사ᄅᆞ미 노연 셤기ᄂᆞᆫ 이리어니ᄯᆞ나<老下46a5>

(9). 이러ᄒᆞ면 네 밥이 쟈글 ᄃᆞᆺ ᄒᆞ고나 므던ᄒᆞ니 문득 쟉거든 우리 다시 져기 ᄒᆞ면 곧 긔어니ᄯᆞ나<老上40b4>

「곧」이 이끄는 사실에 대한 조건적인 선행사실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a～b)에서와 같이 씨끝 {-으면} 이 가장 빈번히 나타나나, 이음씨끝 {-거든} (c), {-어사} (d), {-어ᄂᆞᆫ} (e 12)} 등과 도움토씨 {-ᄂᆞᆫ/-ᄋᆞᆫ} (e 13, e 14)등이 나타나는 일이 있다.

c. … {-거든} 곧 … {-올디니라//-고 …}

(10). 行홈애 남은 힘이 잇거든 곧 ᄡᅥ 글을 學홀띠니라<論一03b05;小學一14b08>

(11). 내 너를 두 량 은만 주리니 즐기거든 곧 풀오 네 말어든 모라 가져 가도 므던ᄒᆞ다<老下22b8>

d. … {-어사} … {-(올 거시)라}

(12). 눈 아래 손 섯거사 곧 지니 이긔니ᄂᆞᆯ 볼 거시라<朴通23a1>

e. … {-어ᄂᆞᆫ/-ᄂᆞᆫ} 곧 …

(13). 弟子ㅣ 드러ᄂᆞᆫ 곧 효도ᄒᆞ고 나ᄂᆞᆫ 곧 공슌ᄒᆞ며 삼가고 믿비 ᄒᆞ며 넙이 ᄉᆞ랑호ᄃᆡ 仁ᄒᆞ니를 親히 홀디니<小學一14b05;06>

(14). 사ᄅᆞ미 비록 지그기 어려도 ᄂᆞᆷ 외다 호ᄆᆞᆫ 곧 볼기 ᄒᆞ고 비록 총명이 이셔도 내 몸 짐쟉ᄒᆞ야 보ᄆᆞᆫ 아독ᄒᆞ니<小八13b2>

(15). 이러면 ᄒᆞᆫ 몸 이긔니ᄂᆞᆫ 곧 던기리로다 / 뉘 아니라커니 곧 던기리라 <朴通23a6;7>

(c～e)의 조건적 표현은 모두 (a～b)의 {-으면} 과 동등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곧」은 이들 조건적인 표현들과 호응, 다른 개연적인 사실과의 인과적 결부를 부정함과 동시에 뒤따르는 사실을 강조한다.

한편, 월의 마침법에 있어서의 서법의 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예가 서술월로 끝나지만, (10)에서와 같이, 「당위」의 월에서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f)는, 「곧」이 「약속법」의 월에 나타나는 예이다.

f. … {-으면} 곧 … {-마}

(16). 힝혀 유여히 갈 시저리면 곧 네 집 ᄎᆞ자 가마<老上45a2>

그러나, (f)의 유형의 용례는, (16)만이 나타날 뿐, 더 이상의 예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의 (g)는, ③의 경우와 같이, 「곧」이 씨끝 {-으니} 에 의한 겹월의 뒷마디에 나타나는 예이다.

g. … {-으니} 곧 …

(17). 사ᄅᆞᆷ의 己ㅣ 보미 그 肺肝을 보ᄃᆞ시 ᄒᆞ니 곧 므서시 益ᄒᆞ리오<大學12a04>

(18). 더 혓ᄉᆡ 구드니 곧 됴타<朴通19a9>

(g)는, 겹월의 앞뒤마디의 의미관계에 있어서, ①·②와 매우 가까운 기능을 지니는 쓰임이라 할 수 있다. 마침마디의 서법상으로는 물음법(17), 서술법(18)의 월에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곧」은 앞마디의 사실을 근거(이유)로 하여, 뒷마디의 사실이 당연하며 필연적인 결론임을 나타냄으로써 강조하고 있다.

이 경우, 씨끝 {-으니} 이외에 씨끝 {-어} 가 쓰이는 일이 있다.

(19). 시늘히 다 ᄀᆞᄐᆞ어 곧 고기알ᄀᆞ티 고ᄅᆞ고 굿굿다 커니와<老下62a4>

가-2. 불구법의 씨끝 및 도움토씨 {-도} 와의 호응

「곧」이 불구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것은, ③에 보는 바와 같이, 「곧」 자신이 양보의 의미를 지닌 이음마디를 이끌어, 「비록, 혹」과 매우 가까운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곧」에 의해 이끌리는 양보의 마디는, 주로 씨끝 {-어도/-라도} (h)에 의해 구성되며, 도움토씨 {-도} (i)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h. 곧 … {-어도/-라도} …

(20). 뎨 가 곧 일어도 ᄯᅩ 됴ᄒᆞ니 우리 ᄆᆞᅀᆞ 쉬워 ᄂᆞ실 일 녀져<老上10b3>

(21). 너희 두ᅀᅥ 사ᄅᆞᄆᆞᆫ 니ᄅᆞ디 말려니와 곧 여라믄 나그내라도 ᄯᅩ 다 음식 주워 머길 거시라<老上54b4>

(22). 네 이리 일뎡ᄒᆞᆫ 갑시ᅀᅡ 곧 高麗ㅅ ᄯᅡ히라도 ᄯᅩ 사디 몯 ᄒᆞ리로다<老下12b1>

i. 곧 … {-도} …

(23). 뎨셔 곧 믈져제 감도 ᄯᅩ 갓가오니라<老上11a6>

(h~i)에 나타난 용례의 마침마디의 의향법으로서는, 서술법(21~23)의 월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20)에서는 꾀임법의 월을 이루고 있으나, 하위의 이음마디의 「곧」이 상위의 마침마디의 꾀임법의 서법과 호응하는 것으로 보

기는 어렵다.

앞에서 논한 (가-1)과 (가-2)의 경우에는, 겹월의 앞마디와 뒷마디 간의 사실 간의 관계를 통해, 뒷사실을 한정하여 강조하는 경우와(가-1), 앞의 사실을 한정하는 경우(가-2)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다음의 (가-3)에서 논할 바의 월의 특정한 한 성분만을 드러내어 강조하는 쓰임과는 구별된다.

가-3. 월의 특정성분의 한정

⑥의 경우에는 「곧」이, 「A이 곧 B이다」라는 굳어진 문법형식에 나타나, 뒤따르는 월의 성분을 한정하여 나타내는 쓰임을 보여 준다. 이때에는 「A가 다름 아닌/바로 B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j. A(이) 곧 B이라
(24). 뎌 집 뒤히 곧 우므리라<老上31b3>
(25). 뎌 ᄇᆞ라는 어득ᄒᆞᆫ 수프리 곧 하뎜이라<老上60a6>
(26). 이 ᄃᆞ리ᄂᆞᆫ 곧 내 어제 니ᄅᆞ던 ᄃᆞ리니<老上38b8>
(27). 이 버디 곧 그니<老上01b9>

「곧」이 월의 특정성분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월의 임자말과 풀이말의 사이에 위치, 임자말의 성분(A)과 풀이말에 나타난 이름씨(B)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성을 보인다.

즉, 「뎌 집 뒤=우믈」(24), 「수플=하뎜」(25), 「이 ᄃᆞ리=어제 니ᄅᆞ던 ᄃᆞ리」(26), 「이 벋=그」의 관계를 이루는 두 성분의 관계가 각각 「곧」의 한정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곧」의 한정을 받게 되는 두 대상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 예를 들어, (24)에서는 「집뒤=우믈 이외의 것」의 관계가 모두 부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적인 관계는 (25~26)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곧」이 홑월(24~25)인 경우만이 아니라, 「곧」이 속한 마디가 이음법의 씨끝에 의해 상위의 이음겹월의 앞마디를 이루는 경우(26~27)에도, 「곧」의 기능에는 다름이 없다.

가-4. 월의 첫머리에 서는 경우

「곧」이 월의 첫머리에 서는 것은, 겹월의 앞마디의 내용을 받아, 부연적인 설명이 뒤에 이어지는 경우에 한정된다.

(28). 齊國이 비록 □ᄒᆞ고 小ᄒᆞ고 小ᄒᆞ나 내 엇디 ᄒᆞᆫ 牛를 愛ᄒᆞ리오 곧 그 觳□ 이 無罪ᄒᆞᆫ 거시 死地에 就ᄒᆞᄂᆞᆫ ᄃᆞᆺᄒᆞᆷ을 촘디 몯ᄒᆞ더라<孟一20b05>
(29). 天地의 道ᄂᆞᆫ 可가히 ᄒᆞᆫ말애 盡홀 꺼시니 그 物이론디 貳티 아니 ᄒᆞᆫ디라 곧 그 物을 生ᄒᆞᆷ이 測디 몯 ᄒᆞᄂᆞ니라<中庸39a08>

(28)은 물음월 뒤에, (29)는 서술월 뒤에 각각 「곧」이 나타난다. 이 때, 「곧」이 모두 그 뒤따르는 월의 첫머리에 나타난다. (28)에서는 뒤따르는 월이 앞월의 진술내용에 대한 이유 혹은 근거를 뜻하는데 비해, (29)에서는 그 관계가 반대로 되어 있다.

「곧」이 나타나는 환경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곧」이 앞마디의 제약법의 씨끝 {-으면/-거든/-어사/-어눈/-으니/-어} 및 도움토씨 {-눈/-운} 과의 호응하는 경우이다. 이 때에는 서술월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나, 드물게 약속법의 월에 나타나는 일이 있다.

「곧」의 기능으로서는, 앞마디의 조건적 표현과 뒷마디의 개연적인 사실의 결부를 배타적으로 강조한다.

둘째로는, 「곧」이 불구법의 씨끝 {-어도/-라도} 및 도움토씨 {-도} 와 호응하는 경우이다. 이 때 「곧」은 앞마디에 위치한다.

이 경우의 「곧」은 양보의 의미를 지닌 이음마디를 이끌어, 의미상으로는 「비록, 혹」에 매우 가까운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세째로는, 「A 곧 B」의 문법형식을 실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다시 A와 B 자리에 나타나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 둘로 나뉜다.

A · B 자리에 특히 이름씨를 주로 하는 특정의 월성분이 나타나, 「A이 곧 B이다」의 구조를 이루는 경우, 이를 「월의 특정성분의 배타적인 한정」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A · B 자리에 각기 독립적인 월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곧」이 뒷마디의 첫머리에 나타나, 앞마디의 진술 내용을 받아, 부연적인 설명이 이어짐을 나타낸다.

(나). 【대가훈디 / 대개훈디 / 대뎌훈디 / 대뎌혼디 / 대데훈디 (大抵·大槪·大家)】

나-0. 개관

이들 어찌씨들의 쓰임을 보면, 16세기의 문헌에 있어서는, 그 쓰임이 매우 국한된 것으로 나타난다.

「대뎌훈디」는, 「번역소학」에 5례 나타나는 것을 비롯하여, 「정속언해」·「경민편」에 각각 2례가 나타난다.

「대개훈디」와 「대가훈디」[1]는, 「노걸대」에 각각 1례 나타난다.

(1). 남풍현(1968:281)에 의하면, 「대가(大家)」는 「금강경삼가해언해」 이전의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1.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

「대뎌훈디」(1)는, 대부분의 경우, 월의 첫머리에 서서 뒤따르는 월의 진술내용을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때, 「대뎌훈디」가 월을 한정한다는 것은, 월의 「일반성」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뎌훈디」는, (a)와 같이, 서술법의 월에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a. 대뎌훈디 … {-으리라/-라/-으니라/-눈디라}

(1). 대가훈디 져그나 좀곳 자면 킈실 좀 낟브디 아니ᄒᆞ리라〈老上57a3〉

(2). 인졍이 대뎌훈디 됴훈 이룰 ᄒᆞ고 갑디 아니ᄒᆞ야둔 마는 거시라〈小七44a9〉

(3). 그 법은 대뎌훈디 翰林學士 벼슬ᄒᆞ엿던 宗□의 민ᄃᆞ론 뒤셔 나니라〈小九108b1〉

(4). 대뎌훈디 가난ᄒᆞ야 주으려 비러 먹는 사ᄅᆞ미 다 제 업을 브즈러니 아니ᄒᆞ눈디라〈警民11b01〉

「대뎌훈디」는, 월의 첫머리(1, 4) 혹은 임자말 다음(2, 3)에 서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위의 월들은, 모두 「일반적인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일반적인 사실은, 「대뎌훈디」에 이끌리는 월 전체에 드러난다.

이러한 의미관계는, 「대뎌훈디」에 이끌리는 월이 홑월일 경우 뿐 아니라, 이음법의 씨끝에 의한 이음겹월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대뎌훈디 벼슬ᄒᆞ여셔 모매 리훈 일 즐겨 호매 제 어든 거슨 심히 젹고 아젼의 도족훈 거슨 젹디 아니ᄒᆞ니 일로 큰 죄롤 니보미 진실로 에엿브니라〈小七28b3〉

(6). 대뎌훈디 사롬의 ᄌᆞ손니 사수멸어나 가난커나 미쳔커나 ᄠᅳᆼ에 몯디 말오 제 긔질리 총명ᄒᆞ니도 글 빈호디 아니티 몯훌 거시니 …〈正俗07b07〉

「대뎌훈디」는, 뒤따르는 월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월의 진술내용이 「일반성을 지닌 사실」임을 나타내는 것을 그 기능으로 삼는다. 월의 서법상의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서술법의 월에 나타난다.

(다). 【본딕 / 본딕로 / 본릭 (元·元來·本·本來·素·固)】

다-0. 개관

이들 어찌씨들은 주로 16세기의 전 시기의 자료에 고루 나타난다.

(2). 이하, 빈도가 가장 높은 「대뎌훈디」로 대표하기로 한다.

「본딗」는, 「소학언해」(8례), 「노걸대」·「번역소학」(각 7례), 「맹자언해」(4례), 「백련초해」(3례)에 나타나는 것을 비롯하여, 「속삼강행실도」·「이륜행실도」·「논어언해」에 각각 1례씩 확인된다.

한편, 「본딗로」는 「노걸대」에 1례가, 「본릐」는 「초발심자경」(3례), 「번역소학」(1례)에 보일 뿐이다.

「본딗」[1]는, 「나중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즉, 월의 진술내용의 사실이 어떤 행위나 변화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함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월의 진술내용을 이루는 사건이나 사실은, 말할이에게 있어서는 이미 현실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론적인 특징은, 이 어찌씨가 주로 나타나는 환경이 거의 대부분 서술법의 월로 나타난다는 구문론적인 특성으로 반영된다. 이에 비해, 시킴월이나 꾀임월에서의 쓰임은, 당연히, 전혀 볼 수 없다.

다-1.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

전술한 바와 같이, 월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이, 아무런 도중의 변화를 겪지 않은 것으로 실재(實在)함을 나타내는 「본딗」의 가장 활발한 쓰임은,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서술월에 나타나는 경우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a. 본딗 … {-고나/-으니라}

(1). 내 일즉 ᄀᆞ장 보디 아니 호니 이 ᄆᆞ리 본딗 병이 잇고나<老下18b9>

(2). 글 닑거 ᄇᆡ호며 무러 호ᄆᆞᆫ 본딗 ᄆᆞᅀᆞᄆᆞᆯ 열며 눈을 ᄇᆞᆰ겨 힝ᄒᆞ요매 리쾨다 ᄒᆞ예니라<小八25a6>

(3). 내 해 본딗 사니라<老下15b7>

(4). 본딗 이러ᄒᆞ니라<老上45b7>

「본딗」는 (a)에 보인 바와 같이, 끝마디의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 「병이 있다」는 사실(1), 「마음을 열며 눈을 밝게 하여 행함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2), 「산 것」이라는 사실(3), 「이러하다」는 사실(4) 등이, 애초부터 그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다-2.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경우

그러나, 실제로 「본딗」가 쓰이는 용례를 관찰해 보면, (a)와 같이, 마침법의 월에 나타나는 일보다는, 다음에 보게 될 이음겹월에 나타나는 일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

(1). 이하, 빈도가 가장 높은 「본딗」로 대표하기로 한다.

이러한 이음겹월은, 「본딕」가 주로 이음씨끝 {-라[1], -으니, -어, -건마른} 등에 의한 겹월의 앞마디에 위치함을 뜻한다.

b. 본딕 … {-라/-으니/-어/-건마른}

(5). 우리 지븨 본딕 가난흔 가문이라〈小十34a9〉

(6). 셰쇽올 소랑ᄒ야 소렴호문 옷밥올 위호미니 옷밥 탐호문 본릐 도심이 아니라〈初發70a1〉

(7). 나는 본딕 河南 일홈 란 진 子息이니 남지니 주그니 失節티 몯홀 거시라〈續三305a15〉

(8). 네 어듸 나그낸돌 알리오 본딕로 또 서르 사괴디 몯 ᄒ던 거시니 엇디 됴흔 사름 아니 완흔 사름 알리오〈老上48a1〉

(9). 친ᄒ니 소ᄒ니 ᄒ는 업의 믜요미니 무소미 평등호매 계 합ᄒ면 본릐 가지며 부료미 업소니 ᄒ다가 츄ㅣ 새 업소면 싱시 어듸 이시리오〈初發76a5〉

(10). 덕쟝이 본딕 강덕ᄒ여 누믜게 할여 주글 죄로 가티게 ᄒ엿거늘〈二倫22a04〉

(11). 내 본딕 밧괴일 빗리 업건마른 ᄒ마 나그내네 다하 빌시〈老上54a4〉

「본딕」가 겹월의 이음마디에 나타나는 경우, 그 의미작용은 「본딕」가 속한 마디에 국한된다.

또한, (6, 8~9, 11)에서와 같이, 이음마디가 지움월로 된 경우에는, 그 지움월 전체를 의미작용의 범위에 포함한다.

다-3. 기타

「본딕」가 매김마디의 사실을 한정하는 경우, 「본딕」 역시 매김마디의 한 성분을 이룬다. 다시 말해, 「본딕」는 그 매김마디를 안고 있는 상위의 월에는 관여하지 않음을 뜻한다.

(12). 네 므리 지븨셔 내니가 본딕 사니가〈老下15b6〉

(13). 이제 돈 빗고져 ᄒ야 트록 내 본딕 사 온 졀다악대물 흔피리 쉬다숫 서리오〈老下16a6〉

(14). 본딕 교만ᄒ고 샤치흔 사르믄 녜 사르믜 온공ᄒ고 검박ᄒ며 존졀ᄒ야 쓰며 스싀로 몸 가쥬몰 누즈기 ᄒ며…〈小八26b8〉

(12)의 경우, 「본딕」의 한정을 받는 대상이, 매김마디를 이루는 풀이씨 「살다」만인지, 「산 + 이」 전체인지 모호하다. 그러나, (13~14)에서는 「본딕」에 바로 뒤따르는 매김마디가 그 한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볼 때, (12)의 예에서도 매김마디의 내용을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1). 씨끝 {-라} 를 이음씨끝으로 보는 까닭에 대해서는, 허웅(1989:209)을 참조 바람.

그런데, 「본ᄃᆡ」의 경우에는, 앞의 (가)에서 살펴본 「곧」이나, (Ⅵ-1)의 특정한 월성분 한정의 어찌씨들과는 그 한정의 성격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앞의 어찌씨들이 피한정어와 대립적 계열관계의 다른 대상을 부정함으로써, 피한정어를 배타적으로 한정하는 데 비해, 「본ᄃᆡ」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타성을 지니지 않는다.

「본ᄃᆡ」는 그 한정하는 대상의 사실이 「어떤 변화를 거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함을 뜻하는 의미적인 특성에 의해, 언제나 서술법의 월과 호응한다는 제약을 보인다.
겹월의 이음마디나 매김마디를 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한정의 범위는 피한정의 마디에 국한되어, 마침법의 경우에 드러내는 의미론적인 특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정적 말재어찌씨들의 한정대상과의 호응관계를 간략히 표로 보이면, 다음의 <표11>과 같다.

<표11>. 한정적 말재어찌씨의 호응관계

어찌씨 갈래	특정성분 한정						셈술말 한정			월(사실) 한정		
어찌씨 / 한정대상	그저	ᄒᆞᆫ갓	다ᄆᆞᆫ	오직	특별히	독벼리	대되	거의	계오	곧	대더ᄒᆞᆫ디	본ᄃᆡ
특정성분	◎	◎	◎	◎	◎	○				○		
셈술말			◎	○			◎	◎	◎			
월전체		○	○	◎	○			○	○	◎	○	◎

<표11>에서 알 수 있듯, 한정적 어찌씨는 그 한정의 대상에 따라, 특정성분·셈술말·월 (사실) 의 한정어찌씨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어찌씨에 따라서는, 단 한 가지의 기능만을 지니는 것 (그저, 독벼리, 대더ᄒᆞᆫ디, 본ᄃᆡ 등) 으로 부터, 두 기능을 지니는 것 (ᄒᆞᆫ갓, 특별히, 거의, 계오, 곧 등) , 세 가지 모두에 걸치는 것 (다ᄆᆞᆫ, 오직 등) 으로 그 쓰임의 범위는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실제의 용례를 분석해 보면, 상대적으로 볼 때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쓰임이 있으며, 이를 그 중심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다.

Ⅶ. 맺음말

<머리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글은 16세기 국어의 통어론에 대한 공시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말재어찌씨를 대상으로, 이들 어찌씨의 통어론적인 특성을 분석·기술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제Ⅰ장과 제Ⅱ장을 통하여, 우리말의 「말재」에 관해, 「말할이가 어떤 사실에 대해 전달하고자 할 때, 월에 드러나게 되는 말할이의 심리적인 태도에 관한 부분」으로 정의, 이러한 말재는 월의 의향법의 씨끝 및 이음법의 씨끝을 중심으로 표현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말재어찌씨와 말재의 형식 사이에 존재하는 「호응관계 상의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호응도 (결합력) 의 강약 ; 씨끝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말재와의 호응관계가,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의 여부.
②. 호응의 대상 ; 의향법의 씨끝, 이음법의 씨끝, 도움토씨, 월의 특정성분이나 셈숨말, 월 전체 중, 어느 것과 호응하는가의 여부.
③. 말재의 의미 ; 말재어찌씨가 호응하는 말재가, 월의 내용에 대한 당위(當爲)·의지(意志)·평가(評價) 등의 심리적인 태도와 관련되는가, 혹은 말할이의 심리적 태도와는 관계없이, 이미 존재하거나 실현될 사태(事態) 에 대한 말할이 인식에 관련된 것인가의 여부.
④. 어찌씨가 호응하는 씨끝의 종류 ; 말재어찌씨가 월의 마침법 및 이음법의 어떤 종류의 씨끝과 호응관계를 보이는가.
⑤. 한정의 대상 ; 월의 서법적 제약을 그다지 적극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어찌씨의 경우의, 그 한정의 대상.

이러한 특성은, 말재와 말재어찌씨의 하위범주 설정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 위의 (①～⑤) 의 기준에 의해, 16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말재로서는, 크게 「당위·시킴의 말재」, 「현실인식의 말재」, 「조건·양보의 말재」, 「한정의 말재」의 네 가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말재의 표현 양식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당위·시킴의 말재」와 「현실인식의 말재」는 월의 풀이말에 나타나는 의향법의 씨끝에 의해 표현되는 반면에, 「조건·양보의 말재」는 월의 이음법의 씨끝에 의해 표현된다. 한편, 「한정의 말재」의 경우에는, 의향법이나 이음법의 씨끝에 의하지 않고, 반드시 말재어찌씨가 월에 나타남으로써 표현될 수 있다.

말재어찌씨는 이러한 월의 말재와 호응함으로써, 씨끝 등에 의한 월의 통어론적인 구성을 제약하거나, 특정한 월 구조가 따라 나타날 것을 요구한다. 이 점은, 말재어찌씨가 다른 어찌씨들과 가장 현저하게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위·시킴의 말재」와 「현실인식의 말재」의 월의 경우에는, 그 월에 말재어찌씨가 출현함으로써, 반드시 이에 호응하는 의향법의 씨끝이 나타나

게 된다. 「조건 · 양보의 말재」의 월의 경우에는, 말재어찌씨가 출현함으로써, 그 앞이나 뒤에 특정한 형식의 이음법의 씨끝이 이에 호응하여 나타날 것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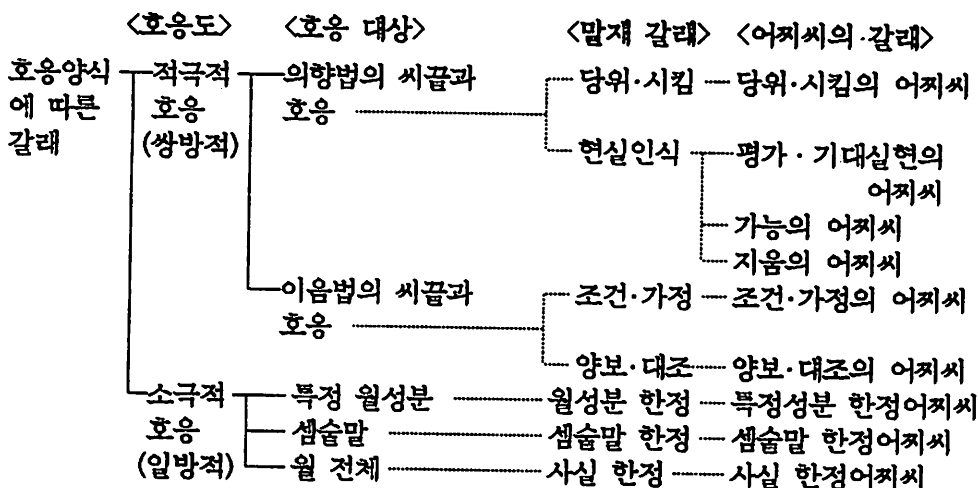
이 점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말재는, 나머지의 「한정의 말재」와 구별된다. 즉, 앞의 세 말재 (「당위 · 시킴」, 「현실인식」, 「조건 · 양보」) 의 경우에는, 말재어찌씨 없이도 의향법이나 이음법의 씨끝에 의해서 이미 월의 말재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월의 말재와 호응하는 어찌씨에는 제약이 생기며, 한편으로, 어찌씨의 입장에서 본다면, 월에 특정의 말재어찌씨가 출현함으로써 반드시 그 월의 의향법 혹은 이음법의 씨끝의 종류가 제한됨이 밝혀졌다.

그러나, 「한정의 말재」의 경우에는, 말재어찌씨가 월에 나타나야만 표현될 수 있으며, 의향법이나 이음법의 씨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말재의 형식과 구별된다.

말재어찌씨와 이들 문법요소들과의 호응양식 및 호응대상, 서법적 의미, 어찌씨의 의미 등의 특성에 따라, 16세기 국어의 말재어찌씨의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호응양식과 호응대상에 따른 말재어찌씨의 갈래



이 글의 제Ⅲ장에서 Ⅵ장까지는, 이와 같은 말재의 표현형식 ——월의 의향법의 씨끝, 이음법의 씨끝, 그리고 일부의 도움토씨 {-으란, -만, -도, -삭} 등, 셈숩말과 같은 특정한 월성분——과 말재어찌씨와의 호응 현상에 주목, 이를 분석함으로써 일반적인 호응체계를 세움으로써 말재어찌씨의 통어론적인 특성을 기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16세기 국어의 말재어찌씨의 하위분류에 따른, 호응관계 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당위·시킴의 말재어찌씨

모로매/모로미/모롬애/모롬이, 반ᄃᆞ시/반ᄃᆞ기/반드시/번드기/번득, 믈읫/믈의/몰의, 맛당이/맛당히, 의식, 모ᄃᆡ, 구틔여/구틔야/구틔여, 감히, 굿, 굿드리, 당당이, 응당히, 필연, 아ᄆᆞ라나마나/아ᄆᆞ려나/아마려나, 어셔 등.

■ 당위·시킴의 말재어찌씨와 의향법의 호응관계

말재		뜻	씨끝 \ 어찌씨	모로매	반ᄃᆞ시	믈읫	맛당히	의식	모ᄃᆡ	구틔여	감히	굿/굿드리	당당이	응당히	아ᄆᆞ려나	어셔
의향법	서술법	당위	-올디니라, (-올디니)	◎	○		◎				○	○				
			-올디라	◎	○	○	◎				○					
			-올디어다	○			◎		○		○					
			-올것이라	◎		○	○				○		○	○		
		단정	-다/-라	○		○									○	
			-(ᄂᆞ)니라, (-ᄂᆞ니/-으니)	○	◎	○			○	○	○			○		
			-으리라/-으리로다		○	○					○					○
			-으리이다, -ᄂᆞᆫ디라		○											
		의지	-으리라, (-으리니)	○							○					
			-으려/-고져 (ᄒᆞ다)	○											○	
		습관	-더라, (-더니)		○			○			○					
		느낌	-은뎌, 을써		○					○						
	시킴법	시킴	-으라/-어라/-거라	◎	○	○	○		○						○	
			-고려/-고라	○												
		금지	-(디 말/마)라	◎						○	○	○			○	
	꾀임법		-져/-쟈, -(디 마)져	○						○					○	
	물음법		-니잇고/-으리잇고		○						○					
			-을 것가/-으리잇가								○				○	
			-으랴/-으료/-으리오								○				○	
	약속법/강조·영탄법			해당 없음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당위·시킴의 말재어찌씨들은 서술법 및 시킴법의 씨끝과 빈번히 호응함을 알 수 있다. 서술법의 씨끝 중, 특히 당위의 의미를 지닌 씨끝과의 호응 현상이 두드러진다.

「당위·시킴의 말재」는, {-으라, -어라, -거라, -고려, -고라, -(디 말)라} 등의 풀이말의 시킴법의 씨끝, {-올디니라, -올디라, -올디어다, -올거시라}

등으로 대표되는, 당위의 뜻을 나타내는 서술법의 씨끝, {-쟈, -저, -(디마)져} 등의 꾀임법의 씨끝 및 {-니잇고, -으리잇고, -으리잇가, -으랴, -으료, -으리오} 등의 물음법의 씨끝 등에 의해 표현된다.

이 어찌씨들은, 월의 으뜸마디의 풀이말의 의향법씨끝과 호응한다. 특히 서술법·물음법의 씨끝과 호응, 월의 당위·단정·의지 등의 뜻을 드러내거나, 시킴법의 씨끝과 호응, 시킴이나 금지의 뜻을 드러내는 쓰임을 그 중심적인 기능으로 삼는다. 반면, 약속법이나 강조·영탄법의 씨끝과는 호응관계를 맺지 않는다.

「모로매」의 경우, 서술법·시킴법·꾀임법의 씨끝과의 호응이 가능한데, 당위의 서술법의 씨끝 및 시킴법의 씨끝과의 호응이 매우 활발하다.

「반ᄃᆞ시, 믈읫, 맛당히」도 분포상으로는 「모로매」와 유사하나, 각각 그 빈도로 나타나는 호응도에 있어서는 약간의 다름을 보인다. 「반ᄃᆞ시」의 경우, 단정의 의미를 지닌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이 특히 현저한 특징을 보인다. 「믈읫」은 당위·단정의 서술법씨끝과 호응하며, 「맛당히, 모ᄅᆡ, 웅ᄃᆞᆼ히」 등은 당위의 서술법의 씨끝과의 호응이 비교적 활발하다.

「구틔여, 굿, 굿드리」 등의 의향법의 씨끝과의 호응 상의 특징은 「모로매」 등과 거의 비슷하나, 풀이말에 지움법의 형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감히」의 경우, 분포 상의 특징은, 「모로매」에 필적할 만큼 폭넓게 쓰이는데, 풀이말에 지움법의 형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특성을 보인다.

한편, 「의식」은, 다른 어찌씨들과는 달리, 전적으로 지난적의 회상을 나타내는 {-더라} 등과의 호응 이외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아ᄆᆞ려나」는, 주로 시킴법의 씨끝과 호응하거나 「의지」를 나타내는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찌씨들과 성격을 달리 한다. 특히, 당위의 서술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예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2). 현실인식의 말재어찌씨

(a). 평가·기대실현의 말재어찌씨
진실로/진실히, 실로, 졍히, 쇽졀업시 ; 과연/과연히/과연/과연히, 마치/맛치, ᄒᆞᄆᆞ시 등.

(b). 가능의 말재어찌씨
능히/릉히, 가히/가이, 족히, 시러/시러곰, 어루, 춤히 등.

(c). 지움의 말재어찌씨
엇뎨/엇디/엇뎌/엇셔/어셔/엣뎨, 어ᄃᆡ/어듸, 어ᄂᆞ/어ᄂᆡ/어느/어늬, 어늬제, 언제, ᄆᆞᄉᆞᄆᆞ라/ᄆᆞᄉᆞᄆᆞ라/ᄆᆞᄉᆞᄆᆞ려/ᄆᆞᄉᆞᄆᆞ려/ᄆᆞ슴호려/ᄆᆞ슴홀여, ᄆᆞᄉᆞᆷ/ᄆᆞ슴, 어듸쏜/어듸쏜, ᄂᆞ외야/노의란/노의여/뇌여, ᄎᆞ마/춤아, ᄉᆡᆼ심도/ᄉᆡᆼ심이나, 결연히 등.

이들 어찌씨들은, 월의 의향법의 씨끝과 호응하여 말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당위·시킴의 말재어찌씨」와 성격을 같이 한다.

(a)의 「사실평가·기대실현의 말재어찌씨」는, 서술법·물음법·강조영탄법의 씨끝과 주로 호응하여, 사실과 현실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그 중심된 기능으로 삼는다.

(b)의 「가능의 말재어찌씨」는, 서술법·물음법의 씨끝과 호응, 월의 사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단정적인 뜻을 드러낸다.

■ 평가·기대실현 및 가능의 말재어찌씨와 의향법 씨끝의 호응관계

말재	뜻	씨끝의 종류	사실평가 · 기대실현							가능				
		어찌씨	진실로	실로	정히	속절업시	과션	마치	ᄒᆞ무시	능히	가히	족히	시러곰·	어루·춤히
의향법	서술법 단정	-다/-ᄂᆞ다/-라	○		○		○	○	○					해당 없음
		-(ᄂᆞ)니라, (-ᄂᆞ니/-으니)	○	○	○		○			○	○	○		
		-으리라/-으리로다/-으리이다				○					○	○		
		-도쇠이다				○								
		-괴여				○								
		-우라 (-노라)								○				
	서술법 의지	-으리라, (-으리니)	○											
	서술법 느낌	-을쎠/-을셔/-을서	○					○						
	강조·영탄법	-어라	○											
		-도다/-로다	○		○		○	○						
		-으리랏다				○								
	물음법	-으료/-으리오/-으리잇고	○			○				○	○		○	
		-으랴/-으려/-으리잇가									○		○	
		-온다/-논다			○									
		-온고, -으냐	○											
	시킴법	-으라									○			
	꾀임법／약속법		해당 없음											

한편, 다음의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c)의 「지움의 말재어찌씨」는, 물음법의 씨끝 혹은 {-고}와 같은 물음씨끝과 주로 호응, 반드시 반문의 물음월을 형성한다. 따라서, 월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사실에 대한 단정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a～c)에 속하는 어찌씨들은, 공통적으로, 꾀임법·약속법의 씨끝과 호응하는 일은 보이지 않으며, 시킴법과도 거의 대부분의 어찌씨는 호응하지 않는다.

■ 지움의 말재어찌씨와 의향법 씨끝의 호응관계

말재	뜻	씨끝의 종류 \ 어찌씨	엇디	어듸	어ᄂᆡ·언제	므슴	어듸쏜	ᄂᆞ외야	ᄎᆞ마	ᄉᆡᆼ심이나	결연히
의향법	서술법	-(ᄂᆞ)니라, (-ᄂᆞ니/-으니)									○
		-으리라/-으리로다/-으리이다						○			
	강조·영탄법	-어라							○		
		-도다/-로다							○		
	물음법	-온고/-올고	○	○	○	○					
		-온다/-ᄂᆞᆫ다/-올다	○	○			○				
		-으랴/-으려/-으리아							○		
		-으료/-으리오/-으리잇고/-리	○	○	○	○	○		○		
		-으리잇가					○			○	
		-으뇨/-ᄂᆞ뇨	○	○		○					
	토씨	-고	○	○							
	시킴법	-으라/-오						○		○	
	꾀임법/약속법		해당 없음								

(3). 조건·양보의 말재어찌씨

(a). 조건·가정의 말재어찌씨
ᄒᆞ다가, 만이레/만일/만일에/만실에/만이러, 혹/혹도/시혹, 힝혀/힝여, 가령, 가ᄉᆞ 등.

(b). 양보·대조의 말재어찌씨
비록/비로, ᄒᆞᄆᆞᆯ며/ᄒᆞ믈며, 오히려, 도ᄅᆞ혀/도리혀/도로혀, 출하리/출히, 다하/다함, ᄃᆞᆼ시론/ᄃᆞᆼ시예 등.

한편, 「조건·양보의 말재어찌씨」의 경우에는, 위 (1)~(2)의 어찌씨들과는 달리, 의향법의 씨끝과는 직접적인 호응관계를 맺지 않는 대신, 이들은 월의 이음씨끝과 호응한다. 따라서, 이들 어찌씨가 나타나는 월은, 원칙적으로, 이음겹월의 구조를 이룬다.

한편, 「조건·양보의 말재어찌씨」가 이음겹월의 어느 자리에 나타나는가, 즉 겹월에서의 위치와 어찌씨의 의미에 따라, 「조건·가정의 말재어찌씨」와 「양보

· 대조의 말재어찌씨」로 나뉜다.

■ 조건 · 가정 및 양보 · 대조의 말재어찌씨와 씨끝 · 토씨와의 호응관계

		어찌씨의 자리	겹월의 앞마디						겹월의 뒷마디						
		어찌씨의 갈래	조건 · 가정						양보 · 대조						
말재		어찌씨 / 씨끝 · 토씨의 종류	ᄒᆞ다가	만이레	혹 · 시혹	힝혀	가령	가ᄉᆞ	비록	ᄒᆞ물며	오히려	도ᄅᆞ혀	ᄎᆞᆯ하리	다하	당시론
이음법	제 약 법	-으면	◎	◎	◎	○					○	○			
		-거든/-거ᄃᆞᆫ/-어든/-어ᄃᆞᆫ	◎	◎	◎	○	○	○							
		-올던댄/-올던대ᄂᆞᆫ	○	○											
		-온則/-온즉		○											
		-어										○			
		-ᄂᆞ니/-으니								○		○			
		-어도/-어두	○		○				○		○				
	불 구 법	-올디라도	○				○		○		○			○	해당없음
		-으나							○		·	○			
		-올디나							○						
		-온돌							○						
		-언뎡											○		
		-건마ᄅᆞᆫ												○	
		-어니와				○									
	벌 임 법	-고, -으며			○									○	
	설 명 법	-ᄃᆡ									○	○			
	견 줌 법	-곤/-온/-고ᄂᆞᆫ								○					
		-어론											○		
	가 림 법	-거나/-어나			○										
	전 환 법	-다가										○			
의향법	물 음 법	-올가	○												
	서 술 법	-올디니라			○										
	시 킴 법	-어라			○										
어 찌 법		-도록				○									
그밖	도움토씨	-으란	○	○											
		-ᄂᆞᆫ/-도								○					
	이음토씨	-과			○										

이들 어찌씨들은, 어찌씨의 의미에 따라, 호응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음씨끝

의 종류에 제약을 받는다.

(a)의 「조건 · 가정의 말재어찌씨」는, 특히 {-거든, -으면} 등의 제약법의 씨끝과, (b)의 「양보 · 대조의 말재어찌씨」는 주로 {-을디라도, -으나} 등의 불구법의 씨끝과 호응관계를 맺는다.

(4). 한정적 말재어찌씨

한편, 「한정적 말재어찌씨」는, (1～3)의 어찌씨들과는 달리, 의향법의 씨끝 혹은 이음씨끝과의 호응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찌씨가 생략될 경우에는, 월의 말재적인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점에서, 어찌씨에 의한 일방적인 호응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a). 특정성분의 한정적 말재어찌씨
그저/그져, ᄒᆞᆫ갓, 다ᄆᆞᆫ/다만/다믄/담온, 오직, 특별이/특별히, 독벼리/독버리 등.

(b). 셈숱말의 한정적 말재어찌씨
대되/대도히, 거싀/거ᄉᆞ/거ᄉᆡ/거ᄋᆡ/거의, 계오/계요/계우/겨오 등.

(c). 월(사실)의 한정적 말재어찌씨
곧, 대가ᄒᆞᆫ디/대개ᄒᆞᆫ디/대더ᄒᆞᆫ디/대더흔디/대데ᄒᆞᆫ디, 본ᄃᆡ/본ᄃᆡ로/본릐 등.

(a)는 월의 특정성분(셈숱말 제외)을 한정하여 강조하는 기능을, (b)는 월의 셈숱말의 성분을 특정화하여 한정하는 기능을, (c)는 월 전체의 사실에 대한 한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 한정적 말재어찌씨의 호응관계

어찌씨 갈래	특정성분 한정						셈숱말 한정			월(사실) 한정		
어찌씨 / 한정대상	그저	ᄒᆞᆫ갓	다ᄆᆞᆫ	오직	특별히	독벼리	대되	거의	계오	곧	대더ᄒᆞᆫ디	본ᄃᆡ
특정성분	◎	◎	◎	◎	◎	○				○		
셈숱말			◎	○			◎	◎	◎			
월 전체		○	○	◎	○			○	○	◎	○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한정적 어찌씨는 그 한정의 대상에 따라, 특정성분 · 셈숱말 · 월(사실)의 한정어찌씨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어찌씨에 따라서는, 단 한 가지의 기능만을 지니는 것(그저, 독벼리,

대더ᄒᆞᆫ디, 본ᄃᆡ 등) 으로부터, 두 기능을 지니는 것 (ᄒᆞᆫ갓, 특별히, 거의, 계오, 곧 등) , 세 가지 모두에 걸치는 것 (다믄, 오직 등) 으로 그 쓰임의 범위는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실제의 용례를 분석해 보면, 상대적으로 볼 때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쓰임이 있으며, 이를 그 중심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16세기 국어에 있어서의 말재어찌씨의 체계는, 현대국어와 비교할 때에 상당히 범위가 국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확실히, 분명히, 아마, 어쩌면, 혹시 …」 등과 같은, 「월의 내용에 관한 개연성(蓋然性)」을 드러내는 말재어찌씨, 「기특하게도, 아깝게도, 슬프게도, 다행히(도)…」와 같이, 월의 내용에 관한 「말할이 자신의 심정적 평가」를 드러내는 어찌씨들의 존재나 쓰임이, 16세기의 국어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16세기를 중심으로 하여, 앞시기와 뒷시기에 일어나는 언어적인 변화에 따른 말재어찌씨의 목록이나 형태, 문법적인 기능의 변천 등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의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현대국어에 쓰이는 말재어찌씨가 16세기에는 보이지 않거나, 16세기에 쓰이던 말재어찌씨가 소실되는 등의 어휘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어찌씨 자체의 기능적인 변천 등에 관해서는 앞으로, 각 시기별의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현대국어에 이르는 말의 변천에 관한 많은 것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본 연구는 16세기 국어의 어찌씨 체계 전반에 걸친 연구, 그리고 16세기 우리말의 통어론적인 구조를 기술할 수 있는 문법범주 연구로 발전할 하나의 발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붙임>. 16세기 국어 말재어찌씨 색인

어찌씨	형태 / 출전
가령	[:가령] 小七 33b4 // [가령] 分門 14a01
가스	[:가·스] 朴通 10b5
가히	[:가·히] 鄉約 02a6, 36b1 / 小九 014a5 / 小七 08a2 / 小六 09a3, 09a6, 09b3, 09b7, 10a8, 35b2 / 續三 322a14 // [可:가·히] 小學一「書題02a09, 02b03」, 05b07, 15a09 / 小學二 24a07, 43a10, 54a04-05, 67a10, 70a10, 70b02, 70b03, 71b07, 71b08, 76a04 / 小學三 02b09, 02b10(2회), 03a01, 04b08, 07b09, 19a06-07, 19a07 / 小學四 01b07, 01b09, 04a09, 09b02, 10b03, 14a10, 15a02, 18b02, 18b04, 19a07, 20a10, 24b09, 25b02, 27a09, 39b05, 52b07, 53b01, 53b02, 54a06, 55a05, 55a06, 55a07, 55a08, 55a08-09, 55a09, 55a10, 55b01 / 小學五 008b05, 008b07, 009a03, 009a06, 009b07, 010b10, 011b03, 012a05, 012a06, 022a05, 032b06-07, 033a05, 036a02, 037b03, 039a06, 039b01, 041a08, 042a01, 043a10, 051a06, 051b01, 051b03, 053b05, 061a05, 066b10, 067b01, 068a07, 068a08, 070a07, 101a08, 101b02, 101b05, 101b09, 102a03, 102a07-08, 102b02-03, 107b05, 110a05, 113a02, 116a02, 116a05, 119b10, 120b09, 123a03, 132b02-03, 133a04 / 小學六 006b07, 010b02, 010b05, 012b06, 013a05, 039b05, 039b08, 045b07-08, 050b07, 059b10-60a01, 066a05, 073a09, 076b01, 076b02, 102a02, 109a04, 109b03, 116a05, 117b09, 120b03 // 大學 21b01, 05b09, 07b06, 15a06, 18a10, 18b07 / 中庸 16a03, 16b04, 16b05, 16b08, 25a02, 25a03, 25a05, 25a07, 35a06-07, 35a07-08, 35a08-09, 36a10, 39a07, 53a09 / 論一 06b06, 07a03, 07b04, 08b04, 18a10, 22a05-06, 28b06, 35b02, 37b01, 30b07-08, 30b08, 42a01, 42a08-09, 42b06, 43b08, 43b09, 45a09, 45a10, 49a08, 49a09 / 論二 01a05, 04b09-10, 05a02, 05a05, 10a01-02, 10a03, 10b01, 10b03, 13a09, 13b10, 20a02, 27b05, 31b03, 31b09, 32b05, 32b06, 37a04-05, 47a02, 48a01, 48a02, 49b01, 49b02, 49b03(2회), 49b04, 49b04-05 / 論三 04a01, 12a06, 14b03, 22a05, 26b07, 29b01, 36b06-07, 36b07, 40b04, 41b10, 42a02, 42b10, 45a07, 45b04, 45b06-07, 46a09-10, 47a09, 50a02, 50a04, 50a10, 51a09 / 論四 04b03, 04b08, 04b10, 09b07-08, 13b01, 13b02, 13b03, 13b03-04, 30a05, 30a07, 36a04, 36a06, 36a08, 36a10, 38a08, 46a04, 47b02, 47b03-04, 49b08-09, 51b05, 56b07, 57a04, 59b10, 61b01, 65a09, 65a10, 66a06, 66a09-10, 70b02, 71a03 / 孝經 21b05, 21b06, 21b08, 23a02-03, 24a08, 24a09 / 孟一 08a06, 08a08, 08a10, 08b01-02, 08b02-03, 09a10, 09b04, 13b04, 14a08, 17b05, 18a09, 19a04, 19b06, 26a05, 28a09, 28b10-29a01, 30a07, 30b01, 30b02, 30b03-04, 35a03, 35a05, 35a07 / 孟二 02b07, 14a03, 20b06, 24a04, 25a10, 25b01-02, 25b03, 25b04, 25b09, 33b06, 34a06, 36b01, 37b05, 39b04 / 孟三 01a08, 05a01, 20a08, 20a08-09, 20a09, 20a10, 27a10, 30b02, 33b06-07 / 孟四 03b10,

04a01-02, 08a10, 10b06, 12b09, 15b02, 15b03, 19a08, 19a09, 20b01, 21b06, 21b08, 21b10, 22a02, 22a05, 25b07, 25b10-26a01, 35b09 / 孟五 02b09, 04b01, 06b07, 08a08, 14a10-b01, 21a03, 21b06-07, 23b08, 33a09 / 孟六 01b02, 02b06, 11b01, 13b01, 20a10, 20b02-03, 22a04-05, 35a03 / 孟七 01b10, 03a07, 03a09, 03a10, 13b10, 15a08, 15a09-10, 16a10, 16b01, 18a08, 19b02, 19b03, 21a06, 26b05, 31a08, 36a01, 36b05 / 孟八 04a04, 05b09, 05b10, 07a07, 08b02, 11a10, 15a02, 15a03, 15a04, 15a05, 15a06, 15a06-07, 17a10, 18a04, 19a02, 20a07, 24b06-07, 24b08-09 / 孟九 09b07, 34a09, 37b04, 37b07, 37b08, 38a01, 38a02, 38a03-04, 38a05 / 孟十 05a02, 05a03, 05a04, 05a05, 12a05, 17a10, 24b05, 25a05, 25b06-07, 29b04, 29b06, 29b07 / 孟十一 03b05, 03b07, 03b09, 10b01, 10b01-02, 11b05, 20a03, 23b04, 23b07, 24b07, 24b10, 25a07, 27b04 / 孟十二 02b01, 04a03, 06b05, 09a04, 09a05, 17b08, 30a09, 34a08, 36a02 / 孟十三 04a05, 06a07, 06a09, 13a09, 17b07, 18b08, 19a03, 25b02, 31a10-b01, 31b06, 33a04, 34b03-04, 34b05, 36b06 / 孟十四 14a01, 16a09, 16b10, 21a04, 21a06, 21b07, 21b08, 27b09, 28a03, 29a02, 29b05, 31b01 // [:가히] 鄕約 02a5-6, 35b5(2회) / 呂氏 30a02 // [可:가히] 小學五 099b09, 103b05, 109b02 / 中庸 01b01, 01b02, 06a06-07, 06a07, 06a08, 06a09, 09b01, 09b04, 10b08, 52b09-10 // 論一 13b09, 18a02, 18b02, 18b03, 19a07, 19a08 / 論二 12a02, 12a03(2회), 12a04, 12a09, 18a01, 18a03 / 論三 11b05, 15a02, 51a06, 55b06, 56a04, 60a02 / 論四 66b10, 70b04 / 孟二 18b05 / 孟三 12b04, 27a09 / 孟四 22a04, 30b09 / 孟六 23b04 / 孟七 14b08, 14b10, 36a01, 36b04 / 孟九 04a05, 12a02 / 孟十 07a06 / 孟十一 18b09 // [可·가·히] 大學 07a10 / 中庸 31b07 / 論一 07a05 / 論二 31b02, 31b05 / 論三 22a07 // [可·가히] 正俗 23b09-10 / 呂氏 02a02, 02a03, 30a02, 30b02 / 論一 06a04 / 論三 55a05 // [可:가:히] 小學五 113b02 / 論四 41b06 // [가히] 警民 02a06, 02a09, 02b01, 02b02,

가혀 11b04, 13a09 / 小十 19a5 // [可:가·혀] 論一 38b10 // [·가이] 正俗

가이 13a04, 14a10, 21b02, 21b04, 21b06, 29b02, 29b03, 29b04 // [가이] 正俗 21b05 //

감히 [:감·히] 小六 11b2, 11b3 / 小七 42a5 / 小九 075b9 // [敢:감·히] 中庸 12b03, 12b04, 44b04, 44b06 / 小學二 06a07, 06a09, 06b01, 07a01, 07a03, 07a09, 07a09-10, 07b01, 11b01-02, 11b02, 11b08, 13a04(2회), 17a07-08, 19b02, 19b08-09, 19b09-10, 19b10, 20a01, 20a06, 20b07, 20b10, 22a08, 28b10, 29b03, 29b04-05, 30b06, 30b08, 30b09, 35b03, 35b09-10, 40a10, 46b01-02, 50b05, 50b06, 51a08, 53b02, 57a09, 57a10, 57b01, 62b02, 62b06, 63b02, 75a10, 75b01, 75b03 / 小學三 01b06 / 小學四 18b06, 18b08, 19a01, 19a02-03, 21b05, 22a06 / 小學五 010b08, 010b09, 020a04-05, 061a02, 073b06, 118a02 / 小學六 002b01, 042b02, 042b08, 050a04, 054a10-b01, 075a02, 079b02-03, 086b04-05, 096a03, 115a05, 125b05, 131a02, 131a03, 132b05 / 論一 43a06 / 論二 08a07, 45a04, 59a02-03 / 論三 05b08, 10b10, 28a05, 31a04, 37b07, 37b09,

37b10, 46a01, 46a07, 61b06, 62a04, 65b07 / 論四 67b08, 67b09-10, 71a07 / 孟二 07b10, 10a09, 11b07, 40b09 / 孟三 12b02, 14a06, 19a05, 26a07-08, 26a10 / 孟四 07a01, 10b05, 18b01, 26a02, 29b05, 29b07 / 孟五 16a10 / 孟六 08b06, 08b09(2회), 25a05-06, 32a09 / 孟八 18a10, 27b06 / 孟九 12b03, 21a08 / 孟十 15b04, 18b03, 23b07, 27a03, 27a09, 29b02, 30b03, 31a04, 31a06 / 孟十四 14b05, 27a03 /孝經 02b04, 03a05, 03a07, 04b09, 05a01, 05a02, 11a06, 11b05, 12a02, 13a08, 23a01-02 // [敢:감히] 小學二 50b07 / 小學六 070a08 / 論四 67b07 / 孟九 16a06 / 孟十 12a01, 14a09-10, 25b05, 34b09 //

거싀 [거:싀] 三綱 119a03 / 老上 29b9 / 小八 31a7 / 小九 079b6 //

거스 [·거·싀] 二倫21a04-05 // [거싀] 三綱 224b19-20 // [거·스] 老上

거ᄉᆡ 26a7 // [거ᄉᆡ] 二倫 43b09 //

거의 [거·의] 小學一「書題03a01」,「書辭04b01」/ 小學五 109b06 / 小學六 036b10, 039b04, 059a07 / 大學 25a01 / 中庸 53b05 / 孟二 05b04 / 孟四 32a02, 32b08 / 孟十三 34b05 // [거:의] 中庸 47b04 // [거의]

거ᄋᆡ 孟二 05b10 // [거·ᄋᆡ] 小學六 032b05 //

결연히 [·결연·히] 小八 38a4 / 小學五 116a06 //

계오 [계·오] 小九 002b1 / 小學六 002a09 // [계오] 簡札 032a19, 033a02,

겨오 048a07, 057b06, 059a09, 073a19, 131a07, 145a04, 148a04, 148a14 //

계요 [겨오] 簡札 012a19, 018a02, 037a12 // [계·요] 小學六 127a06 //

계우 [계·우] 老下 29a4 / 朴通 41b1 / 二倫 19a08 // [계우] 續三 317a05 //

곧 [·곧] 三綱 106a06, 107b10, 124a12, 125a12 / 老上 10b3, 11a6, 17a5, 18b4, 29b1, 31b3, 38b8, 40b4, 45a2, 48b7, 60a6 / 老下 12b1, 18b4, 19b7, 30a1, 41a1, 46a5, 46b3, 47b2, 62a4 / 朴通 19a9, 23a1, 23a6, 23a7, 43a4, 50b7, 64a1 / 小學一 09a01, 14b05, 14b06, 14b08 / 小學二 13b04, 46a10, 62a02, 73b06, 77b09 / 小學三 16a08, 27a08, 27b08 / 小學四 01b09, 12a01, 26a10, 26b01, 39a09 / 小學五 002b09, 003a02, 005a10, 029a04, 034b05, 050a07, 050a09, 089b02, 094b08 / 小諺六 049a09, 122b04 / 小八 03b9, 11a1, 13b2 / 小六 03a2, 03a5, 05b5 / 大學 12a04, 27a03 / 中庸 39a08 / 孝經 13b10 / 論一 03b05, 48a09, 48b01 / 論二 05b06, 27a06, 27b05 / 論三 14a02, 61a01 / 論四 07b02, 40a05 / 孟二 08a03, 22a09(2회), 22b05, 23a01, 28a09, 28a10, 38b09 / 孟三 02a10, 02b03, 04a04, 16a07, 17b06, 19a04, 21b09, 22a02, 22a04, 24b10, 25a01, 32a03, 32b06 / 孟五 11a03, 11a04, 15b09, 24b09, 33b07, 35b07, 36a04 / 孟六 10b03, 18b09, 32a09, 34a09 / 孟七 15a01 / 孟八 07a01, 19a07, 25a03, 30b10, 35a06 / 孟十一 03b08, 14b08, 16a09, 20a06, 24b07, 24b09, 25a05, 25a07, 29a02, 31a10, 31b06, 31b10, 32a07, 33b07, 34b09 / 孟十二 03b05, 03b08, 05a04, 05a06, 08a03, 08a05 / 孟十三 34b02 / 孟十四 24a04, 30a05, 34a10 // [곧] 老上 01b9 / 老下 22b8, 40a9 / 孟三 18a10 / 孟十四 19a09 // [:곧] 老上 54b4, 65b2 / 分門 21a09 / 孟一 20b05 //

과연 [:과·연] 老下 04b2 / 朴通 68a8 // [果:과然연] 三綱 105a07-08, 311a09

/ 續三 122a09 // [果과然션> 續三 324a10 //

과연히 [:과션·히] 小八 20b1 //

과연 [:과연] 小九 055b5 // 小學四 30a07 / 小學六 051a06, 055b10 / 孟八 32b04 // [:과·연] 孟十一 08a05, 09b07 //

과연히 [:과연·히] 中庸 34a03 // [과연히] 二倫 33a13 //

구틔여 [구틔여] 簡札 145a07-08 //

구틔야 [구·틔·야] 老下 19b8 //

구틔여 [·구·틔·여] 三綱 133a13, 315b02, 330b06 / 老上 56a9 / 老下 27b7, 57a4 / 朴通 13b2, 17a4, 23a9 / 續三 103b01, 304a12, 305a05 / 小七 18b8 / 小九 046b2-3, 057a4, 061a1, 073a5, 104a2 / 正俗 25a08 / 小學一「書辭 01b07」// [구:틔여] 朴通 69b7 / 正俗 25a06-07, 25a07 // [구·틔·여] 小學二 68a06, 68b07 / 小學三 10a08, 23a09 / 小學五 037b05 / 小學六 052b01 / 論三 11b01 // [구·틔여] 二倫 11a07, 16a08, 23a15-16 / 鄕約 21b2-3 / 初發 05a1 / 小學六 056a05 // [구틔·여] 三綱 322a08 // [구틔여] 續三 317a13 / 呂氏 18b10 //

그저 [그저] 三綱 207b17 / 老上 10a5, 10b2, 17b1, 18b8, 37a3, 37a9, 39a1, 39a9, 46b3, 47b3 / 老下 01b5, 02b5, 05a6, 10b1, 14a1, 14b9, 22b7 / 二倫 19a13, 47a10 / 簡札 013a15, 018a04, 041a22, 049a11 / 小學一 07b06 // [그·저] 老上 40b6, 69b4 / 朴通 51a2 // [그져] 老上 55a9 //

그져

긋 [·긋] 三綱 133a15, 225a10, 312a03, 323b06, 333a06 / 朴通 38b9 / 老上 32b4, 69b3 / 老下 57a4 // [긋] 三綱 209a08, 315b03 //

긋드리 [·긋·드리] 鄕約 23b1-2 // [·긋드·리] 鄕約 36a9 // [·긋드리] 呂氏 20a06, 30b02 //

ᄂᆞ외야 [ᄂᆞ외·야] 初發 45a4-5 //

노의란 [노의·란] 老上 45b9 //

노의여 [노의·여] 朴通 37a5 / 老下 49a9, 55b4 //

뇌여 [뇌여] 簡札 041b09 //

능히 [능·히] 老上 51b4 / 小六 03b8, 03b9, 04a1, 09a4, 09b4 / 小七 10a8, 33b6 / 小八 05b1, 27b7, 32a9-b1 / 小九 059a9 / 初發25b6, 33a2, 69b5, 82b6 / 小學一 10b03 / 小學二 76b10 / 小學四 06b10 / 小學五 091b06 / 大學 04a01, 21b08 // [능히] 初發 16b5, 26a1, 53a3 // [能능·히] 三綱 231a07 / 小學一 03b04, 03b05, 15b08, 15b09 / 小學二 30a07, 31a08-09, 33a05, 42b03, 44a05 / 小學三 01b07, 02a09, 02a10 / 小學四 03a07, 12a02-03, 14a10-b01, 19b08, 21b09, 22a02, 22a05, 22a06, 34b05, 48b08, 48b09, 53b05, 53b07, 53b10 / 小學五 003b01, 003b02-03, 003b04, 003b05, 004a09-10, 009a04, 015b07, 015b08-09, 022a02, 041a07, 042b08, 043b03, 047a09, 047a09-10, 051a09, 057a07, 058a06, 061b06(2회), 065b10, 071a02, 071a09, 073b03-04, 075b10, 076b02, 086a02, 108a03, 108a06(2회), 110b08-09 / 小學六 005a06-07, 009a06, 020b03, 020b06, 032b09, 037a08, 043a06-07, 046b02, 052a08, 052a09, 054b06, 062b07, 066a02, 068a10, 068b02, 075a06-07, 089b10, 090a08, 091a05, 091a06, 091b01, 100a09-10, 101b07, 117b03-04, 117b05, 120a05, 128b10, 129a04, 129a05, 129a07, 131b01 /

大學 07b07, 15b08, 17b08, 24b09, 25a04, 25b04, 25b10, 26a01, 26a02, 26a03 / 中庸 04a06, 05b02, 08a10, 09b04, 09b08, 09b10, 33b08, 33b09, 34a03, 35a02, 35a03, 35a04, 35a04, 35a05, 35a06, 35b06-07, 36a01, 49a10, 51a10, 52a02 / 論一 04a02, 04a03, 12a06, 21a01, 22b02, 22b04, 22b06, 31a03-04, 31a04, 33a04, 35a03, 35a04, 45b04, 52a04 / 論二 08b08, 13a08, 13b10, 14b08, 14b09, 35b10-36a01, 47b01-02, 47b03, 50a09-10 / 論三 05b07, 05b08, 17b09, 32a08, 32b07, 38a10, 41a04, 53b05 / 論四 01b06, 11a10, 12b04-05, 12b09, 13a05, 19b06, 33a04, 34b03, 46b07, 55b01(2회)/ 孟一 05a09, 05b07, 15b10, 16a06, 17a04-05, 17b01, 18b01, 31b05, 32a07 / 孟二 02a03, 06a01, 08b08, 09a01, 22b04, 27b03-04, 36a07, 39b09 / 孟三 06b08, 10b04, 10b05, 20b02, 21a09, 22b05, 26a09, 29b01, 29b04-05, 32b02, 33a03-04, 38b06 / 孟四 04a04, 05a08, 05b01, 10a06, 29b10, 30a02 / 孟五 06b03, 28a01, 32a05 / 孟六 05a01, 06b09-10, 06b10, 07a01, 23b10-24a01, 33a03, 34a08 / 孟七 01b01, 01b03, 01b05, 02a07, 08a01, 12a10, 19a03, 19b05-06, 22a04, 25b07-08, 29b10, 30a01-02, 32a02 / 孟八 07a02, 09b08, 09b10 / 孟九 19b04, 19b05, 19b07, 19b08, 19b09, 19b10, 21b06, 21b08, 25b03, 25b08-09, 38a06 / 孟十 04a09, 25a04, 25a05, 31b09 / 孟十一 01b09, 08b07, 13a03, 21b09, 25b08, 29a01, 33b08 / 孟十二 02a04, 05a03, 27b03, 28a05, 28b05, 35b07, 35b09 /· 35b09-10, 35b10 / 孟十三 11b07, 23b04 / 孟十四 02a02, 05a02, 05a03, 06b09, 07a05, 07a06, 07b02, 10a09, 21a02, 21a05, 21a10 // [能능히] 三綱 320a15-16 / 小學二 30b10 / 小學五 106b01 / 小學六 068a09 / 論二 27b07 / 論三 53b04 / 大學 24b10, 25b03-04 / 孟五 27a02 / 孟十一 35b02 // 孝經 04a05 // [能·능·히] 論一 12a07 / 孟二 95b05 // [能능·히] 論一 40b10 / 孝經 05a08, 06a07-08, 08a05, 16b10, 19a05 // [능·히] 初發 41a4 / 大學 04a07 // [능:히] 初發 17b5-6 // [릉·히] 小九 005b5, 098b4, 108a2 / 分門 18b08 // [릉히] 小九 047a8 // [能릉히] 簡易 04b1 //

다ᄆᆞᆫ [:다·ᄆᆞᆫ] 老上 27a6, 50a9 / 老下 10a2, 23a2, 58a6 / 朴通 35a9, 39a4, 52b2, 55b8, 63b6, 65b3 / 小七 04b5, 25a3 / 小八 05a8, 07a4, 31b6, 37b9 / 小九 064a6 / 小學五 005a10, 022b04, 093a10 / 小學六 028a10-b01, 47a08, 66a04, 115a02, 120b02, 132b07 / 孟五 20b09 / 孟十一 32a07 // [:다ᄆᆞᆫ] 小九 051b5, 071b2 / 小學五 062a04 / 論三 25b07 / 孟一 07b03 // [·다ᄆᆞᆫ] 二倫 02a05, 41a10 // [다·ᄆᆞᆫ] 老上 24b6 //[다ᄆᆞᆫ]

다ᄆᆞᆫ 簡札 013a06, 015a04, 041a19, 055a06, 058a06, 066a07, 070a09, 073a10,

담ᄋᆞᆫ 073a24, 080a21, 084a12, 145a09 // [:다·ᄆᆞᆫ] 老下 66b5 // [:담ᄋᆞᆫ] 小學六

다만 072a07 // [다만] 簡札 023a04, 024a19, 060a19, 079a03, 079a12, 079a17

다믄 // [다믄] 老上 05b3, 11b1, 24a9, 36b3, 41a5, 64b9 / 老下 25a9, 26a5, 26b8, 66b9 / 朴通 34b2, 63a9 / 小十 35a1-2 / 小學五 110b05 / 小學六 040b05 // [:다믄] 小學五 108a06 // [다·믄] 孟二 02a04 //

다하 [다·하] 老上 54a5 / 老下 13a1, 13a5, 14a2, 31a6 / 朴通 35a7, 35b4 // [·다·하] 老下 13a3 //

다함 [다·함] 老上 07a9 / 小學四 23b02 / 小學六 028b03 //

당다이 [당다이] 三綱 208b02, 214b04, 216b01, 220b12-13, 225b06-07,
229a19, 231a14, 311a06-07, 314a10, 319b03, 326a07-08, 326a14,
당당이 326a17, 335a11 // [당·다이] 三綱 324a16 // [당당·이] 小九 071b3//
당시론 [당시·론] 朴通 53b3 / 老上 10b8, 42b3, 46b2, 60a8 //
당시예 [당시·예] 老下 21a1 //
대가ᄒᆞᆫ디 [대·가ᄒᆞᆫ·디] 老上 57a3 //
대개ᄒᆞᆫ디 [:대·개ᄒᆞᆫ·디] 老下 42a7 //
대뎌ᄒᆞᆫ디 [:대·뎌ᄒᆞᆫ·디] 小七 28b3, 44a9 / 小八 33b5 / 小九 108b1 // [:대뎌
ᄒᆞᆫ·디] 小八 15a9 // [·대·뎌ᄒᆞᆫ·디] 正俗 07b07 // [대뎌ᄒᆞᆫ디] 正俗
26a10 / 警民 10a01, 11b01 // [:대:뎌ᄒᆞᆫ·디] 小學五 095a04 //
대뎌흔디 [大:대抵·뎌ᄒᆞᆫ·디] 小學五 112a02 // [大·대抵·뎌·흔디] 小學六
대뎨ᄒᆞᆫ디 100b09 // [大:대抵·뎨ᄒᆞᆫ·디] 小學五 061a02-03 // [大:대抵:뎨ᄒᆞᆫ·디]
小學五 075b08-09 //
대되 [:대·되] 分門 08a05 / 老上 11b9, 18b9, 23b3, 62a6, 64a6, 67a5,
67a6 / 老下 10a8, 12a4, 13a8, 22a3, 33b1, 39b1, 50a1, 59a2, 63b1,
63b3, 65a5 / 續三 124a10 // [:대:되] 老下 12a7 // [:대?되] 朴通
20b9 // [대되] 分門 04b06, 05a02 / 簡札 053a17, 053b01, 053b02,
대도히 064a24, 124a02, 131a03 // [:대·도·히] 朴通 01b9, 32b9 //
도ᄅᆞ혀 [도ᄅᆞ·혀] 老下 08a5, 66b4, 66b6 / 朴通 18b2, 54a4 / 小六 15a8, 26b1
/ 小學五 024b02, 062a08, 108b10 / 孟三 13b05 / 孟八 18a08 // [도ᄅᆞ혀]
初發 79b5-6 / 父母 07b09, 13a10 // [도·ᄅᆞ·혀] 孟七 28b08-09 //
도ᄅᆞ ᅘᅧ [도ᄅᆞ ᅘᅧ] 三綱 101a13 // [도ᄅᆞ· ᅘᅧ] 三綱 222a10, 302b14 //
도릐혀 [도릐·혀] 老下 27a7 // [도로·혀] 初發 21a1 / 小七 29b8 / 小八
도로혀 07a4-5, 07a6, 30a9 / 小學四 32a04 / 小學五 014a08, 087b03-04,
087b05 // [도로혀] 警民 14b11-15a01 / 簡札 069a15 //
독벼리 [·독·벼·리] 老上 27a1, 45a3 //[·독·버·리] 老上 41b5 / 老下 39b5 //
독혀 [·독·혀] 小七 43b2 //
마치 [·마·치] 老上 08b5, 29b5, 58b3 / 老下 66a6 / 朴通 23a8, 42b1 //
맛치 [마·치] 論三 25b06 // [마치] 簡札 036a08 // [·맛치] 小九 005a6 //
만이례 [:만·이·례] 郷約 23a3, 35b2, 38a1 / 小六 09a4 / 小七 02b3, 18a9,
29a5-6, 29b7, 35a2 / 分門 18a09 / 老下 46a4 // [:만이:례] 郷約
24a7 // [:만이·례] 郷約 21a9, 22b9, 24a3-4, 24a5, 24a8, 25b1,
41a3 / 小七 25b1 / 呂氏 29b10 // [:만이례] 郷約 25b6 // [·만·이
·례] 郷約 36a8 / 小七 36b1 // [·만·이례] 小七 02b1 / 分門 11b05
// [·만이·례] 郷約 22b7, 25b7 / 呂氏 21b03, 21b07, 29b08 //
[·만이례] 呂氏 19b07, 20b05, 20b08, 22a09, 30b01, 31b04 // [만·이
례] 郷約 26b5, 35a8-9 // [:만·이·려] 老上 51b2 // [만이례] 簡易
11a3 / 呂氏 18b08, 19b08, 20a01, 20b04, 20b06, 21b06-07, 33b05 //
만싈에 [:만·싈·에] 小八 32a9 //
만일 [:만·일] 小學一「凡例 03a02」/ 小學二 04b05, 04b06, 12a09, 13b06,
14a03, 15a04, 15a08, 19b08, 21b09, 37b05, 61b10, 68b06, 77b07 /
小學三 16a07 / 小學五 010b06, 036a06, 036a08, 036b10, 037a01,

037a10, 043b01, 051a07, 051a09, 054a02, 058a06, 061b05, 067a03, 068a08-09, 076b03, 080b02, 099b04, 110b08 / 小學六 039b07-08, 040b04, 046b04, 047b01, 071a08 / 論二 27b03 / 論三 14a02, 15a03, 26b01, 29a01 / 論四 32b04, 40a04, 46b05 / 孟一 07b04, 14a02, 17a07, 32b02-03 / 孟二 37b06 / 孟四 12b07 / 孟八 06b10 / 孟九 06a04, 35b04 / 孟十一 11b09, 16a07, 24b06 // [:만일] 小學五 008b06 // [만:일] 小學五 057a07 // [만일] 小學五 056b01 / 論三 01a10 / 孟一 21a09 / 孟十一 02a02 // [萬:만一·일] 小學六 060a01//

만일에 [:만·일·에] 小九 065a4 / 論二 05b05, 13a07, 18a03, 33a07 / 論三 40b08, 41b04, 42a10, 43a08, 43a09 / 論四 10a06, 62a02 / 孟二 20a05, 20b07, 21b08, 33a02 / 孟三 25b03, 34b09 / 孟四 21b08, 22a03, 27a06, 32a03, 32b06 / 孟五 16b04 / 孟六 11b02, 24b07 / 孟七 13a04 / 孟八 19b06, 19b09, 24b10, 25a03, 31b08 / 孟十三 07b06, 08a03 // [:만·일에] 小六 11a9 / 小九 043b2-3 / 大學 24b04 / 孟四 36a01 / 孟五 21b09-10 / 孟六 02b04, 12b02 / 孟九 16b04 // [:만일·에] 孟十一 29a01 // [만·일·에] 小九 044a8-9 // [만일에] 簡易 05a8 / 警民 02a04, 02a10 // [萬:만一·일에] 小學五 062a07 //

맛당이 [·맛당·이] 小七 02b3 / 小八 08b3 / 鄉約 37a1 / 小學五 036a07, 051a08, 060a06, 060a08, 088b10 / 小學六 011a09, 104a10 / 孟四 07b05 / 孟十三 37b09 // [·맛·당·이] 小七 36b3 / 小學五 068a10-b01 // [·맛·당이] 孟八 07b01, 23a01 // [·맛당이] 小九 012b5 // [·맛·당·이] 鄉約 36a1 // [·맛당이] 小學五 057b08 // [맛당·이] 孟八 15b10-16a01 // [·맛:당·이] 孟十三 34b03 // [맛당이] 警民 15a11 / 呂氏 30b10 // [·맛당이] 呂氏 30a05 //

맛당히 [·맛당·히] 小學五 004a10, 007b03-04, 008a08, 037a10-b01, 037b02, 041a02, 046a04, 054a01, 056a09, 061b04, 075b06-07, 076b04-05 / 小學六 030a05, 039b02(2회), 042b02, 043a09, 060a02, 066a07, 082a07-08, 109a03, 109b04, 119a09, 120a03, 127a08, 128b08 // [·맛·당·히] 小學二 17b05, 17b07 / 小學五 016a10, 019a10, 021a04, 025a06 / 孟六 01a09, 01b02 // [·맛·당히] 大學 21b08-09 // [:맛당·히] 孟九 05b09-10 //

모듸 [:모·듸] 初發 12a7, 14a5, 21a3, 63a1 // [:모듸] 正俗 13b01 / [·모·듸] 初發 76b6 // [모·듸] 初發 16b6 // [모듸] 簡札 010a12, 131a21, 133a01-02 // [모듸 모듸] 簡札 053a14 //

모듸모듸

모로매 [모·로·매] 三綱 117a08, 132a13, 135a07, 206b16-17, 207b05, 219b06, 222a16, 230b07, 232b08, 303b07 / 老上 07b9, 44b9 / 老下 44a1, 44a4, 56a9, 56b2, 58a1 / 小六 04b7, 08b2, 16b6, 21b6 / 小七 01b4-5, 03a9, 04a3, 07a9, 18b7, 34a6, 34a8-9, 45a5, 50b5 / 小八 05b5, 14a6, 16a7, 16a8, 16a9, 16a9-b1, 16b5, 16b7, 16b8, 17a4, 17a5, 17a6, 17a6, 18a6-7, 31b4, 32b8, 33a5, 33b6, 33b9, 34b7, 34b9, 35a2, 35a4, 35a4-5, 35a6, 36a3, 38b1 / 小九 009b4, 010a2 / 小十 15b9, 16a4, 21b2-3 / 分門 01b06 / 初發 01a6, 05b3, 07a1-2, 07a2-3, 07a3, 07a6, 08b2, 08b5, 09a4, 10b5, 14b1, 17a5-6, 19b5, 45b4, 46b6,

56a5, 59a1, 60a3, 65b3-4, 70a4, 79b3 // [·모·로·매] 小八 16b6 //
[모·로매] 三綱 317a09-11 / 小六 16b6-7/ 小七 01a8 / 小九 002b3 //
[모로·매] 小七 07a9 / 初發 05b4, 12a7-b1 // [모로매] 小八 35a9 /
簡易 01b7 / 七大 01b3, 21a3 / 警民 04a11, 04b01, 06a09, 08a02,
10a03, 11b03, 11b04, 14b01 / 初發 19b5 // [모:로·매] 續三 127b01 /
小六 02b9, 05a9, 27b9 / 初發 04b6, 06b3, 06b5-6 // [모·로:매] 小六
모롬애 08b6 // [모·롬·애] 小學五 008a03, 015b04, 037b04-05, 066a08-09,
066b01, 110a03-04 // [모·롬애] 小學五 015b05 //
모로미 [모·로·미] 小八 18b3 / 分門 17b02 / 鄕約 41b8 / 初發 05b1, 16b6,
21a3 / 小學五 076b03, 081b10, 094a03, 098a02 // [모·로미] 呂氏
34a07 // [모로·미] 正俗 27a02 // [모로미] 正俗 02a10, 05b07,
모롬이 13b03, 16a08-09, 30a04, 30a05 // [모·롬·이] 小學五 051a07, 097b05,
111b03, 112a03, 112a05, 113a01, 113a03, 113a08, 113a09, 114a07 //
[모:롬·이] 小學五 060a09, 086a06, 113a05, 113b01, 116b03 //
[모·롬이] 小學五 002b07 // [모롬·이] 小學五 111a06 // [모롬이]
小學五 113a06, 113b05 //
모지마라 [:모·지마·라] 三綱 107a04 //
므ᄉᆞ무라 [므ᄉᆞ무라] 簡札 065b11, 166a14, 166b03 //
므스므라 [므·스므·라] 三綱 207a11-12, 302a09 / 老上 65b2 // [므스·므·라]
므스므러 老下 12b8 // [므스므·라] 老下 28a5 // [므스므러] 簡札 190a20 //
므스므려 [므·스므·려] 朴通 74a3 / 老上 30b9, 40a7 / 老下 20b3, 29b7, 64a2
/ 簡札 072a10 //
므ᄉᆞᆷ [므ᄉᆞᆷ] 簡札 041b10, 066a20, 066a21, 079a14, 081a07 //
므슴 [므·슴] 老上 05b9 / 論二 44b01 / 論三 20b09 / 論四 40a10, 40b02 /
孟二 17a09 / 孟八 05b04 / 孟九 11b04 / 孟十 23a06, 27a04, 34a05 /
孟十一 16a10 // [므슴] 七大 17b8 / 論三 20b08 //
므슴호려 [므·슴:호·려] 老上 65a7 / 朴通 31a9 //
므슴홀여 [므슴·홀·여] 小學四 04b08 //
믈읫 [믈읫] 老上 11b2, 20a2, 58b8 / 老下 48a3 / 朴通 47b1, 61b1 / 續三
125a11 / 小六 06a9 / 小七 01a6, 01b4, 07b5, 18a7, 22a2, 32a2, 35a1,
50a6 / 小八 16a7, 17b4, 22b3, 22b7, 23a2, 23b8, 31b4 / 小九 008a1-2,
015b4, 102b6 / 小十 14b2, 23a8, 25b2 / 呂氏 01b03, 02a01, 17a03,
17a07, 17a08, 17b03, 18a02, 18a04-05, 18a06-07, 18a08, 18b06, 18b10-
19a01, 19a05, 19b01, 19b08, 20a07, 20a08, 20b03, 21a01, 21a10, 21b09,
22a04, 22b01, 22b04, 22b07, 22b09, 23a07, 23a09, 23b06, 30a05, 30a09,
31a08, 31b08, 32b05 / 簡易 「序2a5」, 05a5 / 鄕約 01b4, 02a4, 19a1-2,
19a5, 19a6, 19b3, 20a9, 20b3, 20b5, 21a6, 21b3, 21b9, 22a9, 22b8,
23b3, 23b3-4, 24a2, 24b4, 25a6, 25b9, 26a8, 26b8, 27a3, 27a6, 27a9,
28a3, 28a6, 28b6, 36a1, 36a6, 37b2, 38a5, 39b3 / 分門 17b01, 18a06 /
初發 73a5 / 警民 01b04, 14b01 / 小學一 「題辭 01a10」, 「凡例 01b09」,
「凡例 02b04」, 03a05 / 小學二 05a02, 08a10, 10a02, 14b07, 20a05,
37a02, 55b10, 59a10, 68a03 / 小學三 09a01, 13b01, 26b05 / 小學五

006a05, 035a03, 035a09, 041a01, 060a05, 064a07, 067a02, 081a10, 097a04, 101b05, 101b09, 102a03, 102b09 / 小學六 007a09, 014a02, 016a03, 095b01, 113b03, 121b06, 123b06 / 孟三 33a01 / 孟十 07b09, 08a02, 08b02 / 孟十一 15a04, 24b07, 24b10 / 孟十二 23a09 / 大學 10b03 / 中庸 27b03, 30b05, 31a01, 51a01-02 // [믈·읫] 二倫 30a06 / 鄉約 20a6 / 小學五 054b09 / 小學六 095b10, 096a01, 110a03 // 孟十 17b04 // [믈:읫] 初發 64b3 / 小學五 051a05 // [믈의] 正俗 16a08 //

믈의

몰의 [몰·의] 初發 46b2 //

반ᄃᆞ기 [·반·ᄃᆞ기] 初發 26b5, 74a2, 84a7 // [:반·ᄃᆞ기] 初發 37b4 // [:반ᄃᆞ:기] 初發 50b3-4 // [:반ᄃᆞ기] 初發 56a6-7 // [·반ᄃᆞ·기] 初發 53a4 // [·반ᄃᆞ기] 初發 14b1, 72b5 // [반ᄃᆞ기] 七大 04b9 / 初發 14b2 //

반ᄃᆞ시 [·반·ᄃᆞ시] 鄉約 03b4, 03b5 / 初發 67b1 / 小學一 08a02, 13b08, 13b10, 14a03, 14a04 / 小學二 04a02, 08b07(2회), 08b08, 08b09, 09a10, 09b01, 09b02, 11a02, 12a10, 12b01, 14a04, 19a05, 24b05, 24b07, 25a06, 25a08-09, 25b05, 26a01, 27a01-02, 27a03, 27a04, 37a10, 37b05, 37b05-06, 38b03, 41a07, 41a08, 41a09, 42a03, 48a01, 51a04, 52b04, 58a02, 58b07, 59a10-b01, 60a06, 60b02, 60b04-05 / 小學三 10b02, 10b09, 11a07, 15b07, 15b09, 16a08, 16a09, 17a06-07, 17b05, 19a03 / 小學四 01b05, 12a05, 15a03, 15a04, 15a05-06, 15a08, 24b06, 24b07, 30a04-05, 32a03, 34b05, 46b01-02, 54b06 / 小學五 001b08, 005a01, 010b08, 025b09, 061b04, 074b05, 074b08, 075a01, 081b01, 117a03 / 小學六 005b09, 129a08 / 大學 10b03, 28b10 / 中庸 36b05 / 論一 05a08 / 論二 05b06, 13a10, 17b04, 41b09, 54b09, 55a06, 55b01, 55b04, 55b08, 55b09, 58a03, 58a04, 59b03, 59b05, 59b06, 61a06-07, 61a08, 61b06, 61b09 / 論三 07a01, 23a04, 29a07, 29b08(2회), 30a10-b01, 30b01, 30b08, 30b09, 36b06, 36b07, 40b09, 46a08(2회), 47a02, 52a06, 52a07, 52a09, 56a01 / 論四 11a05, 11a06, 18a07, 46a07, 56b06-07 / 孝經 20b03, 20b04 / 孟二 19a07, 27b01, 28a07, 29a05, 37b04 / 孟三 08a01, 15b10, 17a06, 23b09, 38b02 / 孟四 01b05, 11b05, 14a09, 28a10, 32a03-04, 34a07, 34a08 / 孟五 01b01, 09a09, 12b10, 36a05-06 / 孟七 03b07, 13a06-07, 16a02, 16a03, 16a04, 23b05, 28b06, 30b09, 30b10, 31a02, 31a04 / 孟八 18a01, 22b09, 22b10, 23a09, 23a09-10, 34a01, 34a05 / 孟九 26a06-07, 26b05 / 孟十 04a04 / 孟十一 13b05-06, 34b10, 36b09, 37b02, 37b03, 37b06, 37b07 / 孟十二 02a03, 13a05, 16b09, 18b03, 18b06, 23a06, 28a06, 37a03 / 孟十三 20b04, 20b06 / 孟十四 17a08-09, 17a09, 18b04-05, 23b05, 27b05-06, 27b09 // [·반·ᄃᆞ·시] 小七 26a2, 29a5, 34a7, 34a8, 34b1, 40a7-8, 43a5, 43a7, 43b1, 50a7 / 小八 28b9, 31a6, 42a4 / 小十 03b1 / 小學一 03a07, 04b01 / 小學二 20a07 / 大學 08b05, 11b01, 12a06, 12b07, 15b06, 26a09, 26b03-04 / 小學五 007a03, 020a06, 066a08, 066a10(2회), 066b01, 066b03, 068b02, 072a01, 107b02 / 小學六 002b01-02, 074b08, 074b10, 088b08-09, 088b10, 096b02, 096b04-05, 097b06, 103a07, 112b06, 113b06, 113b07, 113b08, 113b09, 113b10, 114a01,

115a04 / 中庸 14b09, 14b10, 17b03, 17b03-04, 17b04, 17b05, 17b09, 18b02, 34a04, 34a04, 36b01, 36b02, 36b06 / 論一 04a06 / 論二 21b02, 25b06 / 孟三 25b07-08 / 孟四 12a03 / 孟六 07b03, 09a02 / 孟十二 01b10-02a01 // [·반ᄃᆞ·시] 朴通 31a4 / 鄕約 20b5 / 小六 07a9, 08a1 / 小七 36b4 / 小九 006a10 / 小學一「書題 01b09」/ 小學三 21b05 / 小學五 035a05, 035a09-10, 036b01, 037a02, 040b06(2회), 040b07, 051a09, 051b08-09, 055a04, 058b06, 064a08, 109b05, 120a02 / 小學六 008b06-07, 009a03, 012a07, 022a07, 055b09, 073a03, 075a04, 077a09, 077b10, 078a10, 097b04, 120a02 / 論一 21a10, 37a04 / 論二 25b10, 41b10, 51b08 / 論三 06b07, 13a05, 22b07, 27a04, 70a07 / 論四 12b05, 32a08, 41a09, 41a10 / 孟一 30a06, 33a07 / 孟三 10b04 / 孟四 03a08, 09a07 / 孟五 07a03, 07a05, 11a04, 14a03, 14a04, 14a08, 15a08, 19b02, 21b10 / 孟六 06a04, 06a05, 34a07 / 孟九 05b08 / 孟十一 02a06 // [·반ᄃᆞ시] 初發 79a5 / 呂氏 03a09 / 小學五 096a01, 096a02, 096a02-03, 096a03, 096a08, 096a09, 096a10, 096b01, 096b06, 096b07, 096b07-08, 096b08 / 小學六 077a06 / 論一 32a08, 32a09, 38a09, 47b04, 52a10 / 論二 54a08, 62a02 / 論三 35a09 / 論四 57b10-58a01, 61a04 / 孟二 40b06 / 孟三 10a03 / 孟四 05b03 / 孟五 19b04 / 孟八 22b10 //[반·ᄃᆞ·시] 小九 079a1, 083a8-9, 084a3, 095b8, 096a1, 103b9, 105a5 / 小學五 051b07-08 // [반·ᄃᆞ시] 呂氏 03a08 / 孟七 03b08 // [반ᄃᆞ·시] 呂氏 18a08 // [반ᄃᆞ시] 警民 01b09, 01b11, 02a01, 02a02, 06a10, 10a06-07, 12a10, 13a07, 14b03, 18a03 / 簡札 073a04 / 百聯 01b6 / 小學一 16a02 / 孟一 03a09 //

반ᄃᆞᆨ [반ᄃᆞᆨ] 百聯 01b4, 13b2, 14b5 //

반드시 [·반·드·시] 小九 051b7, 080b8, 081a1, 081a4, 084b3 / 小學六 047a10 // [:반드시] 小九 013b5 //

번드기 [·번·드·기] 老上 48a8 // [·번드기] 正俗 20a03 // [번·드·기] 老下 59b8 // [번·드기] 正俗 18b08-09 //

별히 [·별·히] 老上 44a3 / 老下 02a8, 21a2 // [:별·히] 老下 62b3 //

본ᄃᆡ [본·ᄃᆡ] 老上 14b9, 45b7 / 老下 15b6, 15b7, 16a6, 18b9 / 續三 305a15 / 小八 09a3, 25a6, 26b8, 27b1, 28a4, 28b7 / 二倫 22a04 / 小諺五 025a02, 089a09, 105b04, 106a05 / 小學六 020b10 / 論四 15b10 / 孟五 32b04 / 孟十一 12b10 / 孟十四 05b04 //[·본·ᄃᆡ] 孟五 11b04 //[·본ᄃᆡ] 小十 34a9 //[본ᄃᆡ] 老上 54a4 / 簡札 004a05, 166a12, 166b14 / 小學五 106b07, 107a10 / 小學六 132a04 //

본ᄃᆡ로 [본·ᄃᆡ로] 老上 48a1 //

본ᄅᆡ [:본·ᄅᆡ] 初發 76a5 // [:본ᄅᆡ] 初發 70a1 // [本:본來ᄅᆡ] 三綱 206a12, 213b03, 217b06-07 // [本본來ᄅᆡ] 三綱 208a22 // [·본·ᄅᆡ] 小六 27a2// [본·ᄅᆡ] 初發 57a6 //

분명이 [분명·이] 老上 65a3 / [分明히] 七大 03a7 //

분명히 [분명·히] 小八 15b7 //

비ᄅᆞᆨ [비·ᄅᆞᆨ] 三綱 114a04, 213b11, 319b07, 329a07 / 老上 49a6, 50a1, 64a4 / 續三 106a08, 132a12, 302a13 / 小六 09a3, 12a6, 20a1, 26a9 / 小七

02b4-5, 08a2, 10a5, 18b5, 22a9, 32b1, 32b3, 39a8, 39b5, 47a2 /小八 13b2, 19b7, 29b2, 39a1, 42b4 / 小九 001b9, 002b4, 009b4, 040b9, 051b9, 079a5, 084a2, 084b8, 091b5 / 小十 01b6, 02a2, 02b4, 03b2, 11a8-9, 19a8, 21b5, 30b3, 30b7, 33b4 / 正俗 02a10 / 呂氏 19b09-10, 20b07, 21b08, 23a03, 30b09, 31b10 / 二倫 31a09-10 /鄕約 23a2, 24a6, 24a7, 25b9, 36b8, 38a8 / 初發 29a4, 29a6, 29b2, 29b4, 41a3, 53a6, 67a4, 67b3, 70b6, 72a7, 73a3, 73a5, 75b3 / 小學一「書題02a09」, 16a01 / 小學二 12a09, 12b01, 12b06, 16b08, 17a08, 20b06, 20b08, 24b03, 28a03, 28a04, 33b07, 51a04, 62b10, 69b03, 71a04-05, 71a07, 71a08, 76a06, 76a07 / 小學三 04b08, 05a05, 05a07, 15b06, 15b08, 16a08, 25b06 / 小學五 008b04, 018b04, 024b01, 036a09, 041a08, 043a09, 051b05, 055a08, 064b06, 064b08, 071a02, 071a08, 078a08, 093a08, 093a09, 108a03, 117a02, 120b02 / 小學六 001b09, 002b03, 008b06, 036a08, 037a07, 047b03, 073a08, 077b09, 078b05, 085a04, 096b01, 101b06, 101b10, 102b01, 103a08, 110b05, 118a02, 120a05, 128b05, 128b09, 131b01 / 孝經 17b03, 20b02-03, 23b09-10, 24a02, 24a04 / 大學 05a01, 16a08, 29a02 / 中庸 09b02, 09b05, 34a03, 34a04, 44b03, 44b04, 45b06, 45b09, 53a06 / 論一 04a05, 18b03, 39a01 / 論二04a03, 11b09, 18a02, 39a01, 41b09, 42b07, 43b04, 46a02, 57a01, 58a03, 60b08, 61a06, 61a08 / 論三 19b04, 26b03, 28b01, 38a10-b01, 41b04, 45a06, 49a05, 57b01 / 論四 03a10, 03b02, 56b06, 65b02, 68b01 / 孟一 04a02, 05b06, 20b03, 30a03, 32a09-10 / 孟二 28a06 / 孟三 06a01, 06a02, 08b01, 11b03, 11b05, 25b07, 36b06, 38b05 /孟四 32b04 / 孟五 04b03, 12a02, 13a07, 18a05, 24a01, 31a01 / 孟六 04b08-09, 19a08, 20a09, 20b01, 34a08 / 孟七 07b10, 18a08 /孟八 18a09, 19a01, 27a01, 27a08 / 孟九 12b08 / 孟十 04a08, 13a08, 14a05, 14a08 / 孟十一 14b07, 19b10, 21b07, 22b09, 23a02 / 孟十二 28b05, 35a06 / 孟十三 07b07, 08a10, 08b01, 15b02, 15b03, 33a05 / 孟十四 25b02, 25b04 // [·비·록] 小九 103b8 // [·비록] 朴通 02a9 // [비록] 三綱 208b09-10 / 老下 14b6, 47b7 / 朴通 67b5 / 正俗 04a06 / 呂氏 20b06 / 簡易「序3a1」/ 父母 02a04, 11b04 / 簡札 010a08, 047a03, 049a03, 053a10, 141a03, 190a03, 190a06, 190a13 / 鄕約 27b7 / 警民 04b01, 07b09, 10a02, 10a04, 11b06, 11b07, 11b10, 12a09, 13b05, 16b04-05, 18a11 / 小學五 099a03-04 / 論三18b10, 38b07 / 論四 12b05 //[비·록]

비록 小八 13b1 / 小九 039b9 // [비·로] 初發 41b6, 42a2 //

비로 [순·지] 三綱 125a14, 135b13, 232b17, 308b02 //[순지] 三綱 333a08 //

순지 [싱심도] 簡札 070a02-03 //

싱심도 [싱심·이·나] 朴通 58b3 //

싱심이나 [·쇽·졀:업·시] 三綱 219a11-12 / 老下 10b2, 11a3 / 朴通 36b4 //

쇽졀업시 [:쇽·졀·업시] 初發 20a1 // [·쇽·졀·업시] 初發 61b5 // [·쇽·졀업시] 初發 19b7-20a1 / 正俗 19b02 // [·쇽졀:업·시] 老下 35a5 //[·쇽졀:업시] 初發 37b2 // [쇽·졀:업·시] 老上 28b4 // [쇽졀:업·시] 老下 63a4

/ 朴通 32b4, 54a2, 58b9 / 小六 19b1 / 小學五 026a07-08//

시러 [시·러] 小七 47a4 //

시러곰 [시·러·곰] 小九 079a6 / 大學 08b06 / 小學二 27b08 / 小學三 27b01-02 / 小學四 10b03, 37a02 / 小學五 012a05, 012a06, 035a04, 053a04, 054a02-03, 073b08 / 小學六 002b04, 003a01, 019b05-06, 027a07, 027a08, 034b05, 042a05, 066a06, 068a01 / 論一27b06, 29a07, 30a10-b01 / 論二 39b08 / 論三 05a10, 20a07, 22b07, 23a04 / 論四 47b10 / 孟一 17b05, 28a10, 30a07 / 孟二 02b07, 24a01-02 / 孟三 12b04 / 孟四 04a02, 06a09, 08b10, 31b06 / 孟五 23b08 / 孟六 05b09, 12b03, 12b07, 22b06, 23a02, 25a07, 31a10, 32b09 / 孟七 21a06 / 孟八 03a02, 14b05, 16a02 / 孟九 02a09, 06b03, 12b08, 14a04, 14a05, 16a02, 16a09 / 孟十 07a06-07 / 孟十三 05b01, 05b02, 05b03 // [시·러곰] 小學五 078a10-b01, 117a04 / 小學六 018b06, 092a04 / 論一 44b05, 45a09, 45a10, 48b04 / 孟二 35a09, 39a03, 39a04, 39a05 / 孟三 34a05 / 孟八 29b08 / 孟十一 23b04, 23b07 / 孟十二 06b04, 15a07, 15a08 / 孟十三 28b05 // [·시·러·곰] 中庸 31b07 / 孟二 18b05 / 孟七 26b04 // [시·러:곰] 小學五 080a09 // [시:러·곰] 小學五 006a03, 059a04 / 論二 43b04 / 論三 26b04 / 論四 65b02 / 孟四 13b10, 20b02, 20b04, 26a01, 35b04 / 孟五 11a07 / 孝經 24b02 // [시:러곰] 論一 47b07 / 孟二 38b09 // [시러곰] 孟五 28b10 / 孟九 17b10 //

시혹 [시·혹] 正俗 13a06, 13a07, 22a05 / 初發 14a7, 40b4, 40b6, 82a3,

씨 ᅘᅬᆨ 84a2 // [시혹] 七大 13a7 // [時씨或 ᅘᅬᆨ] 三綱 214a08, 225a14 //

실로 [·실·로] 初發 62a1, 72b2 / 小學五 117b08 // [·실·로·ᄂᆞᆫ] 小八 41b9 / 小學五 051b06, 119b08 //

아ᄆᆞ라나

마나 [:아·ᄆᆞ라·나 :마·나] 老上 49b3, 54a8, 55a6 //

아ᄆᆞ려나 [·아·ᄆᆞ려:나] 老上 40a6 // [아ᄆᆞ려나] 簡札 009a10, 010a10, 013a06, 013a08, 049a04, 049a20, 050a01, 065a10, 067a04, 067a05, 068a14, 070a11, 072a07, 074a09, 084a09-10, 145a18, 152a10, 166a18-19,

아마려나 166b17 // [아마려나] 簡札 070a03, 071a11, 118a11 //

아마도 [아마도] 簡札 166a11 //

어ᄂᆞ [어·ᄂᆞ] 老上 63b8 //

어ᄂᆡ [어·ᄂᆡ] 孝經 19a08 // [어ᄂᆡ] 簡札 023a07, 071a17, 073b08 //

어느 [어·느] 老上 64a4 //

어늬 [어·늬] 小六 17a4 / 小學五 008a05 //

어늬제 [어·늬·제] 孟一 05b04 //

어ᄃᆡ [어·ᄃᆡ] 三綱 303b06 / 孟一 12a05, 15b07 / 孟五 11a10 / 孟七 23a09-10 / 孟十 21b03 / 孟十一 09a03 / 孟十二 09b06, 32a02 / 孟十三 27a07 // [어ᄃᆡ] 簡札 001a03, 018a07, 020a11, 068a07, 072a23, 073b16, 078a17, 079a07, 187a06 //

어드리 [어·드·리] 三綱 105b02 // [어·드리] 三綱 311b17 //

어듸 [어·듸] 三綱 209b05, 223b06, 229a07-08, 323b08 / 老上 07b4,

09b9, 11a3, 17a3, 31b2, 49b2, 53a7, 56a3, 60b3 / 老下 05b5, 12b3, 29a3, 58b3 /續三 310a12 /朴通 03b4, 07b8, 12a2, 14a8, 15a7, 19b7, 31b5, 33b8, 37b3, 58a4, 62a6, 64b1, 65a6, 72b3, 75b3 / 正俗 19a02 / 論一 32a02, 39b07 / 論四 46a06, 63a02, 63b04 / 孟一 19b01 // [어듸] 老下 57b9 / 七大 09a3, 09a4 / 論三 17a10 //

어듸ᄯᅡᆫ [어·듸·ᄯᅡᆫ] 老上 18b5 / 朴通 60a6 // [어·듸·ᄯᅥᆫ] 三綱 220b02 //

어듸ᄯᆞᆫ [어·듸·ᄯᆞᆫ] 朴通 22b7 // [어·딋·ᄯᅥᆫ] 三綱 215b09 // [어·딋·던]

어딋ᄯᅥᆫ 三綱 225b14 // [어·딋던] 三綱 216a06 //

어루 [어루] 三綱 203a10 / 七大 15a2 // [어:루] 初發 17b5 //

어셔 [어셔] 三綱 221b15 / 續三 316a11 // [어·셔] 三綱 220a18-19 //

언제 [:언·제] 小六 11b6 // [언제] 簡札 052a20 //

엇뎨 [:엇·뎨] 三綱 118a16, 123b07, 206b07-08, 208b16, 212a15, 213a09, 213b11, 213b14, 213b16, 216b13, 216b18, 217a13, 217b02, 218a12, 220a14, 224b10, 230b02, 302a17, 304a07, 308b12, 311b06, 314b07, 317b06, 319b09-10, 326a12, 330a18, 330b09, 332a10 / 小六 11b3 / 小七 49a9 / 小九 039a4 / 小學四 07a10, 46b03, 53a10 / [:엇뎨] 三綱 225a17, 227a16, 303a08-09, 308a13-14, 329a13 / 小六 32b7, 33a2 / 正俗 26b08 // [·엇·뎨] 三綱 304a12-13, 311b18 // [:엇:뎨] 三綱 334b09 // [엇뎨] 三綱 203a07, 206a13, 211b06-07, 225b03 / 續三 324a08, 327a11 / 七大 04b6, 04b7, 05a1, 07b1, 07b2, 16b3,

엇더 17a5, 21b7 / 父母 01b03, 03b05, 17b05, 22a10 // [엇더] 父母 24b02

엣뎨 // [엣·뎨] 三綱 320a15 // [:엣·뎨] 三綱 319b11 //

엇디 [:엇·디] 老上 02a4, 02a8, 03b8, 03b9, 16b7, 19b6, 25b1, 27b1, 35b2, 37a1, 41b3, 42a5, 44a1, 45b7, 47b1, 48a3, 48a4, 49a5, 49b5, 50a6, 50b8, 51a2, 51b4, 52b8, 55b7, 59b5, 59b7, 60b1, 65a1, 65a4, 65a6, 65b5, 68a2 / 老下 03b2, 10b8, 15a7, 19a3, 31a9, 39a2, 39b2, 49a3, 57a2, 62b5 / 朴通 02b2, 04a2, 04a5, 15b4, 23a3, 24a6, 32a1, 32a7, 37b5, 43b5, 49a2, 63b4, 64a7, 64b8, 66a1, 73b1 / 小七 06a2, 09b4, 22b3-4, 23b1-2, 25b4-5, 29a7, 33a8, 42a3-4, 45a4, 47a4, 49a5 / 小八 15a4, 24b6 / 小九 007a7, 030a8, 033a7-8, 039b7, 051b9, 053a7, 063b1, 064b8, 065a3, 065a4, 068a1, 079a3, 079a4, 089a5 / 小十 02a3, 04b5, 05b3, 09b6, 10a8, 11b1, 16a2, 17a7, 21b6, 30b8, 31a3, 31a6 / 正俗 25b03 / 二倫 07a09-10, 14a11 / 初發 27a4, 37b5, 50a5 / 小學一「書辭 03b04」/ 小學四 21b05, 22a06, 32a05, 33a09, 36b08, 37a02, 37b03, 39a08 / 小學五 010b09, 011a02, 017b08, 030b04, 030b09, 039b01, 042b08, 057b07, 061b06, 064b07, 064b09, 065b02-03, 076b02, 094b09, 103b05 / 小學六 006b06-07, 027a08, 030a05, 035b03, 036a06, 042a05, 047b02, 048b09, 052a10, 058a03, 058b01, 058b02, 059b06, 060a02, 062b07, 073a06, 104a10, 105a07, 109a04, 109b05, 110b06, 115a02, 120a06, 128b10, 129a04, 129a05 /論一 11b02, 13b05, 13b05, 16a05, 16b05, 26a04, 30a10, 35a05, 36a02, 40a02, 40a04-05, 43b10, 44b04, 46a01, 47b07, 48b04, 51a01 / 論二 08b09, 19a08,

20a06, 24a09, 27b04, 40a05, 44a10, 47a03, 48b01, 48b06, 49b10, 50a04 / 論三 05b07-08, 06b07, 10b02, 13a05, 14a02, 21b06, 23b02, 24a06, 24a08, 24b02-03, 29a04, 32b08, 34b10, 35b03, 38a03, 41b02, 46b06, 57a06, 59b02, 60b07, 65b03, 66b09, 70a02, 70a07 / 論四 17a02, 31a07, 32a08, 32b03, 34b03(2회), 36a01, 51b06, 55a10, 55b01, 56b01-02, 59b10, 63a04, 65b03, 65b09, 66b10, 70b01, 70b05, 70b10, 71b09 / 孝經 01b10, 24b02 / 中庸 12b06 / 孟一 05b07, 10b02, 12b03, 13a10, 19a06, 19b06, 20b04, 21a08, 24b10, 28b08, 30b07, 34a08 / 孟二 04a06, 04b04, 05b05, 06a01, 10a09, 11b07, 14a03, 15a05, 15a06, 20a05, 22b05, 23a01, 23b06, 28a10, 30a06, 31b09, 34a08, 36b07, 38b10, 41b08 / 孟三 02b03, 05a01, 10b04, 14a06, 16b10, 23a06, 33b02, 34a04, 38b06 / 孟四 04b06, 06b07, 06b09, 08a09, 08b03(2회), 08b10, 12b01, 12b08, 16b07, 19b01, 20b09, 22a07, 25a05, 26b04, 27a06, 31a05, 31b03, 31b05, 32b06, 35a03 / 孟五 02a08, 02b03, 09a07, 18b09-10, 19b10, 20b07-08, 20b09, 20b10, 27a05-06, 32a05, 33b05, 34b04-05 / 孟六 05a08, 05b09, 10a01, 12b08, 13a10, 14a10, 15a10, 15b05, 19a08, 21a10, 23a01, 24b08, 25a07, 33b02, 34a08, 36a09 / 孟七 19a03, 22b06, 26a04, 26b03, 26b05, 33b05 / 孟八 03a02, 04a04, 07b01, 08b01, 16a02, 17b07, 18a02, 23a01, 23b09, 23b10, 24b09, 29b06, 31b07, 32b05-06 / 孟九 01a08-09, 05b08, 10a01, 12b08, 29b09, 30b04, 30b06, 30b07, 35b06 / 孟十 04a09, 07a01, 19b05, 25b06, 29a09, 29b01, 29b02, 29b04, 31a06 / 孟十一 03b07, 05a10, 15a05, 19a05, 19a10, 20b02, 29b10, 32a07 / 孟十二 02b05, 03a03, 03a05, 04b03, 05b08, 06b10, 07a10, 08b01, 10b04, 13a05, 16b09, 17b08, 32b07, 34b02 / 孟十三 05a08, 09a10, 16b05, 16b10, 19b08, 23a08, 24b06, 27a03, 28a08, 28b05, 28b08, 30b05, 34b04 / 孟十四 03a07, 04a01, 04b07, 16a07(2회), 19a06, 25a04, 26b01, 27a02, 27a06, 27b08, 28b01, 30a03, 30a06 // [:엇디] 老上 26b8 / 朴通 12b7 / 小六 27a9 / 小七 32b4 / 小九 063b2 / 正俗 17a07-08, 29a06 / 二倫 20a08, 23b03, 33a08 / 小學四 29b07 / 小學五 016a02, 025a10, 073b05, 080a09, 080b04 / 小學六 082b08, 129a08 / 論一 17a02-03, 17a10, 19b04, 19b10, 20a01, 21b07, 24a02, 27b06, 29a09, 47a03 / 論二 12a01, 13a10 / 論三 07a04, 17a01, 56a01, 60a08 / 論四 46a07, 49a09-10 / 中庸 51b03 / 孝經 14b04, 19a06 / 孟一 27b01 / 孟二 33a04, 39a10 / 孟四 33a04 / 孟五 32a03 / 孟七 15a01, 23a01, 36a01(2회) / 孟八 30b08 /孟九 08a07, 12b04 / 孟十 17b06 / 孟十一 30b05 / 孟十二 05a08 / 孟十四 01b09, 13a10, 13b04 // [·엇:디] 初發 20a3, 34b5, 34b6 // [·엇·디] 老下 57b6 / 朴通 66a3 / 續三 126b09 / 小七 32b2 / 小九 057a2 / 小十 31a2 / 初發 32b4, 42a3, 45b3, 56b7, 75b5 / 論一 43a06 / 孟三 02a09-10 / 孟十 19b09 // [엇·디] 初發 50b2, 62a3, 73a7(2회) / 小六 19a5 / 小七 24b9 / 小九 043b5-6, 063a2 / 小學六 102a02 / 孟二 22a09-10 / 孟四 12a05 / 孟六 32b08-09 / 孟十二 05a02, 30a06 / 孟十三 28a02 // [엇디] 簡易 「序3a5」 / 簡札 002a06, 007a03, 009b01, 009b03, 013a03(2회), 013a04, 015a01, 015a07, 020a05, 026a11, 033a03, 036a07, 037a02, 037a06, 044a02, 048a03, 049a03,

051a04, 051a05, 052a09, 052a19, 053a02, 053a07, 053b01, 053b05, 055a15, 055a28, 055a30-31, 057a02, 059a03, 060a02, 062a09, 067a22, 071a22, 074a03-04, 097a01, 124a02, 124a03, 124a15, 128a06, 130a04, 130a20, 131a02, 133a09, 133a12, 148a02, 148a07, 166b07, 187a01, 190a02, 190a09 / 警民 06a08 / 初發 69b6 / 正俗 26b03 / 小學五 056a10, 078a10 / 論三 11a10-11b01 / 孟一 03a08 / 孟二 30b10 / 孟四 32b04 / 孟五 21a01 / 孟九 29b10 / 孟十一 07b01 // [·엇디] 正俗 17b08, 20a06 / 二倫 29b07, 42b03 / 小學二 27b08 // [:엇:디] 初發 40a4,

잇디 54b2, 59a6 / 小學六 073a05 / 論三 05b09 // [엇:디] 初發 12b7 //[:잇

엇섀 ·디] 老上 01b2 // [:잇디] 朴通 38a9 // [엇섀] 簡札 054a06, 054a09,

어섀 061a05, 084a06 // [어섀] 簡札 084a02 //

엇디엇디 [엇디엇디] 簡札 008a09 //

역시 [역시] 簡札 083a08-09 //

오직 [오·직] 三綱 217b04, 225b18-19, 228a04, 232b06, 233b02, 323b09 / 老下 40b5, 71a9 / 朴通 55b4, 60a8, 62b8, 63a1 / 小六 03a4, 04a7, 06a7, 18b9, 18b9, 22a6 / 小七 05a3, 18b6, 27a5, 29a6, 29b5, 36a7, 37a3, 40a8 / 小八 13b3, 32a6, 35a2, 37b8, 38a2 / 小九 031b2, 071b3, 078a3-4, 089b1, 098b6, 100a2, 106b1 / 小十 22a4, 30b9 / 呂氏 21b06, 23b02, 31a10, 32a01 / 二倫 12a11 / 鄉約 25b5, 28a9, 37b4, 38b1, 39b5 / 初發 03a2, 08b6, 11a3, 16a5, 20a3, 45b3, 53b4, 54a7, 57b2, 57b6, 82a7 / 小學一「書辭02a02, 書辭02b03, 書辭04b03」/ 小學二 46a10, 73b06 / 小學三 14a03, 25b07 / 小學四 02b09, 09b01, 18b01 / 小學五 003a01, 003a05, 004a01, 006a02, 017b03, 020b04-05, 025a05, 029b02, 029b03, 038b05, 051b06-07, 057b09, 058a08, 061b05-06, 067b02, 068a05, 068b10, 072a01-02, 085b10, 086a10, 087b03, 090b10, 094a07, 110a05, 113a05, 116a01, 116a03, 116a04 / 小諺六 002b05, 054b05, 059a05, 066a05, 074b05, 078a01, 091b04, 092b08, 098b10, 100b01 / 大學 10a10, 23a09, 23b05, 25b01, 25b03 / 論一 11b09, 31a03 / 論二 17a02, 35b09(2회), 50b04, 57a02 / 論三 17a10, 17b07, 43a02 / 論四 30b08, 45a03, 60a01 /中庸 08b07, 18b09, 35a02, 35b10, 49a10, 53a10 / 孟一 32b02, 34a03 /孟二 08b07, 08b10, 11b04, 12a07, 16b04 / 孟三 23a06, 33b05 / 孟四 15a02 /孟五 11b10, 27a01(2회) / 孟七 04a04, 26b03, 32a02, 36b03 / 孟八 08a01, 15b07-08 / 孟九 04b04 / 孟十 13a07, 14a04, 31b08 /孟十一 16b07, 17a04, 21a05, 22b08 / 孟十二 29b08 / 孟十三 12b03, 23a08, 31b06 / 孟十四 29b03 // [오직] 老下 14a3 / 續三 205b03 / 小八 05b9 / 呂氏 32b07 / 簡易 03a2 / 分門 02b07 / 簡札 130a21, 155a02 / 孟二 11b07 / 孟三 33b04 / 中庸 51a10 // [오:직] 正俗 04a03-04 / 初發 02b2, 46a4 // [·오·직] 小九 080b5 //

오히려 [·오·히·려] 小六 15a3 / 小七 02b5, 16a3 / 小九 065a2 / 小學四 17a02, 17a04-05 / 小學五 030b02, 030b07, 042b04, 042b06, 049a02 / 論二 35a09 / 論三 67b02 / 論四 72a03 / 孟二 07a06, 33b06 / 孟三

04a01 / 孟四 32b05 / 孟五 23a04, 32b05 / 孟八 24b07 / 孟十三 05b02, 07b08 / 中庸 09b07, 11a06 / 孝經 17b04 // [·오·히려] 小七 09a9 / 小學二 33b08 / 小學四 01b08, 33a08-09, 44b01 / 小學五 014a03-04, 014a05, 036a10 / 論二 13b01 / 論四 65a10 / 孟二 07a04 / 孟三 27a08-09 / 孟四 10b06 / 孟十三 22b04, 32a03 // [·오히·려] 三綱 311b15 / 小六 15a5, 33a1 / 小九 085b3-4 / 小學五 048a09 / 小學六 058a09, 059b09, 079a08-09, 081b02, 100b03 / 論三 24b02, 71a08 / 論四 10b05, 43a08 / 孟三 03a06 / 孟四 32a02 / 孟五 02b09 / 孟七 16a09-10 / 孟十 19a02 / 孟十三 24a06-07 / 中庸 55a04 // [·오히려] 小六 32b5 / 正俗 25a04 / 二倫 15a17 / 孟三 05a09 // [:오히·려] 初發 50a3 // [오·히·려] 論四 47b03 //

의식 [의·식] 小九 013b3-4 / 小十 13b3-4 / 正俗 02a06, 04a05 / 二倫 10b06, 48b03 / 續三 106b06, 125a12, 127a05, 127a07, 128a04, 131a05, 132a13, 136a13, 314a11, 314a12 //[의식] 續三 106b02, 106b09, 133a07, 317b02//

웅당히 [웅당·히] 小學六 066a05, 110b08 //

젼혀 [젼·혀] 三綱 302a17 / 老下 06b2, 12b4 / 朴通 20b7 / 小七 37b1, 46b8 / [젼혀] 初發 03a6 / 父母 16a07 / 七大 03b7 //[專□·혀] 三綱 232a05//

졍히 [:졍·히] 初發 41a1 / 朴通 17b1, 22b5, 35b9, 46b6, 54a6 / 老上 25a4, 43b8, 54b7 / 老下 13b8, 26b6, 35b3, 66a4, 66b7 // [:졍히] 鄕約 38b6 / 小九 012a5 / 正俗 27b03, 27b04 / 二倫 07a10 // [正:졍·히] 三綱 123a14-15 / 小學一 08a03 / 小學五 068a10 / 論二 27b06-07 / 論四 03a02, 37a04 / 中庸 13b09-10 // [졍·히] 小八 16b1, 35a2 / 二倫 48a09 / 呂氏 32a04 // [·졍:히] 老下 02b2 // [:졍·히] 朴通 66b9, 67a6

징히 // [:징·히] 老上 62b1 //

제발 [제발] 簡札 073b14 //

족히 [足·죡·히] 小學三 22b03 / 小學四 09a02, 09a04, 09a06-07, 09a09, 09b01 / 小學五 022b04, 025a10, 055b05, 094a06, 102b09, 115b10, 119b06 / 小學六 011b01, 083a01, 117b06 / 大學 19a03 / 中庸 43a05, 43a06, 45a02, 49b01, 49b03, 49b04, 49b06, 49b07 / 論一 13a05-06 / 論二 33a09, 47a05, 48b06 / 論三 46b06 / 孟一 23b05, 23b05-06, 23b06-07, 23b09 / 孟三 04a05, 33a04, 33a05 / 孟四 09a10 / 孟五 06b02 / 孟六 08b10 / 孟七 02a06, 31b10, 32a01 / 孟八 08a10-b01 / 孟十 09b04 / 孟十一 20a08, 20a09 / 孟十二 25b01, 25b03 / 孟十三 17b03, 17b05 / 孝經 01b10 // [足·죡히] 小學六 018b03 / 論一 22b03, 22b04, 34a02 / 論三 51b04 / 論四 33a10 / 孟一 26a09, 26b03-04, 28b07, 33a07, 33a08, 33b09-10 / 孟三 03a06 / 孟三 32b05 / 孟九 04a05, 04a07, 04a09, 04b01, 04b03 / 孟十 10a07 // [足죡·히] 孟一 20a03-04 / 孟四 06b09 / 孟十 11a01 // [·죡·히] 小十 19a2 / 二倫 21a17 // [·죡히] 小六 27b1 // [足:죡히] 孟十 19b10 // [足:죡·히] 孟十四 19b10 //

주히 [足:주·히] 論一 50b04 //

진실로 [진·실·로] 老上 35b8, 49a6-7, 52a2, 52b6, 68a5 / 老下 11b6, 12b3, 19a7, 63b5-6 / 朴通 14a1, 15a2, 35b1, 42b1-2, 63b5, 66b2, 71b2 /

小六 24a6 / 小七 02b2, 04a4, 22b3, 32b1, 32b3, 33b5, 49a4 / 小八 07a5, 20b2, 33a6, 39b5-6 / 小九 046b6, 048a6, 048a9, 051b7, 059a4, 086b9-87a1, 097a9 / 小十 18b4, 29a5 / 初發 31b6, 72b3 / 小學一「書題02b03」/ 小學二 43b07 / 小學四 04a09, 26b04 / 小學五 036a06-07, 037b06, 055b01, 061a05, 064b06, 064b08, 065b09 / 小學六 090b08 / 大學 04b04 / 論二 25b05, 40a09 / 論三 40a07 /論四 38b06 / 孟一 30b01, 30b02, 30b03, 32b04 / 孟二 37b03 / 孟三 01b01, 29b01, 33a03, 33a05 / 孟四 07b03, 26a03, 33a10 / 孟五 09a04, 21a03, 34b08-09, 36a04 / 孟六 05a08, 19a05, 33b02-03 / 孟九 16b07 / 孟十一 20b07, 20b08 / 孟十二 19b04, 34a01 / 中庸 42a06, 44b03, 44b05 // [진·실로] 小七 28b5-6, 49a2 / 正俗 04a07, 06a06, 20b02 / 小學五 022b01, 080a05, 080a07, 080a08, 087b04, 099b08-09, 108a08 / 小學六 042a10, 042b06, 044a03, 044a05-06, 047a10-b01, 054a10, 080b03, 117a09, 127a09, 131a04 / 大學 24b09, 25a03-04 / 論三 25b06, 25b07, 26b01, 28b01, 41a03, 56a10, 67b01 / 論四 02a02 /孟一 17a09, 20a05, 20b02, 25a03 / 孟二 33a05 / 孟五 04a08, 07b05, 18b04 / 孟七 18b06, 18b08 / 孟八 11a08, 20a05-06 / 孟九 05b09, 11b04, 14b02 / 孟十 18b01, 23a07 / 孟十一 03a03, 29b08, 37a05 / 孟十二 16a01, 33a10 / 孟十三 25b02 / 孟十四 07b02-03, 20a09 / 中庸 51b10 // [진실·로] 老上 54b1 / 小七 26a1 // [·진·실로] 孟一 21b01-02 // [진실로] 續三 205b07 /

진질로 簡易「序3a3」/ 父母 10a06 / 論一 31a08 // [진·질·로] 小九 046a9 //

진씰ㆆ 로 [眞진實·씰ㆆ ·로] 三綱 321b01-02 //[眞진實씰ㆆ ·로] 三綱 324b09-10//

진실히 [진실·히] 初發 45b7 //

ᄎᆞ마 [·ᄎᆞ·마] 三綱 134a06, 227b05, 311b17, 317b09 / 續三 106b01, 303a10, 322b01 / 小七 48a3 / 小九 063b1 / 小十 33b5 / 孟八 18a07 // [·ᄎᆞ마] 小九 020b6, 021b9 / 二倫 23b03, 39a10 / 小學六 058b01 // [ᄎᆞ·마] 小七 23b2 // [ᄎᆞ마] 三綱 320b05, 329a13 / 續三 205a19,

촘아 327a12 / 簡札 040a13 /小學六 131b02 // [·촘·아] 小學二 16a09, 16b01 / 小學四 25b06 / 孟十 01b10 //[·촘아] 小學五 056a10, 079a09 / 小學六 018b04, 019b05 / 孟一 22a03(2회) //[:촘아] 孟十 04a07 //

촐하리 [촐하·리] 小六 13a9 / 小九 050a2, 066a8-9 / 小學二 22a06-07 / 小學五 012b03, 085b02 / 小學六 0445b07, 061a04 / 論一 20a08, 20a09-10, 24a01 // [촐하리] 警民 16b01 //

촐히 [촐히] 三綱 221b09, 320a12, 322b06, 331a14 / 簡札 066a10, 187a12//

촘아 →[ᄎᆞ마]

촘히 [:촘·히] 正俗 25a06 //

특별이 [·특·별·이] 鄕約 41a3 / 小學六 43a09 // [·특·별이] 呂氏 20b08, 21b07, 33b05 / 鄕約 24a8, 25b6 // [특·별·이] 小九 047b1 //

특별히 [특별히] 簡易「序2b1」//

필연 [필연] 正俗 10a08 //

ᄒᆞ다가 [·ᄒᆞ·다·가] 老上 03b5, 04b5, 04b9, 18a3, 24b5, 70b3 / 老下 28b9, 31b2, 42b3, 44b7, 46b6, 46b9, 47a3 / 小七 18a8, 21a2-3 // [·ᄒᆞ다

·가] 三綱 230a20, 232b10-11, 326a13 / 老上 10a6 / 老下 17a3, 17a6 / 朴通 10b5, 61a8, 73b3 / 小九 065a3-4 / 正俗 16a02 / 初發 17a2, 45b1 / 小學六 060a01 // [·ᄒᆞ·다가] 小七 24a8 // [·ᄒᆞ다가] 老下 17a9 / 正俗 02b03 / 二倫 39a10 / 初發 45a4, 73a1 // [ᄒᆞ·다·가] 老上 41a1 // [ᄒᆞ·다가] 老下 42b8-9 / 初發 03a1, 11b2, 17b2, 76a6 // [ᄒᆞ다·가] 老下 17a1, 19b1, 62b9 / 朴通 61b3 / 初發 03a4 // [:ᄒᆞ·다가] 初發 12a7 // [:ᄒᆞ다가] 初發 62a2, 75b1 // [ᄒᆞ다가] 七大 17b7 / 初發 14a4, 53a5, 70a3, 75b4, 76b7, 80b3, 82b5, 84a6 //

ᄒᆞᄆᆞ시 [·ᄒᆞ·ᄆᆞ·시] 老下 32a9 //

ᄒᆞᄆᆞᆯ며 [·ᄒᆞ·ᄆᆞᆯ·며] 續三 122b04, 322a15 / 小七 02b6, 22b2 / 小八 10b6 / 小九 065a3 / 小學五 036b01 / 小學六 059b10 / 孟七 24b07 / 孟十 29b07 / 孟十二 30a10 / 中庸 16b05 / 孝經 11a07, 11b06, 12a03 // [·ᄒᆞᄆᆞᆯ·며] 三綱 311b16 / 二倫 26a11-12 / 小學五 055a10, 090b08 / 孟十 19a02 / 孟十二 26b08 / 孟十三 05b02, 30a06 / 孟十四 10a09 // [·ᄒᆞᄆᆞᆯ며] 小九 063b1 / 正俗 19a05, 25a04-05 / 孟十29a03, 31a06 // [ᄒᆞᄆᆞᆯ·며] 三綱 219b03-04, 309a08, 330b09 // [:ᄒᆞᄆᆞᆯ·며] 初發 12b3, 50a4 //[·ᄒᆞ·ᄆᆞᆯ며] 小學二 18b08 // [:ᄒᆞᄆᆞᆯ며] 初發 50b1 // [ᄒᆞᄆᆞᆯ며] 正俗 10a02, 10a03 //

ᄒᆞ믈며 [·ᄒᆞ믈·며] 小學六 058a10 // [·ᄒᆞ믈·며] 孟四 23a10 / 孟九 32a10 // [·ᄒᆞ·믈·며] 孟四 10b06 / 孟十二 33a06 //

ᄒᆞᆫ갓 [ᄒᆞᆫ갓] 小七 32a5, 33a3-4, 35b3 / 小八 14b1, 29b4 / 小十 18b5, 27a7 / 正俗 06b01, 11b05, 17a08, 23b08 / 呂氏 31b03 / 鄉約 37b8 / 簡札 011a09 / 初發 74a1 / 警民 12a04 / 小學五 017b07, 064a10, 065a07 / 小學六 117a10 / 論四 32b04 / 孟三 16b01 / 孟四 19a02, 25a05, 32b06 / 孟七 02a06, 02a07, 34b01 / 孟十二 26b07 // [ᄒᆞᆫ·갓] 正俗 07b10 / 初發 49b7 //

ᄒᆡᆼ혀 [:ᄒᆡᆼ·혀] 老上 45a1 / 小七 35b1 / 小九 055a7, 071b4 / 小學六 066a06 / 論二 09b01 / 孟八 13a09 // [:ᄒᆡᆼ혀] 小九 077a2 / [幸:ᄒᆡᆼ혀] 小學一「書辭 04a09」// [·ᄒᆡᆼ·혀] 小九 051b8 / 二倫 21a16 // [:ᄒᆡᆼ·혀] 小九

ㆅᆡᆼ혀 043a9 // [ᄒᆡᆼ·혀] 小學六 050b08 // [幸ᄒᆡᆼ혀] 三綱 225b04 // [幸: ㆅᆡᆼ

ᄒᆡᆼ여 ·혀] 三綱 220b14, 319b13 // [ᄒᆡᆼ혀] 簡札 006a11, 072a12// [ᄒᆡᆼ여] 簡札 073a06 //

현마 [·현·마] 三綱 123a05, 232a09, 313a09, 330a08 // [·현마] 三綱 224a10, 224b08, 322a05, 324a15 // [현마] 三綱 330a04-05 / 簡札 020a16, 061a20, 071a18, 116a03-04, 116a16-17 //

ᄒᆞᆨ [·ᄒᆞᆨ] 老上 10a4, 10a4 / 老下 53b8 / 朴通 18a8, 62a4 /小六 30a9, 31a6 / 小七 09b2, 18b2, 37a2 / 小九 020b2, 020b7, 039b5, 041b6, 076b3, 099a7, 099a7, 102b3, 102b4 / 小十 32a2, 32a3 / 呂氏 17b04, 18b06, 18b07, 19b05, 20b08, 21a10, 22a09, 22b03, 23a05, 23a10, 29b09(3회), 30a02, 30a04, 30b08, 30b10, 34a05(2회) / 分門 01b01 / 鄉約 19b4, 21a7, 21a8, 21b5, 22b4, 24a9, 25a6, 26b5, 27a1, 28a1, 28a7, 35a9, 35a9, 35b1, 35b6, 35b8, 36b7, 37a1, 37b8, 41b6, 41b7 / 小學二 03a09 (2회), 16b07 / 小學五 117b05 / 論三 15a01, 15b01, 17b01 // [或·ᄒᆞᆨ]

	小七 02a7 / 小八 39b3 / 小學四 25b02 / 小學五 018b04, 028a07, 029a03, 036a02, 050a01, 051b01, 057b06, 067a10, 068b09, 113b04 / 小諺六 018a10, 018b05, 025a04, 036a04, 038a03, 039b05, 050a02, 070b10, 071a08, 090a04-05, 090a06, 092a04, 092a04-05, 095a08, 095a09, 109a07, 128b02, 130a03(2회), 131a04 / 論三 14a02 / 論四 64b07 / 孟二 28b10, 29a01 / 孟三 26a07 / 孟四 08b04, 17b09 / 孟五 28a01, 31b09(2회), 31b10 / 孟九 32b02, 32b03(3회) / 孟十一 10b01, 11a02, 32b05(2회), 33a10, 33b01 // [혹] 老下 53b5 / 呂氏 31b03 / 父母 14b07, 14b08(2회) / 警民 02a04, 02a07, 17b09, 19a03 // [或혹] 簡易 01b1-2 / 孟九 32b02 //
혹도	[혹도] 警民 02a02 // [或혹도] 小學一 「題辭 03a02, 題辭 03a04」 / [或·혹도] 孟五 31a03 //

참 고 문 헌

강성일(1975), 『국어학논고』, 형설출판사.

고영근(1965), 『현대국어의 서법체계에 대한 연구 ── 선어말어미의 것을 중심으로』, 국어연구(국어연구회) 15.

_____(1980), <중세어의 양태·정감의 서법에 대한 연구>, 인문논총(서울대 인문대) 5.

_____(198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탑출판사.

_____(1986), <서법과 양태의 상관관계>, 『國語學新研究 I』(유목상 외 편, 탑출판사.

_____(1987),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고정의(1980), 『十五世紀 國語의 副詞 研究』, 단국대 국어국문 석사학위논문.

_____(1985), <중세국어 부사의 통사 특징(I)>, 울산어문논집(울산대 국어국문학과) 2, 1-19쪽.

국어연구회 편(1990),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김경훈(1981), <國語의 樣相 構造에 대하여>, 開新語文研究 1, 15-29쪽.

김광해(1989), 『現代 國語의 類意現象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석득(1983), 『우리말 연구사』, 정음문화사.

_____(1987), <'완료'와 '정태지속'에 대한 역사적 정보>, 한글 196호, 154-173쪽.

_____(1989), <마침법의 의향법 체계 ── 마침법과 서법과의 관련 ──>, 『이용주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7-20쪽.

김선희(1985), <체언수식부사의 의미분석>, 한글 187호.

_____(1987), 『현대국어 시간어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승곤(1975a), <中世語의 「sᅷᆫ」과 「ᄯᅡ녀」 語尾考>, 국어국문학 68·69 합집, 705-709쪽.

_____(1975b), <중세국어의 가정형어미 「ᄯᆞᆫ」과 억양형어미「ᄯᆞ녀」고>, 건국대 대학원 논문집 2집.

_____(1988), <중세국어의 형태소 「ᄯᆞᆫ」과 「ᄯᆞ녀」의 통어기능 연구>, 『國語學研叢』(虛堂 李東林 博士 停年退任紀念論叢), 집문당, 146-159쪽.

김영희(1981), <부류 셈숱말로서의 셈 가름말>, 배달말 6, 1-28쪽.

_____(1988),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탑출판사.

_____(1976), <형용사의 부사화 구문>, 어학연구 12-2, 175-195쪽.

_____(1985), <셈숱말로서의 정도부사>, 한글 190, 133-161쪽.
김완진(1970), <이른 時期에 있어서의 韓中 言語 接觸의 一斑에 對하여>, 어학연구 6-1, 1-16쪽.
남광우(1989), 『고어사전』(보정증판), 일조각.
남성우(1986), 『15世紀 國語의 同義語 競爭에 대한 硏究』,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남풍현(1968), <15世紀 諺解 文獻에 나타난 正音 表記의 中國系 借用 語辭 考察>, 국어국문학 39·40, 273-320쪽.
_____(1973), <두시언해 주석문의 문법적 고찰>, 동양학(단국대 동양학연구소) 3.
_____(1971a), <ᄒᆞ다가 攷—國語에 미친 中國語의 文法的 影響의 한 類型—>, 어학연구 7-1, 11-22쪽.
_____(1971b), <十五世紀 文獻에 나타난 中國語의 文法的 影響과 呼應關係 形成에 대한 考察>, 한양대 논문집 5, 53-77쪽.
_____(1972a), <中世國語의 中國語 借用 硏究>, 한양대 논문집 6, 59-84쪽.
_____(1972b), <15世紀國語의 漢字語 借用攷>, 국문학논집(단국대 국문과) 5·6合輯, 3-22쪽.
리의도(1990), 『우리말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어문각.
민현식(1985), <中世國語의 子音交替에 의한 語辭分化에 대하여>, 국어교육(한국국어교육연구회) 51·52, 321-347쪽.
_____(1987), <韓國語 副詞에 대한 硏究 - 中世國語 副詞의 類意語를 中心으로 -, 국어교육(한국국어교육연구회) 61·62, 201-248쪽.
_____(1988), <중세국어의 어간형부사에 대하여>, 선청어문 16·17, 서울대.
_____(1989a), <中世國語 副詞 類意語의 文體的 轉換과 레지스터>, 『이용주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한샘, 236-247쪽.
_____(1989b), <<더브러> 관련 유의어에 대하여>, 국어학(국어학회) 18, 153-174쪽.
_____(1989c), 『中世國語 時間副詞 硏究』,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_____(1990), <국어 부사 연구사>, 강신항교수 회갑기념논문집, 79-96쪽.
박갑수(1979), <吏讀 副詞語彙 攷>, 師大論叢(서울대 사범대) 19, 91-111쪽.
박선자(1982), <때어찌씨의 의미분석>, 국어국문학(부산대 국문과) 18·19, 13-25쪽.
_____(1983), 『한국어 어찌말연구』,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박태권(1980), <「번역노걸대」의 물음씨끝 연구>, 언어연구(부산대 어학연구소) 제3집, 119-133쪽.

박희식(1984), 『中世國語의 副詞에 대한 硏究』,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대온(1988), <이두 부사어휘고>, 배달말(배달말학회) 13, 67-122쪽.
서상규(1984), <부사의 통사적 기능과 부정의 해석>, 한글 186, 73-114쪽.
_____(1989), <時間副詞의 時間表示機能에 대하여 - 「지금」과의 比較를 통한 時間副詞 「이제」에 대한 硏究 ->, 朝鮮学報 133, 23-96쪽.
_____(1991a), <정도부사에 대한 국어학사적인 조명과 그 분류에 대해>, 연세어문학 23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19-266쪽.
_____(1991b), <現代朝鮮語の程度副詞について —— 副詞<아주>の<程度>と<様態>の意味を中心 ——, 朝鮮学報 140, 1-62쪽.
_____(1991c), <「飜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副詞 對照索引>, 東京外国語大学論集 『AREA and CULTURE STUDIES』 44号 (인쇄중).
_____(1991d), <16세기 국어의 정도어찌씨에 관한 연구 —— 「번역노걸대」를 중심으로 ——>, 『국어의 이해와 인식』 (갈음 김석득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한국문화사, 989-1008쪽.
서재극(1976), <飜譯老乞大의 어휘>, 『朝鮮前期의 言語와 文學』 (한국어문학회 편), 형설출판사, 53-85쪽.
서정수(1978), 『국어구문론연구』, 탑출판사.
성광수(1990), <諺解類上의 特異表現과 誤譯(1)>, 한국어학신연구(한국어학연구회 편), 한신문화사, 327-343쪽.
성백인(1978), <誡初心學人文·發心修行章·野雲自警序 解題>, 명지어문학 제10호.
안병희(1967), <中世 國語의 修飾語에 對하여>, 국어국문학 34·35.
_____(1973), <中世國語 硏究資料의 性格에 대한 硏究 — 飜譯樣式을 중심으로 하여 ——>, 어학연구 9-1, 75-86쪽.
_____(1976), <呂氏鄕約諺解解題>, 東洋學叢書 제5집.
_____(1979), <중세어의 한글자료에 대한 종합적 고찰>, 규장각 3.
_____(1982), <國語史資料의 書名과 巻冊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서울대 국어국문학과) 7, 269-292쪽.
안병희·이광호(1990), 『中世國語文法論』, 동아출판사.
楊聯陞(1959), <老乞大와 朴通事에 있어서의 語法과 語彙>, 외대학보(한국외국어대학) 2, 80-94쪽.
여찬영(1987), 『경서류 언해의 번역학적 연구 - 동일 원문의 이역(異譯)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종갑(1982), <「七大萬法」에 나타난 慶尙道方言的 要素>, 『肯浦 趙奎卨教授華甲紀念 國語學論叢』, 형설출판사, 513-529쪽.

유창돈(1961), 『國語變遷史』, 通文館.
______(1964), 『李朝語辭典』, 延世大學校出版部.
______(1971), 『어휘사 연구』, 선명문화사.
______(1975), 『이조 국어사 연구』, 이우출판사.
이기문(1960), < "소학언해" 에 대하여>, 한글 127호, 50-69쪽.
______(1961), 『국어사 개설』, 탑출판사.
______(1978a), 『16세기 국어의 연구』, 탑출판사.
______(1978b), <어휘차용에 대한 一考察>, 언어 3-1.
이상복(1977), <한국어 부사류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9·10, 177-191쪽.
이숭녕(1961, 1981(改訂增補版)),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______(1973), <小學諺解의 戊寅本과 校正聽本의 比較硏究>, 진단학보 제36호, 77-97쪽.
이승욱(1967), <中期國語의 副詞硏究 ― 15世紀語를 主로 하여 ― >, 단국대 논문집 1, 7-24쪽.
______(1977), <서법과 시상법의 교차현상>, 이숭녕선생 고희기념논총, 탑출판사.
______(1984), <中世語의 '이'副詞化와 一部의 廢語現象>, 동양학(단국대) 14, 1-24쪽.
이용주(1969), <부사접속사의 기능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논문집(서울사대 국어과) 2.
이정민·배영남(1987), 『언어학사전(개정증보판)』, 박영사.
이주행(1989), <後期中世國語 時間副詞의 統辭·意味論的 硏究>, 말(연세대 언어연구 교육원) 14집, 101-121쪽.
이환묵(1974), <영어부사에 관한 연구 : 문장부사와 술부부사의 차이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51·52, 415-430쪽.
______(1976), <문장부사 <다행히>에 대하여>, 언어 1-2, 126-139쪽.
임홍빈(1976), <부사화와 대상성>, 국어학 4.
장경희(1985a), <國語의 認知樣態>, 한국학논집 8, 523-534쪽.
______(1985b),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전광현 외(1991), 『第二十一回東洋學學術會議講演초 ― 近代國語의 特徵과 硏究史 檢討 ―』,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전재호(1973), <「老乞大諺解」索引〔Ⅰ·Ⅱ〕>, 語文學(韓國語文學會) Ⅰ:28, 129-176쪽 ; Ⅱ:29, 81-110쪽.
전철웅(1984), <飜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語彙比較硏究>, 開新語文硏究(忠北大學校 開新語文硏究會) 3.

정교환(1977), <國語 修飾構造의 硏究>, 마산교대 논문집 8.
_____(1987), 『국어 문장부사의 연구』, 동아대 국어국문 박사학위논문.
정호완(1989), 『후기 중세어 의존명사 연구』, 학문사.
차현실(1986), <양상부사의 통어적 특성에 따른 의미분석>, 말 11.
최현배(1937, 1955), 『우리말본』, 정음사.
_____(1982), 『고친 한글갈』, 정음문화사.
한 길(1983), <정도 어찌씨에 관한 의미론적 연구>, 새국어교육(한국국어교육학회) 37·38호.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_____(1983), 『국어학』, 샘문화사.
_____(1987), 『국어 때매김법의 변천사』, 샘문화사.
_____(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홍사만(1985), 『國語語彙意味硏究』, 學文社.
伊藤健三(1968), 『心態の表現』, 英語の語法(表現篇第 5巻), 研究社, 東京.
伊藤 晃 他 編訳(1980), 『ラールス言語学用語辞典』(J. デュボウ 他 著), 大修館書店, 東京.
小倉進平(1964), 『朝鮮語学史(増訂補注)』, 刀江書院.
工藤 浩(1977), <限定副詞の機能>, 『国語学と国語史』, 明治書院.
_____(1982), <叙法副詞の意味と機能 -その記述方法をもとめて->, 「研究報告集 3」(国立国語研究所).
志部昭平(1990), 『諺解 三綱行實圖研究』(全2冊), 汲古書院, 東京.
南 不二男(1986), 『現代日本語の構造』, 大修館, 東京.
中右 実(1980), <文副詞の比較>, 「日英語比較講座 第2巻 文法」, 大修館書店.
渡辺 実(1953), <叙述と陳述—述語文節の構造—>, 「国語学」 13・14.
_____(1968), <終助詞の文法論的位置—叙述と陳述再説—>, 「国語学」 72.
_____(1983), <特集·副詞とその周辺—副用言総論>, 「日本語学」 2-10.
Greenbaum, S. (1969), 『*Studies in English Adverbial Usage*』, Longmans.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George Allen & Unwin.
Lyons, J. (1977), 『*Semantics(1)*』, Cambridge Press.
Palmer, F.R. (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 Press.
Quirk, R. et. al.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gman.
Sweet, H. (1891), 『*A New English Grammar, Part* I』, Oxford UP.
Zellig S. Harris(1964), <*Distributional Structure*>, 『The Structure of language』 (J.A. Fodor & J.J. Katz ed.), Prentice-Hall.

Abstract

A Syntactical Study on Modal Adverbs of the Middle Korean in 16th century

by SEO,Sang-Kyu

Dept.of Korean Language and Linguistics
Graduate school,Yonsei University
Seoul,Korea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describe the semantic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Modal Adverbs of the Middle·Korean in 16th century, and to make the system of whole Modal Adverbs clear and explain the functions of Modal Adverbs of the Middle Korean.

We will start off with investigating the frequency of the Modal Adverbs, make a list and an index of these Adverbs which appeared in the existing materials of this period, and prov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odal Adverb.

In chapter I and II, it refers the sub-categories of the Modal Adverbs, and the relations between grammatical forms of modality and those sub-categories of the Modal Adverbs.

Modal Adverbs in a sentence participate in constituting the meanings of Modality by concording with; sentence final endings, connective endings -- such as conditional endings,assumptional endings,concessive endings, antithetical endings, some of particles -- such as {-man,-to,-za,-nun, -uran},and specific parts of speech.

Modal Adverbs can be subclassified by some cṛeteria (or manner of concord) induced by analyzing the grammatical charateristics of which

data collected from the existing materials of the Middle Korean in 16th century.

(1). Is the relationship of concord bewteen Modal Adverbs and the verbal endings as means of expressing the Modality of a sentence active or not, obligatory or not, and mutual or unilateral.

(2). What is the companion of the Modal Adverbs making a relation of concord in a sentence. Is it the sentence final endings, connective endings, or some other.

(3). What are the Modal meanings represented by means of concord between Modal Adverbs and the companions such as sentence final endings, connective endings, and etc.

(4). What are the kinds of endings that concur with each Modal Adverbs in a sentece, as aforesaid, if an adverb relates to the endings such as sentence final endings, connective endings, and etc .

(5). How does some kinds of Adverbs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the meanings of Modality in a sentence, when there is no relation between some kind of Modal adverbs and verbal endings.

Modal Adverbs in the Middle Korean of 16th century can be classified into four sub-categoies, shown below, by the manners of concord between some kind of Modal adverbs and their companion, the meanings of sentence, and the Lexical meanings of the adverbs.

《Modal Adverbs of obligation & imperative》
모로매/모로미/모롬애/모롬이, 반ᄃᆞ시/반ᄃᆞ기/반드시/번드기/번득, 믈읫/믈의/몰의, 맛ᄃᆞᆼ이/맛ᄃᆞᆼ히, 의식, 모ᄃᆡ, 구ᄐᆡ여/구틔야/구틔여, 감히, 굿, 굿드리, ᄃᆞᆼᄃᆞᆼ이, 응ᄃᆞᆼ히, 필연, 아ᄆᆞ라나마나/아ᄆᆞ려나/아마려나, 어셔 etc.

Modal Adverbs of obligation and imperative are in concordance with the sentence final endings of a sentence. In particular, being in concordance with declarative and interrogative endings of a sentence, these adverbs give expression to obligation, assertion, and will as modal meanings of a sentence. These adverbs have one more function to reveal the meanings of order or prohibition by being in concordance with imperative endings.

《Modal Adverbs of cognition to actuality》

①. *Modal Adverbs of appreciation & actualization of expectation*
진실로/진실히, 실로, 졍히, 속졀업시 ; 과연/과연히/과연/과연히, 마치/맛치, ᄒᆞᄆᆞ시 etc.

②. *Modal Adverbs of possiblity*
능히/릉히, 가히/가이, 죡히, 시러/시러곰, 어루, 좀히 etc

③. *Modal Adverbs of negation*
엇뎨/엇디/엇더/엇ᄯᅴ/어ᄯᅴ/엣뎨, 어ᄃᆡ/어듸, 어ᄂᆞ/어ᄂᆡ/어느/어늬, 어늬제, 언제, 므ᄉᆞ므라/므스므라/므스므러/므스므려/므슴호려/므슴홀여, 므ᄉᆞᆷ/므슴, 어듸ᄯᆞᆫ/어듸ᄯᅩᆫ, ᄂᆞ외야/노의란/노의여/뇌여, ᄎᆞ마/ᄎᆞᆷ아, ᄉᆡᆼ심도/ᄉᆡᆼ심이나, 결연히 etc

Modal Adverbs of cognition to actuality are also in concordance with the sentence final endings of a sentence. The kind of endings make distinction Modal Adverbs of cognition to actuality to Modal Adverbs of obligation & imperative.

The adverbs of appreciation & actualization of expectation(①), are mainly in concordance with declarative, interrogative, and exclamatory endings of a sentence, and express the relation between contents of a sentence and actuality, or between contents of a sentence and expectation of speaker.

Modal Adverbs of possiblity(②) are mainly, in concordance with declarative and interrogative endings of a sentence, and express the assertive judgement by speaker on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of contents of a sentence.

Modal Adverbs of negation(③) contain two types of concord; one that are in concordance with interrogative endings of a sentence which is interpreted as a counter-question, and the ones that are in concordance with negative forms of verbs in a sentence.

《Modal Adverbs of conditions & contrast》

Modal Adverbs of conditions & contrast have no direct relation of concord to sentence final endings, but are in concordance with connective endings of sentences. Therefore, the sentence for these adverbs to occur is, as a matter of course, a complex sentence.

These adverbs can be divided into two subclasses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adverbs in complex sentence, and to the lexical meaning of adverbs.

①. *Modal Adverbs of conditions & assumption*
ᄒᆞ다가, 만이레/만일/만일에/만싈에/만이러, 혹/혹도/시혹, 힝혀/힝여, 가령, 가ᄉᆞ etc

②. *Modal Adverbs of concessions & contrast*
비록/비로, ᄒᆞ몰며/ᄒᆞ믈며, 오히려, 도ᄅᆞ혀/도리혀/도로혀, 촐하리/촐히, 다하/다함, ᄃᆞᆼ시론/ᄃᆞᆼ시예 etc

Modal Adverbs of conditions & assumption (①) that are mainly in concordance with conditional endings appear in a precedent clause of complex sentence, while *Modal Adverbs of concessions & contrast* that are mainly in concordance with concessive endings appear in principal clause of complex sentence.

《Modal Adverbs of qualification》

Modal Adverbs of qualification have no remarkable relation of concord with verbal endings, and particles. In time of abridgement of these adverbs in sentences, modal meanings such as qualification disappear.

These adverbs can be divided into three subclasses according to the kinds of objects to be quantified by adverbs.

①. *Modal Adverbs of qualification of specific parts of speech*
그저/그져, ᄒᆞᆫ갓, 다ᄆᆞᆫ/다만/다믄/담ᄋᆞᆫ, 오직, 특별이/특별히, 독벼리/독버리 etc

②. *Modal Adverbs of qualification of quantifiers*
대되/대도히, 거ᄉᆡ/거스/거싀/거ᄋᆡ/거의, 계오/계요/계우/겨오 etc

③. *Modal Adverbs of qualification of whole sentence(event)*
곧, 대가ᄒᆞᆫ디/대개ᄒᆞᆫ디/대뎌ᄒᆞᆫ디/대뎌혼디/대뎨ᄒᆞᆫ디, 본ᄃᆡ/본ᄃᆡ로/본ᄅᆡ etc